

제58회 한말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

일시 : 2024년 1월 26일(금)

장소 :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401호(제1 발표장), 402호(제2 발표장)

주제 : 언어와 실험

주최 : 한말연구학회

개회식		제1 발표장	사회: 김병문(연세대)
10:10	등록 및 접수		
10:30			
10:30 ~ 10:40	개회사		김양진(경희대)
제1부	1분과 한국어교육	사회: 김연희(대진대)	2분과 통사론 사회: 김병문(연세대)
10:40 ~ 11:10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수행 양상 연구: 논설문 장르를 중심으로 발표: 공나형·유소영(전남대/연세대) 토론: 신희성(고려대)	말뭉치 분석을 통한 동사 '때리다'가 쓰인 한국어 구문 유형 연구 발표: 유세인(경희대) 토론: 정유남(중앙대)	
11:10 ~ 11:40	다국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어휘 유형 분류 및 교육 방안: 매개 활동을 중심으로 발표: 이경(서울과학기술대) 토론: 정대현(협성대)	<독립신문>에 나타난 보조 용언의 언어 관계 분석 발표: 이수진(전남대) 토론: 도재학(경기대)	
점심 : 11:40~13:00			
제2부	특강		사회: 박동근(대진대)
13:00 ~ 14:00	실험화용론의 현황과 과제		이성범(서강대)
14:00 ~ 15:00	실험 음성학 및 음운론 연구		신지영(고려대)
휴식 및 포스터 발표 : 15:00~15:30			
15:00 ~ 1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영란(전남대): 보조 동사 '버리-'의 전남 방언형 문법화 현상 연구 ■ 김지영(연세대): 외솔 최현배의 끝바꿈 체계 성립에 관한 연구 ■ 르우티김엔(전남대): 베트남 번역 텍스트에 나타난 '그러-' 계열의 담화 기능 고찰: 한국 영화 번역 텍스트를 중심으로 ■ 이종혁(연세대): 종착점을 갖는 동사의 상적 특질과 유형 ■ 홍정연(건국대): 한국어 제공 화행의 양상에 대한 고찰 		
제3부	주제발표		사회: 윤재연(호서대)
15:30 ~ 16:10	통사론에서의 실험적 방법론: 수용성 판단을 중심으로 조용준(건국대)	김양진(경희대)	
16:10 ~ 16:50	한국어 문장에 대한 심리언어학적 실험 연구 정혜권(조선대)	박선희(이화여대)	
휴식 : 16:50~17:00			
제4부	3분과 의미론	사회: 안신혜(호서대)	4분과 사회언어학 사회: 오재혁(건국대)
17:00 ~ 17:30	감성분석 목적의 감성표현 선정과 한국어 연결구성의 의미 기능 관계 발표: 윤현애(연세대) 토론: 박지순(경희대)	일본 재일동포 집거 지역의 한국어 언어경관 연구 발표: 오새내(계명대) 토론: 정수현(호서대)	
17:30 ~ 18:00	북한어 색채 파생어의 파생 양상과 의미 분석: <조선말대사전(2017)>의 색채어를 대상으로 발표: 최윤(강원대) 토론: 김주성(연세대)	투자 관련 용어의 은유 연구 발표: 김숙정·박대아(호남대/우석대) 토론: 최정혜(상지대)	
폐회식		제1 발표장	사회: 안신혜(호서대)



차 례

【제1분과 한국어교육】

공나향·유소영(전남대/연세대)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수행 양상 연구	4
신희성(고려대)	토론	32
이경(서울과학기술대)	다국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어휘 유형 분류 및 교육 방안	34
정대현(협성대)	토론	48

【제2분과 통사론】

유세인(경희대)	말뭉치 분석을 통한 동사 '때리다'가 쓰인 한국어 구문 유형 연구 ...	51
정유남(중앙대)	토론	62
이수진(전남대)	<독립신문>에 나타난 보조 용언의 연어 관계 분석	64
도재학(경기대)	토론	70

【특 강】

이성범(서강대)	실험화용론의 현황과 과제	73
신지영(고려대)	실험 음성학 및 음운론 연구	101

【포스터발표】

【주제발표】

조용준(건국대)	통사론에서의 실험적 방법론: 수용성 판단을 중심으로	104
김양진(경희대)	토론	117
정해권(조선대)	한국어 문장에 대한 심리언어학적 실험 연구	118
박선희(이화여대)	토론	134

【제3분과 의미론】

윤현애(연세대)	감성분석 목적의 감성표현 선정과 한국어 연결구성의 의미 기능 관계 ...	137
박지순(경희대)	토론	149
최윤(강원대)	북한어 색채 파생어의 파생 양상과 의미 분석	150
김주성(연세대)	토론	169

【제4분과 사회언어학】

오새내(계명대)	일본 재일동포 집거 지역의 한국어 언어경관 연구	172
정수현(호서대)	토론	187
김숙정·박대아(호남대/우석대)	투자 관련 용어의 은유 연구	188
최정혜(상지대)	토론	201



**1분과
한국어교육**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수행 양상 연구

- 논설문 장르에서 드러난 담화 구조와 필자 태도 표지 중심으로 -

공 나 영(전남대) · 유 소 영(연세대)

차 례

1. 들어가며
2. 전략적 언어 사용 평가를 위한 채점 자질의 설정
3. 연구 방법
4. 자료 분석 결과
5. 나가며

1. 들어가며

이 연구는 동일한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가 산출한 논설문 장르를 중심으로 채점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언어적 요인을 논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본고에서는 기존 쓰기 평가에서 채점 자질로 논의되어 온 어휘 난이도나 통사적 복잡성과 같이 문장 단위에 기반한 언어적 자질이 아닌 텍스트 구조적 측면 및 필자 태도적 측면과 채점 간의 상관을 살핌으로써 이들 두 범주의 채점 자질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고는 앞으로 AI 활용 자동 쓰기 평가 등에서 채점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문장 단위에 기반한 빈도 중심의 계량적 방법을 벗어나, 전략적 언어 사용의 유무와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텍스트 구조적 자질과 저자의 태도적 자질(authorial stance)이 채점 자질(scoring feature)로 설정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채점 자질은 글의 구조와 내용을 분석하는 데 유의미한 지표들을 의미하는데, 이는 평가의 설명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속성이다(이진 외 2023, 김승주 2019 등 참고). 어떤 자질을 포함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지에 따라 평가의 결과가 달라지며 설명 가능성 역시 차이를 보이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 논의되는 AI 활용 자동 평가 기술이 머신러닝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한 것임을 고려한다면¹⁾ 채점 자질을 정교화하는 작업은 곧 채점의 고도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1) 머신러닝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한 시스템 개발은 데이터 수집, 채점 자질 설계, 모델 학습, 모델 성능 평가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의 자동 채점은 대량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 필수적이나 한국의 경우 그러한 대용량 데이터의 부재로 말미암아 정밀한 설계가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더 나아가 딥러닝 기반 자동 채점은 채점 자질을 기계가 자동적으로 선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은닉층(hidden layer)이 존재하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반해 머신러닝의 경우 데이터 세트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채점 자질을 인간이 직접 설정하기 때문에 교육적 측면에서 해석 가능성이라는 장점이 있다(박종임 외 2023: 137 참고).

중요하다.

이러한 강조로 말미암아 한국어교육 논의에서도 자동 채점을 위한 채점 자질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이용상 외, 2022; 남미정·원미진, 2022; 남미정, 2023; 이진 외, 2023 등 참고). 그러나 지금까지 채점 자질로 고려된 것들은 주로 어휘의 다양도나 문장의 (통사적) 복잡도 등 주로 문장을 단위로 한 사용 빈도에 기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빈도에 기반하여 채점 자질을 설정하는 것 역시 쓰기의 질을 평가하는 데 유의미하겠으나, 좀 더 정교한 쓰기 분석과 피드백을 위해서는 전략적 층위에서 기능하는 담화적 장치나 태도 표지와 같은 고차원적 채점 자질의 선정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전략적 층위에서 기능하는 자질의 경우 계량적 분석뿐 아니라 질적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집단 간 드러나는 차이를 미시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²⁾

본고는 상기의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논설문 장르를 대상으로 담화 구조적·필자 태도적 자질이 채점과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기술 통계적으로 살피고, 해당 범주들이 채점 자질로서 갖는 의의와 한계 및 보완 방법을 규명하기 위하여 질적 분석 또한 병행하였다. 특히 논설문 장르의 경우 그 목적이 독자를 대상으로 한 설득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필자는 자신의 논지를 정당화하고 설득하기 위하여 다양한 언어적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평가에서도 이러한 점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작업은 현재 자동 평가 시스템에서 평가 자질로 논의되고 있는 문장을 단위로 한 빈도 기반 채점 자질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쓰기 자동 평가 시스템의 정교화에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 전략적 언어 사용 평가를 위한 채점 자질의 선정

본 장에서는 기존 (한)국어 교육 연구에서 한 평가 자질 선정 관련 연구를 살피고 본고에서 전략적 언어 사용을 평가하기 위해 설정한 채점 자질의 개념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쓰기 자동 평가 관련 연구는 현재 언어 교육 측면에서 매우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교육에서의 쓰기 자동채점에 대한 논의는 이용상 외(2022)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어휘와 관련된 52개 자질 중 상위 20개의 채점 자질을 선정하여 기계학습을 통한 채점 모형 구축 및 점수 예측을 실시하였다. 남미정·원미진(2022), 남미정(2023)에서는 이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자동채점에 영향을 미치는 어휘와 문장 단위의 자질을 탐색한 바 있다. Lim et al.(2023)은 복잡성(complexity)과 유창성(fluency), 정확성(accuracy)과 관련된 자질들을 설정하여 살펴본 연구이다. 이진 외(2023)에서는 내용 및 구조 관련 채점 자질의 적용을 탐색한 연구로, 지시사 토큰·타입 수, 접속부사 토큰·타입 수, 보조사 토큰·타입 수, 연결어미 토큰·타입 수, 1인칭 대명사 토큰·타입 수를 글의 전개 구조와 관련된 채점 자질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기존 연구들에서 채점 자질로 선정된 것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이용상 외, 2022; 남미정·원미진, 2022; 남미정, 2023; Lim et al., 2023).³⁾

2) 이진 외(2023:457)에서는 자동 채점의 자질 설정을 위해 한국어 학습자의 [상] 집단과 [하] 집단 간에 어떠한 양상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3) 볼드와 밑줄 처리된 자질은 두 개 이상의 연구에서 적용된 자질이다.

<표 1> 기존 한국어교육 자동 쓰기 평가 관련 연구에서 채점 자질로 설정된 언어적 자질

단위	언어 자질
어휘	글자 수, <u>어절 수</u> , <u>어휘 토큰 수(형태소 수)</u> ⁴⁾ , <u>어휘 타입 수</u> , 단어당 형태소 수, <u>오류 수</u> , 내용어 수, 기능어 수, 저빈도 어휘 수, 어휘 밀도, <u>어휘 다양도(TTR, MILD, VOCD-D, L값)</u> , 어휘 세련도, 연결어미 수, 전성어미 수
문장	<u>문장 수</u> , 문장당 어절 수, 문장당 형태소 수, 문장 평균 형태소 수, 문장 평균 어절 수, 문장당 어휘 수, 문장당 오류 수, 문장당 연결어미 수, 문장당 전성어미 수, 통사적 복잡도(구문 분석), 문장 난이도
문단	문단 수
기타	문법 난이도 지수, 이독성 지수

<표 1>을 고려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채점 자질로 설정된 언어적 자질들은 주로 어휘, 문장에서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형태 중심의 자질들과 그 자질들을 활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 어휘 및 구문 복잡성 지표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히 논설문의 경우 이러한 계량적 방법론에 근거한 자질들 외에도 언어의 전략적 층위에서 기능하는 요소들을 포착하기 위한 필요성이 존재한다.

요컨대 논설문의 경우 독자를 설득하는 데 있음을 고려한다면 표층적 층위에서 드러나는 자질만을 채점 자질로 설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추후 자동 채점 프로그램의 기술적 정밀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한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며 고차원적 언어 사용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채점 자질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김승주 2021; Chen & Cheng, 2008; Li, Link, & Hegelheimer, 2015). 요컨대 여러 장르 중에서도 특히 논설문은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비단 명제적 의미만이 아니라 독자나 청자 간 상호작용적으로 구축되는 의미가 매우 중요한바 이를 규명할 수 있는 언어적 요소가 채점 자질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상호작용적 의미를 포착하기 위한 개념틀로 Hyland(2005)의 메타 담화 구분 틀을 차용하고자 한다. Hyland(2005)에서는 이처럼 필자가 독자의 지식이나 장르 성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논지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메타 담화 표지’로 명명하고 이들은 수사적으로 중요한 언어적 자원이라고 언급하며 이를 대화적 차원(interactive)의 것과 상호작용적(interacional) 차원의 것으로 구분한다. 전자의 것은 담화를 구성하는 방법과 관련한 것이며 후자는 필자가 독자와 함께 텍스트를 구성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것과 관계한다. 본고는 이를 고려하여 아래의 <표 2>와 같이 언어적 자질 분석을 위한 개념틀을 제안하였다.⁵⁾

4) 형태 주석이 된 말뭉치를 활용하여 어휘를 산정한 연구에서의 어휘는 형태소를 의미한다.

5) 본고는 애초의 Hyland(2005)에서 구분한 대화적 측면과 상호작용적 측면에서 특히 그 명칭이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아 그 속성을 더 잘 드러내줄 수 있는 ‘담화 구조적 자질’ 및 ‘필자 태도적 자질’로 명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Hyland(2005)에서 참조(evidentials) 표지는 담화 구조와 관계된 것으로 논의되었으나 본고에서는 필자의 태도적 자질로 보고자 하였는데, 명제의 전달에 있어 출처 표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명제에 대한 화자의 확신의 정도가 낮고 이는 결국 화자의 인식론적 태도와 관계된다고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표 2> 본고의 의미 분석을 위한 개념 틀

기준		구분	설명
담화 구조적 자질		단순 접속 표지	연결 어미를 제외한 ‘그리고, 또한, 게다가’와 같이 유사한 의미의 문장을 잇는 요소
		순서 표지	‘첫째, 마지막으로, 이어서, 결론적으로’와 같이 문장의 선후 관계 등을 드러내는 요소
		지시 표지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처럼, 이와 같이’와 같이 텍스트에 언급한 것을 지시하는 요소
		전환 표지	연결 어미를 제외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한편’과 같이 내용 전환을 꾀하는 요소
		환언/상세화 표지	‘이른바, 다시 말해서, 즉, 예를 들면’과 같이 선행 명제를 구체화하거나 다시 설명하는 요소
필자 태도적 자질	명제에 대한 태도	완화 표지	‘아마도, 을 수 있다, 을 것 같다’와 같이 명제에 대한 필자가 확신 정도를 경감하는 요소
		강화 표지	‘사실, 분명히, -해야 한다’와 같이 필자가 명제를 강조하는 요소
		출처 표지	‘-에 따르면, -라고 하다’와 같이 필자가 명제의 출처 등을 명시하는 요소
		평가 표지	‘불행히도, 중요하다, 필요하다’와 같이 명제에 대해 필자가 가치 등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는 요소
	독자에 대한 태도	독자 참여 표지	‘-을 고려하라, 여러분/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같이 텍스트에 독자의 개입을 끌어들이는 요소
		필자 지칭 표지	‘나는, 우리는, 본인, 필자’와 같이 텍스트에서 필자가 자신을 지칭하는 요소

3. 연구 방법

3.1. 연구 자료 및 연구 절차

본고는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 표본의 동질성을 확보하고자 학습자의 유형, 장르, 과제 주제, 어절 수를 제한하여 표본을 선정하였다.⁶⁾ 일반 목적 학습자들이 동일한 과제 맥락에서 유사한 주제로 쓴 140어절 이상의 글로 제한하여 표본을 선별한 결과, ‘성공관’에 대한 주제로 쓰인 논설문 59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자료로 선정한 표본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3> 연구 자료의 구성 정보

급수	표본 수	총 어절 수	평균 어절 수
4급	8	1,221	152.6
5급	25	3,978	159.12
6급	26	4,215	162.1
합계	59	9,414	157.94

6) 학습자의 국적은 특정 언어권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다만, 한국 국적으로 되어 있는 교포의 경우는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3.2. 연구 절차

분석 자료를 선정한 후에는 한국어교육 전공자이자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는 3인이 TOPIK 쓰기 채점 기준표에 근거하여 채점을 수행하였다. 채점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안수현·김정숙(2017)의 기준에 따라, 내용 및 과제 수행(12점), 글의 전개 구조(12점), 언어 사용(26점)별 세부 채점 기준을 숙지한 후, 50점 만점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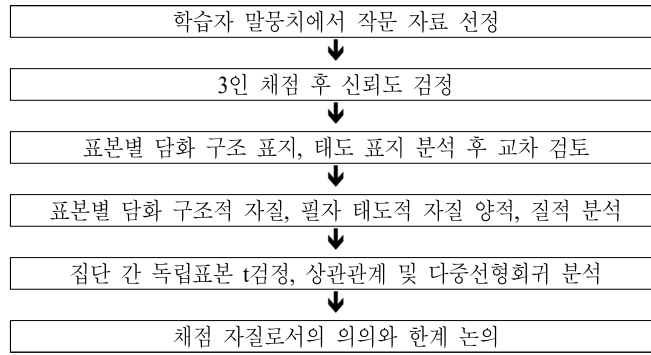
작문에 대한 평가가 끝난 후에는 2인의 연구자가 언어 자질을 분석하였다. 언어 자질 분석은 앞장에서 살펴본 <표 1>에 근거하여 문장을 분석 단위로 하여 수행되었으며 추후 표지의 실현 양상을 더욱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살피기 위하여 텍스트 마디를 함께 주석하였다. 언어적 자질 분석은 EXCEL을 활용하였으며 분석의 실체를 보이던 아래와 같다.

점수	표본ID	문장 수	조(D)/태	표지 번	마디	태(대표형태로 써)	주요 실어(써 주기)
하	02773	10	S	6	전제	나의	1.나의(5) 성공관은 인매는 강장(2) 중요한다고(3) 생각한다.(1)
하	02773	10	S	2	전제	가장	1.나의(5) 성공관은 인매는 강장(2) 중요한다고(3) 생각한다.(1)
하	02773	10	S	4	전제	중요하다	1.나의(5) 성공관은 인매는 강장(2) 중요한다고(3) 생각한다.(1)
하	02773	10	S	1	전제	라고/다고 생각하	1.나의(5) 성공관은 인매는 강장(2) 중요한다고(3) 생각한다.(1)
하	02773	10	S	6	이유	나는	2.나는(5) 고등학교때부터 낮에 은행에 일을 하면서 밤에 공부를 했다.
하	02773	10	D	3	이유	그때	4.그때(3) 스트레스를 많이(3) 받아서
하	02773	10	S	4	이유	많이	4.그때(3) 스트레스를 많이(3) 받아서
하	02773	10	S	4	이유	거의	거의(3) 포기할 법한데(1) 꼭(2) 해내겠다고(2) 생각해서(1) 다른 사람(
하	02773	10	S	1	이유	을 법하다	거의(3) 포기할 법한데(1) 꼭(2) 해내겠다고(2) 생각해서(1) 다른 사람(
하	02773	10	S	2	이유	꼭	그들이 질문이 있다면 나한테(5) 물어보고
하	02773	10	S	6	이유	나의	다른 사람이 나의(5) 노력을 본 후에 나에게(5) 칭찬을 많이(3) 줬다.
하	02773	10	S	6	이유	나에게	다른 사람이 나의(5) 노력을 본 후에 나에게(5) 칭찬을 많이(3) 줬다.
하	02773	10	S	4	이유	많이	다른 사람이 나의(5) 노력을 본 후에 나에게(5) 칭찬을 많이(3) 줬다.
하	02773	10	D	1	이유	그리고	5.그리고(1) 나의(5) 한국어 실력이 기자들중에 좋은 측에(1)(3) 들어사
하	02773	10	S	6	이유	나의	5.그리고(1) 나의(5) 한국어 실력이 기자들중에 좋은 측에(1)(3) 들어사
하	02773	10	S	4	이유	좋다	5.그리고(1) 나의(5) 한국어 실력이 기자들중에 좋은 측에(1)(3) 들어사
하	02773	10	S	2	주장	뿐만 아니라	8.인매관계가 뿐만 아니라(1)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보다 더(3) 세심해이
하	02773	10	S	4	주장	더	8.인매관계가 뿐만 아니라(1)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보다 더(3) 세심해이
하	02773	10	S	2	주장	아야 하다	8.인매관계가 뿐만 아니라(1)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보다 더(3) 세심해이
하	02773	10	S	4	주장	더	8.인매관계가 뿐만 아니라(1)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보다 더(3) 세심해이
하	02773	10	S	2	주장	아야 하다	8.인매관계가 뿐만 아니라(1)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보다 더(3) 세심해이
하	02773	10	S	1	주장	라고/다고 생각하	8.인매관계가 뿐만 아니라(1)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보다 더(3) 세심해이
하	02773	10	S	복합_21	주장	아야 한다고 생각	8.인매관계가 뿐만 아니라(1)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보다 더(3) 세심해이

<그림 1> EXCEL을 활용한 자료의 언어적 자질 분석의 실제

위와 같이 담화 구조적 자질과 필자 태도적 자질을 주석한 후, 연구자 2인이 교차 검토하여 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최종 분석 결과물을 대상으로 표지별 토큰 수, 타입 수 및 다양도에 대한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양적 분석에서는 Jamovi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적 검정을 진행하였는데,⁷⁾ 쓰기 수준에 따른 표지 사용 양상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t-test)을 실시하고, 각 표지의 사용이 쓰기 점수와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선행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편 계량적 결과의 의미와 포착하지 못하는 양상을 살피기 위해 질적 분석 수행 후 여러 차례 논의를 거듭함으로써 채점 자질로서의 의의와 한계를 되짚고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 2>와 같다.

7) The jamovi project (2021). jamovi. (Version 1.6) [Computer Software]. Retrieved from <https://www.jamovi.org>.



<그림 2> 본고의 연구 절차

4. 자료 분석 결과

4.1 쓰기 채점 결과

본고에서는 쓰기 채점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삼각검증(triangulation)에 입각한 채점을 진행하였다. 세 명의 채점자가 TOPIK 쓰기 채점 기준표에 근거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채점이 끝난 후에는 세 명의 점수를 비교하여 점수 차이가 큰 표본의 경우에 한정하여 재검토와 점수 조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세 명의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해 급내상관계수(ICC,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활용하여 신뢰도를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평가자 간 신뢰도 분석 결과

	표본 수 (Subjects)	평가자 (Raters)	일치도 (Consistency)	합치도 (Agreement)
Value	59	3	.877	.873

급내상관계수는 두 명 이상의 평가자에 의한 평가 결과의 일치도를 분석하는 통계적 방법으로, 일치도(consistency)는 평가자 간의 평가 경향이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합치도(agreement)는 평가자 간의 평가 결과가 일치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평가자 간 신뢰도 분석 결과, 경향성 평가와 평가 결과에 대한 일치도 모두 .873($p < .001$)으로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⁸⁾

다음으로 작문 평가의 기술통계 결과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 5> 쓰기 점수의 기술 통계 및 t 검정 결과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t	자유도	유의확률
상	35	44.3	2.18	0.369	10.520***	32.7	<.001
하	24	35.0	3.94	0.804			

8) 두 평가자 간의 일치도가 0.75 이상이면 좋은 일치도라 평가한다.

학습자 글에 대한 평가는 50점 만점으로 이루어졌고, 세 평가자의 평균값이 최종 점수로 사용되었다. 이어, 쓰기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피고자 전체 쓰기 점수의 평균 점수(40.5 점)를 기준점으로 삼아, 평균 이상의 글은 [상] 집단으로, 평균 미만 점수의 글은 [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두 집단의 쓰기 점수 차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t=-10.520, p<.001$).

4.2. 평가 자질에 대한 통계적 분석 결과

4.2.1 담화 구조적 자질에 대한 통계적 분석 결과

먼저 쓰기 수준별 담화 구조적 자질과 관련된 표지의 총 사용 빈도인 토큰 수와 타입 수를 살펴보면, 토큰 수는 [상] 집단에서 274개, [하] 집단에서 179개가 쓰였으며, 유형 빈도인 타입 수는 [상] 집단이 91개, [하] 집단이 77개로 분석되었다. 토큰 수와 타입 수, 그리고 토큰 수 대비 타입 수를 나타내는 다양도⁹⁾가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쓰기 수준별 담화 구조적 표지의 토큰, 타입, 다양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담화 구조적 자질 토큰 수	상	35	7.83	3.49	0.453	.652
	하	24	7.42	3.34		
담화 구조적 자질 타입 수	상	35	6.80	2.56	1.304	0.197
	하	24	5.88	2.83		
담화 구조적 자질 다양도	상	35	0.894	0.121	2.096*	.043
	하	24	0.811	0.165		

* $p<.05$, ** $p<.01$, *** $p<.001$

<표 6>에서 학습자별로 사용한 담화 구조 표지의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상] 집단이 [하] 집단에 비해 담화 구조적 자질을 나타내는 표지를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많은 유형의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은 담화 구조적 자질의 다양도로($t=2.096, p=.043$), [상] 집단이 [하] 집단보다 더욱 다양한 유형의 담화 구조 표지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담화적 구조 표지별 토큰 수와 타입 수의 집단 간 차이는 아래와 같다.

9) 다양도는 '타입 수/토큰 수'로 산출하였다.

<표 7> 쓰기 수준별 담화 구조적 표지별 토큰 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1_접속 표지 토큰 수	상	35	2.143	1.556	-1.559	.124
	하	24	2.875	2.05		
2_순서 표지 토큰 수	상	35	1.343	1.349	3.110**	.006
	하	24	0.458	0.833		
3_지시 표지 토큰 수	상	35	3.143	1.751	0.975	.334
	하	24	2.708	1.574		
4_전환 표지 토큰 수	상	35	0.743	0.886	-1.009	.317
	하	24	1.000	1.063		
5_환언 표지 토큰 수	상	35	0.457	0.817	0.412	.682
	하	24	0.375	0.647		

*p<.05, **p<.01, ***p<.001

위의 <표 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접속 표지와 순서 표지, 지시 표지, 환언 표지의 토큰 수의 경우 [상] 집단에서 더 많이 쓰였다. 그러나 순서 표지만이 [상] 집단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t=3.110, p=.006) 전환 표지의 평균 토큰 수의 경우, [상] 집단보다 [하]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순서 표지를 제외한 4개 유형의 토큰 수는 [상] 집단과 [하] 집단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 순서 표지에서는 [상] 집단(총 47개)이 [하] 집단(11개)에 비해 약 3배 이상의 표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쓰기 수준에 따른 담화 구조적 표지별 타입 수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표 8> 쓰기 수준별 담화 구조적 표지별 타입 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1_접속 표지 타입 수	상	35	1.857	1.141	-0.711	.480
	하	24	2.083	1.283		
2_순서 표지 타입 수	상	35	1.371	1.239	1.924	.059
	하	24	0.75	1.189		
3_지시 표지 타입 수	상	35	2.486	1.173	2.159*	.035
	하	24	1.833	1.09		
4_전환 표지 타입 수	상	35	0.629	0.731	-1.157	.252
	하	24	0.875	0.9		
5_환언 표지 타입 수	상	35	0.457	0.817	0.644	.522
	하	24	0.333	0.565		

*p<.05, **p<.01, ***p<.001

<표 8>에서 각 표지별 유형 수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순서 표지와 지시 표지, 환언 표지의 경우 [상] 집단에서 더 많은 유형이 사용된 반면, 접속 표지와 전환 표지는 [하] 집단에서 사용된 유형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지시 표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2.159, p=.035). 이를 통해 [상] 집단에서 보다 다양한 유형의 지시 표지가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쓰기 수준에 따른 담화 구조적 자질의 다양도를 살펴보겠다.

<표 9> 쓰기 수준별 담화 구조적 표지별 다양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1_접속 표지 다양도	상	35	0.816	0.321	0.914	.364
	하	24	0.739	0.319		
2_순서 표지 다양도	상	35	0.652	0.479	2.877**	.006
	하	24	0.292	0.464		
3_지시 표지 다양도	상	35	0.813	0.273	1.157	.252
	하	24	0.715	0.377		
4_전환 표지 다양도	상	35	0.433	0.473	-0.804	.425
	하	24	0.535	0.479		
5_환언 표지 다양도	상	35	0.314	0.471	0.357	.723
	하	24	0.271	0.442		

*p<.05, **p<.01, ***p<.001

전체 사용된 표지 대비 얼마나 다양한 유형의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양도를 분석한 결과, <표 9>에서와 같이 접속 표지, 순서 표지, 지시 표지, 환언 표지의 다양도는 [상] 집단이 더 높은 반면, 전환 표지의 다양도는 [하] 집단에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시 표지 다양도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t=2.877, p=.006). 앞서 순서 표지의 토큰의 수와 더불어 순서 표지를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가가 쓰기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4.2.2 필자 태도적 자질에 대한 통계적 분석 결과

다음으로 필자 태도적 자질과 관련된 표지의 전체 사용 빈도와 타입 수, 토큰 대비 타입 수를 나타내는 다양도의 평균값이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0> 쓰기 수준별 필자 태도적 표지의 토큰, 타입, 다양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필자 태도적 자질 토큰 수	상	35	37.83	9.47	0.6691	.506
	하	24	36.17	9.23		
필자 태도적 자질 타입 수	상	35	29.03	6.79	0.6611	.511
	하	24	27.79	7.44		
필자 태도적 자질 다양도	상	35	0.773	0.077	0.0389	.969
	하	24	0.772	0.101		

*p<.05, **p<.01, ***p<.001

<표 10>에서 집단 간 필자 태도적 자질의 전체 토큰 수와 타입 수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상] 집단이 [하] 집단에 비해 높다. 전반적으로 [상] 집단이 필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여러 표지들을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토큰 수 대비 타입 수의 비율인 다양도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자 태도적 자질을 구성하고 있는 각 표지들의 사용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 쓰기 수준별 필자 태도적 표지별 토큰 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1_완화 표지 토큰 수	상	35	10.57	3.23	2.138*	.037
	하	24	8.667	3.547		
2_강화 표지 토큰 수	상	35	11	4.57	-0.508	.614
	하	24	11.583	3.966		
3_증거 표지 토큰 수	상	35	3.46	1.79	0.910	.367
	하	24	3	2.043		
4_평가 표지 토큰 수	상	35	9.17	5.48	0.289	.773
	하	24	8.792	4.043		
5_독자 참여 표지 토큰 수	상	35	1.11	1.88	1.074	.287
	하	24	0.667	0.963		
6_필자 지칭 표지 토큰 수	상	35	2.51	2.37	-1.123	.269
	하	24	3.458	3.623		
복합 표지 토큰 수	상	35	2.51	2.2	2.392*	.020
	하	24	1.417	1.316		

*p<.05, **p<.01, ***p<.001

분석 결과, 완화 표지와 증거 표지, 평가 표지, 독자 참여 표지의 토큰 수 평균값은 [상]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야 한다고 생각하다’와 같이 강화 표지와 완화 표지를 같이 사용하는 등 여러 표지를 복합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발견되어 이를 복합 표지로 따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이러한 복합 표지도 [상] 집단에서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쓰기 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 것은 완화 표지(t=2.138, p=.371)와 복합 표지(t=2.392, p=.020)로, 수준이 높은 글일수록 자신의 주장을 단정적으로 나타내기보다는 완화하여 표현하며, 전략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표지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강화 표지와 필자 지칭 표지의 평균 토큰 수는 [하] 집단에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하] 집단에서 논설적 장르에서 자신의 주장을 완곡하게 표현하기보다는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강하며, 필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쓰기 점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겠다.¹⁰⁾

이어, 필자 태도적 표지별 토큰 수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겠다.

10) 이진 외(2023)에서도 이와 유사한 견해가 언급된 바 있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지시사와 1인칭 대명사의 경우 글에서 과하게 사용되면 오히려 점수에 부정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표 12> 쓰기 수준별 필자 태도적 표지별 타입 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1_완화 표지 타입 수	상	35	7.286	2.48	1.764	.083
	하	24	6.167	2.259		
2_강화 표지 타입 수	상	35	8.8	3.243	-0.904	.370
	하	24	9.583	3.309		
3_증거 표지 타입 수	상	35	3.343	1.748	1.055	.296
	하	24	2.833	1.926		
4_평가 표지 타입 수	상	35	7.143	3.719	0.349	.728
	하	24	6.833	2.697		
5_독자 참여 표지 타입 수	상	35	0.886	1.231	1.211	.231
	하	24	0.542	0.779		
6_필자 지칭 표지 타입 수	상	35	1.571	0.917	-0.754	.456
	하	24	1.833	1.523		
복합 표지 타입 수	상	35	2.429	2.090	2.444*	.018
	하	24	1.375	1.209		

*p<.05, **p<.01, ***p<.001

위의 <표 12>는 쓰기 수준에 따라 필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 표지별 유형 수의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이다. 완화 표지, 증거 표지, 평가 표지, 독자 참여 표지, 복합 표지는 [상] 집단에서 좀 더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표지별 토큰 수의 분석 결과와 동일하다. 분석 결과 복합 표지의 타입 수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분석되었는데(t=2.444, p=.018), 이는 높은 점수를 받은 글에서 다양한 복합 표지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강화 표지와 필자 지칭 표지의 타입 수의 평균값은 [하] 집단이 약간 더 높다. 필자를 명시하며 필자의 견해를 강하게 드러내는 양상으로 글을 쓰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쓰기 수준별 각 표지의 다양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3> 쓰기 수준별 필자 태도적 표지별 다양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1_완화 표지 다양도	상	35	0.702	0.19	-1.1118	.271
	하	24	0.758	0.191		
2_강화 표지 다양도	상	35	0.83	0.136	-0.2077	.836
	하	24	0.837	0.13		
3_증거 표지 다양도	상	35	0.944	0.183	0.5046	.616
	하	24	0.917	0.238		
4_평가 표지 다양도	상	35	0.816	0.157	-0.0416	.967
	하	24	0.817	0.159		
5_독자 참여 표지 다양도	상	35	0.465	0.477	1.1128	.27
	하	24	0.326	0.457		
6_필자 지칭 표지 다양도	상	35	0.715	0.331	1.0263	.309
	하	24	0.62	0.373		
복합 표지 다양도	상	35	0.785	0.401	0.3882	.699
	하	24	0.742	0.439		

*p<.05, **p<.01, ***p<.001

<표 1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표지별 다양도는 쓰기 수준에 따른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 앞에서 복합 표지의 토큰 수와 타입 수의 경우 [상] 집단이 [하] 집단에서 높게 나타난 것이 유의하였으나 다양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보인 것은 [상] 집단이 [하] 집단에 비해 다양한 유형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그만큼 반복된 사용도 많은 데 반해, [하] 집단은 사용된 유형이 적을뿐 더러 사용 빈도도 적게 나왔기 때문이다.

4.2. 담화 구조 및 필자 태도적 자질과 쓰기 점수와의 관계

4.2.1 담화 구조적 자질과 쓰기 점수와의 관계

앞 절에서 쓰기 수준에 따라 사용된 담화 구조 및 필자 태도와 관련된 표지들의 평균 토큰 수, 타입 수, 다양도에 대한 통계적 검정 결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자질에는 담화 구조적 자질의 다양도와 순서 표지 토큰 수, 지시 표지 타입 수, 순서 표지의 다양도가 있었다. 필자 태도적 자질에서는 완화 표지의 토큰 수, 복합 표지의 토큰 수와 타입 수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 자질들이 쓰기 점수에 영향을 미쳐 자동 채점 자질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이들 자질 가운데 어느 것이 쓰기 점수를 예측하는 데 더 유용한지, 어느 정도로 쓰기 점수를 예측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각 자질들과 쓰기 점수와의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자질별 쓰기 점수와의 관련성과 점수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려고 하였다.

<표 14> 담화 구조적 표지 전체의 토큰 수, 타입 수, 다양도와 쓰기 점수 간의 상관관계

	쓰기 점수	담화 구조적 표지 토큰 수	담화 구조적 표지 타입 수	담화 구조적 표지 다양도
쓰기 점수	1	-.060	.066	.350**

*p<.05, **p<.01, ***p<.001

<표 15> 담화 구조적 표지별 토큰 수, 타입 수, 다양도 쓰기 점수 간의 상관관계

	쓰기 점수	담화 구조적 표지별 토큰 수				
		1_접속	2_순서	3_지시	4_전환	5_환언
쓰기 점수	1	-.024	.277*	.028	-.226	-.017
		담화 구조적 표지별 타입 수				
		1_접속	2_순서	3_지시	4_전환	5_환언
		-.061	.184	.159	-.226	.021
		다양도				
		1_접속	2_순서	3_지시	4_전환	5_환언
.208	.291*	.132	-.157	-.022		

*p<.05, **p<.01, ***p<.001

<표 15>에서 담화 구조적 자질의 전체 토큰 수와 타입 수, 다양도의 평균값과 쓰기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담화 구조적 표지의 전체 다양도 값만이 쓰기 점수와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350, p=.007$).¹¹⁾ 다음으로 <표 14>에서 볼 수 있듯이, 담화 구조적 표지별 토큰 수에서는 순서 표지의 토큰 수가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고($r=.277, p=.033$), 담화 구조적 표지별 타입 수에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자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화 구조적 표지별 다양도의 경우, 순서 표지의 다양도가 쓰기 점수와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291, p=.025$).

이상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각 자질 요인들과 쓰기 점수와의 관계성 여부만을 설명해

11) 상관계수(r)는 -1에서 +1 사이의 값으로, r값이 0.2보다 작으면 '낮음', 0.2보다 크면 '중간', 0.5보다 크면 '높음', 0.7보다 크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최재웅·홍정하 역, 2017: 220).

주므로 각 요인들이 쓰기 점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중선형회귀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앞서 살펴본 담화 구조적 표지들에 대한 회귀모형을 검증한 결과,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검증된 자질들만 제시하기로 한다.¹²⁾

<표 16> 담화 구조적 자질토큰 수가 쓰기 점수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선성 통계량	
	B	SE	β			공차한계	VIF
(상수)	41.968	1.766		23.76	< .001		
1_접속 표지 토큰 수	-0.928	0.394	-0.3027	-2.357*	0.022	0.918	1.09
2_순서 표지 토큰 수	1.384	0.579	0.3118	2.39*	0.02	0.889	1.12
3_지시 표지 토큰 수	0.258	0.446	0.0789	0.578	0.566	0.813	1.23
4_전환 표지 토큰 수	-1.133	0.721	-0.1982	-1.571	0.122	0.951	1.05
5_환언 표지 토큰 수	-0.915	1.024	-0.1245	-0.894	0.375	0.782	1.28

R=.444, R²=.197, 수정된 R²=.122
 F=2.61(p=.035)*, Durbin-Watson=1.61
 *p<.05, **p<.01, ***p<.001

먼저 담화 구조적 표지별 토큰 수 자질들 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이 유의하고 (F=2.61, p=.035), 수정된 R²값이 .122로 쓰기 점수 변화량의 약 1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담화 구조적 표지 중 접속 표지(p=.022)와 순서 표지(p=.02)가 쓰기 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접속 표지의 경우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순서 표지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 말하면, 접속 표지의 사용 빈도가 1만큼 늘어날 때 쓰기 점수는 0.928만큼 감소할 수 있는 데 반해, 순서 표지의 사용 빈도는 1만큼 늘어날 때 쓰기 점수도 1.384만큼 증가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두 개 자질 가운데 쓰기 점수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파악하려면 표준화 계수 β 값을 통해 비교가 가능한데, 지시 표지의 토큰 수($\beta=0.3118$)가 접속 표지 토큰 수($\beta=-.3027$)보다 쓰기 점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앞절에서 독립표본 t검정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자질들로 검증된 자질들에 한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2) 다중회귀분석에서 입력(enter) 방법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F값의 유의확률(p)이 .05보다 크면 회귀모형이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담화 구조적 표지별 토큰 수, 타입 수, 다양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가지 구조 표지의 타입 수의 회귀모형(F=1.43, p=.227)과 5가지 담화 구조적 표지별 다양도의 회귀모형(F=2.05, p=.086)은 적합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상관관계 분석에서 쓰기 점수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 담화 구조적 자질들에 한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따로 살펴본 것이다.

<표 17> 유의미한 담화 구조적 자질이 쓰기 점수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선성 통계량	
	B	SE	β			공차한계	VIF (13)
(상수)	26.8	4.549		5.892	< .001		
담화 구조적 표지 다양도	12.736	4.842	0.3367	2.63*	0.011	0.903	1.11
순서 표지 토큰 수	0.243	0.861	0.0548	0.282	0.779	0.393	2.55
지시 표지 타입 수	0.764	0.613	0.1633	1.245	0.218	0.861	1.16
순서 표지 다양도	1.559	2.087	0.1423	0.747	0.458	0.408	2.45

R=.448, R²=.201, 수정된 R²=.141

F=3.39(p=.015)*, Durbin-Watson=1.79

*p<.05, **p<.01, ***p<.001

<표 17>에서 쓰기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자질로 검정된 4가지 자질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수정된 R² 값이 .141로 쓰기 점수 변량의 14.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담화 구조적 표지 전체의 다양도가 쓰기 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t=2.63, p=.011), 이 자질의 비표준화 계수는 담화 구조적 표지 다양도가 1 증가할 때 쓰기 점수가 12.736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beta=12.736(p=.011)$). 이러한 결과는 쓰기 점수에 전체 담화 구조적 표지의 토큰 수 대비 타입의 비율이 쓰기 점수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함을 말해준다.

4.2.2 필자 태도적 자질과 쓰기 점수와의 관계

다음으로 필자 태도적 자질과 관련된 표지들의 토큰 수와 타입 수, 다양도와 쓰기 점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18> 필자 태도적 표지 전체의 토큰 수, 타입 수, 다양도와 쓰기 점수 간의 상관관계

	쓰기 점수	필자 태도적 표지 토큰 수	필자 태도적 표지 타입 수	필자 태도적 표지 다양도
쓰기 점수	1	.121	.165	.104

*p<.05, **p<.01, ***p<.001

<표 19> 필자 태도적 표지별 토큰 수, 타입 수, 다양도 쓰기 점수 간의 상관관계

	쓰기 점수	필자 태도적 표지별 토큰 수						
		1_완화	2_강조	3_출처	4_평가	5_독자	6_필자	복합
쓰기 점수	1	필자 태도적 표지별 토큰 수						
		.322*	0	.103	.03	-.058	-.08	.233
		필자 태도적 표지별 타입 수						
		.347**	-.02	.112	.081	-.06	-.028	.238
		필자 태도적 표지별 다양도						
		.059	.044	-.006	.072	-.003	.135	.138

*p<.05, **p<.01, ***p<.001

<표 18>에서 필자 태도적 자질에서 쓰기 점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자질은 완화

13) Durbin-Watson 통계량은 1.79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으며, 분산팽창지수(VOF)는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

표지의 토큰 수와 타입 수이다. 완화 표지의 토큰 수($r=.322$, $p=.013$)와 타입 수($r=.347$, $p=.007$)는 모두 쓰기 점수와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논설문 장르에서 필자의 주장을 전략적으로 전달하며 완화 기능을 수행하는 완화 표지들이 점수와 상관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상관분석 결과에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 유의미한 자질들로 확인된 자질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¹⁴⁾

<표 20> 유의미한 필자 태도적 자질이 쓰기 점수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선성 통계량	
	B	SE	β			공차한계	VIF
(상수)	34.439	2.192		15.714	< .001		
완화 표지 토큰 수	0.24	0.281	0.151	0.855	0.396	0.494	2.02
완화 표지 타입 수	0.54	0.399	0.239	1.351	0.182	0.494	2.02

R=.353, R²=.132, 수정된 R²=.101

F=4.25(p=.019)*, Durbin-Watson=1.68

*p<.05, **p<.01, ***p<.001

쓰기 점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 자질에는 완화 표지의 토큰 수와 타입 수로 나타났는데, 이 두 요인에 의한 쓰기 점수의 설명력은 10.1%로 확인되었다(R²=.101). 그러나, 각 자질이 쓰기 점수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담화 구조 및 필자 태도와 관련된 표지에 대한 양적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쓰기 점수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담화 구조적 자질에는 담화 구조적 표지의 전체 다양도, 순서 표지의 토큰 수, 순서 표지의 다양도가 있었으며, 필자 태도적 자질에는 완화 표지의 토큰 수와 타입 수가 있었다. 유의했던 자질들이 쓰기 점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담화 구조적 표지 다양도와 순서 표지 토큰 수, 지시 표지 타입 수, 순서 표지 다양도 값은 쓰기 점수의 약 14%를 설명하였고, 담화 구조적 표지의 다양도가 특히 쓰기 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필자 태도적 자질 중 완화 표지 토큰 수와 타입 수는 쓰기 점수의 약 10%를 예측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자질의 점수가 쓰기 점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유의하지 않았다. 비록 쓰기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낮게 나타났지만 자동 채점 자질에 적용 가능한 유의한 자질들을 포착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다만, 쓰기 수행 수준의 차이를 변별해 주는 자질들이 제한적이었으며, 이 자질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쓰기 점수의 예측력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다음 절의 질적 분석을 통해 세부적인 양상을 자세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4.3. 평가 자질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위에서 기술한 통계적 분석 결과의 실재를 보임과 동시에 양적 분석으로 포착되지 않은 양상을 함께 논함으로써 채점 자질 선정 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14) 다중회귀분석에서 입력(enter) 방법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F값의 유의확률(p)이 .05보다 크면 회귀모형이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필자 태도적 표지별 토큰 수, 타입 수, 다양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복합 표지를 포함한 필자 태도 표지(독립표본 7개)의 토큰 수의 회귀모형(F=1.18, p=.333), 타입 수의 회귀모형(F=1.29, p=.275), 다양도의 회귀모형(F=0.358, p=.922) 모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 글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독립 표본 검정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완화 표지 토큰 수와 복합 표현의 토큰 수와 타입 수를 포함한 회귀모형(F=2.51, p=.052)의 경우도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4.3.1. 담화 구조적 자질

4.3.1.1 접속 표지

먼저 텍스트 구조적 자질 중 단순 접속 표지의 경우 통계적 유의미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주목할 만한 점은 접속어의 사용은 오히려 [하] 집단에서 더 두드러진다는 점이며 사용되는 어휘의 편차가 더 크다는 점이었다. 이는 문장을 접속하는 요소의 사용은 오히려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¹⁵⁾

특히 [하] 집단은 텍스트 구조와 관계없이 ‘그래서’, ‘그리고’, ‘또한’의 사용이 고빈도로 관찰되는 데 반해 [상] 집단은 ‘그러므로’, ‘따라서’ 등이 특히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이유를 제시하는 맥락에서 ‘왜냐하면, -기 때문이다’ 구성이 주로 사용되고 나열의 맥락에서는 ‘또한’, ‘그리고’ 등이 순서어와 함께 실현되는 것이 특징적인 지점이었다. [하] 집단에서 가장 고빈도로 사용된 ‘그리고’가 사용된 맥락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하 1]

그래서 내가 생각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매우 강한 의지와 높은 목표가 필요하다고(√필요하다고)¹⁶⁾ 생각한다. 그리고 매우 중요하는 것은 '시간과 돈(특히 학비)을 절약한다'는 것을 항상 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그건 공부부터 생활까지 다 해당한다. 그 이유는 내가 일본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버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한 번도 일하고 돈을 벌려면 돈을 벌리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다 알 수 있다. 그리고 시간도 허사하지 않고 하루는 매우 유익하게 보내야 한다.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 [하] 집단의 학습자들은 대체로 문장을 연결하는 데 있어 대체로 동일한 접속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상] 수준의 학습자에서 ‘그리고’는 자신의 주장을 전략적으로 강조하는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아래의 예를 참고할 수 있다.¹⁷⁾

[상 1]

성공이란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것에 대한 원함, 욕심을, 꿈을 이뤄질 때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바람, 즉 자기가 진짜로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 두 번째로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동기, 동기가 있어야 사람은 이루고 싶은 것을 더 빨리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심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얻는 것은, 원하는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은 쉽지 않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세 가지를 꼭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15) 이는 한하림(2023)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한국어 초급 아동 학습자가 산출한 문어 담화를 대상으로 응집성 장치의 발달 과정을 논의한 해당 연구에서는 접속사 유형의 경우 수업 후반부에 이르러 더욱 다양해졌지만, 전체 어절 수 대비 사용된 접속사의 수는 오히려 수업 후반부에 이르러 그 사용 빈도가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해당 연구에서는 동일한 접속사의 반복적인 사용은 문장 간의 연속적인 연결을 위해 다른 접속사의 사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아동이 서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Berman & Slobin, 2013, 한하림 2023: 220에서 재인용)

16) 기본적으로 철자의 오류형에 한해서 교정형을 괄호 안에 기재하였다.

17) 특히 [상] 수준의 학습자의 글에서 접속 표지는 대체로 텍스트 말미에 사용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인 것 중 하나인데 이러한 현상도 전략적 사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흔히 접속사의 경우 문장의 연결이라는 기능적 측면에서 논의되지만 실제 [상] 집단의 학습자 작문에서 사용된 ‘그리고’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논지를 입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전략적 사용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평가 시스템은 경우에 따라 접속사 사용 여부가 채점 자질로 설정되어 있는데, 본고는 질적 분석에 기반하여 단순히 어휘의 다양도와 빈도만으로는 전략적 수준에서의 접속 표지 사용을 알기 어렵고 이동 마디에 따른 실현과 순서 표지나 서술어와의 공기 등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4.3.1.2. 순서 표지

순서 표지는 채점 결과와의 상관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검증된 바 있는데 이는 평가 자질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¹⁸⁾ 순서 표지는 주로 나열의 맥락에서 실현되는데, 상기에서 언급한 바 있듯 나열의 맥락에서 [하] 집단은 주로 ‘그리고’, ‘또한’과 같은 접속 표지를 사용하는 데 반해 [상] 집단은 순서 표지를 사용하거나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에는 접속사와 함께 순서 표지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이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상 2]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자신이 성공한 모습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한테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마음을 강하게 가지며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다음은** 기회를 기다리고 계속 앉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정보나 기회를 찾는 것이다. (중략)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성공하고 싶은 것에 관한 영화나 책, 드라마를 보고 자신의 마음을 높아지게 만들은 것이다.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는 성공관의 여러 조건을 순서어를 통해 나열하고 있다. 해당 학습자는 각 나열한 요소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순서어의 사용으로 문장 간 위계가 어색하거나 헛갈리지 않는다.

한편 [하] 집단의 경우에서도 순서 표지를 사용한 경우가 매우 드물게 존재하였지만, 수행하는 문장이 비교적 짧고 단순히 병렬적 구조로 배치되고 있는 한계를 보였다 이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하 2]

이러한 상황을 통해 내가 좋은 강사가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다*. **우선** 뭘 가르치는 것을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이 부탁할 때 잘 설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복잡한 내용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 함으로써(√함으로써)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다. 학생이 수업이 관심 있으면 집중하다.

4.3.1.3. 지시 표지

18) 참고로 절대 빈도는 [상] 집단의 경우 24 종류의 순서어가 총 47번 사용된 데 반해 [하] 집단의 경우 11 종류의 순서어가 11번 쓰인 것으로 관찰되었다. 참고로 표본 개수의 편차를 고려하였을 때 순서어의 경우 [상] 집단에서 더욱 다양하게, 더욱 고빈도로 사용된다고 논의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지시 표지의 경우 절대 빈도 측면에서는 [상]·[하] 간 차이에 통계적 유의미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상] 집단이 좀 더 지시 표지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적으로 관찰되지는 않았으나 본고의 질적 분석 결과 지시 표지의 사용 양상에서 집단 간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차이는 사용된 어휘의 양상이었다.

[하] 집단이 보인 특징적인 점 중 하나는 구어적 지시 표지의 사용이었는데, 예를 들면 ‘위에 있는 것을’, ‘이런 (것)’, ‘이 글’과 같은 지시 표지가 고빈도로 관찰된다는 점이었다. 이에 반해 [상] 집단은 대체로 ‘그렇게’와 같은 상황 지시어나 ‘이/그’와 같은 지시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는 아래와 같이 변별될 수 있었다.

[하 3]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은 모두 사람 열심히 일하고 항상 다른 사람에 관심이 있다. **한 사람**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학위가 높고, 성적이 좋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과** 달리 다른 사람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한 작은 가족이 있고 매일매일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다른 사람에 관심을 할 줄 알다.

[하: 표본 번호 35093]

다시 설명하거니와 나이와 성별이 **이런 것과 같은** 구분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성공은 나누었다.

반면 [상] 집단의 경우 순서어와 지시어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그렇게’, ‘이렇게’와 같은 상황 지시어 등을 상당히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상 3]

이번에는 *2가지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는* 하루 계획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수업이 있는 경우에는 수업이 끝난 후에 무엇을 하는지 등 정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필요 없는 시간을 아껴 쓸 수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 같다.

본고의 분석 결과 지시 표지의 경우 빈도나 유형보다는 지시어의 문·구어성, 지시의 유형이 좀 더 유의미한 변별적 자질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시의 유형의 경우 [상] 집단은 화제를 유지하거나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맥 지시와 상맥 지시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하] 집단의 학습자들은 주로 텍스트에 언급된 요소에 대한 지시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3.1.4. 전환 표지

전환 표지 역시 [상]·[하] 간 유의미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전략적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상기에서 살펴 본 접속 표지의 경우와도 유사한 측면이 존재하였다.

먼저 [하] 집단은 [상] 집단에 비해 ‘그런데’, ‘그러나’의 사용 빈도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크게 유의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으며, 두 집단 모두 주로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 표지가 실현되는 위치와 전략적 기능의 양상은 매우 상이하였다.

먼저 [하] 집단의 경우 전환 표지 역시 단순히 병치된 사건의 인과 관계를 서술하는 데 해당 표지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보이면 아래의 예와 같다.

[하 4]

한국어와 씨름하고 있다. 한국어는 내 발목 잡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살고 싶은 궁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러나(√그러나)**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왜 한국에서 살가에(√살가에) 대해 생각할 수도 있다. 그때는 동기가 있으면 다시 한번 이유를 깨달을 수 있다. 또는 다시 한번 모든 좋고 중요한 이유들(√이유들) 알게 될 수 있다. **반면** 동기가 없으면 어려움으로 인해 쉽게 포기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공하기 위해서 모적관(√무조건) 동기가 필요하다.

위의 [07134]에서 볼 수 있듯이 [하] 집단은 모든 문장의 시작에 접속사와 지시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전환 표지는 사건의 인과 관계를 기능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하게 장면의 기능적 연결을 위한 맥락을 살펴보면, [상] 집단의 학습자들은 오히려 문장 단위로 구분하기보다 연결 어미를 사용하여 절과 절을 접속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¹⁹⁾

[상 4]

꿈은 크거나 작거나 달성하기 어렵거나 쉬울 것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꿈을 이루는 것은 사람의 노력에 달려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할지라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자세라고 사고한다.

[상] 집단에서 전환 표지가 사용된 경우 접속 표지의 사용과 유사하게 전략적 맥락에서 자신의 주장을 드러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상 5]

우리는 보통 성공적인 삶의 조건을 돈이나 명예에서 찾는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를 가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건들이 우리의 삶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있으나 성공적인 삶의 조건이 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이러한 가졌는데도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있고, 사람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찾으볼(√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조건은 무엇인가? 나는 성공적인 삶의 조건을 다음 두 가지에서 찾으려고 한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필자는 현재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전면적으로 부인한다. 이후 이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며 독자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자신의 주장인 ‘성공적인 삶의 조건 두 가지’에 주목하도록 하는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효과에 기여하는 것은 전환의 접속 표지 ‘그러나’가 되는 것이다.

상기의 추론은 특히 [상] 수준의 작문에서 전환 표지의 경우, 글 서두의 성공 혹은 성공관에 대해 자신이 정의하는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더욱 타당성이 확보된다. 요컨대 접속 표지의 경우와 동일하게 [상] 집단은 대체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이러한 전환 표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해당 전환 표지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면적으로 반박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자 하는 효과로 귀결되는 것으로 이해

19) 사실 이는 통계적으로도 관찰되는 것이기도 하다. [상] 집단은 8가지의 전환 표지를 26번 사용하고 있는 데 반해 [하] 집단의 경우 10가지의 전환 표지를 24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본 수를 고려하였을 때 내용 전환을 위해 [하] 집단에서는 전환 접속어를 더 자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상] 집단에서는 연결 어미로 이를 실현하고 있다고 논의할 수 있겠다. 이처럼 전환적 기능을 수행하는 언어적 장치의 차이는 분명 담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것인바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될 수 있다.

환언 표지 역시 기존 자동 작문 평가 시스템에 따라 채점 자질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경우 단순히 어휘의 종류나 빈도만으로는 전략적 층위의 언어 사용을 미시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이동 마디에 따른 실현과 순서 표지나 서술어와의 공기 등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3.1.5. 환언 표지

마지막으로 환언 표지의 경우 [상] 집단의 경우 대체로 ‘예를 들면/예를 들어’, ‘즉’과 같이 요약 혹은 운문의 기능을 하는 어휘 및 상세화 기능을 수행하는 표지가 고빈도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하] 집단에서는 두드러지는 환언 표지는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는 뜻이다’, ‘다시 설명하거니와’, ‘-되는 뜻이다’와 같이 문어 장르에 적합하지 않은 예들이 관찰되는 것이 특징이었다.

한편 동일한 환언 표지라 하더라도 사용 맥락은 수행 수준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테면 인용 표지가 사용된 ‘-다는 뜻(말)이다’ 구성에서 [상] 집단은 대체로 독자들이 잘 알지 못할 법한 구문에 대한 뜻을 풀이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 (독자들이 모를 법한)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는 한편, 논지를 강조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²⁰⁾

[상 6]

일본에서는 자신에게 착하게 못하면 남에게도 착하게 못한다는 말이 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를 좋아해야 되고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자신을 소중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다.

[상 7]

우리 나라에는 실패가 성공의 엄마라는 속담이 있다. 이것은 바로 성공을 원하면 실패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야 하는 뜻이다. 왜냐하면 실패를 경험해야 그 후에 얻는 성취감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상 8]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많고 권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진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다시 말하면 자기 원하는 삶을 살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 집단의 경우 환언 표지의 사용은 독자 입장에서 상세화나 구체화가 불필요해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체로 ‘부연’과 ‘환언’은 화자가 청자에게 익숙지 않은, 혹은 잘 모르는 어휘를 잘 아는 어휘로 환언하거나 더 쉽게 동일한 내용을 말한다는 점에서 잉여적인 표현이 아니다(임채훈, 2011: 365). 그러나 위의 예와 비교하였을 때 [하] 집단의 예는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다소 잉여적인 경우이거나 오히려 접속사가 자연스러운 경우가 높은 빈도로 관찰된다.

[하 5]

20) 후술하겠으나 속담을 인용하는 경우 [상]-[하] 모두 빈번하였으나 [하] 집단의 학습자들은 ‘[한국 속담]+처럼’ 구성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평정자로 하여금 한국 속담의 사용이 상투적이어서 불필요한 비유라 생각되었거나 속담의 선택이 글의 맥락과 꼭 들어맞지 않았거나 ‘처럼’과 ‘인용 구성이 포함된 환언 표지’의 차이 중 어떤 것이 유의미한 것인지는 추후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성공이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내 목표를 세울 때(√세울 때) 만족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사람들의 성공이 돈이 많을 때 그것을 이루기가 성공이다. 아니면 권력이 있을 때 무엇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하 6]

성공한 삶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후회가 없을 것이다. 또한 결과를 내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하 7]

우리 학생들이 여러 회사에 일한다. 매년 커뮤니케이션(√커뮤니케이션) 상품식에 참가하고 우리 학생에게 그 상품을 받는 것이 자랑스럽고 행복하다. **다리 말해(√다시 말해)** 강사의 성공이야말로 우리 학생의 성공이다.

환언의 텍스트적 기능과 [상] 집단의 사용 양상을 살펴 보았을 때 환언 표지는 상세화나 구체화 기능을 넘어서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맥락이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자동적으로 탐지하기보다 맥락을 함께 고려한 평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하] 집단의 사용 양상을 살펴본 때 이들은 환언의 기능과 문장 접속의 기능을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었는데, 텍스트에서 환언의 기능을 전략적으로 교수할 필요성 또한 파악할 수 있었다.

4.3.2. 필자 태도적 자질

본 장에서는 필자 태도적 자질과 관련하여 기술한 기술 통계적 분석 결과의 실재를 보임과 동시에 기술 통계적으로 포착되지 않은 양상을 함께 논함으로써 채점 자질 선정 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을 살피고자 한다.

4.3.2.1 완화 표지

먼저 완곡 표지의 경우 학습자의 수준과 관계없이 가장 고빈도로 사용되는 태도 범주였다. 그러나 [상] 집단의 경우 117개의 표지가 369번 실현되었고 [하] 집단의 경우 80개의 204번 실현되었음을 고려하였을 때 완화 표지의 사용 양상은 쓰기 수준을 구분하는 데 유의미한 채점 자질로 기능하고 있다고 논의될 수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검증된 바 있다.

그러나 본고의 질적 분석 결과 완화 표지의 경우 실현된 구조와 기능 또한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상] 집단의 경우 대체로 서두에서 ‘성공관에 대한 정의’ 부분 및 ‘성공을 위해 필요한 노력’, ‘자신과 다른 견해에 대한 (부분적) 인정’ 부분에서 사용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후자의 맥락에서 사용되었을 경우 다시 자신의 논지를 강조하는 서술이 뒤따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요컨대 자신의 주장을 기술하는 부분과 재반박을 위한 부분적 인정 부분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상 9]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많은 돈을 번다기보다는 마음이 풍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본다. 먼저 성공에 대한 정의가 **사람에 따라서** 너무 **다르겠지만** 인생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돈만 버는 일이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라고 본다.** 물론 돈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때에 더 필요한 것이 외에도 많이 있다. (중략) 그런 것을 깊게 생각하고 그 배움을 살려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게 내 인생의 성공이다. 쉽게 보이지만 배운 것을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후략)

위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상] 집단의 학습자들은 대체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는 데 있어 완화 표지를 가장 고빈도로 사용하였으며 자신의 주장이 지니고 있는 논리적 모순이나 주장에 대한 다른 의견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맥락에서(위의 예시에서는 기울인 부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자는 공손성을 전달하는 기능을, 후자는 타인의 견해를 인정하면서도 전략적으로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재강조하는 전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독자들로 하여금 외부의 견해를 기술하고 완화 표지로서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양상을 취하기는 하지만, 이후 ‘하지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때에 더 필요한 것이 외에도 많이 있다.’와 같이 반박하는 기술이 단언적으로 기술됨으로써 자신의 견해가 비교적 다채롭고 긴장감 있게 서술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로 귀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하] 집단의 경우 역시 완화 표지가 고빈도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상] 집단에 비해 전략적으로 사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특히 외부 의견에 대한 부분적 인정 부분에서 [상] 집단의 경우 곧바로 자신의 의견에 대한 단언적 기술이 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데 반해 [하] 집단의 경우 자신의 생각과 외부의 견해를 대등하게 완화 표지로 연결함으로써 독자는 필자가 자신의 논지에 대한 확실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었다. 이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하 8]

살다 보니까 사람마다 성공에 대한 생각도 다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거나 학력이 높다거나 하면 성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첫음에(√처음에)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신문 기사나 뉴스를 통해 성공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다. (후략)

위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성공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기술한 다음에 다시 출처를 제시하고 ‘-ㄴ 것 같다’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정도성을 낮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는 데 있어 확신의 정도를 경감 시킴으로써 독자에 대한 전략 측면에서는 실패했다고 평가될 수 있다.

한편 본고에서 분석한 작문들은 [상]·[하] 집단 모두 사고 동사의 하나인 ‘생각하다’가 고빈도로 사용되고 있음이 특징적이었다.²¹⁾ 그러나 집단에 따라 ‘생각하다’ 구성이 실현된 맥락은 매우 상이하였는데, 먼저 [상] 집단의 학습자들은 대체로 텍스트 도입부에서 ‘성공’ 혹은 ‘성공관’을 정의하는 데 사고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하] 집단의 경우 이러한 사고 동사는 [상] 집단처럼 특정한 부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특별한 기준 없이 제시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생각하다’와 같이 어휘로 실현되는 헤지 표현의 경우, 우연적 구성이나 문법 형태로 실현되는 경우보다 화자의 주관성이 더 높다. 이러한 이유로 실현되는 맥락이 중요한데, [하] 집

21) 이는 추측건대 과제 변인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누리집을 통해서 과제 변인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으나 작문의 양상으로 보아 ‘본인이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등의 지시문이 제시되었을 것이라 추측한다.

단의 경우 ‘생각하다’ 구성이 필자의 평가적 판단과 같이 주관성이 높은 맥락에서 사용되어 공손성을 실현하는 해지의 담화적 전략을 수행하지 못하고 화자의 주관성을 강조하는 결과로 귀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또한 해지 표현이 중복 실현됨으로써 상기하였다시피 화자의 불확실성을 강조하게 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한계 또한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 예시는 아래와 같다.

[하 9]

지금 가장 간절한 소원은 누군가 나한테 와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좋겠다 생각한다. 그러면 나도 행복할 수 있을까 나도 성공을 얻을 수 있을까 나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싶다.

[하 10]

남에게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즐거움고 고통에 다치더라도 지나치게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마음에 따라 하고 싶은 인간이라서 마음을 자제력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키면 살 생활에 지나치는 욕심에서 벗어나고 좋은 것, 나쁜 것이 당해도 마음이 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 자기 스스로 이기는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하: 27629]

이 외에도 기술 통계적 분석 결과에서 증명되었듯이 [상] 집단의 경우 긴 부정이 사용되거나 피동 구성, 보조사 등이 ‘어렵다’, ‘쉽다’와 같은 평가적 어휘와 공기하여 다양하게 사용되는 데 반해 [하] 집단의 경우 대체로 ‘-ㄴ/는/은 것 같-’, ‘-라고 생각하다’ 등의 구성에 머물러 있는 것이 특징으로 드러났다. 요컨대 [상] 집단의 학습자들은 완화 표지의 형태적 구성과 사용 양상이 비교적 다채로운 데 반해 [하] 집단은 특정 우연적 구성의 사용에 머물러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를 통해 본고는 완화 자질을 활용하여 평가의 자질로 선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보완해야 하는 부분 또한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두 집단 모두 과제 변인으로 추측되는 이유로 인해 사고 동사의 하나인 ‘생각하다’ 구성이 고빈도로 사용되었는데, [상] 집단의 학습자들은 주로 텍스트의 서두에서 성공 및 성공관을 정의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데 반해 [하] 집단은 특정한 기준 없이 주관성이 두드러지는 맥락에서 사용하거나 완화 표지를 중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공손성 수행보다는 주관성을 강조함으로써 화자의 불확실한 태도를 드러내는 쪽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정리될 수 있다.

4.3.2.2. 강화 표지

강화 표지 역시 [상] 집단이 [하] 집단보다 더 다양한 표지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²²⁾ [상]·[하] 집단 모두 ‘-어야 하다’와 같은 의무 표지가 가장 고빈도로 사용되었으나 [상] 집단의 경우 ‘-ㄴ/는/은 것이다, 아무리 -어도/아도/더라도/지라도 구성, 부정 극성으로 사용되는 의문사 및 부정사’ 등이 고빈도로 관찰된 데 반해 [하] 집단에서는 ‘모든, 다, 꼭, 가장, 바로’와 같은 어휘적 요소가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본고의 질적 분석 결과 [하] 집단의 경우 ‘매일매일’, ‘꼭’, ‘맨날’, ‘다’와 같은 다소 구어적인 강화 표지의 사용이 두드러지고 복합 구성보다는 주로 부사와 같은 단일한 어휘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에 반해 [상] 집단의 경우 우연적 구성뿐 아니라 조사, 부사, 표현 문형 등이 다채롭게 사용되고 있었으며 특히 주장을 제시하는 맥락

22) 참고로 [상] 집단의 경우 149개의 종류가 385번 실현되었으며 [하] 집단의 경우 137개의 종류가 277번 사용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에서 두드러지게 사용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아래와 같다.

[상: 표본 번호 각각 10, 11, 12, 13]

나는 성공에 대해서 소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시련을 겪은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즐거운 일이야말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다.

이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돈이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강화 표지의 경우 채점 자질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어휘에 대한 문·구어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4.4.2.3. 출처 표지

출처의 경우 역시 기술 통계적으로 집단 간 두드러지는 특징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하] 집단의 경우 판단의 근거가 자신이 되거나 출처 표지를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할 때에도 필자가 해당 명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단순히 외부 견해를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있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다.

[하: 11, 12, 13]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는 한국에서 오래 살면 한국 생활과 익숙하기 마련이지만 아직도 힘들 일가 많다.

어떤 사람에게 돈은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 명예, 권리 이런 것을 얻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나에게는 성공이란 나의 가치를 이루어지는 것이다.

영국 정치인 윈스턴 처칠 Winston Churchill은 성공이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성공은 열정을 잃지 않고 한 실패에서 다른 실패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1416] 표본에서처럼 필자가 외부의 의견(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이 성공이다, 어떤 사람에게 명예, 권리 이런 것을 얻는 것이 생각하다)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반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상] 집단과 가장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상: 14]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이라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만 돈이 많이 있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매사에 일을 생각해야 한다.

[상] 집단의 경우 출처 표지는 대체로 일반적인 의견을 반박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드러난바 평가 자질로 설정 시 질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4.4.2.4. 평가 표지

평가 표지의 경우 기술 통계 및 질적으로 유의미하게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려웠으며 이는 과제 변인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부분으로도 보인다. 다만 타입수와 토큰수에서 변별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는데, [상] 집단의 경우 110개의 평가 표지가 322번 실현되었고, [하] 집단의 경우 90개의 표지가 212번 실현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기능의 경우 어휘의 다양도(자신의 평가를 하는 데 얼마나 많은 단어를 사용하는가)나 통사적 복잡도(명제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데 어떠한 문장 유형을 사용하는가)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복잡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논의될 수 있겠다.

4.4.2.5. 독자 참여 표지

본고의 분석 결과 관찰 가능한 독자 참여적 요소는 모두 [하] 집단에서 관찰되었으며 이를 통해 본고는 격식성을 갖춘 쓰기 장르에서 독자 참여 전략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비교적 낮게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술 통계적 결과로도 검증된바 자동 채점 자질로의 선정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하] 집단에서 실현된 독자 참여적 요소는 ①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걸거나 ② 번역체로 보이거나 ③ ‘우리’의 잘못된 학습 등을 꼽을 수 있었다. ①과 ②에 관련한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하: 각각 14, 15, 16]

우리는 줄을 때까지 남어지 몇 년 정도 있을 겁니까?

우리 세상에서는 옛날부터 현재까지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다.

우리 삶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고 싶어 한다.

한편 ③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어에서 ‘우리’는 담화 상황에 따라 청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지칭하거나 청자가 배제된 대상을 지칭하기도 한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우리’에 대한 문화적 의미에 대한 이해 결여로 보이는 것들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30892]에서는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사용은 어색하며 ‘나의’가 기술되는 것이 맞다.

[하: 17]

내 성공이 우리 학생들이 성공을 받는 것이 생각한다. (중략) 우리 학생들이 여러 회사에 일한다. 매년 커뮤니케이션(√커뮤니케이션) 상품식에 참가하고 우리 학생에게 그 상품을 받는 것이 자랑스럽고 행복하다.

독자 참여 표지는 주로 [하] 집단에서 관찰이 가능하며 집단 간 차이 및 점수와의 상관도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난바 이는 자동적 채점 자질로의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한국어 대명사 ‘우리’의 경우 담화에서 사회문화적 의미를 함축하여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4.4.2.6. 필자 참여 표지

마지막으로 필자 참여 표지와 관련하여 논하고자 한다. 본래 격식성을 띤 논설문 장르에 서는 필자 ‘나’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격식성을 갖춘 글로 판정하지는 않으나 해당 작문들은 공통적으로 필자 참여 표지가 고빈도로 실현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현상이 과제 변인에 따른 결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²³⁾ 따라서 이를 고려하였을 때 집단 간 유의미하게 드러난 차이는 ‘저’ 계열의 사용 여부였다. 이는 아래와 같다.

[하: 각각 18, 19]

제 생각에는 성공이란 어렸을 때부터 세웠던 목표들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다.

저에게는 성공이 만족감이라고 하다.

이를 통해 본고는 ‘저’ 계열의 사용이나 높임을 중화하지 않은 경우 일괄적으로 장르적 속성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5. 나가며

이상의 분석 결과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59개의 논설문 작문을 [상] 집단 35개, [하] 집단 24개로 구분한 후, 채점 자질로서의 담화 구조적 자질과 필자 태도적 자질의 유의미성을 통계적으로 살핀 후 질적 분석을 통하여 그것의 함의와 보완 방안을 규명하는 한편 통계적으로 포착하지 못하는 점 또한 살피고자 하였다. 이를 나타내면 아래의 <표 21>과 같다.

<표 21> 채점 자질로서의 ‘담화 구조적 자질’과 ‘필자 태도적 자질’의 의의와 보완 방안

기준	구분	집단 간 사용 양상에 대한 통계 결과	채점 자질 설정에 대한 함의 및 보완
담화 구조적 자질	단순 접속	- 토큰·타입 수는 [상] 집단에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토큰 수는 쓰기 점수와 부적 영향 ○ 다양도는 쓰기 점수에 유의한 영향 ◎ [상] 집단은 접속 표지 전략적 사용에 기반하여 사용(순서 표지 및 서술어 함께 고려할 필요)
	순서	- 토큰·타입 수는 [상] 집단에서 상당히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토큰 수는 쓰기 점수와 부적 영향 ○ 다양도는 쓰기 점수에 유의한 영향
	지시	- 토큰·타입 수는 [상] 집단에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다양도는 쓰기 점수에 유의한 영향 ◎ 문·구어성과 지시 양상을 보완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음
	전환	- 토큰·타입 수는 [상] 집단에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다양도는 쓰기 점수에 유의한 영향 ◎ [상] 집단은 전환 표지 전략적 사용에 기반하여 사용(연결 어미로의 대체, 이동 마디와 함께 고려할 필요)
	환언	- 토큰·타입 수는 [상] 집단에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다양도는 쓰기 점수에 유의한 영향 ◎ [상] 집단은 환언 표지 전략적 사용에 기반하여 사용(독자 지식을 고려할 필요)

23) 그렇게 파악한 까닭은 대다수 작문의 첫 문장이 ‘나는 성공을 ~라고 생각한다’, ‘나의 성공관은 ~이다’ 등으로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고려하였을 때 과제 지시문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성공/성공관은?’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필자 태도적 자질	명제에 대한 태도	완화	- 토큰·타입 수는 [상] 집단에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토큰·타입 수는 쓰기 점수와 정적 영향 ◎ [상] 집단은 완화 표지 전략적 사용에 기반하여 사용([하] 집단은 주관성 강조와 확실성 결여로 귀결)
		강화	- 토큰 및 타입 수는 [하] 집단에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어휘의 문·구어성 사용역 자질과 사용되는 언어적 양상을 함께 고려할 필요
		출처	- 토큰·타입 수는 [상] 집단에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근거의 양상 고려 필요
		평가	- 토큰·타입 수는 [상] 집단에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문장 단위 빈도에 기반한 채점 자질이 유의미할 것으로 예상
	독자에 대한 태도	독자 참여	- 토큰·타입 수는 [상] 집단에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우리’의 관용적 사용에 대한 확인 필요
		필자 지칭	- 토큰 및 타입 수는 [하] 집단에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저’ 계열이나 높임을 중화하지 않은 경우 일괄적으로 [하] 집단으로 판정 가능
	복합 표지		- 토큰·타입 수는 [상] 집단에서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후속 연구 필요

본고에서는 언어의 전략적 층위에서 기능하는 요소들이 쓰기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포착해 보았다는 데에 의의를 가진다. 특히, 담화 구조적 자질 중 전체 다양도, 순서 표지의 토큰 수, 순서 표지의 다양도와 필자 태도적 자질 중 완화 표지의 토큰 수와 타입 수가 쓰기 점수와 상관성을 보여 자동채점 자질로 기능할 수 있음을 포착해 보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유의미한 자질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 결과, 각 자질과 쓰기 점수와의 상관성이 높지도 않고 쓰기 점수에 대한 예측력 또한 낮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 자질들이 쓰기 전체 점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진 외(2023)에서 구조 및 전개 표지에 대한 분석 결과도 본고의 결과와 유사한바, 언어적 자질을 통한 계량적인 분석은 쓰기 점수의 일부만을 측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전히 중요한 것은 각 표지들을 적절히 사용하여 담화 구조를 조직적으로 구성하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자동채점 자질에 대한 탐색 연구는 분명 쓰기 평가의 채점 타당도와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기에 지속될 필요가 있다. 보다 타당한 자질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TOPIK 평가 기준표에 근거하여 분석적 채점을 진행하였으나, 회귀분석에서는 총체적 점수를 활용하였다. 담화 구조적 표지는 쓰기 평가 구인 중 구조 전개와 관련되므로 분석적 점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방식이 적합할 수 있다. 이렇듯 각 자질들과 보다 밀접한 구인 영역에서의 점수와의 관계성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 문헌

- 김승주(2021), 교실 단위 작문 평가에서 활용 가능한 작문 자동 채점 프로그램의 설계 방안에 대한 연구 - 인공학적 설계 접근과 채점자의 인지 부하 요인을 고려하여 -, 《청람어문교육》 (83), 157-203쪽.
- 김승주(2019), 채점 자질 설계를 통한 지도 학습 기반 작문 자동 채점의 타당도 확보 방안 탐색, 《청람어문교육》 (69), 265-295쪽.

- 남미정(2023), 《한국어 쓰기 자동 채점을 위한 언어 자질 탐색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미정·원미진(2022), 한국어 쓰기 자동 채점을 위한 언어 자질 탐색 연구, 《언어사실과 관점》 57, 9-32쪽.
- 박중임·박강윤·최숙기·김길재(2023), 채점자질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글쓰기 자동채점 방안 탐색, 《청람어문교육》 (96), 135-172쪽.
- 이슬기(2017), 작문 평가에서 텍스트 마이닝의 활용 가능성 탐색. 《작문연구》 (35), 99-131쪽.
- 이진·정진경·김한샘(2023), 한국어 학습자 쓰기 자동채점을 위한 자질 연구 -내용 및 구조 관련 채점 자질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99), 433-471쪽.
- 임채훈(2011), 유의 어휘관계와 문장의미 구성, 《한국어 의미학》 34, 349-373.
- 최숙기·박중임(2023), 인공지능 시대의 작문 평가를 위한 ChatGPT 활용 방안 연구, 《청람어문교육》 (95), 65-109.
- 한하림(2023), 한국어 초급 아동 학습자의 문어 담화에 나타난 응집성 발달 연구 - 내러티브 작문 과제를 중심으로-, 《작문연구》 (58), 209-235.
- Berman, Ruth A. (2009). Beyond the sentence: Language development in narrative contexts. In Edith Bavin (ed.), *Handbook of child language*, 354 - 37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man, R. A., & Slobin, D. I.(Eds.).(2013), *Relating events in narrative: A crosslinguistic developmental study*, Psychology Press.
- Berman, Ruth A. (2004). From emergence to mastery: the long developmental route of language acquisition. In Ruth A. Berman (ed.), *Language Development across childhood and adolescence*, 9 - 34. Amsterdam: John Benjamins
- Chen, C. F. E., & Cheng, W. Y. E. C.(2008), Beyond the design of automated writing evaluation: Pedagogical practices and perceived learning effectiveness in EFL writing classes, *Language Learning & Technology* 12(2), pp.94-112.
- Hyland, K. (2005). Stance and Engagement: A Model of Interaction in Academic Discourse. *Discourse Studies*, 7, 173-192.
- Li, J., Link, S., & Hegelheimer, V.(2015), Rethinking the role of automated writing evaluation(AWE) feedback in ESL writing instruction,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27, pp.1-18.

■ 토 론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수행 양상 연구: 논설문 장르에서 드러난 담화 구조와 필자 태도 표지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신희성(고려대)

쓰기 과정에서의 언어적(어휘문법적) 요소들에 관심을 가져 온 연구자로서 어휘 난이도나 통사적 복잡성에서 확장하여 채점 자질을 탐색하려는 시도의 의의에 깊이 공감합니다. 한편, 이 같은 시도가 필요하고 가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음 역시 잘 알기에 발표자 선생님들의 노고로 탄생한 발표문을 미리 읽어 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실제 자료를 치열하게 분석하는 작업의 고됨에 비해 그 결과에 말을 엮는 일은 가벼운 것일 수밖에 없기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소임을 다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채점 자질의 탐색이 연구의 주된 목적인 만큼 이를 위한 분석 틀(<표 2>)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자료에 대한 양적, 질적 분석만으로도 발표문의 내용이 꼭 차 분석 틀을 상세히 기술할 여백이 부족하셨을 듯해 이에 대해 조금 더 청해 듣고자 합니다.

1) 먼저 담화 구조적 자질의 범주와 관련한 의문입니다. 접속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과 문장을 잇는다는 형식적인 기능을 지칭하기에 실상 순서나 지시, 전환, 환언을 그 의미적 하위 범주로 포괄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에 대해 ‘단순’이라는 특정적 표현만으로 범주의 구분이 명확해질 수 있을지요. 현재 담화 구조적 자질에는 형식적 기능(접속)과 문장과 문장 사이의 논리적 의미(순서(순접) 전환(역접), 상세화), 그리고 메타 담화(순서, 지시, 환언), 또 나아가 이들에 대한 맥락이나 전략(나열, (화제) 전환)의 층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컨대 전환에는 역접으로서의 의미기능 층위도 전략으로서 화제 층위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또 발표문에는 나열의 맥락에서 접속 표지를 선택할 수도 있고, 순서 표지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기술하며 ‘나열’을 맥락의 층위에 두고 있는데 ‘나열’ 역시 접속의 의미적 하위 범주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2) 담화 구조적 자질에 연결 어미를 추가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제 전환 표지의 질적 분석에서 언급되고 있기도 하고 전환 표지가 아니더라도 [하] 집단이 접속 표지를 특별한 전략적 이유 없이 단조롭게 사용하는 지점은 접속 부사에 비해 연결 어미의 학습이 더디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연구는 확장적 탐색을 피하고 있으나 종래에는 접속 표지 자질 같은 일부 자질은 한 문장이 몇 개의 절로 이루어지는지 등과 같은 기존의 형식적 자질과도 연계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발표자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3) 사소하게는 지시 표지와 전환 표지를 구분하고 ‘이와 같이’를 지시 표지로 두었는데 그렇다면 ‘이와 달리’와 같은 표현은 어디에 속할 수 있는지요? ‘이와 같이’와 대당하게 보

자면 지시 표지이겠으나 내용 전환을 피한다는 점에서 전환 표지에도 속할 수 있겠습니다.

2. 완화 표지와 쓰기 수준의 상관이나 영향에 대한 논의들을 무척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단순히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리에 정확하게 잘 쓰는 것이 중요함을 논구한 지점에도 공감합니다. 한편, 양태 표현을 연구하면서 토론자가 목도한 언어 현상들 속에서는 완화적 요소들에 대한 평가가 아주 객관적이거나 일반적이기보다 개별 언어 사용자의 정체성이나 성향, 선호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 듯했습니다. 이 발표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4.3.2.1.) 맥락에 정확하게 잘 쓰인 완화 표지도 독자에 따라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별 사례들이 집단적 성향을 이루게 되면 그것이 곧 담화 관습이 되겠습니다. 저는 최근 결국 언어 학습자가 담화 관습의 주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점들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기반한 선택을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이 꾸려져야 하지 않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에서는 또 다른 맥락과 관점이 존재할 수 있을 듯한데 이에 대한 발표자 선생님들의 의견을 청해 듣고 싶습니다.

(이는 메타 담화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3. 보다 사소한 부분입니다만, 지시어 사용에서 구어성을 어떻게 판별해 낼 수 있을까요? 예컨대, 15604번에서는 ‘이러한 사람과’ 혹은 ‘이 같은 사람과’ 정도로 수정하면 구어성이 낮아질 듯한데 앞선 기술에서 [상] 집단이 ‘이/그’와 같은 지시 관형사를 많이 썼다고 하니 그 변별점을 짚어 내기가 쉽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양적인 접근과 질적인 접근이 혼합되어야 하는 점 역시 어려움이겠으나 동시에 연역과 귀납 역시 지속적으로 오가야 하기에 이 같은 연구가 무척이나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려움에도 좋은 발표문을 써 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발표자 선생님과 유사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다른 연구 이론을 활용하거나 다른 연구 영역에 있었던 토론자이기에 되레 왜곡과 오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너르게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토론을 맺습니다.

다국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어휘 유형 분류 및 교육 방안

- 매개 활동을 중심으로 -

이 경 (서울과학기술대)

차 례

1. 머리말
2. 문화 어휘 교육을 위한 매개 활동
3. 문화 어휘 유형 분류 기준 및 분류 결과
4. 문화 어휘 매개 활동의 예
5. 맺음말

1. 머리말

본 연구의 목적은 다국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어휘 교육 방안을 제안하는 데에 있다.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다양한 목적과 동기를 가진 다국적의 한국어 학습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다양성은 날로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다국적 한국어 학습자들의 경우, 자국 문화와의 거리에 따라 한국 문화에 대한 친숙도, 받아들이는 정도가 각기 다르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때 한국어 교실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문화를 제시하고 설명하는 것은 그 효과성의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국적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에 포함된 문화 요소를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차별화된 교수 방법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교육 내용으로서의 문화 어휘를 다양한 분류 기준에 따라 세분화한 후 이에 적합한 교수 활동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언어는 본질적으로 문화 그 자체이자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과 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언어에 숙달되기 위해서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즉, 문화에 대해 아는 것은 곧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자세히는 의사소통의 의도와 목적, 발화에 함축된 의미와 언어 선택의 기제 등을 해석하고 이에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는 언어 교육에서 핵심적인 교육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도 일찌감치 언어와 문화를 연계한 다양한 수업 활동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 성과들이 다수 제시되고 있다. 다만 문화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별개로 언어와 관련된 문화적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교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¹⁾

1) 구분관(2015)에서는 한국어 교육이 좁은 의미에서의 의사소통 교육에 중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 언어문화 교육이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의 문화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문화 어휘를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자 하며 그 일환으로 한국어 문화 어휘를 주제 범주 및 문화 반영의 유형에 따라 분류해 볼 것이다. 또한 학습자들이 각 어휘를 사용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언어적·화용적 정보 등을 함께 도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교수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문화 어휘의 의미 범주와 유형 구분, 화용적 정보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이 연구의 결과는 다국적 한국어 학습자들의 상호문화적 능력, 다중문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한국어 언어·문화 수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문화 어휘 교육을 위한 매개 활동

2.1. 문화 어휘의 개념과 범위

문화 어휘는 한국어로 지시되는 문화적인 지시물이나 특성을 다루느냐 한국어 사용 맥락에서 고려되는 사회문화적인 요소까지를 포함하느냐 등에 따라 다양한 범위에서 논의되어 왔다.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먼저 박영순(1989)에서 언어 교육에서 문화를 다룰 때는 해당 문화권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이며 상징적인 것을 우선 가르쳐야 한다고 제안하며 ‘문화적 기본 어휘’ 선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문화적 기본 어휘에는 “의식주 생활에서 그 문화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전통적이며 상징적인 것, 문학·음악·미술 등 예술 분야의 개념, 작가, 작품, 주인공 등과 같은 고유명사 또는 이 문화의 독특한 양식이나 주제 등, 그 문화에만 있는 독특한 풍습과 놀이를 나타내는 어휘, 대표적인 관용어와 속담, 언어 예절에 관한 것, 어느 시대의 정치·사회 현상을 풍자하거나 상징하는 신어나 유행어 등”이 포함되는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언어를 통해 지시되는 문화적인 요소나 특성뿐만 아니라 높임법, 간접 화법 등과 같은 언어 예절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박영준(2000)은 문화적 어휘를 구분하여 문화와 관련된 어휘나 표현,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휘나 표현으로 정의하였으며 전미순·이병운(2011)에서도 직접적인 사물 및 개념을 지칭하는 ‘문화관련 직접 어휘’와 맥락에 따라 문화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어휘인 ‘문화배경 간접어휘’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한편 번역에서도 어휘에 포함된 문화적 요소는 번역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번역 관련 연구에서도 문화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어휘 분류, 이를 적절하게 번역하기 위한 전략 등에 대한 논의가 다수 이루어진 바 있다. 이근희(2003)에서는 ‘한국문화 관련 어휘’를 “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공동체의 고유한 사회와 문화로부터 비롯되는 특정 어휘나 언어사용 관습”으로 정의하였으며 김혜림 외(2014) 역시 동일한 개념을 한국 문화 용어로 명명하며 “한국인의 삶, 한국인의 삶의 양식과 연관된 다양한 개념과 타문화에서 유래하여 현재는 한국인의 고유한 문화로 자리잡은 것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 어휘는 한 언어를 사용하는 담화 공동체가 고수해 온 고유한 문화와 관습을 반영하는 것이자 이로 비추어 담화 공동체의 생활 양식과 가치관, 언어 관습 등을 엿볼 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 인식의 문제, 교육 내용의 빈약함, 교수·학습 방법의 미비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박소연(2023:163)에서도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 교육이 ‘문화 지식 전달’의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음을 지적하였으며 관련 연구 역시 일상문화와 언어문화적 측면, 갈등 문제 관리 측면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언급하고 있다.

있는 언어 요소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거주하며 한국어 담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어 학습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화 어휘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 심화하는 데에는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나아가 한국어를 제2언어로 사용하지 않는 환경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 한국 문화와 자국 문화의 유사성이 적은 한국어 학습자들의 경우 이러한 문화 어휘에 담긴 문화적 요소를 발견하고 해석하며 적절하게 수용, 표현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앞선 연구들에서 논의하고 있는 바, 즉 언어가 지시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산물 외에도 문화 어휘에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김수은(2019)에서 제기하는 사회문화적 능력의 발현 요소로서 문화 어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언어 문화권에 속한 화자와 청자는 상대방에 속한 사회문화적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매개 언어인 한국어의 사회문화적 변인까지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국적 한국어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에서는 감지와 해석, 발화의 내면적 절차를 따르게 되는데, 이러한 내적 절차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되어 적절한 반응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호 간에 공유된 사회문화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 김수은(2019:72-73)에서는 사회문화적 배경(담화 공동체의 신념 및 공유 가치, 행동 양식), 의사소통 맥락(참여자, 상황, 채널 및 장르), 사회문화 기반 언어(사회문화적 체계성을 띤 언어,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는 언어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문화 어휘가 특정한 문화적 산물을 지시하는 어휘 외에 사회문화적 배경과 유래를 반영하고 있는 어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는 어휘, 사회문화적 의미를 반영하고 있는 어휘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각 구분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사회문화적 배경과 유래를 반영하고 있는 어휘’는 ‘고유 특성 및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 어휘’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는 어휘’는 ‘화용적 의미를 반영하고 있는 어휘’로 대치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2.2. 매개 활동과 문화 어휘

문화 어휘에 대한 고찰과 탐색은 다중언어주의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유럽공동체 참조기준(CEFR, 2001, 2020)에서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²⁾ 다중언어와 다중문화 소통 능력은 “문화 간 매개자로서 역할을 기꺼이 수행하려는 마음을 지니며 새로운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친숙한 언어에 대한 지식을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의사소통 목적을 위해 다른 언어의 요소 및/혹은 언어 변이를 자신의 담화에 통합함으로써 사회언어학적인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조수진 외, 2021:100-101). 이러한 다중언어 및 다중문화 능력의 구조는 다중문화적 레퍼토리³⁾ 구축, 다중언어적 이해, 다중언어적 레퍼토리 구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다중문화적 레퍼토리의 구축은 학습자가 문화적 다양성, 즉 차이에 직면했을 때 문화적, 사회화용적, 사회언어적 관습 및 단서를 바탕으로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인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거나 사회화용적 관습에 따라 반응

2) 2020년 고시된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역시 해당 교육과정이 다중언어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해당 교육과정 1장에서는 “다양한 층위의 언어 지식과 언어 경험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개별 언어들 간의 연관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킨다는 관점, 즉 개별 화자의 언어 목록이 형성된다는 관점”을 따른다고 기술되어 있다.

3) 이때의 레퍼토리(repertoire)가 의미하는 바는 ‘화자가 특정한 상황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적 가능성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안미란, 2010: 165).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본고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문화 어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 사회문화적 배경과 유래, 사회문화적 맥락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 어휘에 대한 교육은 학습자의 “문화적, 사회화용적, 사회언어적 관습 및 단서”에 대한 배경지식, 곧 다중언어 및 다중문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토대⁴⁾를 마련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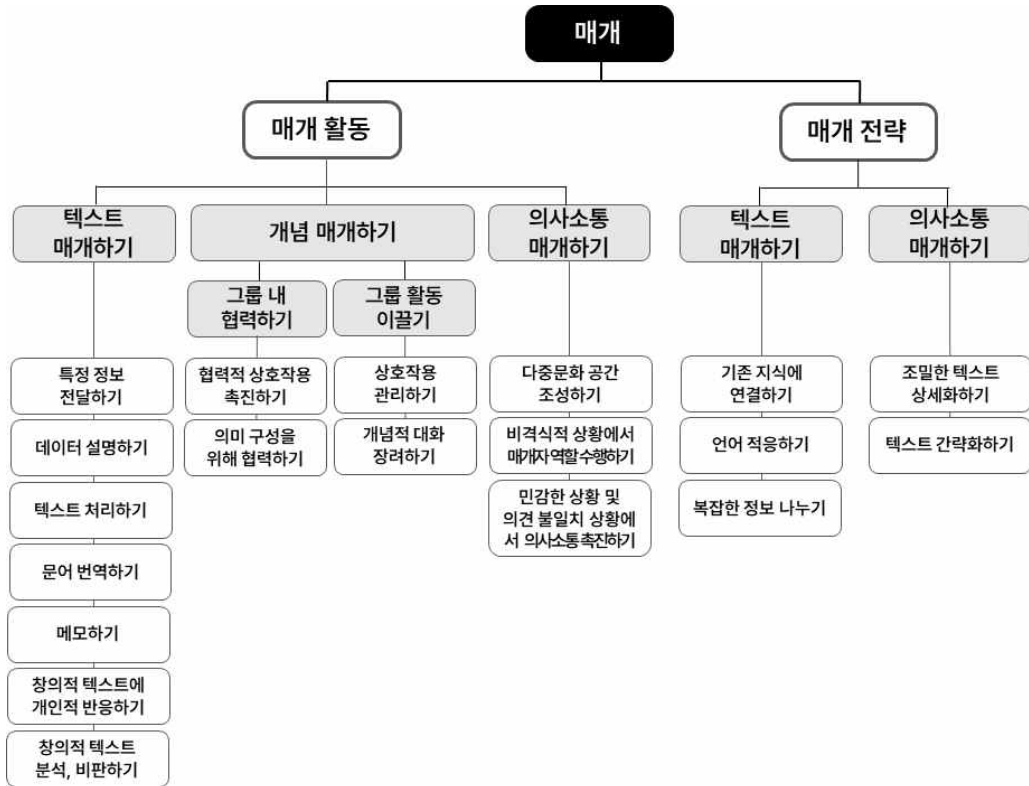
이러한 중요성에 기인하여 지금까지 제2언어 교육을 비롯하여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문화 어휘를 선정하여 교육 내용으로 삼고자 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해 왔다(전미순·이병운, 2009; 심혜령, 2013; 김령·유문명, 2018; 김의숙, 2021). 문화 영역, 주제 범주별로 문화 어휘를 선정한 다수의 목록은 한국어 교육의 내용 마련 및 자료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으나 이러한 어휘들을 한국어 학습자의 다중문화 레퍼토리 내에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 즉, 한국어 학습자의 가용 목록 내에 존재하다가 필요가 발생할 때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차원의 지식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부족하였다.

다수의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학습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이 의사소통 상황에서 적절히 활용되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유의미한’ 경험과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즉, 문화 어휘에 대해 아는 지식이 한국어 의사소통 상황에서 문화적 함의를 가진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담보하지는 않으며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식’ 뿐만 아니라 이를 다양한 맥락에서 적절히 구사할 수 있는 기술과 전략 등이 요구된다⁵⁾.

본고에서는 문화 어휘에 대한 지식을 구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의사소통 활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CEFR의 ‘매개 활동’을 살피고자 한다. 누군가가 새로운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면 이전에 속한 공동체와는 다른 점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동원되는 것이 매개라고 할 수 있다(Coste & Cavalli, 2018). 김정숙(2021)에서는 ‘매개’를 상호작용적이고 협력적인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의사소통 활동으로 정의하며 매개가 수용, 산출, 상호작용 활동과 연계되어 의사소통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문화 어휘가 사용되고 있는 의사소통 맥락을 가정하였을 때에도,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대화 참여자들이 각기 다른 관점에서 메시지나 개념 등을 이해할 경우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의사소통 실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질적인 의사소통 방식, 언어 관습 등으로 인한 갈등도 발생할 수 있다. 매개는 이러한 인지적, 관계적 차원에서의 간극을 좁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있다(CEFR, 2020:90).

4) 안미란(2010:165)에 따르면 다중언어주의에서의 이상적인 화자는 다양한 언어, 문화적 레퍼토리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자로 설정되는데, 이는 다중언어주의에 입각한 접근법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것은 다원적인 언어·문화적 레퍼토리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기술에 의하면 한국어 학습자가 의사소통 상황에서 가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언어, 문화적 목록을 구축, 확장하는 것은 곧 다중언어 및 다중문화적 능력을 배양하는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다.

5) CEFR(2018:32)에서 ‘능력’을 맥락에 의해 주어진 요구에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가치, 태도, 기술, 지식을 동원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 바 있는데(Byram, 2021:13), 여기에서도 지식과 능력을 구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CEFR(2020:90)의 매개 활동 및 전략

문화 어휘에 대한 지식을 갖춘 학습자들에게 매개 활동은 지식을 사용의 영역에서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문화 어휘에 대한 의미와 정보가 교육 ‘내용’에 해당한다면 이를 활용하여 다양하고 실제적인 언어 사용 및 상호작용을 하게 하는 것은 교육 ‘활동’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매개 활동을 인지적, 관계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각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세부적인 활동을 문화 어휘와 연계하면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인지적 차원에서는 의미와 제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자신의 경험이나 기존의 언어-문화적 레퍼토리와 관련짓는 활동이 주가 되는 반면, 관계적 차원에서는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다국적 학습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실제적이고 유의미한 언어 사용 경험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둔다.

<표 1> 문화 어휘 관련 매개 활동

매개 활동의 차원		세부 활동의 예	문화 어휘 관련 활동
인지적 차원	텍스트 매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텍스트(장르)의 정보 전달하기 · 원 텍스트의 목적 및 관점 인식하기 · 초벌 번역하기, 중요 정보 및 뉘앙스 파악하기 · 자신의 경험과 관련시키기, 개인적 해석 더하기 · 합리적인 의견 제시하기 · 서로 다른 텍스트 비교하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어휘의 기본 의미 확인하기 · 문화 어휘에 포함된 사회문화적 배경과 유래 파악하기 · 문화 어휘와 경험 관련짓기 · 문화 어휘가 포함된 텍스트 번역하고 번역한 내용 비교하기 등
관계적 차원	개념 매개하기	그룹 내 협력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어휘가 포함된 의사소통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토론하기 · 상대방의 이해 확인하고 문화 어휘에 대한 이해가 불일치하는 지점 파악하기 · 문화 어휘가 사용된 의도와 의미에 대해 공동으로 추론하기 등
		그룹 활동 이끌기	
	의사소통 매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다른 문화적 규범과 관점에 대해 질문하고 관심 나타내기 · 다양한 사회문화적·사회언어학적 관점 및 규범에 대한 민감성과 존중 표현하기 · 사회문화적·사회언어학적 차이에서 비롯한 오해 예측하고 처리하기 · 민감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다양한 관점 탐구하기 · 공통의 기반 확립하기 · 참가자 간에 가능한 양보 영역 확립하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나라의 문화 어휘에 대해 질문하고 관심 가지기 · 다양한 문화에 대해 존중 표현하기 · 문화권별로 발생할 수 있는 오해, 갈등 예측하고 대응 방안 토론하기 · 서로 다른 문화권의 관점과 규범을 반영하여 문화 어휘 해석하고 번역하기 ·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토론을 통해 공통 기반 파악하기 등

이어서 3장에서는 문화 어휘의 유형별 분류 및 사회문화적 맥락과 의미 정보를 도출함으로써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을 마련할 것이며 4장에서 문화 어휘에 접근하는 매개 활동의 예를 제안하고자 한다.

3. 문화 어휘 유형 분류 기준 및 분류 결과

3.1. 참조 어휘 목록 및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문화 어휘의 목록을 도출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1-4단계)’의 어휘 목록을 참고하였다.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1-3단계)’는 숙달도별로 교육용 어휘를 선정하고 교육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로서 선행 연구의 어휘 선정 목록 7종과 한국어 교재 및 한국어능력시험의 어휘,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의 어휘 목록을 바탕으로 초급 1,836개, 중급 3,855개, 고급 4,950개의 어휘 목록을 선정하였다. 나아가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4단계)’에서는 해당 어휘 목록을 참조하여 동형어 검토, <표준국어대사전>의 새 표제어 추가 항목 검토, 등급 조정 검토, 국내 및 국외의 교재 어휘 분석 후 교차 검토 등을 진행하였으며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목록을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초급 1,835개, 중급 3,855개, 고급 4,945개의 어휘 목록을 선정하였다. 또한 교육 내용으로서 화용 정보의 내용 및 지침을 정비하여 ‘구어, 문어, 강조하는 말, 귀여운 말, 낯잡는 말, 놀리는 말, 높이는 말, 비격식적 표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친

근하게 이르는 말'로 화용 정보를 유형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 현장을 염두에 두고 빈도와 범위, 활용 가능성 및 친숙도, 활용성의 기준으로 도출된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4단계)'의 최종 목록이 연구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연구의 참조 목록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초, 중, 고급의 어휘 목록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중·고급 숙달도의 어휘 목록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 고급 숙달도에 해당하는 어휘 중에서도 문화 요소를 포함하는 어휘가 많이 나타나는 주제 범주⁶⁾인 인간관계와 주거 생활(중급: 집 구하기/집안일, 고급: 주거 생활), 직장생활(중급: 직업과 진로/직장생활, 고급: 직업과 진로/직장생활), 문화 차이(중급: 문화 비교하기, 고급: 문화 차이), 문학과 예술(중급: 한국의 문학, 고급: 예술)에 해당하는 어휘 1,139개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한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어휘 목록을 분류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본고는 선행 연구의 분류 기준을 참고하였으며 어휘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독립된 범주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귀납적으로 분류 기준을 수정,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류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2> 주제에 따른 분류 기준(대범주와 소범주)

대범주 ⁷⁾		소범주
표층문화	물질문화(유형/무형)	유형
		무형
중층문화	사회문화(사회 관습 및 제도, 관계, 종교 등)	개인적 관계(가족, 친지 등)
		사회적 관계(직장 등)
		종교 생활
		일상생활(의식주)
		사회적 행위 및 태도
	사회적 제도 및 관습	
심층문화	정신문화(세계관, 신념, 가치관 등)	

본고에서는 일차적으로 어휘 목록을 검토하며 문화 어휘 유무를 표시하였으며 이를 주제 범주별로 분류하였다. 더불어 개별 문화 어휘에 반영된 문화의 유형과 화용 정보를 상세히 입력하였으며 해당 어휘를 교육할 때 효과적일 수 있는 제시 방식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정리하여 목록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때 반영된 문화 유형의 분류 기준은 주제 범주의 메타 어휘를 참고하여 귀납적으로 설정하였으며 화용 정보는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4단계)'의 분류 항목을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화용 정보에 '구어, 문어, 강조하는 말, 귀여운 말, 낮잡는 말, 놀리는 말, 높이는 말, 비격식적 표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친근하게 이르는 말'을 제시하고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구어/문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 범주는 삭제하였다. 또한 '귀여운 말'을 '친근하게 이르는 말'에 포함시켰으며 '낮잡는 말'은 '겸손하게 이르는 말(불효자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낮추는 말'로 수정하였다.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경우 '함축적인 의미로 쓰이는 말'로 수정하였으며 의미가 바뀌거나 확장되어 새로운 맥락에서 활용되는 말을 '새로운 의미로 쓰이는 말'

6) 의, 식, 주 중 주생활에 해당하는 주거 생활, 사회생활에 해당하는 인간관계와 직장 생활, 문화 차이, 문학 및 예술을 선정하여 문화의 다양한 측면이 두루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7) 대범주를 표층문화, 중층문화, 심층문화로 구분한 것은 김혜림 외(2014)의 분류 기준을 참고한 것이며 소범주의 경우 Nida와 Newmark의 분류 기준과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4단계)'의 주제 범주를 참고하였다.

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또 독립된 범주로서 다른 언어와 대응하기 힘든 문화 요소를 담고 있는 어휘를 ‘고유한 의미로 쓰이는 말’로 분류하였고, 사자성어 중 현대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말은 ‘예스러운 말’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정하여 활용한 화용 정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 본 연구에서 수정한 화용 정보 목록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4단계)의 화용 정보	수정한 화용 정보
구어(거, 거기, 그거, 이거)	구어/문어
문어(저곳, 그녀, 이곳저곳)	
강조하는 말(다시금, 단돈, 더더욱, 돌아다보다, 뻔치다 등)	강조하는 말
낮잡는 말(압제, 바보, 노릇, 꼴, 아비 등)	높이는 말/낮추는 말
놀리는 말(호박)	
높이는 말(산소, 새댁, 여사, 아버님 등)	
비격식적 표현(아빠, 엄마)	격식적인 말/비격식적인 말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구멍, 귀신, 기둥, 난리, 날아가다 등)	함축적인 의미로 쓰이는 말
친근하게 이르는 말(마누라)	친근하게 쓰이는 말
귀여운 말(외동딸, 외동아들)	
	새로운 의미로 쓰이는 말
	고유한 의미로 쓰이는 말
	예스러운 말

위의 항목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와 같은 방식으로 각 어휘를 분류하였으며 어휘와 함께 교육되어야 할 정보인 어원, 반영된 문화 유형, 화용 정보, 어휘 제시 방안을 입력하였다.

주제 범주	어휘	품사	수준	갈잡이말	문화 어휘 소범주	어원	반영된 문화 유형	사용	화용 정보	어휘 제시	
인간관계	감언이설	명사	고급		○	사회적 행위 및 태도	한자어	문화적 유래 포함 어휘	평어	옛스러운 말	사자성어
인간관계	군01/군02	대명사,으급		김 철수 군	○	사회적 관계	한자어	화용적 맥락 반영 어휘	평어	격식적인 말	호칭어
인간관계	년생	의존명사	고급	팔십년생	○	사회적 제도 및 관습	한자어	사회문화 반영 어휘	평어	기본 의미	유의어
인간관계	노릇	명사	고급	부모 노릇, 선생	○	사회적 행위 및 태도	고유어	화용적 맥락 반영 어휘	평어	낮추는 말	유의어
인간관계	노처녀	명사	고급	노처녀 히스테리	○	사회적 관계	한자어	화용적 맥락 반영 어휘	평어	낮추는 말	유의어
인간관계	노총각	명사	고급	노총각 아저씨	○	사회적 관계	한자어	화용적 맥락 반영 어휘	평어	낮추는 말	유의어
인간관계	누이	명사	고급	사촌 누이	○	개인적 관계	고유어	화용적 맥락 반영 어휘	평어	친근하게 이르는 말	호칭어
인간관계	대들다	동사	고급	어른에게 대들다	○	사회적 행위 및 태도	고유어	화용적 맥락 반영 어휘	평어	낮추는 말	유의어
인간관계	뒷바라지	명사	고급	아들 뒷바라지	○	사회적 행위 및 태도	고유어	사회문화 반영 어휘	평어	강조하는 말	유의어
인간관계	또래	명사	고급	또래 친구	○	사회적 관계	고유어	화용적 맥락 반영 어휘	평어	친근하게 이르는 말	유의어
인간관계	마누라	명사	고급	마누라를 얻다	○	개인적 관계	고유어	화용적 맥락 반영 어휘	평어	낮추는 말	유의어
인간관계	말이	명사	고급	말이로 태어나다	○	개인적 관계	고유어	사회문화 반영 어휘	평어	함축적인 의미로 쓰이는 말	유의어

<그림 2> 문화 어휘 분류 작업 목록의 일부

이러한 작업 과정을 통해 문화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문화 어휘를 최종 214개 도출하였으며 이를 주제 범주별, 숙달도별, 어원별, 품사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문화 어휘 분류 결과(숙달도, 어원, 품사별)

대범주		숙달도			어원					품사					
		중급	고급	소계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복합	소계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기타	소계
표층문화	물질문화(유형/무형)	1	18	19	8	9	0	2	19	19	0	0	0	0	19
중층문화	사회문화(사회 관습, 제도 및 규범, 인간관계, 종교 등)	72	98	170	49	110	5	6	170	159	4	0	1	6	170
심층문화	정신문화(세계관, 신념, 가치관 등)	9	16	25	4	21	0	0	25	22	0	1	0	2	25
합계		82	132	214	61	140	5	8	214	200	4	1	1	8	214

3.2. 분류 결과

3.3.1. 주제 범주에 따른 어휘 분류 결과

본고에서 구분한 주제 범주에 따라 어휘를 분류한 결과 표층문화에 해당하는 물질문화에는 총 19개의 어휘가 도출되었으며 중층문화인 사회문화 관련 어휘는 총 170개, 심층문화에서 정신문화와 관련된 어휘로 총 25개 어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사회문화 관련 어휘가 많이 도출된 것은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어휘 목록의 주제 범주가 인간관계 및 진로와 직장, 주거 생활 등 사회문화에 해당되는 주제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결혼이나 환갑, 장례 등의 사회적 제도와 ‘함을 받다, 차례를 지내다, 추석 성묘’ 등과 같이 관습에 해당하는 어휘가 총 45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뵈바라지, 노릇, 접대 등), 태도(대들다, 티격태격하다 등)와 관련된 어휘가 40개로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다.

<표 5> 주제 범주별 어휘 수

대범주		소범주	
표층문화	물질문화(유형/무형)	유형	10
		무형	9
중층문화	사회문화(사회 관습 및 제도, 관계, 종교 등)	개인적 관계(가족, 친지 등)	19
		사회적 관계(직장 등)	30
		종교 생활	10
		일상생활(의식주)	26
		사회적 행위 및 태도	40
		사회적 제도 및 관습	45
심층문화	정신문화(세계관, 신념, 가치관 등)	25	
총계			214

3.3.2. 반영된 문화적 요소에 따른 분류 결과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 어휘가 어떤 문화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인 어휘 목록에서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는 어휘가 102개로 가장 많았는데,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에는 해당 어휘가 사용되는 의사소통 맥락, 즉 참여자와 상황 등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또한 ‘눈치, 아랫사람, 정, 체면, 신명’ 등과 같

이 한국의 고유한 특성과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 어휘가 41개, ‘사나이, 숙녀, 아가’와 같이 어감, 사용 의도 등에 따른 화용적 의미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어휘가 41개로 다수 도출되었다.

<표 6> 반영된 문화 요소의 유형에 따라 분류된 어휘의 예

반영된 문화의 유형	개수	어휘 예
물질문화 지시어	21	민속놀이, 고무신, 관, 널뛰기, 묘, 상여, 민요, 사물놀이, 연날리기, 탈춤, 가면, 가야금, 거문고, 국보, 국악, 농악, 벽화, 북, 붓, 판소리, 피리
사회문화적 맥락 반영 어휘	102	미팅, 회식, 년생, 상견례, 선후배, 조의금, 증매, 처가, 회갑연, 뒤풀이, 상사, 술자리, 회식, 인턴, 뒷골목, 부동산, 전세, 하숙, 분리수거, 웰빙, 기독교, 신세대, 경조사, 관혼상제, 예물, 대보름 등
고유 특성 및 가치관 반영 어휘	41	눈치, 아랫사람, 인심, 정, 체면, 끈끈하다, 불효자, 상부상조, 위계질서, 학벌, 혈연, 효녀, 유교, 가부장적, 금기, 신명, 태몽, 풍자, 해학적 등
문화적 유래 포함 어휘	9	감언이설, 갑, 새옹지마, 칠전팔기, 까치, 도깨비, 신화, 영웅, 전설
화용적 의미 반영 어휘	41	사나이, 숙녀, 아가, 아드님, 잔소리, 젊은이, 군, 노처녀, 대들다, 또래, 마누라, 벗, 아버지, 양채, 여사, 오누이, 집사람, 총각, 밥벌이, 먹고살다, 백수, 중 등

이처럼 문화 어휘는 의사소통 맥락과 발화 의도, 어감 차이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는 한국어 학습자에게 어휘를 제시하거나 활용할 때 함께 다룰 수 있는 교육 내용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대상을 지시하는 어휘(실장, 경비, 베란다 등)나 물질문화 지시어(민속놀이, 고무신 등)에 해당하는 어휘 75개를 제외한 139개의 어휘를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문화 어휘와 함께 교육할 수 있는 화용 정보와 해당되는 어휘의 예

화용 정보	개수	어휘 예
격식적인 말/비격식적인 말	19	군, 양, 모친, 조부모, 하객, 문상 / 바깥일, 초상, 상갓집, 처가 등
높이는 말/낮추는 말	37	대접, 아드님, 어른신, 웃어른, 새댁, 여사, 집대, 스님, 빈소 / 어린애, 노릇, 노처녀, 노총각, 마누라, 아버지, 양채, 집사람, 먹고살다, 백수, 중 등
강조하는 말	16	뒷바라지, 삼삼오오, 천생연분, 평생 직장, 팔방미인 등
친근하게 쓰이는 말	6	아가, 누이, 또래, 벗, 오누이, 옹기종기 등
새로운 의미로 쓰이는 말	7	미팅, 선을 보다, 갑, 뒤풀이, 웰빙 등
함축적인 의미로 쓰이는 말	27	만이, 핏줄, 담, 뒷골목, 살림, 우물, 부처, 영웅, 지옥, 천국 등
고유한 의미로 쓰이는 말	26	인심, 인연, 정, 체면, 도깨비, 신명, 태몽, 함 등
에스러운 말	5	백년해로, 현모양처, 새옹지마 등

3.3.3. 어휘 제시 방식에 따른 분류 결과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 어휘를 제시하는 방식을 <표 8>과 같이 정리하였다. 유의어/반의어와 함께 어휘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어휘에는 ‘격식적인 말/비격식적인 말, 높이는 말/낮추는 말, 친근하게 쓰이는 말’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를테면, ‘아버지’의 경우 ‘아버지, 아버지님, 아빠’ 등과 같은 유의어 및 반의어 ‘어미’와 함께 제시하면 어떠한 의사소통 맥락에서 사용되는 단어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밥벌이’는 ‘생업, 일자리, 직

업’ 등과 같은 유의어와 비교하여 제시할 경우 그 어감의 차이를 더 명확히 느낄 수 있다.

한편 원래의 의미가 새로운 맥락에서 사용되거나(미팅, 선을 보다), 함축적인 의미로 쓰이는 말(뒷골목, 살림 등)의 경우 다의어로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 예로 ‘뒷문’의 기본적인 의미는 ‘뒤나 옆으로 난 문’인데, 이러한 기본 의미는 ‘어떤 문제를 정당하지 못한 방법이나 수단으로 해결하는 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파생적인 의미와 서로 의미적 관련성을 가진다. 따라서 기본 의미와 파생 의미 목록을 가진 다의어로 제시할 경우 의미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눈치가 빠르다, 눈치를 보다’, ‘답을 지다, 답을 쌓고 벽을 친다’와 같이 주로 연어적 구성이나 관용구, 속담의 형태로 사용되는 어휘의 경우, 공기하는 어휘를 함께 제시하거나 관용구나 속담이 전달하는 제3의 의미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이해에 효과적이다.

이외에도 호칭어는 의사소통 맥락에 따라 달리 사용되어야 하므로, 격식적인 상황인지 비격식적인 상황인지, 대화 참여자는 누구인지 등에 대한 화용 정보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사자성어와 의성의태어는 표현 어휘로 따로 구분하여 제시해야 할 필요성은 낮으나, 텍스트나 담화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이해의 차원에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사자성어는 문화적 유래와 함께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의성의태어인 경우 의성의태어가 가지는 특성(첩어적 구성, 강조의 의미 등)과 함께 어떤 소리나 모양을 나타내는 어휘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좋다.

<표 8> 문화 어휘의 유형에 따른 어휘 제시 방식

어휘 제시 방식	어휘 예
유의어/반의어	사나이, 숙녀, 젊은이, 노처녀, 벗, 아버지, 마누라, 조부모, 혈연, 밥벌이 등
다의어	미팅, 끈끈하다, 뒷골목, 뒷문, 살림, 앞길 등
관용어, 연어	눈치, 인심, 인연, 체면, 중매, 답 등
호칭어	아가, 아드님, 누이, 군, 양, 여사, 팀장, 실장 등
사자성어	감언이설, 백년해로, 상부상조, 삼삼오오, 유유상종 등
의성의태어(감각어)	웅기웅기, 티격태격하다 등

4. 문화 어휘 매개 활동의 예

지금까지 중, 고급 숙달도에 해당하는 문화 어휘를 주제 범주별, 반영된 문화적 요소별로 그 유형을 분류해 보았으며 이러한 문화 어휘와 함께 교육할 필요가 있는 화용 정보와 이를 교육할 때의 제시 방식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이 장에서는 문화 어휘와 관련한 매개 활동의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앞서 2.2.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매개 활동은 서로의 관점과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지점이 존재할 때 활발히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언어-문화권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유 특성 및 가치관 반영 어휘’ 목록에 해당하는 어휘인 ‘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한국인의 고유한 특성과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 문화 어휘인 ‘정(情)’은 타 언어와 일대일 대응하지 않으며 문화권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다국적 한국어 학습자들로 구성된 한국어 교실에서 문화 어휘 ‘정’을 가르치는 상황을 가정해 보면, 먼저 인지적

차원에서는 “미운 정, 고운 정”과 같이 ‘정’이 내포하는 의미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경우 쉽게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텍스트를 제시할 수 있다. 앞서 인지적 차원에서는 문화 어휘의 의미와 제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자신의 경험이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언어·문화적 레퍼토리와 관련짓는 활동이 주가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학습자들이 해당 텍스트를 여러 번 읽은 후에는, 개인 또는 소그룹으로 해당 텍스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정보 및 메시지에 대해 파악하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텍스트에 담긴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인적인 일화를 함께 떠올리게 할 수 있다. 그다음으로는 자신의 문화권에 존재하는 단어나 표현 등을 총동원하여 해당 텍스트를 초별로 번역하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언어·문화적 레퍼토리를 능동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초별로 번역 활동을 진행한 이후에는 짝 또는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서로 다른 문화권에 따라 ‘정’을 어떻게 번역하였는지 상호 비교하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관계적 차원에서는 개념 매개하기와 의사소통 매개하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 두 활동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룹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관계적 차원에서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며 실제적이고 유의미한 언어 사용 경험을 늘리는 데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념 매개하기 활동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들이 동료 학습자들과 함께 ‘정’을 왜 이와 같이 번역했는지를 묻고 답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정’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가장 가깝게 번역된 것은 무엇인지 뽑아보게 하는 등 동료가 번역한 내용의 적절성과 수용 가능성을 평가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특히 한국어 학습자 간에 서로 다른 모국어를 가질 경우 언어·문화적 장벽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한국어 학습자들은 자신이 번역한 내용을 다시 한국어를 매개로 전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다중언어와 문화 레퍼토리를 탐색하며 횡단하는 언어 사용의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동료 학습자의 설명을 듣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재설명을 요구하도록 하는데, 이를 통해서 매개 활동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지점을 상호 간에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의사소통 매개하기 활동에서 학습자들은 자신의 언어에 존재하는 ‘정’과 유사한 개념에 대해 탐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정’의 의미에 대해 각자가 인식한 바를 확인하고 차이를 조율해 가는 과정은 학습자 간의 공통의 이해를 수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문화권에 따라 ‘정’을 바라보는 인식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고 이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는 활동도 진행할 수 있다. 이를테면 “기업 또는 조직 문화에서 ‘정’이 필요할까?” 또는 “친하지 않은 이웃 사람이 음식을 나눠 먹자고 종종 현관문을 두드린다면?”과 같은 주제에 대해 토론하게 함으로써 서로 다른 관점과 입장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이때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속한 언어·문화권의 관점에서 ‘입장을 바꾸어’ 상황을 재해석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문화 어휘 '정'을 매개하는 활동 구성안

교수 절차		내용	세부 교수 활동
인지적 차원	텍스트 매개하기	· 문화 어휘 '정'이 포함된 텍스트 제시	· “우리가 남이가!”, “미운 정, 고운 정” 등 문화 어휘 '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칼럼 또는 동영상 콘텐츠를 제시함
		· 텍스트의 핵심 내용에 대해 파악하기	· 개인 또는 소그룹으로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여 텍스트의 주제와 주요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자신의 경험과 관련시키기, 개인적 해석 더하기	· 문화 어휘 '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인 일화 등을 떠올리게 하고 자신의 언어로 해당 문화 어휘를 재해석하게 함
		· 자신의 문화권에서 수용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언어로 초벌 번역하기	· 자신의 문화권에 존재하는 어휘나 표현을 동원하여 '정'이 포함된 텍스트를 번역하게 함
		· 문화권에 따라 달리 번역된 내용 비교하기	· 짝 또는 소그룹 활동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권에 따라 '정'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비교하게 함
관계적 차원	개념 매개하기	· 번역한 내용에 대해 묻고 답하기 · 번역이 잘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의견 제시하기 ·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재진술 요구하기	· 상대방의 문화권에서 '정'이 어떻게 번역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묻고 대답하게 함 · '정'이 가진 독특하고 고유한 의미에 비추어 번역한 내용의 적절성, 수용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게 함 · 번역한 내용 중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하게 함
	의사소통 매개하기	· '정'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 공통의 이해 수립하기 · '정'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적 관점에 대해 탐구하기 · '정'에서 비롯된 구체적인 행위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오해와 갈등에 대해 예측하기	· 서로 다른 문화권에 존재하는 비슷한 표현 또는 개념에 대해 질문하고 관심 가지기 · 문화권별로 '정'에 대해 느끼는 관점과 태도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 표현하기 · 문화 간 유사한 점과 다른 점을 탐색하며 양보할 수 있는 영역('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은 어디까지일까?) 확립하기 · 기업 또는 조직에서 '정'이 강조되는 경우의 부작용, '정'에서 비롯된 행동을 사생활 침해, 지나친 참견으로 느끼는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 이유에 대해 토론하기

5.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다국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어휘 교육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화 어휘의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교육 내용으로서 함께 제시할 수 있는 화용 정보와 제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문화 어휘에 대한 지식이 실제 언어 사용의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인지적, 관계적 차원에서의 매개 활동이 유의미함을 밝히고 그 활동의 구성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문화 어휘의 목록을 선정하고 그 유형을 분류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문화 어휘에 포함된 문화의 유형, 해당 어휘를 사용하는 차원에서 알아야 하는 화용적인 정보까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 연구에서는 문화 어휘가 한국어 학습자들의 다중언어·다중문화 능력을 배양하는 기본적인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견지에서 문화 어휘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적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도 차별화를 가진다. 기존의 연구들이 문화 어휘를 한국어 학습자의 다중 문화 레퍼토리 내에 안착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가지는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다만 전체 어휘 목록을 분석하지 않고 문화 어휘의 유형을 탐색하는 정도에서 그쳤다는 점,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매개 활동을 실행해 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추후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문화 어휘를 매개하는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고 그 효용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강현화 외(2012),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1단계)》, 국립국어원.
- 강현화 외(2013),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2단계)》, 국립국어원.
- 강현화 외(2014),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3단계)》, 국립국어원.
- 구분관(2015), 한국어 어휘에 나타나는 언어문화에 대한 학습자와 교수자의 인식 연구: 미국 워싱턴 D.C.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1-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65-102쪽.
- 김령·유문명(2018),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어휘 선정 연구, 《리터러시 연구》 9-4, 한국리터러시학회, 367-407쪽.
- 김수은(2019), 한국어 의사소통을 위한 사회문화적 배경 지식의 개념과 구성 요소 설정 연구, 《한국어 교육》 33-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53-75쪽.
- 김의숙(2021),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 문화어휘장 구축에 관한 연구, 《문화와융합》 43-12, 한국문화융합학회, 201-220쪽.
- 김정숙(2022), 한국어 교육에서의 매개 활동 및 전략: CEFR의 매개(mediation)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33-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59-79쪽.
- 김한란 외(2010), 《언어 학습, 교수, 평가를 위한 유럽공통참조기준》, 한국문화사.
- 김혜림 외(2014), 《문화용어 번역 실태조사 및 번역 방안 연구》, 국립국어원.
- 박영순(1989), 제2언어교육으로서의 문화교육, 《이중언어학》 5, 이중언어학회,
- 박영준(2000), 한국어 숙달도 배양을 위한 문화적 어휘·표현의 교육, 《한국어 교육》 1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89-110쪽.
- 심혜령(2013),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지식 기반 어휘 제시 연구, 《문법 교육》 19, 한국문법교육학회.
- 안미란(2010), 문화 정책의 맥락에서 파악한 유럽평의회와 다언어주의와 다중언어주의 개념, 《외국어로서의 독일어(DaF in Korea)》 26, 한국독일어교육학회, 153-177쪽.
- 이근희(2008), 《번역의 이론과 실제》, 한국문화사
- 전미순·이병운(2009), 초급 단계 문화어휘 선정과 문화 교육 방안, 《한국언어문화학》 6-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 전미순·이병운(2011), 한국어 문화어휘에 관한 일고찰: 문화어휘 분석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7-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91-210쪽.
- 조수진 외(2021), 한국어교육에서 다중언어능력 및 다중문화능력의 개념과 적용, 《언어와 문화》 17-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89-114쪽.
- Council of Europe(2018a),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learning, teaching, assessment, www.coe.int/lang-cefr.
- Council of Europe(2018b), Collated Representative Samples of Descriptors of Language Competences Developed for Young Learners, www.coe.int/lang-cefr.
- Council of Europe(2001),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Learning, teaching, assessment,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Strasbourg.
- Council of Europe(2020),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Learning, teaching, assessment: Companion Volume,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Strasbourg.
- Newmark, P.(1988), Textbook of Translation, London/New York: Prentice Hall.
- Nida, E. A.(1964), "Linguistics and ethnology in translation-problems" In Language in Culture and Society : a reader in linguistics and anthropology, Edited by Hymes, Dell H, 90-100, New York: Harper & Row.

■ 토 론

“다국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어휘 유형 분류 및 교육 방안: 매개 활동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정대현(협성대)

이 연구에서는 다국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어휘 교육 방안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한국어 교실에서 사용하는 문화 교육 방법이 효과성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착안하여 기존의 문화 교육 방안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수 방법과 전략을 ‘문화 어휘’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개 활동이라는 구체적인 교수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문화 어휘’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연구 주제는 이 연구 분야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필요해 보인다. 논문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여쭙고 연구자의 고견을 듣는 방향으로 관련 논의에 임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어 교실에서 ‘일관된 방식으로 문화’를 제시하고 설명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일관된’이라는 의미는 긍정적으로 사용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긍정의 의미를 가지는 ‘일관된’이라는 의미가 부정적으로 읽히고 있다. 아마도 그러한 이유는 뒤에 따라 나오는 ‘효과성’의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기술 때문이다. 일관된 교육 방식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규칙에 따른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볼 때 ‘일관된 교육 방식에 따른 예측 가능한 교육적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필자는 ‘효과성’을 재고해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그러한지 알고 싶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문화적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교수하는 방안으로 문화 어휘를 제안하고 있다. 특히 문화 어휘를 범주에 따라서 분류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그런데 문화 어휘를 주제별, 범주별, 문화 반영의 유형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 어떻게 문화를 교육하는 교수 방법과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다. 특히 4장에서는 문화 어휘 매개 활동의 예를, ‘한국인의 정’을 문화 어휘로 선정하면서 문화권마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화 교육 활동으로 적절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상이한 내용을 가진 문화 어휘가 수업 활동으로 제시하는 것은 다국적 학습자에게 유익하고 활동적인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수업 방안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셋째, 3장에서는 문화 어휘를 ‘주제별’, ‘문화 요소’, ‘화용 정보’, ‘문화 어휘의 유형’으로 분류한다. 분류의 목적은 2장에서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기술하였다. 4가지로 분류한 유형을 고찰하면, 분류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어휘 수 그 자체만으로는 절대량이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문화 어휘가 한 단어가 가지는 질량의 값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민속놀이, 회식, 가부장적, 잔소리와 같은 문화 어휘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그 내용을 모두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매개 활동을 통해서 풀어낼 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문화 어휘 교수’는 현재 한국어 교재에서 문화 활동을 교재의 본 영역이 아닌 부속 영역에서 다루는 것으로

는 충분하지 않다. 화제, 기능, 주제 중심의 혼합형 교수요목으로 구성된 교재로는 문화 어휘가 가지는 함량을 다루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한국어 교육에 접목하면 좋을지 의견을 여쭙는다. 다시 말하면, 언어 중심의 문화 교수가 내용 중심의 문화 교수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도 읽히고 있는데 이는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수가 언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과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문화 어휘를 한국어교육에 맞게 분류하여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도출하고자 하였고 이에 더 나아가 매개 활동을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어 문화 교육에 기여할 것이다.



2분과 통사론

말뭉치 분석을 통한 동사 ‘때리다’가 쓰인 한국어 구문 유형 연구

유 세 인(경희대)

차 례

1. 서론
2. 선행 연구 검토
3. ‘때리다’가 쓰인 구문의 유형과 특성
4. ‘때려’가 쓰인 구문의 특성
5. 결론

1. 서론

이 연구는 말뭉치에 나타난 동사 ‘때리다’의 구문 유형을 확인하고 각각의 구문이 지닌 통사·의미적 특성을 분석해 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때리다’가 문장에서 술어로 기능하는 경우와 여타 동사와의 연결 구성 중 ‘때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나누어 말뭉치 용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때리다’의 뜻풀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¹⁾

- (1) ㄱ.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손이나 손에 쥔 것으로 치다.
예. 아기 엄마가 아기의 볼기를 때렸다.
a.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물건으로, 또는 어떤 사람이 물건을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에) 세게 부딪치거나 치다.
예. 선생님은 회초리로 우리들의 종아리를 때리셨다.
예. 상사는 사병들의 엉덩이에 야구 방망이를 때렸다.
- ㄴ.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이나 사람을) 세차게 와 부딪치다.
예. 파도가 바위를 때렸다.
- ㄷ. (사람이나 사물이 가슴을) 크게 감동시키거나 심한 충격을 주다.
예. 껌팔이 소녀의 처량함이 그의 가슴을 때렸다.
- ㄹ. (소리가 귀를) 자극적으로 울리다.
예. 그의 말은 내 귓전을 때리며 신경을 건드렸다.
- ㅁ. {속된 말로} (사람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여 잘못이나 결함을 날카롭게 비난하다.
예. 그 문제를 방송에서 한 번 때리면 어떻게 되는 줄이나 알아?

1)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는 (1ㄹ)을 제외한 나머지 6개 항목과는 유사하다. 그러나 일부 항목의 예문이 문형과 대응되지 않거나 예문 자체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다루지 않았다.

쓰인 465개의 문장과 ‘때려’로 쓰인 123개의 문장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동사 의미에 대해 구문적으로 접근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동사 ‘때리다’ 구성과 연결어미 ‘-어’를 통해 ‘때리다’가 선행하는 ‘때려’ 구성에 대해 통합적 결합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구문의 유형과 특성을 논의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때리다’ 및 ‘때려’의 공기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언어그래프(Collocation Graph)로 시각화해 본다.³⁾ 그리고 이를 통해 확인한 구문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말뭉치의 추출에는 Python, 추출된 말뭉치의 형태소 분석에는 Utagger(울산대형태소분석기), ‘때리다’와 공기하는 요소의 언어값 산출에는 AntConc, 네트워크 시각화에는 Ucinet의 Netdraw를 활용하였다.

2. 선행 연구 검토

구문을 언어의 기본 단위로서 인정하고 형식과 의미의 쌍(form-meaning pair)으로 설명한 Goldberg(1995:4)의 정의 이후 구문에 대한 정의의 핵심은 형식과 의미의 결합에 있다. 이는 한국어에 대한 다양한 쟁점의 구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다.⁴⁾ 국내 구문문법 탐구의 현황을 살펴본 정주리·정연주(2019)에서는 구문 연구의 단위를 몇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소개하였는데, 그중 논항 구조 구문에 대한 논의는 동사의 독립적인 특성만으로는 형식적 또는 의미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장들에 주목한 것이다. 이에 속하는 이른 시기의 연구인 정주리(2005)에서는 동사 ‘가다’의 논항으로 ‘NP을/를’ 명사구가 결합하는 표현을 이동에 따른 목적성을 실현하기 위한 구문으로 보았다. 즉 ‘칠수는 큰 도시를 갔다’에 비해 ‘칠수는 군대를 갔다’가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이유는 ‘가다’에 선행하는 명사구가 처소보다는 ‘가다’ 이동의 목적이 되는 사태를 암시하는 명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NP을/를 가다’ 구문에서 선행 명사가 서술성 명사일 경우에는 조사가 생략되어 형태적 구성을 이루기도 하며, 그러한 형태적 축약이 굳어지면 ‘칠수가 작년에 장가갔다’와 같은 관용구를 형성할 수도 있다.

‘때리다’는 ‘NP을/를’ 논항을 필수적으로 가진다는 점에서 ‘가다’와는 기본적인 논항 결합 양상이 다르지만, 기본의미에서 수의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NP로’ 논항이 확장된 의미에서는 불가하며 목적어인 ‘NP을/를’도 물리적 타격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구문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동사와 문장 패턴(구문)의 상호작용을 연구한 정병철(2014)에서는 이러한 ‘때리다’의 의미 확장 양상을 점검하면서 ‘매(회초리)를 때리다’와 같이 도구(instrument)가 목적어로 오는 경우는 ‘때리며 훈계하다’의 의미를 지닌 구문을 이룬다고 보았다. 또한 ‘곤장을 때리다’는 역시 도구가 목적어에 온 경우이나 ‘매(회초리)를 때리다’는 교육이 목적인 반면 이 문장은 처벌이 목적이라는 점에서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서울시가 나에게 과태료를 때렸다’는 처벌과 징계라는 목적이 드러나는 ‘때리다’의 사용이

2) TV 프로그램 제목인 ‘골 때리는 그녀들’이 말뭉치에 나타난 경우도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골때리다’의 ‘골’과 축구의 득점을 의미하는 ‘골(goal)’이 동음이의어라는 점을 활용한 중의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그 의미를 어느 하나에 한정할 수 없으므로 분석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3) 남신혜(2023)에서는 언어를 구성하는 언어 요소들을 노드(nodes)로, 이러한 노드들 사이의 관계를 엣지(edges)로 표현하는 언어그래프를 통해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의 보조용언 ‘나가다’에 대한 사용 양상을 시각화한 바 있다.

4) 정연주(2015)에서는 구문을 “연쇄적 형식에 의미가 직접 연합되어 있는 기호로서의 덩어리 단위”로 정의하였다. 구문을 “형식과 의미(기능)의 기호적 결합”으로 본 김진웅(2019)이나 “형식과 의미의 대응물”로 소개한 조경순(2019) 등 구문의 개념을 정리한 연구는 모든 형식 단위에서의 의미의 직접 결합을 핵심으로 보았다.

이차적으로 확장된 문장이라는 점에서 ‘Y에게 X(과태료, 벌금)을 Verb’라는 구문의 의미가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1장에서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국수 한 그릇을 때렸다’, ‘문의 전화를 때려봤다’, ‘도망가려던 사람들조차 명을 때렸다’의 문장에는 구문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정연주(2019)에서는 정병철(2014)에 대해 구문이 동사 의미를 주도하는 현상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일탈적이기보다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국수 한 그릇을 때렸다’는 ‘명사구 수관형사 의존명사 때리다’ 구문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장으로, 이 구문에서는 ‘소주 한 병 때리다’, ‘사우나 한 방 때리다’ 등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의 ‘때리다’는 행위를 전투에 빗대는 은유 기제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문의 전화를 때려봤다’는 전화 연결을 위해 전화기 버튼을 누르는 동작을 ‘때리다’를 통해 나타낸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박진호(2016)에서 다룬 ‘산에 터널을 뚫다’라는 문장에서 ‘뚫다’로 터널을 만드는 행위 전반을 나타내는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정연주 2019:148 참고). 즉 ‘전화를 때리다’와 같은 표현에는 ‘전화하다’라는 행위의 일부 과정이 행위 전체를 대신하게 되는 환유 기제가 적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정연주(2019)에서는 정병철(2014)의 예문 중 ‘도망가려던 사람들조차 명을 때렸다’를 마저 다루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동작성을 드러내는 ‘NP을/를 때리다’ 자체를 구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명을 때리다’의 목적어인 ‘명’이 형용사 ‘멍하다’의 어근에서 온 것으로 본다면 ‘하다’를 대체한 ‘때리다’는 상태를 이루게 하는 동작을 강조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조사가 생략된 ‘NP때리다’의 형태적 구성이 관용구로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⁵⁾

3. ‘때리다’가 쓰인 구문의 유형과 특성

이 장에서는 문장에서 단독으로 술어로 기능하는 ‘때리다’가 어떤 요소들과 결합할 수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때리다’가 쓰이는 구문을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때리다’에 선행하는 요소의 양상을 파악해야 한다. 먼저 ‘때리다’의 바로 앞에 선행하는 요소(L1)의 품사 분포를 살펴보자.

<표 1> ‘때리다’의 선행 요소(L1)의 품사 분포

	명사	의존명사	대명사	수사	부사		조사				기타	계
					일반	접속	주격	목적격	부사격	보조사		
빈도(개)	216	19	15	2	90	3	10	29	18	21	16	439
비율(%)	49.2	4.3	3.4	0.5	20.5	0.7	2.3	6.6	4.1	4.8	3.6	100.0

<표 1>을 보면 말뭉치에서 ‘때리다’ 앞에 명사가 출현한 비율이 49.2%로 거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때리다’ 앞에 목적어의 표지 없이 등장할 수 있는 명사의 구체적인 양상은 (2)와 같다.

5) ‘X때리다’ 유형의 관용구로 『우리말샘』에는 동사 ‘멍때리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는 자동사 ‘골때리다’가 각각 등재되어 있기도 하다.

(2) ‘때리다’의 선행 요소(L1) 중 명사

명(76), 골(12), 뼈(9), 잔(7), 빵(6), 얼굴(4), 엉덩이(4), 휴학(4), 계산(3), 광고(3), 구매(3), 뒤통수(3), 배신(3), 친구(3), 커피(3), 공(2), 공동이(2), 낮잠(2), 따귀(2), 딱밤(2), 똥(2), 몰빵(2), 숨(2), 애(2), 판(2), 편치(2), 가입(1), 결제(1), 고민(1), 공고(1), 공지(1), 국수(1), 그릇(1), 기사(1), 도넛(1), 등(1), 등짝(1), 때(1), 라면(1), 마라(1), 마라상귀(1), 마카롱(1), 망상(1), 맥주(1), 머리(1), 무기징역(1), 무인정산기(1), 민트초코(1), 배(1), 벌금(1), 병(1), 뽕따귀(1), 사람(1), 새끼(1), 세금(1), 손등(1), 손바닥(1), 스파이크(1), 신고(1), 신청(1), 아빠(1), 연차(1), 영업정지(1), 예약(1), 오버워치(1), 원샷(2), 원천징수(1), 입(1), 입원(1), 전화(1), 추매(1), 포(1), 헬멧(1), 혼밥(1), 회의(1)

말뭉치에서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난 ‘명(76)’은 ‘명 때리다’가 관용구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골(12)’도 ‘골 때리다’라는 표현으로 굳어진 관용적 의미가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인 ‘뼈(9)’는 조사가 생략된 형태적 축약 구성이 관용구로 정착하는 과정의 중간 단계에 존재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뼈(를) 때리다’는 ‘핵심 사실을 언급해 거침없이 정곡을 찌르다’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는 곧 뼈는 핵심이라는 은유적 기제가 작용하여 고정된 형식의 구문이 만들어진 사례로 볼 수 있다.

한편 (2)에서 ‘잔, 숨, 그릇, 병, 포’는 품사상 일반명사이지만 의미상 단위성 의존명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들이 구성하는 ‘커피 한 잔 때리다’, ‘낮잠 한 숨 때리다’, ‘짬뽕한 그릇 때리다’ 등의 문장은 정연주(2019)에서 제안한 ‘명사구 수관형사 의존명사 때리다’ 구문의 존재를 증명한다.⁶⁾ 이러한 구문의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때리다’에 선행하는 의존명사는 (3)을 통해 더 확인할 수 있다.

(3) ‘때리다’의 선행 요소(L1) 중 의존명사

대(7), 편(5), 번(4), 시간(2), 판(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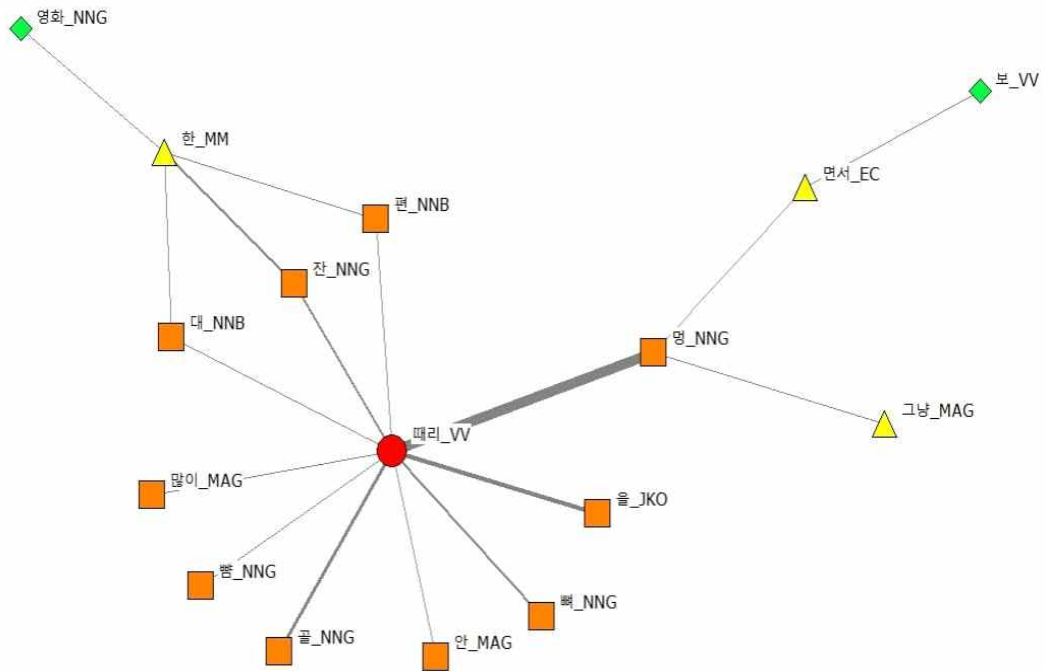
<표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때리다’의 L1에 출현한 명사의 빈도에 비해 목적격 조사는 그 빈도가 29회로 많지 않았다. 이는 목적어와 술어 사이 부사어의 개입에 따른 결과일 수 있는데, 단순 빈도만으로는 그러한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를 따지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에는 ‘때리다’의 L1 위치에 오는 요소들의 t점수를 산출하였다.⁷⁾ 이는 <표 2>와 같다. 또한 이들이 L2 이상의 선행 요소와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공기 관계를 보이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때리다’가 갖는 구문의 양상을 연어그래프로 시각화하였다. 이는 <그림 1>로 나타내었다.

6) ‘명사구 수관형사 의존명사 때리다’ 구문에서 수관형사와 의존명사는 사실상 엄격한 품사 분류에 의한 것이 아니다. 가령 ‘잔, 숨’은 관형사 ‘한’이 결합한 ‘한잔, 한숨’이라는 단어가 이미 존재한다. 그렇다고 이들을 ‘명사구 명사 때리다’ 구문으로 보고 의존명사인 ‘대, 편’ 등이 사용된 경우와 분리할 근거는 더욱 없기 때문에 편의상 같은 구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으로 더 살펴보겠지만 이 구문의 수관형사 형은 모든 수관형사를 허용하지 않고 ‘한’을 매우 높은 빈도로 취한다는 점에서 ‘명사구 한 의존명사 때리다’ 구문으로 볼 수도 있을 듯하다. (2)의 명사 중 ‘원샷’도 ‘커피 원샷 때리다’와 같이 쓰여 이 구문의 형식과 의미를 유지하는 것이며, 수사로 분류된 ‘하나’도 의존명사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아이스크림 하나 때리다’와 같이 쓰이며 동일한 양상을 갖는 것이다.

7) 강범모(2010)에 따르면 언어 연구에서는 실제 공기 빈도와 예상 공기 빈도를 비교하기 위해 수식으로 t점수(t-score)와 상호정보(MI)를 자주 사용하나, 상호정보는 언어 지표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 t점수를 언어성 측정에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t점수를 ‘때리다’ 공기 관계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는 지표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신뢰도 수준을 95%로 설정하였을 때인 t)1.960을 그 기준으로 하였다.

<표 2> '때리다'의 선행 요소(L1)

순위	선행 요소	품사	빈도	t점수
1	명	NNG	76	7.921
2	을	JKO	29	4.111
3	골	NNG	12	3.138
4	뼈	NNG	9	2.711
5	잔	NNG	7	2.416
6	안	MAG	9	2.247
7	뺨	NNG	6	2.201
8	대	NNB	7	2.153
9	많이	MAG	6	2.095
10	편	NNB	5	2.042



<그림 1> 동사 '때리다'의 연어그래프

<그림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동사 '때리다'의 구문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4) ㄱ. NP(를) 때리다
- ㄴ. 명사구 한 의존명사 때리다

(4)는 일부 향이 도식성을 지닐 수 있는 구문이다. (4ㄱ)은 NP에 무엇이 오는지에 따라 다시 여러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얼굴, 엉덩이, 뒤통수' 등의 신체 부위나 '친구, 애, 아빠' 등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가 NP에 위치하게 된다면 동사 '때리다'의 기본의미가 작용한

다. ‘공, 무인정산기, 헬멧’ 등의 사물이 NP에 위치할 때도 마찬가지로 ‘때리다’의 기본적인 동사 의미로 문장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펀치, 딱밤, 스파이크’ 등의 명사가 NP의 위치에 오게 된다면 이는 ‘때리다’라는 행위의 방법이 목적어 자리에 나타나는 환유 기제가 적용된 구문으로 볼 수 있다. 가령 ‘배구 선수들이 스파이크를 때리다’라는 문장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때려진 대상은 공이고 그 공을 때리는 방법이 ‘스파이크’라는 것이다. ‘무기징역, 영업정지, 벌금, 세금, 원천징수’와 같은 NP는 정병철(2014)에서 제시한 ‘Y에게 X(과태료, 벌금)을 Verb’라는 구문에서 X에 위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문에서 ‘때리다’는 처벌과 징계의 의미를 갖게 된다.

‘휴학, 광고, 배신, 신고, 전화’ 등의 서술성 명사와 결합한 ‘때리다’는 ‘하다’로 대치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때 ‘때리다’는 전체 행위의 일부 과정에 대한 구어적인 표현으로, 이러한 문장들은 환유라는 기제로 이해할 수 있다. 가령 ‘휴학을 때리다’는 ‘신청하다’라는 동작의 특정 행위를 대신할 수 있고, ‘광고를 때리다’는 ‘게재하다’의 특정한 행위를 떠올리게 한다. 이처럼 ‘-하다’의 어근에 ‘때리다’가 결합한 경우는 선행 명사가 의미하는 동작성을 강조하는 한편 구어 또는 구어적 성격이 강한 장르로 사용역을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커피, 라면, 맥주’ 등 음식 또는 음료가 NP에 올 경우 ‘때리다’는 섭취의 의미를 갖게 된다. 이는 (4ㄴ)의 구문과도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 (5) ㄱ. 집에서 육회에 소주 한 잔 때릴 생각이야
- ㄴ. 낮잠 한 슛 때리고 싶은데 ㄸ
- ㄷ. 왓차에 새로 생긴 기능으로 간만에 영화 한 편 때렸는데

(5)는 (4ㄴ)의 ‘명사구 한 의존명사 때리다’ 구문이 말뭉치에서 나타난 예문이다. 이러한 문장들은 ‘때리다’라는 동사 자체가 지닌 의미보다는 ‘명사구 한 의존명사 동사’라는 구문의 의미로부터 의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구문의 명사구에 무엇이 놓이는지에 따라 동사가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이다. 명사구에 오는 것이 음식 또는 음료라면 동사 향의 ‘때리다’는 섭취의 뜻을 나타내는 ‘먹다’나 ‘마시다’의 의미를 갖게 되고, ‘낮잠’이라면 ‘자다’의 의미가 되며, ‘영화’라면 ‘보다’의 의미가 된다. 이때 ‘한 + 의존명사’ 구성이 생략되어도 문장이 자연스러운데, 이렇게 생략된 구성은 앞서 살펴본 (4ㄱ)에서 NP에 음식 또는 음료가 오는 경우 등과 같은 문장이 된다. 즉 ‘때리다’는 ‘명사구 한 의존명사 동사’ 구문이 갖는 의미를 흡수하여 ‘소주 때리다’, ‘낮잠 때리다’와 같은 문장 역시 자연스럽게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6) ㄱ. 명(을) 때리다
- ㄴ. 골(을) 때리다
- ㄷ. 뼈(를) 때리다
- ㄹ. 뺨(을) 때리다

한편 (6)은 선행 명사와 ‘때리다’가 완전히 고정된 숙어적 구문으로 볼 수 있다. (6ㄱ)은 형용사 ‘명하다’의 어근 ‘명’이 ‘때리다’와 결합하여 동작성을 획득한 것이다. (6ㄴ)과 (6ㄷ)의 ‘골’과 ‘뼈’는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없는 대상으로, 이러한 관용구 형성에는 은유가 직접적인 기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ㄹ)은 신체 부위 중 뺨을 때리는 행위를 의미할 수도 있고 그로부터 과생된 관용적 표현일 수도 있다. 관용적 표현으로서의 ‘X가 Y 뺨 때리다’는 X가 비교 대상인 Y에 준하거나 그 이상으로 뛰어날 때 쓸 수 있는 구문이다.

4. '때려'가 쓰인 구문의 특성

'때리다'가 선행 용언으로서 연결어미 '-어'와 함께 쓰이는 '때려' 구성은 동사 '때리다'가 나타낼 수 있는 구문 유형 중 하나로 생각될 수 있다. '때려'라는 형식이 후행 용언과 결합할 때 일관된 의미가 포착될 수 있다면 '때려 V'의 형식을 구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때려'에 후행하는 용언(R1)에 위치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말뭉치에서 먼저 검토해 보고자 한다.

<표 3> '때려'의 후행 용언(R1)

순위	후행 동사	품사	빈도	t점수
1	치우다	VV	63	7.270
2	넣다	VV	22	4.296
3	박다	VV	14	3.427
4	잡다	VV	7	2.423
5	부수다	VV	5	2.048
6	맞추다	VV	4	1.832
7	죽이다	VV	2	1.295
8	붓다	VV	2	1.295
9	치다	VV	1	0.916
10	버리다	VX	1	0.916
11	막다	VV	1	0.916
12	맞다	VV	1	0.916
13	놓다	VX	1	0.832

<표 3>의 동사 또는 보조동사 13개는 말뭉치에서 '때리다'에 후행한 용언의 전체 목록이다. 이중 $t > 1.960$ 인 동사 '치우다, 넣다, 박다, 잡다, 부수다'가 말뭉치에서 보인 예문은 다음과 같다.⁸⁾

- (7) 가. 그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직장을 때려 치우고
- 나. 초코를 때려 넣었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다
- 다. 할인 다 때려 박아도 만 원
- 르. 마약쟁이들 때려 잡는 검사
- 미. 물건을 때려 부수니까 줌

8) 표준어에서 '때려V' 형의 합성동사를 인정한 것은 '때려내다, 때려누이다, 때려놓히다, 때려잡다, 때려죽이다, 때려치우다'이다. 이 단어들은 원칙적으로 붙여 쓰는 것이 맞겠으나 '때려' 구성의 논의를 위해 전부 띄어서 썼다. '석기를 만들 때 돌로 쳐서 일정한 모양을 얻어 내다'라는 뜻의 '때려내다'를 제외하면 나머지 단어들은 두 동사의 결합으로 설명되지 않는 은유적 의미를 지니는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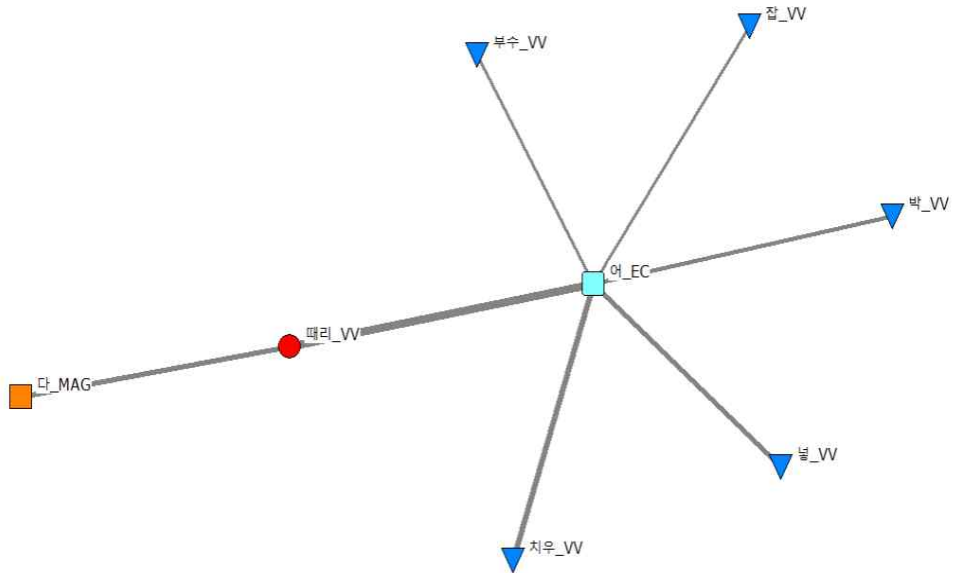
(7)의 문장들은 모두 ‘마음대로 마구 해대다’라는 뜻의 ‘때려’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때려’에 후행하는 동사가 기본의미를 유지하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7ㄱ)의 ‘때려 치우다’는 회사, 직업 등을 그만둔다는 의미를 속되게 표현한 것이다. 이때 ‘때리다’의 의미는 물론 후행 동사 ‘치우다’의 의미도 본래 의미에서 떨어져 은유적으로 확장되었다. 그러므로 ‘직장을 때리다’, ‘직장을 치우다’와 같이 쓰일 수는 없고 ‘때려 치우다’의 합성동사로 사용될 때만 ‘그만두다’라는 의미가 나타난다. 이와 달리 (7ㄴ)의 ‘때려 넣다’는 ‘때려’가 생략되어도 전체 문장이 자연스럽게 해석된다. 이 예문에서 행위는 넣는 것이고 목적어 논항의 ‘초코’도 넣는 대상이다. (7ㄷ)의 ‘때려 박다’는 ‘때려’가 생략된 문장도 구성할 수는 있으나 ‘때려’가 있을 때 훨씬 자연스럽다. 또한 이는 ‘할인을 때려 넣다’와 같이 바꾸어 말할 수도 있을 듯하다. 그러나 ‘할인을 넣다’는 어색한 문장이 되는데, 이는 ‘때려’가 ‘박다’나 ‘넣다’에 선행할 때 취할 수 있는 목적어 논항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7ㄹ)의 ‘때려 잡다’는 ‘때려’가 생략되어도 문장이 매끄러우며 논항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다. ‘검사가 마약쟁이를 때려 잡다’에서 행위자 ‘검사’는 대상 ‘마약쟁이’를 물리적으로 때리거나 잡지 않지만 ‘사냥꾼이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 잡다’와 같은 문장에서는 그러한 해석도 가능하다. 즉 ‘때리다’가 후행 동사의 수단이나 방법일 때는 기본의미가 실현될 수 있고 ‘마구, 함부로’의 의미만 더할 때는 속된 표현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다. 이는 (7ㅍ)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때려 부수다’는 ‘때려’를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하는데 이때 ‘때려’는 후행 동사의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가 되기도 하고 속된 표현으로만 기능할 수도 있다.

(8) ㄱ. 원샷을 때려 버리니까

ㄴ. 자기가 귀싸대기까지 때려 놓고서는 에프 주겠다고 협박을 하더니

한편 후행하는 용언이 보조동사일 때는 ‘때리다’가 지닌 여러 다의 의미가 나타날 수 있다. (8)은 ‘때리다’에 보조동사 ‘버리다’, ‘놓다’가 후행하는 말뭉치 용례이다. (8ㄱ)은 3장에서 살펴본 ‘명사구 한 의존명사 동사’ 구문의 의미를 흡수한 ‘때리다’의 용례를 보여준다. (8ㄴ)은 ‘때리다’의 기본의미인 타격이 드러나는 것이다. 보조동사는 선행하는 본동사에 상, 양태 등의 의미를 더하는 것이므로 동사연결 구성을 주도적인 의미는 가질 수 없다. 따라서 보조동사와 함께 쓰일 때 ‘때려’는 후행 요소에 ‘마음대로 마구 해대다’의 의미를 더하는 수식어처럼 기능할 수 없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때려’는 타동사 앞에서 ‘마구, 함부로’의 의미로 쓰일 수 있는 속된 말로서의 구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때려 V’ 구문의 언어그래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때려 V’ 구문의 언어 그래프

<그림 2>에서 ‘때려’에 선행하는 부사 ‘다’는 t점수가 4.235로 매우 높았다. 이는 ‘마음대로 마구 V’라는 뜻의 ‘때려 V’ 구문의 의미와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이다. 언어성이 비교적 낮게 측정되어 언어그래프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표 3>의 다른 타동사들은 (9)와 같은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시하는 것으로 4장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 (9) 가. 아님 감으로 때려 맞추나
 나. 키우면 막 싫다고 때려 죽인다고 막
 다. 내가 그런다니까 부담스러워서 모든 걸 때려 부어
 라. 근데 지금에 와서는 가슴을 때려 치조
 마. 지난주부터 아파서 진통제로 때려 막았는데
 바. 세금 더 때려 맞는건가?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요약하면 동사 ‘때리다’의 구문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4> 동사 '때리다'의 구문 유형

구분	구문	예문
숙어적 구문	명(을) 때리다	바다 보면서 명 때리기
	골(을) 때리다	마스크 벗고 딱딱따닥 있으려면 이제 골 때리지
	뼈(를) 때리다	이 사람 자꾸 뼈 때리네
	뺨(을) 때리다	맛집 뺨 때리는 집밥
부분적으로 도식적인 구문	NP(방법)(를) 때리다	○○○ 선수는 경기에서 강스파이크를 때렸다
	NP에/에게/한테 NP(과태료, 벌금)(를) 때리다	그런 사람한테 무기징역을 때려야 한다
	NP(서술성 명사)(를) 때리다	휴학 때리고 여행 가고 싶다
	NP 한 의존명사 때리다	머리 한 대 때려주고 싶음 오늘 야구 보면서 맥주 한 잔 때려야겠어
	때려 V(타동사)	조폭을 때려 잡다 해산물을 한 솥에 다 때려 넣다

이 연구는 구어적 특성을 갖는 일부 말뭉치 자료만을 검토해 '때리다'의 구문 유형을 정리한 것이므로 동사 '때리다'가 쓰일 수 있는 모든 한국어 구문 유형을 포착해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말뭉치 분석을 통해 특정 동사가 갖는 구문의 유형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구문을 동사의 공기 관계를 통해 살펴보고 언어그래프로 시각화하여 보인 방법론적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 문헌

- 강범모(2010), 공기 명사에 기초한 의미개념 연관성의 네트워크 구성, 《한국어 의미학》 32, 한국어 의미학회, 1-28쪽.
- 강현화(1998), 《국어의 동사연결 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사.
- 김진웅(2019), 구문 개념의 정립을 위한 시론, 《국어학》 89, 국어학회, 313-336쪽.
- 남신혜(2023), 보조용언 '나가다'의 언어그래프 연구 -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학습자의 사용 양상 비교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75, 우리어문학회, 407-426쪽.
- 박진호(2016), 환유 개념의 통사적 적용, 《한국언어학회 학술대회지(2016.6)》,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381-396쪽.
- 이효박(2016), 한국어 '때리다/치다'와 중국어 '打'의 대조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병철(2014), 한국어 동사와 문장 패턴의 상호작용, 《언어과학연구》 69, 언어과학회, 285-314쪽.
- 정연주(2015), 형용사의 특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형용사절, 《한국어 의미학》 50, 한국어 의미학회, 189-209쪽.
- 정연주(2019), 국내 구문문법 연구의 구문 의미 관련 쟁점 검토, 《한국어학》 84, 한국어학회, 135-159쪽.
- 정주리(2005), '가다' 동사의 의미와 구문에 대한 구문문법적 접근, 《한국어 의미학》 17, 한국어 의미학회, 267-294쪽.
- 정주리·정연주(2019), 구문문법, 임지룡 외, 《한국어 의미 탐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343-373쪽.
- 조경순(2019), 구문의 의미, 임지룡 외, 《한국어 의미 탐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883-909쪽.
- Goldberg, A. E. (1995), *Constructions: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토 론

“말뭉치 분석을 통한 동사 ‘때리다’가 쓰인 한국어 구문 유형 연구”에 대한 토론문

정유남(중앙대)

이 발표문은 ‘말뭉치 분석을 통하여 동사 ‘때리다’가 쓰인 한국어 구문 유형 연구’입니다. 대규모 말뭉치를 토대로 현실 언어에서 나타나는 한국어 때리다 구문의 양상을 사전과 비교하면서 고찰하고 있어 흥미롭습니다. 앞으로 말뭉치 분석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구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발표문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을 질의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구문의 정위와 범위가 선행 연구와 어떻게 같고 다른가?

서론에서 ‘이 연구는 ‘때리다’가 갖는 구문적 차원에서 이해해 보고자 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문’에 대한 개념은 이 논문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문’에 대한 개념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논문에서 실제로 구문에 대한 개념은 2장의 Goldberg(1995:4)의 구분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논문의 주4)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정연주(2015)는 구문을 “연쇄적 형식에 의미가 직접 연합되어 있는 기호로서의 덩어리 단위”로 정의하고 있고, 김진웅(2019)은 “형식과 의미(기능)의 기호적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이 논문으로서의 가치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구문’에 대하여 발표자의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행 연구와 동일하게 보는 것인지요? 아니면, 은유, 환유 기제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구문을 설정하고 계신 것인지요?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2. 대상 어휘의 선정 근거, 특별히 ‘때리다’ 구문을 선정한 이유

발표문에서는 한국어 구문 유형 연구를 위해 ‘때리다’를 선택하게 된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휘 ‘때리다’가 구문 문법으로 설명하기에 어떠한 측면에서 적절한지, 대상 어휘 선정 근거에 대한 발표자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3. 말뭉치 규모와 특성 보충 설명 필요

3-1) 이 연구에서는 ‘일상 대화 말뭉치 2022’와 ‘온라인 대화 말뭉치 2021’에서 동사 ‘때리다’는 각각 224회, 483회 등장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전체 말뭉치 크기 등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뭉치를 다루는 연구에서 추출된 표본의 크기는 전체 말뭉치의 크기와 비율이 일정 부분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말뭉치의 전체 크기를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보충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3-2) ‘일상 대화 말뭉치 2022’와 ‘온라인 대화 말뭉치 2021’에 발화자의 성별, 연령, 계층 등과 같은 사회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요? 왜냐하면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명 때리다, 골 때리다’ 등의 출현 빈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말뭉치에서 사회적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면, 이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연어그래프에 대한 보충 설명 필요

4-1) <표 1>에서 ‘때리다’의 선행 요소(L1)를 제시했습니다. 형태소 분석한 단위로 이해되는데 기존의 연어 개념과 다르게 이해될 수 있을 듯합니다. 국어학에서 연어라고 하면 ‘뺨을 때리다’, ‘뒤통수를 때리다’와 같이 두 어휘의 결합 관계로 이해되는데, 선행 요소로, 명(76), 을(29), ... 많이(6), 편(5) 등과 같이 제시되어 있어서 기존의 연어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휘 ‘때리다’의 선행 요소와 조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형태소 분석 결과가 연어그래프를 설명하는 데에 어떠한 상관성을 지니는지 궁금합니다.

<표 4>에서 동사 ‘때리다’ 구문 유형을 최종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때 (을)로 괄호 처리하여 형태소 전처리 과정에서 개념어만 분리하거나 최소한 조사만 삭제하는 방식을 고려한 것이지요? 발표자가 ‘때리다’ 구문을 연어그래프로 설명하기 위해서 선정한 형태소 단위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2) <그림 1>의 연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의 굵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물론 ‘명 때리다’의 빈도가 가장 높으므로 선의 굵기가 가장 굵은 것으로 보입니다. 빈도가 1이면, 1줄, 빈도가 2이면 2줄과 같은 방식으로 선의 굵기를 결정한 것이지요? 이는 <그림 2>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독립신문》에 나타난 보조 용언 ‘-어 주다’의 연어 관계 분석

이 수 진(전남대)

차 례

1. 머리말
2. 《독립신문》의 ‘-어 주다’ 출현 양상
3. 《독립신문》의 ‘-어 주다’ 연어 관계
4. 맺음말

1. 머리말

이 연구의 목적은 《독립신문》에 나타난 보조용언 ‘-어 주다’의 출현 환경을 살펴보고 이들의 연어 관계를 살펴보는 데에 있다. 이는 19세기 ‘-어 주다’ 형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독립신문》의 자료적 특징을 기반으로 하여 ‘-어 주다’와 결합하는 선행 용언의 종류 파악, 이들의 연어 관계를 통해 밝힐 수 있는 ‘-어 주다’의 의미적, 통사적 구성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독립신문》은 창간 논설에 밝힌 것처럼 남녀 상하귀천이 모두 보게 하도록 ‘언문’으로 모든 논설 및 기사를 작성하였고, 또 구절을 띄어 써 알아보기 쉽도록 하였다. 하여 《독립신문》의 원시 말뭉치 역시 원전의 띄어쓰기를 그대로 반영하였으나 형태소 분석이나 기존에 개발된 분석 도구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었다.¹⁾

이 연구는 보조용언의 문법화 양상을 말뭉치 기반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 주다’의 보조용언으로서의 활용이 19세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그 출처의 대부분이 《독립신문》이라는 것과 19세기 이전에는 소수의 예로 확인되는 ‘도와주다’가 《독립신문》에 상당히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는 데에 관심을 가졌다. ‘-어 주다’의 통사적 특징에 대해 보조동사 여부와 관련한 범주의 논의가 대부분이었던 바, 《독립신문》에 출현하는 ‘-어 주다’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국어 역사 자료 말뭉치에서 ‘-어 주다’가 나타나는 용례를 추출하여 말뭉치를 구축하고 세기별 양상을 정리한 후, 《독립신문》의 ‘-어 주다’가 나타난 용례를 따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선·후행 요소와의 연어 관계를 분석하였다. 말뭉치에서 유니콘크(Uniconc)를 활용하여 ‘-어 주다’의 용례를 추출한 후 엑셀(Excel)로 전처리를 하였다. 연구 목적에 따른 필드를 설정하고 분류한 데이터를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였다. 원문을 현대어

1) 이러한 점은 국립국어원의 ‘21세기 세종계획’ 역사 말뭉치의 오류를 정제한 역사자료 종합 정비 사업에 의해 개선되었고 태그 정보가 보강되었다.

로 표기한 후 울산대형태분석기 유태거(Utagger)로 형태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후 노드엑셀(NodeXL)²⁾로 선행 용언과 후행 어미와의 관계망을 시각화하였다.

2. 《독립신문》의 ‘-어 주다’ 출현 양상

‘-어 주다’는 선행 연구에서 보조용언 구성으로 사용된 시기에 대해 문법화 과정을 차로 켜 듯 나눌 수는 없지만, 손세모돌(1996)은 보조용언 ‘주다’에 대해 ‘주다/드리다’가 18세기 말부터 쓰였다고 하였다. 말뭉치 자료를 통해 이를 검토해 본 결과 15-20세기 초까지의 ‘-어 주다’의 출현 양상을 파악한 결과 770개의 출현형과 6,237개 출현 개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 19세기에 ‘-어 주다’와 결합하는 선행용언이 285개로 나타났는데 이는 18세기보다 3배 가량 는 수치이며 출현량은 1,581개로 전 시기와 비교하여 8배 가량 늘어난 것을 확인하였다.³⁾ 이 중 《독립신문》에서만 1,057건이 확인되며, 《매일신문》에서 204건이 확인되었다. 《독립신문》 약 56만 어절에서 ‘-어 주다’는 0.18%로 출현하였으며, 《매일신문》은 약 15만 어절에서 0.13%로 출현하였다.⁴⁾ 이 중 고빈도어 10개를 선별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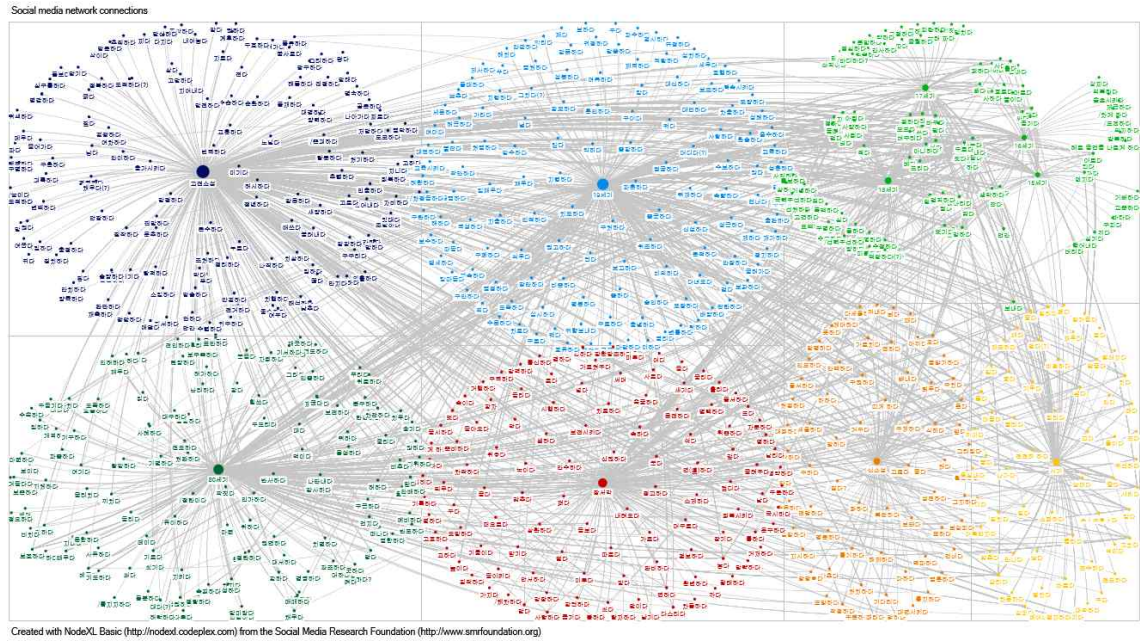
<표 1> 세기별 문헌에서 출현하는 ‘-어 주다와 결합하는 고빈도 선행 용언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하다	6	6	21	19	328	93
내다	8	4	26	11	79	86
돕다		2			119	60
나누다	15	20	20	6	3	59
가르치다			1		34	57
쓰다		4	15	14	18	4
짓다	5	3	8	2	12	9
살리다			14		5	15
얼다		3		5	9	6
전하다				3	6	21

아래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어 주다’와 결합하는 선행용언의 네트워크 규모는 매우 작다. 근대국어 시기, 특히 19세기 이후 양적 팽창이 ‘-어 주다’와 결합하는 선행용언을 관찰하는 데에도 충분히 의미가 있으며 《독립신문》의 예가 ‘-어 주다’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 2) 노드엑셀(NodeXL)은 엑셀용 네트워크 분석 및 시각화 소프트웨어이다. 간단한 설치로 엑셀로 구축한 데이터를 손쉽게 시각화할 수 있으며 파이엑(Pajek)이나 게피(Gephi)와 비슷한 시각화 도구이지만 이들은 옛한글 자료를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점을 본다면 현재 국어 역사 말뭉치를 활용할 때는 노드엑셀이 최적의 도구라고 판단한다. 국어 역사 말뭉치를 구축한 자료는 파이썬(Python)의 맷플롯리브(Matplotlib)를 활용한 시각화에서 옛한글이 입력된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불러오지 못하거나, 시각화 그래프를 그리는 데 성공하더라도 그래프 범주에서 옛한글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 3) 비교 시기인 18세기에 특정 문헌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특정 문헌에서의 출현 양상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8세기에는 ‘-어 주다’가 출현한 문장 187개 출현 중 60개(33.3%)가 《인어대방》에서 나타난 것이다. 문헌의 양적 측면을 고려할 때 어절 대비 0.67% 비율로 ‘-어 주다’가 문장 내에 출현하였다.
- 4) 19세기 문헌 중 《독립신문》과 《매일신문》 제외한다면 각 문헌에서 ‘-어 주다’가 쓰인 예는 평균 11건이다. 《독립신문》이 정치적인 주장, 백성을 교화하기 위한 글이나 신문물의 소개라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은 ‘-어 주다’가 나타날 수 있는 내용적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어 주다'와 결합하는 시기별 선행 용언의 그룹별 네트워크



2.1. 《독립신문》 내 '-어 주다'와 결합하는 선행 용언

《독립신문》에서 '-어 주다'가 나타난 1,057개 문장에서 선행용언은 모두 208개가 확인되었다. 이 중 상위 20개 용언 목록을 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하다'와 '돕다'가 전체 출현형의 20%를 상회하는데 현대국어에서 '도와주다'는 단어로 어휘화된 것이다.

<표 2> 《독립신문》 내 '-어 주다'와 결합하는 선행 용언 상위 목록

선행용언	출현개수	비율	선행용언	출현개수	비율
하다/VV	146	13.8%	이르다/VV	21	2.0%
돕다/VV	104	9.8%	받다/VV	18	1.7%
찾다/VV	43	4.1%	만들다/VV	17	1.6%
내다/VV	41	3.9%	아니하다/VV	15	1.4%
빌리다/VV	41	3.9%	정하다/VV	14	1.3%
보호하다/VV	40	3.8%	구완하다/VV	13	1.2%
보다/VV	29	2.7%	감하다/VV	11	1.0%
식히다/VV	25	2.4%	긋다/VV	11	1.0%
논하다/VV	22	2.1%	높이다/VV	10	0.9%
가르치다/VV	21	2.0%	물다/VV	10	0.9%

<표 2>에서 '하다'에 이어 고빈도로 나타나는 '돕다'는 18세기까지는 '-어 주다'와 결합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다가 19세기부터 '-어 주다'와 결합하여 나타난다.

- (1) 7. 전국 인민이 그 대신을 올흔 줄을 모르고 도아 주지를 아니 할 것 못하면

- ㄴ. 이 서로 관계된 직무와 의리가 있어서 서로 도아 주고 위하 주고 보호하여 주는 장정 규칙이 있는지라
- ㄷ. 서로 돕고 보호하여 주기를 팔이 다리를 도아 주며 왼손이 오른손을 도아 주듯 기 희기를
- ㄹ. 기명 하는 리치를 말하여 인민의 권리를 도아 주라는 일 데 삼은 순검들이 신문지를 밤 낮 익숙히 넘으면
- ㅁ. 덕국과 불란서가 아라샤하는 일을 도아 주리라고 하였더라
- ㅂ. 아라샤던지 불란서를 치거드면 서로 도아 주게 작정하되 만일 이 두 나라 중에 한 나라

예문 (1)의 ‘도와주다’를 제외한 상위 5개 선행 용언을 정리하면 ‘하다’, ‘찾다’, ‘내다’, ‘빌리다’, ‘보호하다’ 5개이다.

2.2. 《독립신문》 내 ‘-어 주다’와 결합하는 후행 어미

《독립신문》 내 ‘-어 주다’와 결합하는 후행하는 어미를 정리하면 아래 <표 3>와 같다.

<표 3> 《독립신문》 내 ‘-어 주다’와 결합하는 후행 어미 상위 목록

후행 어미	출현개수	비율	후행 어미	출현개수	비율
고	95	9.0%	어야	25	2.4%
는	93	8.8%	면	18	1.7%
르	59	5.6%	니	15	1.4%
ㄴ	41	3.9%	마고	15	1.4%
며	37	3.5%	엇다더라	15	1.4%
어	35	3.3%	라고	14	1.3%
지	30	2.8%	게	13	1.2%

3. 《독립신문》의 ‘-어 주다’ 연어 관계

《독립신문》의 연어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어 주다’와 결합하는 선·후행 요소를 시각화하여 네트워크 그래프를 도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내용 기술을 보완하겠습니다)

손세모들(1996, 2017), 김미경(1998), 허철구(1999) 등의 선행연구를 통해 보면 중세-근대국어 시기의 보조용언 목록 선정에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문법화와 관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본용언의 보조용언으로의 문법화는 본용언의 의미가 다의화되면서 의존적으로 쓰이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연속동사 구문과는 달리 도치가 불가하며 생략 시 의미가 유지되지 않는다.⁵⁾

정언학(2016: 254~255)에서는 현대 국어의 ‘-어 주다’ 구성이 지닌 의미에 대한 선행 연

5) 보조용언의 문법화에 대해서는 본용언에서 1단계 문법화가 진행되면 보조용언이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후 단계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조동사, 접어, 접사로 나누는 논의들이 있다.

구의 ‘수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평가’(허철구, 1991: 87)와 ‘수혜’를 기본의미로 하고, ‘수혜’가 선행 동사의 동작에 대한 ‘유익성’ 판단(손세모들, 1996: 214)이라고 하는 논의를 중세 국어 ‘-어 주다’ 보조용언 구성의 의미 기술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하여 ‘의미의 추상화 정도’라는 기준으로 접속 구성과 보조용언 구성을 나누고자 하였으나 이영경(2009: 503)에서는 15세기의 ‘-어 주다’ 구성에 대해 ‘시혜’의 의미를 지닌 보조용언 구성으로 기술한 정언학(2016)의 논의를 비판하며 추상적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논화 주다’, ‘버혀 주다’와 구체 의미에 가깝지만 보조용언 구성으로 구분하였다는 ‘지서 주다’, ‘지어 주다’의 두 예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역사 자료 말뭉치를 《독립신문》 내 ‘-어 주다’의 출현 환경을 살펴보고 ‘-어 주다’가 맺고 있는 언어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독립신문》에 출현하는 ‘-어 주다’는 이전 시기와는 달리 특징적으로 결합하는 선행 용언이 나타난다. 우선 각 시기별 문헌에서 출현하는 ‘-어 주다’의 용례를 추출하고 노드엑셀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여 각 시기별 선행 용언과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고 19세기에 특징적인 《독립신문》의 보조용언 ‘-어 주다’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았다.

역사 자료 말뭉치에서 근대국어 시기 중 특히 19세기에 ‘-어 주다’의 출현은 전체 25.34%인 1,581건을 차지하였는데 이중 1057건이 《독립신문》에서 출현한 용례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저작 시기가 미상이나 근대국어 시기 이후 자료일 것으로 이해되는 대부분의 고전소설과 시가, 인간 등을 포함한다면 ‘-어 주다’가 쓰인 구문의 양적 확대가 ‘-어 주다’의 문법화와 관계가 깊다는 것이 말뭉치로도 확인이 되었다.

‘돕다’의 경우를 살펴보면 ‘-어 주다’의 문법화는 본용언에서 보조용언으로 1단계 문법화를 먼저 거치는데 본용언 ‘주다’가 대상의 이동이나 전달, 소유 이전의 의미가 있는데 전달의 의미의 ‘혜택’의 의미를 포함시킬 때, 보조용언 구문으로 ‘봉사’, ‘수혜’, ‘혜택이나 유익성’ 등 다양한 용법과 의미로 확장되는 것을 포착할 수 있었다. 특히 ‘-어 주다’와 결합하는 선행용언의 출현 빈도가 높은 용례를 분석하여 이러한 구문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어 주다’의 모든 용례를 수집하고 결합하는 선행 용언을 분석한 후 시기별, 문헌별 출현 양상을 확인한 후 ‘-어 주다’의 결합이 특징적인 19세기 중 특히 《독립신문》에 나타나는 언어 관계를 포착하여 ‘-어 주다’의 문법화로 말미암은 통사적, 의미적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

참고 문헌

구종남(1986), 보조동사의 통사·의미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구현정(2003), 한국어 ‘주다’류 동사의 문법화 양상, 《언어학》 37, 한국언어학회, 3-24쪽.
 김경열(2018), 보조용언 ‘주다’ 구성의 의미와 통사, 《우리말글》 78, 우리말글학회, 27-49쪽.
 김기혁(1987), 국어 보조동사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미형(1997), 문체 유형의 언어 양상 연구, 《어문학연구》 5, 어문학연구회, 145-177쪽.
 김인성(1996), 서재필과 한글 전용: 《독립신문》을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68, 89-107쪽.

- 김선혜(2019), ‘보조용언’이라는 문법 범주에 대한 재고, 《한글》 80-3, 501-529쪽.
- 김선혜·남신혜(2019), 수여동사 기원 보조동사 ‘주(다)’의 의미와 통사, 《우리어문연구》 64, 우리어문학회, 264-294쪽.
- 김진해(2023), 개화기 국어 말뭉치 구축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국어사연구》 36, 국어사학회, 69-109쪽.
- 김효진(2017), 한국어 연쇄동사 구문의 논항 구조와 사건 구조 합성 유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신혜(2003), 보조용언 ‘나가다’의 언어그래프 연구 -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학습자의 사용 양상 비교를 중심으로 -, 《우리어문연구》 75, 우리어문학회, 407-426쪽.
- 박소영·김도훈(2017), 한국어 ‘주다’ 수혜 구문의 통사론, 《국어학》 84, 국어학회, 117-153쪽.
- 박재연(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태학사.
- 박진호(1998), 보조용언, 《문법연구와 자료》, 태학사, 139-164쪽.
- 손세모돌(1991), 보조동사 ‘주다’의 결합 제약과 의미, 《국어학 논집》 19,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33-60쪽.
- 손세모돌(1992), 국어 보조동사의 특성, 《한국언어문화》 10, 한국언어문화학회, 5-41쪽.
- 손세모돌(1996), 국어 보조용언 연구, 한국문화사.
- 이금희(2019), 한국어 용언의 접사화와 의미 특성, 《한국어 의미학》 64, 한국어의미학회, 155-178쪽.
- 이기동(1979), 주다의 문법, 《한글》 116, 한글학회, 159-187쪽.
- 이래호(2023), 근대 국어 말뭉치 구축 현황, 《국어사연구》 36, 국어사학회, 33-68쪽.
- 이민우(2021), 의미 변화의 양적 추정 - 말뭉치를 이용한 의미 변화 연구 -, 《한국어 의미학》 73, 한국어의미학회, 59-81쪽.
- 이선웅(1995), 현대국어의 보조용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경(2009), 중세국어 보조용언과 상 의미에 대하여, 《형태론》 11(2), 형태론, 497-511쪽.
- 임동훈(2021), 부차 개념의 통사적 실현과 보조동사 구문, 《국어학》 97, 국어학회, 59-88쪽.
- 정주리(2006), ‘-주다’ 형식의 구문과 의미, 《한국어 의미학》 19, 한국어의미학회, 181-207쪽.
- 조경순(2008), 국어 수여동사 연구, 《한국어 의미학》 27, 한국어의미학회, 267-289쪽.
- 조경순(2021), 보조용언의 판별 기준과 통사구조에 대한 연구, 《어문연구》 49(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3-60쪽.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허웅(1984), 국어학: 우리말의 어제, 오늘, 샘문화사.
- 허인영(2023), 국어사 말뭉치의 활용 현황과 향후 과제, 《국어사연구》 36, 국어사학회, 111-143쪽.
- 호광수(1999), 보조용언의 문법화 과정, 《인문과학연구》 21, 조선대 인문과학연구소, 391-409쪽.

▣ 토 론

“〈독립신문〉에 나타난 보조 용언의 연어 관계 분석”에 대한 토론문

도재학(경기대)

《독립신문》에 나타난 보조 용언 ‘-어 주다’의 선행 용언과 후행 어미를 조사하여, 연어적 특징을 살피고자 한 논의입니다. 논의의 취지나 접근 방법의 측면에서는 이견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원고는 코퍼스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잘 정리한 것 이상의 어떤 국어학적 발견이나 분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발표문을 읽어 보면서 궁금했던 내용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같음하고자 합니다.

1. 텍스트 유형과 ‘-어 주다’의 사용 양상에 관한 설명

《독립신문》에서 ‘-어 주다’가 집중적으로 많은 빈도로 확인되는 양상은 무척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특정하신 이유는 수궁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텍스트를 특정하고 나서 여기서 확인되는 ‘-어 주다’ 구성의 사용 양상은 이러저러하다 하고 끝내는 것은 뭔가 허전합니다. 논의 전개 과정에서 《독립신문》과 ‘-어 주다’의 관계에 대한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컨대, ‘-어 주다’의 연어 관계가 또 다른 텍스트 유형에 비해서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피고, 《독립신문》이 가지는 텍스트 유형의 특징과 결부지어 그 차이를 논의하는 것은 어떨까요?

아니면, ‘-어 주다’의 빈도 증가가 《독립신문》이라는 텍스트 유형의 개별적 특징에 있다고 보는지, 또는 당시 한국어 일반에서 일어나고 있던 어떤 변화가 《독립신문》에서 두드러지게 확인되는 것이라고 보는지 등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고빈도 선행 용언 및 후행 어미의 목록

목록과 빈도를 보이고, 네트워크를 그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들 사이의 공통 특징이 어떠한지를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국어 범용 코퍼스에서 ‘-어 주다’ 구성이 어떤 선행 용언과 후행 어미와 함께 사용되는지 확인하고, 《독립신문》에서 확인되는 정보와 비교해 보면 특징적인 부분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어 주다’의 의미/기능을 적시하기 위한 표찰(label)

선생님께서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기는 합니다만, 보조 용언 ‘-어 주다’의 용법을 살피는 논의라면, 의 의미 특성 혹은 범주 특성을 적절히 보여줄 수 있는 메타 언어의 사용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필요할 듯 싶습니다. 결론부에서 거론된 ‘수혜, 시혜, 유익성’ 등은 대체적인 의미 특성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사실 본용언인 수여동사 ‘주다’의 기본 의미에 의존하는 뉘앙스가 강하다고 생각됩니다. 범주 특성은 드러나지 않고요. 그리고 모든 용법을 다

포괄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혜택, 유익’의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운 예들도 더러 있기 때문인데요.

①한 놈만 잡아서 구속 한번 시켜 주면 나머지는 풀어서 다 불게 돼 있습니다.

②압수수색으로 한번 털어 드릴까요?

③제가 여기서 토론을 한번 망쳐주면 다들 얼마나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저의 소견으로는 주체(주어 혹은 화자)의 의도적인,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강조(?)할 때 ‘-어 주다’가 쓰인다고 해야 좀 더 일반적인 의미 특성에 대한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고요. 물론 많은 경우 긍정적인 상황이어서 ‘수혜, 시혜’ 등의 의미 표찰을 붙여 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화용론적 관점에서 스탠스(stance), 지위부여(positioning) 등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문법론적, 의미론적 분석과 어떻게 양립가능한 설명을 시도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실험화용론의 현황과 과제

제58회 한말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
2024. 1. 26
이성범 (서강대 영문학부)

발표 요점

- 연구 방법
- 화용론 연구
- 실험
- 실제 연구 사례
- 한계와 전망

연구 방법 (Clark & Bangerter 2004)

- **“Armchair method”**
 - 연구자의 상상과 직관에 의존, 모든 연구의 시작점
 - 상상은 한계가 있고 언어사용자의 눈에 안 보이는 과정을 알 수 없으며 연구자의 선입관이나 편견, 편협함이 문제 (Schütze 1996)
- **“Laboratory method”**
 - 피험자를 특별히 설계된 실험실에서 반응 시간, 동공의 움직임, 뇌의 활동 등을 측정
 - 눈에 안 보이는 과정을 분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나 언어 사용의 실제적 상황과는 괴리가 있다.
- **“Field method”**
 - 일상적 언어 사용의 모습들을 관찰
 - 자연스러운 맥락이지만 목적을 가리기 어렵고 관찰 대상 선정도 편견에 좌우될 가능성 있으며 인과 관계 분석이 어렵다.

3

타당성의 수준 (levels of adequacy)

- **관찰적 타당성 (observational adequacy)**

어떤 문장이 적형인지 아닌지를 판별해낼 수 있는 문법은 관찰적 타당성을 갖는다.
- **기술적 타당성 (descriptive adequacy)**

적형성 판단 외에 문장의 구조를 정확히 기술하고 모든 그리고 오직 적형문만을 만들 수 있는 문법은 기술적 타당성을 갖는다.
- **설명적 타당성 (explanatory adequacy)**

보편문법과 모순되지 않고 최대한 제약되어 있으며 심리적 실재성을 가진 문법은 설명적 타당성을 갖는다.

4

언어학의 내재성 (imman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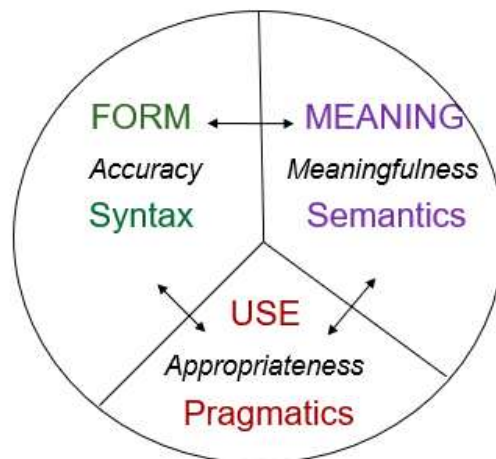
- “Linguistics is accountable only to itself as to its methods and objectives.”
- “Historically, this has been understandable in a relatively young science such as linguistics.”
- “But for a developed science, the desire for immanence is not a sign of maturity.. The immanent approach to the study of language has tended to isolate its different aspects..”

(Mey, 2000: 14)

5

언어의 세 영역

Larsen-Freeman (1994)



6

초기 화용론 연구

- “Pragmatics has been developed by philosophers of language and linguists who often have **little familiarity with**, or even **interest in**, **experimental psychology**.”
 - “The only source of evidence most of them have ever used has been their own **intuitions**...”
 - “It is hard to find in pragmatics crucial evidence that would clearly confirm one theory and disconfirm another.” (Sperber & Noveck 2004, p.7)
-

7

물리학의 예

- **이론물리학**: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새로운 원리를 개발하는데 초점, 실험결과를 해석하기는 하지만 실험을 설계하거나 제안하지는 않음
 - **실험물리학**: 물리 이론이 자연을 잘 기술하는지 아닌지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하고 진행
 - **계산물리학**(computational physics):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이론과 실험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
 - 현대 물리학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론만으로 구체적인 실험 결과를 예측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의 실험을 적극 활용
-

8

언어사용과 관련된 이론적 접근

- Accommodation theory (Giles & Powesland)
 - Action theory (Allwood)
 - Analytical Philosophy (Frege, Wittgenstein, Carnap, Russell..)
 - Anthropological Linguistics (Boas, Sapir, Hymes, Gumperz..)
 - Cognitive Grammar (Langacker, Cook, Reddy..)
 - Cognitive Linguistics (Lakoff, Talmy, Johnson..)
 - Computational Linguistics (Winograd, Minsky, Schank, Allen..)
 - Construction Grammar (Kay, Sheiber)
 - Conversation Analysis (Sacks, Schegloff, Jefferson..)
 - Conversational Logic (Grice, Horn, Levinson..)
 - Corpus Analysis (Aarts, Oostdijk, Leech, de Haan)
-

9

언어사용과 관련된 이론적 접근

- Critical Linguistics and Critical Discourse Analysis (Habermas, van Dijk, Wodak, Fairclough, Halliday, Mey..)
 - Discourse Analysis (Widdowson, de Beaugrande, Renkema..)
 - Discourse Representation Theory (Kamp)
 - Ethnographic Semantics (Berlin & Kay, Blount)
 - File Change Semantics (Heim)
 - Formal Pragmatics (Bunt, Groenendijk & Stokhof, Kadmon)
 - Functional Grammar (Dik, Givón, Hopper..)
 - Game-theoretical Semantics (Hintikka, Kulas)
 - Interactional Sociolinguistics (Verschueren, Gumperz, Tannen)
-

10

언어사용과 관련된 이론적 접근

- Metapragmatics (Silverstein, Verschueren, Lucy, Kiefer)
 - Philosophy of Action (Chisholm, Davidson, Austin, Kenny)
 - Pragmatism (Peirce, James, Dewey, Rorty)
 - Psycholinguistics (Bever, Slobin, Fodor, Tomlin..)
 - Relevance Theory (Sperber & Wilson, Blakemore, Carston)
 - Situation Semantics (Barwise & Perry, Devlin, Cooper)
 - Speech Act Theory (Austin, Searle, Sbisà, Blum-Kulka..)
 - Tagmemics (Longacre, K. Pike, E. Pike, Harris)
 - Text Linguistics (Dressler, van Dijk, Stubbs, Sinclair..)
 - Universal Pragmatics (Habermas)
-

11

실험화용론의 짧은 역사

- **1998.** The first workshop with the title *Experimental Pragmatics* took place in Luton, UK under the auspices of the Linguistics Association of Great Britain.
 - **2001.** A workshop was organized by Noveck and Sperber in Lyon, France under the auspices of the ESF.
 - **2004.** *Experimental Pragmatics* was edited by Noveck and Sperber to lay down the bases for the new field, drawing on pragmatics, psycholinguistics & the psychology of reasoning.
 - **2005.** The first conference on XPrag was held in UK & since then biannually across Europe and USA.
 - **2018.** *Experimental Pragmatics: The Making of a Cognitive Science* was published by Ira Noveck.
-

12

실험 (experiment)

- “A test under controlled conditions that is made to demonstrate a known truth, to examine the validity of a hypothesis, or to determine the efficacy of something previously untried.”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 학문 연구에서 실험이란 알고자 하는 현상을 통제된 환경에서 관찰하고 측정하는 모든 방법을 통칭한다.

13

실험 준비 사항

- 이론적 근거 (theoretical framework) 확인
- 주요 선행 연구 (literature study) 정리
- 연구 주제 (research problem) 선정
- 적절한 통계 분석 방법 숙지
- 연구의 제한 요소 및 한계
- 연구 윤리 준수 (IRB 포함)
- 실험 설계 및 일지 작성
- 예산 점검 및 인원 훈련
- 필요시 예비 실험 (pilot test)

14

실험 연구의 기본적 과정

- 가설 설정: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가설을 설정
- 변수 설정: 실험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와 통제해야 할 변수를 설정
- 실험 설계: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설계
- 실험 수행: 설계된 방법에 따라 실험을 수행
- 데이터 수집: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
- 데이터 분석: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 결론 도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

15

실험 연구 설계

- Experimental research design is a framework of protocols and procedures created to conduct experimental research with a scientific approach using two sets of variables. Herein, the first set of variables acts as a constant, used to measure the differences of the second set.
- The best example of experimental research methods is quantitative research. Experimental research helps a researcher gather the necessary data for making better research decisions and determining the facts of a research study.
- 실험 연구의 가장 대표적 방법은 숫자와 통계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구 방법으로 이는 변수를 설정하고 통제하여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 방법이다.

16

실험 설계 유형

- **무작위 대조군 전후 실험:**
일반적인 유형의 실험 설계. 연구 대상자를 무작위로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는 실험군과 받지 않는 대조군으로 나누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의 차이를 측정하여 독립변수의 영향을 평가
 - **단일 요인 실험:**
연구자는 단일 독립변수의 여러 수준을 사용하고 각 수준에서 종속변수를 측정
 - **다중 요인 실험:**
둘 이상의 독립변수를 조사. 각 독립변수의 여러 수준을 사용하여 각 수준에서 종속변수를 측정
 - **이중맹검 실험:** 피험자와 연구자 모두 독립변수의 영향을 알지 못함 (이 설계는 연구 결과의 편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됨)
-

17

실험 방법: 산출(production)

- **Frequency Studies:** Analyzing how often specific linguistic forms or structures are used in natural contexts, revealing patterns and possible underlying principles.
 - **Elicitation Tasks:** Presenting participants with prompts or scenarios, encouraging them to produce language under controlled conditions, and gauging how they choose words, grammar, and sentence construction.
 - **Rating Tasks:** Asking participants to judge the grammaticality, acceptability, or naturalness of different linguistic expressions, providing information about speaker preferences and intuitions about language rules.
-

18

실험 방법: 처리(processing)

- **Reaction Time Experiments:** Measuring the time it takes participants to respond to linguistic stimuli, such as identifying grammatical errors or choosing between different interpretations, suggesting the cognitive effort involved in various processing stages.
 - **Eye-Tracking:** Recording eye movements while participants engage with linguistic materials, revealing how they visually scan text, attend to specific features, and navigate through ambiguity.
 - **Neuroimaging and Neurophysiological Techniques:** Utilizing tools like EEG or fMRI to capture brain activity while participants process language, offering glimpses into the neurological underpinnings of language processing.
-

19

실험 방법: 기억과 해독(memory & comprehension)

- **Sentence Verification Tasks:** Assessing how well participants understand sentences under different conditions, manipulating factors like sentence complexity or context to explore comprehension mechanisms.
 - **Memory Recall Tasks:** Investigating how participants remember linguistic information, probing memory representation and the influence of factors like semantic coherence and repetition.
 - **Preference Judgment Tasks:** Asking participants to choose between different wordings or syntactic structures, shedding light on factors influencing their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language variation.
-

20

이나라(2012): 연구 목적

- 영어에서 유래한 형용사 접미사 '-틱(-tic)' 및 명사화 접미사 '-리스트(-ist)'와 '-어(er)' 등에 한국어 어간이 결합한 혼종 어휘(hybrid words)의 쓰임에 대한 한국어 사용자들의 인지 반응 분석
- 대표적 예문:
 - (1) a. 이 그림은 왠지 유아틱하고 가벼워 보여.
b. 이 그림은 왠지 유아적이고 가벼워 보여.
 - (2) a. 그는 내가 아는 최고의 낭만리스트이다.
b. 그는 내가 아는 최고의 낭만주의자이다.
 - (3) a. 연예인들은 왠지 강남머 티가 난다.
b. 연예인들은 왠지 강남사람 티가 난다.

21

이나라(2012): 가설과 실험 가정

- **가설:**

한국어 대응 표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혼종 어휘를 선택하고 이해할 때에 Levinson(2000)이 말하는 M-함축이라는 화용론적 함축이 발생하며 실제 한국어 사용자들은 이런 M-함축을 인지할 것이다.
- **실험 가정:**

무표적 표현이 되는 한국어 대응 표현에 비해 유표적 표현인 혼종 어휘에 대해 더 오래, 혹은 여러 번 시선이 고정될 것이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22

이나라(2012): 방법

- 1) E-Prime을 사용하여 예문의 각 어절을 읽는 시간을 측정
- 2) eye-tracking장비를 이용하여, 주어진 텍스트를 읽는 피실험자의 동공의 움직임을 관찰



DANS, KÖN OCH JAGPROJEKT

På jakt efter ungdomars kroppsspråk och den "synkretiska dansen", en sammansättning av olika kulturers dans, har jag i mitt fältarbete under hösten rört mig på olika arenor inom skolans värld. Nordiska, afrikanska, syd- och östeuropiska ungdomar gör sina röster höra genom sång, musik, skrik, skraal och gestaltar känslor och uttryck med hjälp av kroppsspråk och dans.

Den individuella estetiken framträder i kläder, frisyer och symboliska tecken som förstärker ungdomarnas "jagprojekt" där också den egna stilen i kroppsrörelserna spelar en betydande roll i identitetsprovningen. Upphållsrummet fungerar som offentlig arena där ungdomarna spelar upp sina performanceliknande kroppsbower

23

이나라(2012): 결과

- '-이스트(-ist)'와 '-어(-er)'를 포함한 혼종 어휘의 경우 그 한국어 대응 표현에 비해 읽기 시간이 유의미하게 길었고, 반복해서 읽는 빈도가 높았다. 반면 '-틱(-tic)'을 포함한 혼종 어휘들은 그 한국어 대응 표현과 읽기시간이나 횟수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유표적(Marked)			무표적(Unmarked)			차이	
표현	frame	time	표현	frame	time	frame	time
굽시니스트이다	50.4	1.60	아침꾼이다	26.3	1.40	24.1	0.20
강나머	42.1	2.73	강남사람	22.3	2.17	19.8	0.60
유아틱해	37.0	1.33	유치해	19.9	1.07	17.1	0.26
게으르머이다	51.2	1.67	게으름뱅이다	34.7	1.30	16.4	0.37
가야그머이다	43.1	1.33	가야금연주이다	31.0	1.30	12.1	0.03
도시틱해	29.0	1.40	도시적이야	18.6	1.23	10.4	0.17
낭마니스트이다	38.2	1.40	낭만주의자이다	32.3	1.20	5.9	0.20

이나라(2012): 결론

- 세 가지 유형의 한국어-영어 혼종 어휘는 모두 그에 대응하는 한국어 대응 어휘가 인지되는 상황에서 발화될 경우 Levinson(2000)이 말하는 M-원리에 따른 화용적 추론을 유발한다.
- 단 표현의 유표성과 그에 따른 M-함축의 정도는 표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다 (-er > -ist > -tic).

25

홍승진(2021): 연구 목적

-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크다 (tall)' 라고 표현할 때, 그 '크다'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는 기준점(threshold)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 이 기준점은 문맥이나 그 지칭하는 대상이 속해 있는 그룹의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 기준점을 인식하고 정하는 인지 원리는 같다.

26

홍승진(2021): 가설

- 화자는 범주화의 오류를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화평균(Harmonic mean, F1)을 사용한다.

$$F1\ Score = 2 * \frac{\text{Precision} * \text{Recall}}{\text{Precision} + \text{Recall}}$$

- Precision(정밀도): '크다'로 분류된 개체가 실제로 '큰' 개체일 확률
- Recall(재현율): 실제로 '큰' 개체가 '크다'로 분류될 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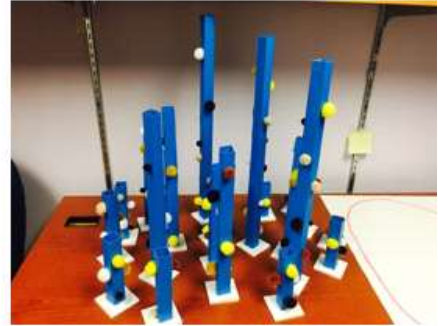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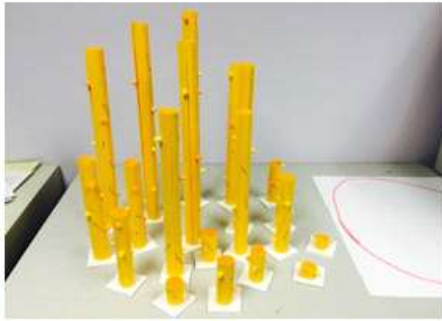
27

홍승진(2021): 가설

- 또한 화자는 어떤 개체의 범주를 구분할 때 그 기준점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도록 다양한 부가적 정보를 사용한다 (불연속성(discontinuity), 집합의 개체수의 상위 25%, 집합에서 가장 큰 개체의 높이에 75% 등).

28

홍승진(2021): 실험 도구



- 총 인원 : 48 명
- 무작위적으로
진열되어 있음

29

홍승진(2021): 실험 질문

- **실험 1:** 집합의 상위 50% 이상에 속한 개체에 높이의 불연속성이 있으면 '크다'의 기준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가?
- **실험 2:** '크다'의 기준점이 집합의 개체 수의 상위 25%에 해당하는 개체부터인가 집합에서 가장 큰 개체의 높이에 75% 이상에 해당하는 개체부터인가?
- **실험 3:** 집합의 개체를 한꺼번에 본 것과 개체를 따로따로 봤을 때 기준점이 달라지는가? (Memory task)
- **실험 4:** 높이가 높은 개체(상위 50%이상)를 먼저 본 것과 높이가 낮은 개체(하위 50%이하)를 먼저 본 것이 기준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가?

30

홍승진(2021):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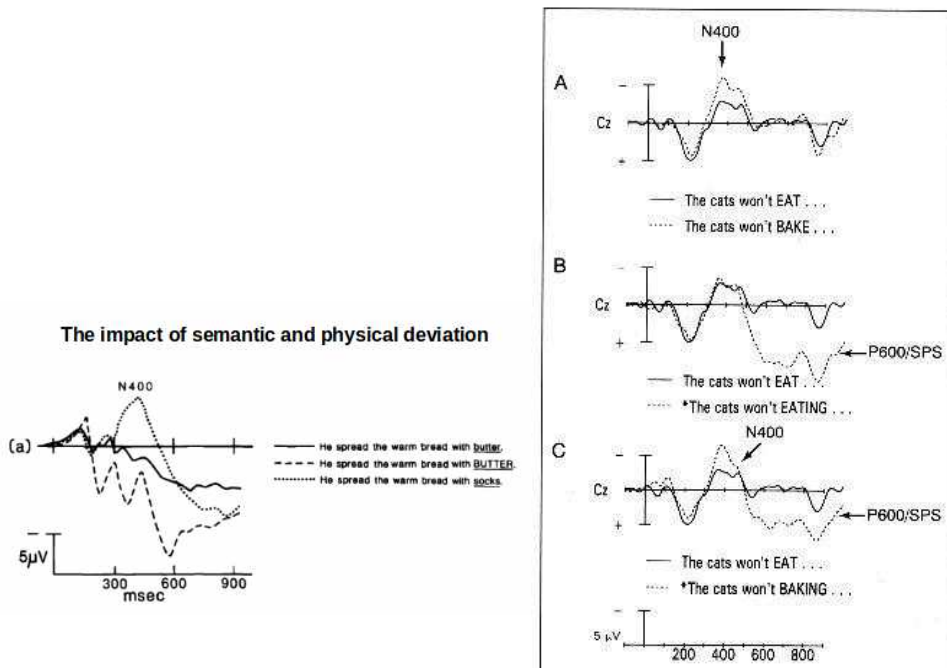
- **실험 1:** 불연속성(discontinuity)이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크지 않음
- **실험 2:** 참여자들은 집합 개체 수의 상위 25% 이상의 개체부터 '크다'의 범주로 분류 -> 조화평균이 집합의 개체수의 상위 27.5%임. 따라서 범주화 오류를 피하기 위해 조화평균을 사용함
- **실험 3:** 한번 본 개체들을 기억하고 판단해야 할 경우에는 기준점이 낮아짐 (상위 35%)
- **실험 4:** 먼저 본 개체의 크기에 영향을 받음 (primacy effect)

31

사건관련전위 (Event-related Potentials)

- ERP는 외부의 자극이나 내부의 심리적 과정에 의해 발생하는 뇌의 전기적 변화로서 인지적 과정을 연구하는 영상 방법
- 전극을 사용하여 두피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측정
- 의미는 화청자 뇌에서의 전기적 활동(electrical activity)에 중요하게 의존한다. (Coulson 187)
- N400은 예상치 못한 단어가 등장할 때 나타나는 의미처리의 음파 전위로서 N400의 크기는 단어의 예상 가능성과 관련
- 예상치 못한 단어가 등장했을 때 더 큰 N400이 나타나는데 N400은 일반적으로 단어 의미처리의 지표로 간주된다.
예 (Kutas & Hillyard 1980):
He spread his toast with butter : He spread his toast with socks

32



사건관련전위 (Event-related Potentials)

- P300은 일반적으로 자극의 주의적 처리의 지표로 간주됨
- P600은 재구성(reconstruction) 혹은 회상 과정(recollective process)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근거로 하여 자극을 더 정교하게 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 N400은 의미 처리와 관련이 있고, P300은 주의적 처리, 기억, 학습과 관련이 있으며, P600은 언어 처리, 특히 통사적 처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1980년 Kutas와 Hillvard의 N400의 발견 이래로 언어에 관심이 있는 인지신경학자들은 심리언어학 실험에서 ERP를 널리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장하아얀(2022): 연구 목적

- 우리의 언어처리과정에서 간접화행이 인지되는 구체적인 양상을 실험 방법으로 연구
 - 1) 간접화행 유형 간 비교를 통한 발화의도 처리과정의 규명
(발화처리 -> 발화의도 인지 -> 발화의도 결정)
 - 2) 발화의도 처리과정의 한국어와 유럽 언어 간 비교
 - 3) 화행과 비언어적 행위 간의 인지적 상관관계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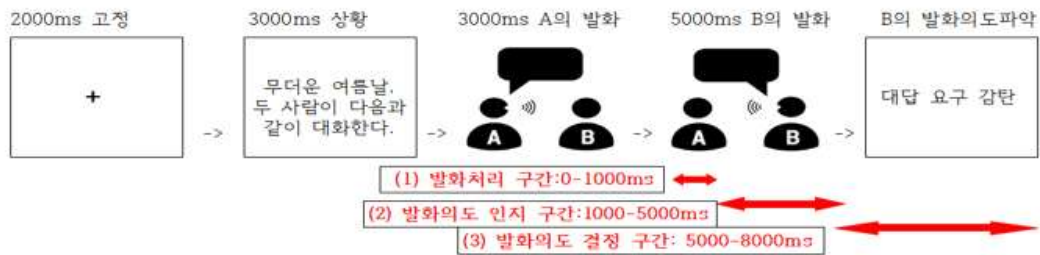
장하아얀(2022): 가설

- 발화의도 처리와 사건전위요소 M400과 P600
 - ☞ N400에서 화행 유형에 따른 차이가 확인된다면, 간접화행의 인지과정은 의미적인 부분이 중심이 되는 처리과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 ☞ P600에서 조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다면, 간접화행의 인지과정은 복잡한 화용처리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시간-뮤(μ)리듬 주파수 분석
 - ☞ 간접요구는 청자의 행위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요구 화행을 실험참여자들이 인지할 때 다른 유형에 비해 뮤(μ)리듬이 감소할 것이다.

35

장하아얀(2022): 방법

상황	조건	화자 A의 질문	화자 B의 대답	해석 가능성
두 사람이 다른 날, 교실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직접화행 (직접대답)	오늘 날씨 덥지?		의도 없음 → 행동유발 없음
	간접화행1 (간접요구)	내가 장문 열여 줄까?	않이 덩네.	의도 있음(요구) → 행동유발 있음
	간접화행2 (간접대답)	오늘 야외수업 없겠지?		의도 없음 → 행동유발 없음



36

장하아얀(2022): 결과

분석	실험 결과	
정답률	직접 대답 > 간접 대답(의도 없음) > 간접 요구(의도 있음)	
ERP 분석	(1) 발화 처리 구간 (0~1000ms)	X
	(2) 발화의도 인지 구간 (1000~5000ms)	X
	(3) 발화의도 결정 구간 (5000~8000ms)	① 간접 대답 > 간접 요구 - N400 ② 간접 요구 > 간접 대답 - P3b - P600
시간-주파수 분석 (강도)	① 간접 대답(청자에게 행동유발 없음) - 500~1000ms 시간 구간에서 유리듬 발생 ② 간접 요구(청자에게 행동유발 있음) - 500~1000ms 시간 구간에서 유리듬 발생 → 두 화행의 '행동 유발'의 유무에 따라 언어 행위와 신체 행위의 인지적 상관관계를 유리듬으로 보려 했으나, 실험 결과 두 화행에서 모두 유리듬이 보임으로써 상관관계가 확인되지 않음.	

37

장하아얀(2022): 결론

- 발화의도 제시(5000ms) 후 약 400ms
- (1) Fz-negativity (N400): **간접대답 > 간접요구**
 - 👁 조건별 '간접성' 비교 (간접대답-직접대답 vs. 간접요구-직접대답)
간접대답과 직접대답을 의미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간접요구와 직접대답을 구분하는 것보다 세밀한 의미처리 과정이 요구된다.
 - 👁 간접대답과 직접대답은 발화의도가 '대답'으로 동일하게 제시되어서 '간접성'만을 기준으로 의도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
 - 👁 **간접대답에서 확인된 N400은 이러한 복잡한 의미처리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8

장하아얀(2022): 결론

- 발화의도 제시(5000ms)후 약 400ms
- (2) Pz-positivity: **간접요구 > 간접대답**
 - 👁 제시(5000ms)후 약 350-500ms(5350ms)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
일반적으로 Pz전극에서 이 시간대에 나타나는 양전위는 P3b로 파악
 - 👁 P3b는 특정한 자극에 대한 주의 집중(attention allocation)을 반영하는 지표
 - 👁 '간접요구'에 대해서 확인된 높은 P3b는 '**간접요구'에 대한 의도 파악과정이 '간접대답'에 대한 과정보다 더 많은 주의 집중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
(간접요구의 경우는 간접대답과 달리 '**청자의 행동'을 의미하는 perlocutionary act**까지도 의도의 실현과정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

39

윤홍옥 외(2023): 목적

■ 목적:

한국어 증거성(evidentiality) 문장 처리에서 관찰되는 행동반응과 뇌신경 반응 비교

■ 가설:

- 1) (행동반응) 정보 출처와 증거성 형태소가 불일치할 경우에 rejection rates가 높아질 것이다.
- 2) (뇌신경반응) 정보 출처와 증거성 형태소가 불일치할 경우에 N400, P600의 결과가 관찰될 것이다.

40

윤홍옥 외(2023): 방법

■ 방법:

- 1) (행동반응) stop-making-sense task: 문장을 읽는 도중에 비문법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서 문장읽기를 거부(reject)하게 함. No rejection이 나타나는 패턴을 관찰
- 2) EEG 장비를 이용하여, 피험자들이 주어진 문장을 읽는 동안 피험자에게서 발생하는 뇌파를 평균으로 한 ERP 패턴을 관찰

■ 예문:

	~더라 (목적)							있었더라
전언 (hearsay)	~대(전언)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 수영선수 가	바다에서	아이를	구하고	있었대
	~어(중립)							있었어
	~군(추측)							있었군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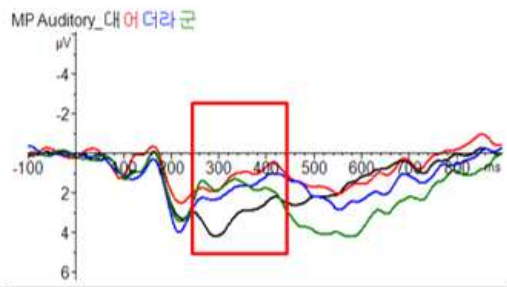
윤홍욱 외(2023): 결과(행동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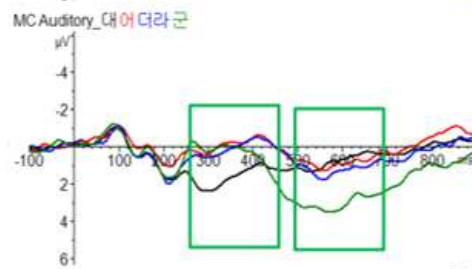
- 1) ~대 (전언 정보출처-전언 marker) → 일치 조건 (rejection 적음)
- 2) ~더라 (전언 정보출처-목적 marker) → 불일치 조건 (rejection 많음)
- 3) ~군 (전언 정보출처 -추측 marker) → 불일치 조건 (rejection 많음)
- 4) ~어 (전언 정보출처-중립 marker) → 일치 조건 (rejection 많음)

42

윤홍욱 외(2023): 결과(ERPs)



- N400 효과: -대 vs. -어/-더라
→ 예측하지 못한 불일치 증거성 marker 등장 (예측은 못했으나, 문장 통합에는 어려움이 없었음)



- N400 + P600 효과: -대 vs. -군
→ 예측하지 못한 비증거성 marker의 등장 (예측도 못했고, 문장 통합도 어려움)

43

윤홍욱 외(2023): 결론

- 한국어의 증거성 정보처리는 행동반응과 뇌신경반응 모두에서 관찰됨
- 행동반응에서는 양적 차이만 관찰 (일치 조건과 불일치 조건 간에 rejection rates 차이를 포착)
- 뇌신경 반응을 통해 양적, 질적 차이를 관찰 (증거성 혹은 비증거성 형태소 여부에 따라 일치 조건과 불일치 조건 간에 N400 혹은 P600 효과를 포착)
- 독립적 형태소 '-어'와 관련한 내용은 추가 연구가 필요함

44

실험의 의의

- 가설의 검증
- 객관적인 자료의 수집
- 기존 이론 체계와의 (불)일치 확인
- 이론의 명시화 => 정확성, 타당성 높임
- 인과 관계 확인
- 심리적 실체
- 새로운 출발점 및 연구 주제 제공

45

실험적 접근의 한계

- **통제된 환경**

실험은 일반적으로 실험실이나 온라인에서의 인공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며, 참여자들은 종종 주어진 지시에 따라 언어를 사용하도록 단순화된 작업을 요청받는데 이러한 환경은 자연스러운 언어 사용과는 거리가 있다.

- **참여자의 주관적 판단 의존 가능성**

실험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측정할 위험이 있다. 피험자들은 실험에 집중하는 대신 실험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려 하거나 실험 외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46

실험적 접근의 한계

- **개인 대 집단 수준**

실험은 일반적으로 소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그 결과는 종종 참가자들의 평균값이나 추세를 나타내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실험 결과를 전체 언어 사용자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

- **언어 능력과의 괴리 가능성**

언어 능력과 언어 처리는 크게 다를 수 있고, 주의력이나 피로 또는 개인적 요인 등이 실험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7

실험적 접근의 한계

- **재현성 도전**

방법론의 문제나 참여자 인구의 변동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일부 실험 결과를 재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결과의 신뢰성 및 보편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 **정신 과정에 대한 제한된 접근**

일부 실험 방법은 관찰 가능한 행동과 반응을 측정하며 언어 처리에 관여하는 기본 인지 과정에 직접 액세스하지 않는데 이는 언어가 마음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공백을 남길 수 있다.

48

실험적 접근의 한계

- **제한된 범위**

실험은 일반적으로 형식, 의미 또는 기억과 같은 언어의 특정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각 층위에서의 연구에는 유용하지만 자연 언어 생산 및 이해에서 여러 구성 요소들이 상호 작용하는 방식은 간과되기도 한다.

- **작업별 특성**

실험은 언어가 사용되는 진정한 범위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즉흥적인 대화나 창의적인 글쓰기의 풍부함을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

49

실험적 접근의 한계

- **시간과 비용에서 비효율성**

실험 연구 설계는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실험 설계를 수행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 **실험이 적합하지 않은 연구 가능**

실험 방법은 필수적이지 않으며 모든 연구에 공통적으로 필요로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50

한계의 극복

- **실험 환경의 최적화**

자연스러운 언어 사용을 반영하기 위해 실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유롭게 언어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거나, 자연스러운 대화 상황에서 언어 사용을 관찰할 수 있다.

- **다양한 실험 방법의 개발**

실험에 참여하는 피험자들의 주관적 판단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방법을 개선하여 실험 방법의 유용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51

한계의 극복

- **AI의 활용**

언어사용에 대한 연구에서 자료 수집, 분류, 분석, 검증, 해석 등의 거의 모든 단계에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다. 물리학에서 계산물리학의 등장처럼 언어 연구에서도 전산방법 테크닉을 집중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연구커뮤니티의 활성화**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다른 연구와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다.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52

한계의 극복

- 현재 실험화용론이 갖고 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험화용론은 맥락적 언어 사용에 대한 귀중한 도구이다.

- 방법은 연구의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연구의 주제를 제시하고 이론적 지평을 확장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

- 실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결과를 신중하게 해석하며 창의적 방법들을 개발함으로써 연구자들은 실험의 강점을 활용하여 인간 언어의 복잡한 화용 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53

End of Talk

감사합니다.

실험 음성학 및 음운론 연구

신 지 영(고려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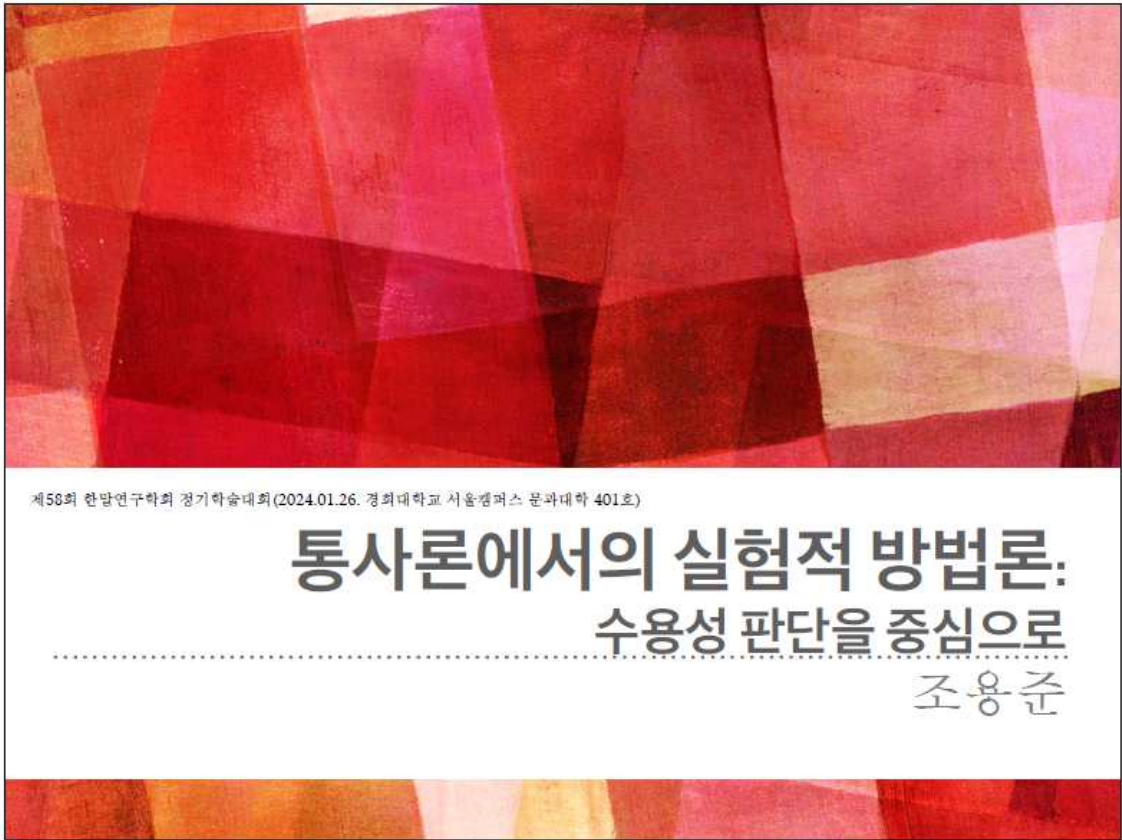
※ 발표장에 준비된 PPT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포스터
발표**



주제 발표



통사론에서의 경험적 증거

	관찰 자료 <small>Observational Data</small>		실험 자료 <small>Experimental Data</small>	
			온라인	오프라인
산출 <small>출력(output)</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 필공식 • Web as Corpus • 대화분석 (Conversational Analysis)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생리학적 실험 (Electrophysiology): EEG, MEG • 혈역학반응 실험 (Hemodynamic response): fMRI • 광토포그래피 (optical topography)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도모방실험 (Elicited Imitation) • 유도산출실험 (Elicited Production) • 담화완성과제 (Discourse Completion Task) • 역할극 실험 (Role Play) • 그림기술과제 (Picture Description Task) • 빈칸채우기 시험 (Cloze test)
인지 <small>입력(input)</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조절읽기 실험 (Self-paced reading) • 안구추적실험 (eye-tracking) • 전기생리학적 실험 (Electrophysiology): EEG, MEG • 혈역학반응 실험 (Hemodynamic response): fMRI • 광토포그래피 (optical topography)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성판단실험 (Acceptability Judgment) • 진리값판단실험 (Truth-Value Judgment) • 해석판단실험 (Interpretation Judgment)
데이터의 특성	자연스러운/있는 그대로의 (naturalistic)		가공적/인위적/인공적 (fabricated)	
추론의 유형	귀납적		연역적	

➤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기술 통계, 추론 통계)

실험 통사론의 개념

- 넓은 의미: 통사론 연구에 실험심리학적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는 광범위의 것(Sprouse, 2023)
- 좁은 의미: 형식적 수용성 판단 실험을 사용하는 연구(Goodall, 2021)
- 수용성 판단에 대한 형식적 실험을 통해 문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수치로 환산하고 이를 토대로 계량적(통계적) 분석을 하는 연구 영역 혹은 방법론

• '수용성(acceptability)'의 개념:

- 한 언어에서 문장이나 구성이 좋다고 받아들여지거나 그렇지 않음
-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내적 지각의 하나(percept, Schütze & Sprouse, 2013: 29)
- 지각으로서의 수용성은 내재적이고 개인적이다
- 따라서 직접 측정은 불가능하며 간접적 측정만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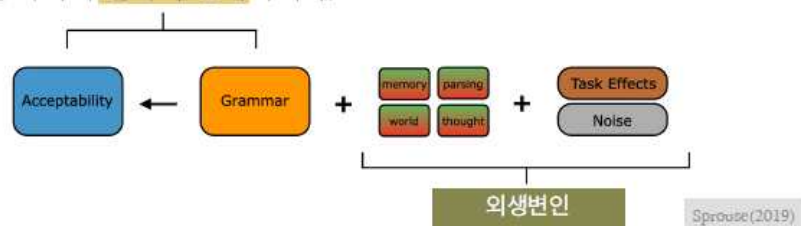
• '수용성 판단(acceptability judgment)'의 개념:

- 특정한 문장이나 구성이 주어졌을 때 그 언어에서 수용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화자에게 판단하게 하여 화자가 그 문장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즉 수용성을 보고하도록 한다. 이때의 수용성 보고를 수용성 판단이라고 한다.

• '형식적(formal)'의 개념: 실험심리학적 연구방법론의 채택

실험 설계의 요건

- 실험심리학적 연구방법론의 수용
- 실험적 방법:
 - 변인 A를 조작함으로써 변인 B의 변화를 유도함
 - 목표: 두 변인 사이의 **인과적 관계**의 수립



- 외생변인의 통제 방법 📌 라틴방격법, 역균형화, 블록 기반 준랜덤화, 반복측정(어휘화)

수용성 판단 수집의 형식적 방법과 비형식적 방법의 구분

	비형식적 방법	형식적 방법
전반적 특징	통사론 연구의 전통적 방식	실험심리학적 연구방법론에 기초한 방식
표본 수	20명 이하의 소수	30명 이상의 무선 표집 (random sampling)
제보자 특성	연구자 본인	비전문가
실험 설계	단순 (외생 변인에 대한 고려 없음)	방법론적 엄밀성 추구 (예: 외생변인 제거)
결과 분석	통계기법 이용하지 않음	통계모형 활용 (반복측정 분산분석, 혼합효과모형, 베이즈요인분석)

수용성판단의 측정 방법 (II): 유형 분류

측정 방법의 유형	자료의 특성	판단의 특성	예시
가부판단법 (YN) <small>Yes/No task</small>	범주형 (명목)	절대적 판단	• 다음 문장은 한국어로서 문법적인가요? '이 옷이 요즈음 사람들이 많이 입는다' 예 아니요
양자택일법 (FC) <small>Two-alternative forced choice</small>	범주형 (명목)	상대적 판단	• 다음 두 개의 문장 중에서 보다 문법적인 문장을 고르시오. a. '학생을 고양이가 세 명 쳐다보았다.' b. '고양이를 학생이 세 마리 쳐다보았다.'
리커트척도법 (LS) <small>Likert scale</small>	범주형 (순서)	절대적 판단	• 다음 문장이 한국어로서 낯잡은 정도에 따라 점수를 선택하십시오. '점수가 짝이 잤다' 1 2 3 4 5
강도측정법 (ME) <small>Magnitude estimation</small>	연속형	상대적 판단	• 다음 문장의 문법성에 따라 양의 점수를 임의로 적으시오. '점수가 짝이 잤다.' 점수: _____ • 위 문장의 수용성 점수에 비교하여 다음 문장의 점수를 적으시오. a. '학생을 고양이가 세 명 쳐다보았다.' 점수: _____ b. '고양이를 학생이 세 마리 쳐다보았다.' 점수: _____
온도계 측정법 (TT) <small>Thermometric task</small>	연속형	상대적 판단	• 다음 문장의 문법성에 따라 양의 점수를 임의로 적으시오. '점수가 짝을 잤다.' 점수: _____ '점수가 짝이 잤다.' 점수: _____ • 위 문장의 수용성 점수에 비교하여 다음 문장의 점수를 적으시오. a. '학생을 고양이가 세 명 쳐다보았다.' 점수: _____ b. '고양이를 학생이 세 마리 쳐다보았다.' 점수: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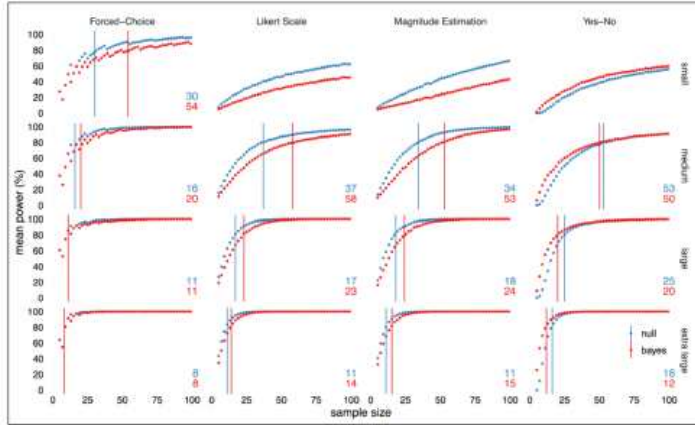
리커트척도법의 동간격 문제의 해결 방안: 누적로그 다항회귀분석 (cumulative-logit multinomial regression) 혹은 표준화 변형

수용성판단의 측정 방법 (III): 통사적 대립에 대한 민감도 1

- 효과크기 (small, medium, large, extra large)에 따른 통계적 검정력 비교 (Sprouse & Almeida 2017)

효과크기: 집단간 평균차이, 실제적 유의성 표시, 표본크기 선정과 관련됨

통계적 검정력 (1-β): 대립가설이 참일 때 대립가설이 채택될 확률 (0.8~0.95)



0.5 미만

0.5에서 0.8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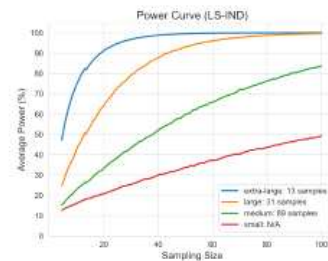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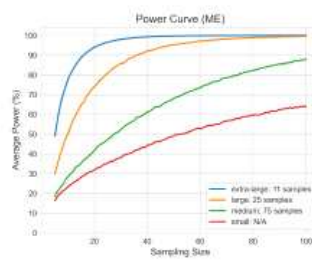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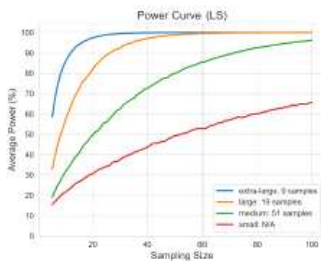
0.8에서 1.1 사이

1.1 이상

- 양자택일법 (Forced-Choice)이 민감도가 가장 높고 가부판단법 (Yes-No)이 가장 낮음
- 리커트척도법 (Likert Scale)과 강도측정법 (Magnitude Estimation)에서는, 효과크기가 작은 경우 (small)를 제외하고 거의 일치함

수용성판단의 측정 방법 (III): 통사적 대립에 대한 민감도 2

- 한국어의 경우 (조용준, 2023)
- 재샘플링 방법 활용 (총 4,750,000회 반복):
동사유형 50개를 효과 크기별로 5~100명 사이에서 1씩 증가하며 각 1,000번씩 비복원 무선추출 <비복원 추출 절차>
 - 정문과 비문별로 각각 5명의 데이터를 무작위로 비복원 추출한다.
 - 표본에 통계 검정을 수행한다. 이 경우 종속 표본, 독립 표본 t-검정을 수행한다.
 - 5명의 표본 크기로 1,000번의 실험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를 1,000번 반복한다.
 - 사전에 정한 유의수준 ($p < 0.05$)을 초과하는 검정통계량을 낸 시뮬레이션의 비율 (1,000번 중)을 계산한다. 이 비율은 5명의 표본 크기에 대한 통계적 검정력의 경험적 추정치이다.
- 리커트척도법 (종속 표본, 독립 표본), 강도측정법 대상



- Sprouse & Almeida (2017)과 유사한 결과
- 종속 표본인 경우보다, 독립 표본의 경우 표본 크기가 좀더 커야 함

비형식적 방법과 형식적 방법의 비교 연구: 영어

- 비형식적 방법의 문제점: 1종 오류(거짓 양성, false positive)의 가능성 높음 : 잡음 효과 혹은 전문가 편향
- Hill 1961, Spencer 1973 이후 끊임없는 비판과 논쟁의 대상

Sprouse et al. (2013)의 연구: FC, LS, ME 과제를 통한 비교

- 기존 연구의 문제: 1) 검증 수단인 통사현상의 편향적/제한적 선택, 2) 피실험자수 제한
- 대용량 무선 추출(a very large and random sampling)에 의한 비교
- 데이터: Linguistic Inquiry(2001-2010)에 실린 150개 쌍의 영어 통사 현상
- 참여자 수: 936명 (조건 당 100명 이상)
- 결과: 평균 95%의 수렴률 ⇒ 두 방법 간의 차이 거의 없음

Task	Directionality	One-tailed	Two-tailed	LME/ML	Bayes factor
ME	99	93	92/93	86/88	89/90
LS	97	93	93	88/90	89/90
FC	97	94/95	94/95	95	94

- 후속 연구: Juzek(2016), Mahowald et al.(2016), Sprouse & Almeida(2017), Langsford et al. (2018), Linzen & Oseki(2018) 등

비형식적 방법과 형식적 방법의 비교 연구: 한국어 1

- 송상헌 외(2017), 안희돈 외(2019), 조용준 외(2019): 대략 80%의 일치율
- 안희돈 외(2020) : 국립국어원의 '문장 문법성 판단을 위한 기초 자료 구축' 사업
 - 한국어 관련 최초의 크라우드소싱 기반 대규모 무선표집(random sampling)에 의한 수용성 판단 연구 사업
 - 건국대학교 다언어다문화연구소, 나리지식정보, 그리고 나라아이벡이 참여한 건국대학교 컨소시엄에 의해 4개월 동안(2019년 11월~2020년 3월) 수행
 - 총 40년(1970~2019)에 걸쳐 출판된 국내외 한국어 통사론 관련 논문 및 저서에서 찾아낸 정문과 비문으로 구성된 38,317쌍의 문장(총 76,634문장)을 대상으로 10,000쌍(총 20,000문장)을 임의 표본 추출
 - 총 30,893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7점 리커트 척도법을 이용해 수용성 판단을 수집
 - 연구의 의의: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수용성 판단 데이터셋

▶ '국립국어원 문법성판단 말뭉치(2020)'로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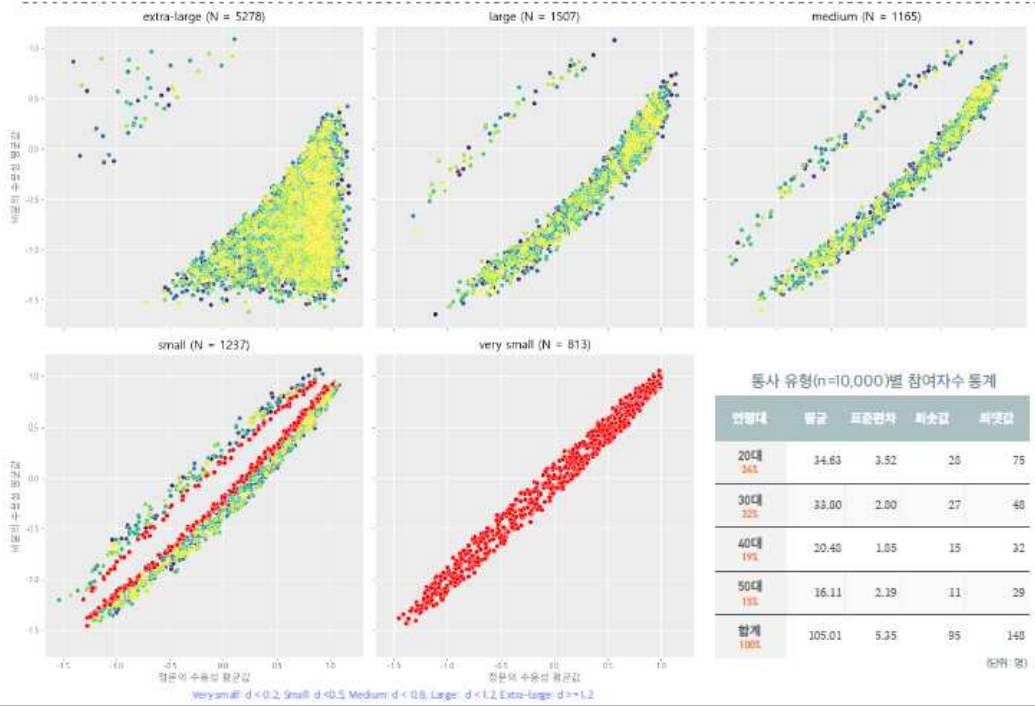
▶ 연구 결과, 일치율은 평균 81.47%

구분	인원	비고
총인원	30,893명	최소 20,000명 이상 60세 이상
문법성 판독자 1	1,107명	3명이 복수 응답 가능(유니크 응답)
문법성 판독자 2	1,455명	일부조사 전체 과제 시도에 100%의 응답률
총 표본 수	28,237명	최소 20,000명 이상(100%)



10

비형식적 방법과 형식적 방법의 비교 연구: 한국어 2



비형식적 방법과 형식적 방법의 비교 연구: 한국어 3

양측 독립표본 t-검정 결과

Direction	Significance level	Extra-large	Large	Medium	Small	Very small	합계
예측 방향	Significant	5,235(61.40%) [99.19%] 52.35%	1,452(17.03%) [96.35%] 14.52%	1,062(11.46%) [91.16%] 10.62%	778(9.11%) [62.01%] 7.77%	0(0.0%) [0.0%] 0.0%	8,526(100.0%) [85.26%] 85.26%
		0(0.0%) [0.0%] 0.0%	0(0.0%) [0.0%] 0.0%	0(0.0%) [0.0%] 0.0%	114(95.04%) [9.30%] 1.15%	6(4.96%) [0.74%] 0.06%	121(100.0%) [12.1%] 1.21%
	Non-significant	0(0.0%) [0.0%] 0.0%	0(0.0%) [0.0%] 0.0%	0(0.0%) [0.0%] 0.0%	84(14.97%) [6.79%] 0.84%	477(55.03%) [56.67%] 4.77%	561(100.0%) [5.61%] 5.61%
		소계	5,235(56.89%) [99.19%] 52.35%	1,452(15.77%) [96.35%] 14.52%	1,062(11.53%) [91.16%] 10.62%	976(10.60%) [78.90%] 9.76%	483(5.25%) [39.41%] 4.83%
역방향	Significant	43(1.35%) [0.01%] 0.43%	55(1.51%) [3.65%] 0.55%	103(27.18%) [8.84%] 1.03%	177(46.70%) [14.81%] 1.77%	1(0.26%) [0.12%] 0.01%	379(100.0%) [3.79%] 3.79%
		0(0.0%) [0.0%] 0.0%	0(0.0%) [0.0%] 0.0%	0(0.0%) [0.0%] 0.0%	37(97.37%) [2.99%] 0.37%	1(0.26%) [0.12%] 0.01%	38(100%) [0.38%] 0.38%
	Non-significant	0(0.0%) [0.0%] 0.0%	0(0.0%) [0.0%] 0.0%	0(0.0%) [0.0%] 0.0%	47(12.53%) [3.80%] 0.47%	328(87.47%) [40.34%] 3.28%	375(100%) [3.75%] 3.75%
		소계	43(5.43%) [0.01%] 0.43%	55(6.94%) [3.65%] 0.55%	103(12.01%) [8.84%] 1.03%	261(32.99%) [21.10%] 2.61%	330(41.67%) [40.59%] 3.30%
합계	5,278(52.78%) [100%] 52.78%	1,507(15.07%) [100%] 15.07%	1,165(11.65%) [100%] 11.65%	1,237(12.37%) [100%] 12.37%	813(8.13%) [100%] 8.13%	10,000(100%) [100%] 100%	

- 한국어에 관련하여 비형식적 방법과 형식적 방법에 의한 수용성 판단은 서로 수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음(양측 독립표본 t-검정의 경우, 85.26%)
- 특히, 효과 크기가 매우 작은 경우, 비수렴률이 100%(경계 지대에 있는 경우(marginal), 0.36% 포함)

수집 방법의 비교와 집단 간 비교의 차이

• 수용성 판단 수집 방법(형식적/비형식적)과 전문가/비전문가 집단 간 비교

- 기존 연구: 비형식적 방법=전문가 집단, 형식적 방법=비전문가 집단 (동일시)
(Sprouse 2017, Song et al. 2014 등)
- 비형식적 방법 = 한 개인(연구자)의 질적인 수용성 판단 자료
형식적 방법 = 한 집단(비전문가)의 양적인 수용성 판단 자료
-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의 비교는 집단 간 비교로 해야

• 연구 경향

- Greenbaum 1973, Spender 1973: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 발견

- Culbertson & Gross 2009: 4집단 비교:
인지과학 노출 여부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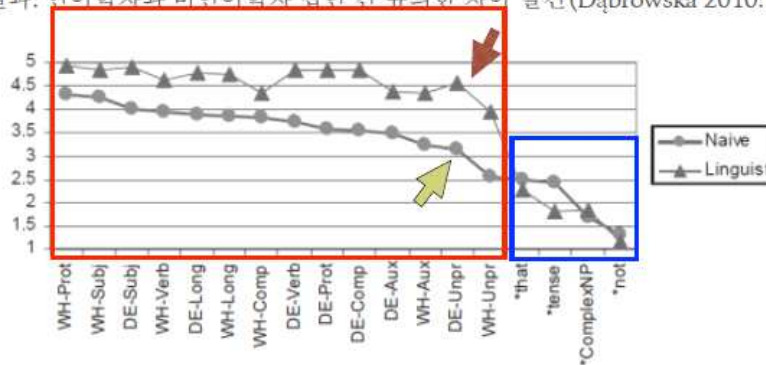
집단 1 (n=7)	집단 2 (n=17)	집단 3 (n=11)	집단 4 (n=7)
언어학 박사과정 생	통사론에 약간 노 출된 대학생	통사론에 노출되지 않았 지만 인지과학에 노출된 대학생	인지과학에도 노출 되지 않은 대학생

- Snow & Meijer 1977: 언어학자와 비언어학자 집단의 일치
- Sprouse & Almeida 2012: Adger 2003의 통사 현상 대상 검증 > 98% 일치

전문가/비전문가 집단 간 비교 : DĄBROWSKA 2010

- 통사 현상 : 총 18개의 문장 유형

- 결과: 언어학자와 비언어학자 집단 간 유의한 차이 발견(Dąbrowska 2010:12, 그림 1)



- 정문의 경우의 수용성 판단: 언어학자 > 비언어학자
- 비문의 경우의 수용성 판단: 언어학자 < 비언어학자
- 생성문법 학자와 기능문법 학자 집단 간 유의한 차이 발견(Dąbrowska 2010:19)

한국어에서의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의 비교 1

- 조용준&안희돈(근간)
- ‘생성문법연구’에 8년간(2003~2004, 2008~2013년) 게재된 한국어 통사론 관련 논문 중 무선 추출한 통사 현상 121개
- 통사적 최소대립쌍의 어휘화: 정문과 비문 각 8개씩
- 측정 방법: 7점 리커트 척도법
- 비전문가(일반인): K대 대학(원)생 119명
- 전문가(문법론 연구자): 98명
- 통사론 연구회 회원, 한말연구학회 회원 등 한국어 문법론 관련 박사학위자

한국어에서의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의 비교 2



한국어에서의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의 비교 3

이원분산분석(문법성x집단) 결과

-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가 24.8%(30개), 경계 지대에 있는(marginal) 경우가 12개(9.9%)
- 문법성과 집단간 상호작용이 유의한 경우가 32.2%(39개), 경계 지대에 있는 경우가 6개(5%)

• 참여자를 변량요인으로 한 선형혼합효과 분석 결과

-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가 32.2%(39개), 경계 지대에 있는 경우가 12(9.9%)
- 문법성과 집단간 상호작용이 유의한 경우가 35.5%(43개), 경계 지대에 있는 12개(9.9%)

• 결론: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은 서로 수렴하지 않음

문법성과 수용성의 구분

- 수용성(acceptability): 주어진 문장에 대한 내적 지각 반응; 이론 중립적
- 문법성: 한 언어의 문법(언어지식)에 의해 생성되었는지의 여부; 이론 편향적

문법성	수용성	Schltze(1996)	Hojl(2015)
○	○	가능	가능
○	×	가능	가능
×	○	가능	불가능
×	×	가능	가능

문법적 환상 grammatical illusion

- (3) a. The key to the cabinets are on the table. Agreement attraction effect
 b. More people have been to Russia than I have. Comparative illusion

Forward binding

- (4) a. ?I know what Mary, Sue, and Bill_i have in common. Mary likes him_i, Sue likes him_i, and Bill_i likes him_i, too.
 b. I know Mary, Sue, and Bill_i have in common. Mary likes him_i, Sue likes him_i, and Bill_i likes himself_i, too.

Negative illusion

- (5) a. No bills that the senators voted for will ever become law.
 b. *The bills that the senators voted for will ever become law.
 c. *The bills that no senators voted for will ever become law.

(Lewis & Phillips, 2015)

대격중출구문과 수용성 판단 1

- 대격 중출 구문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일반인의 경우 대격 중출 구문에 대한 수용성이 높지 않은 편이다.

“**이중 목적어 구문**은 견해에 따라 다르게 보지만, 대부분 비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이중목적어문을 일반적인 문장으로 보지 않으므로...” (온라인 가나다, 2013/06/03)

- 임규홍(1998: 173)

	수용할 수 있음(%)	매우 어려움(5%)	조금 어려움(5%)	문장인(%)
2. 지성이기 돌림이름 책을 주었다. ...	55.51	42.65	7.99	0.28
7. 그가 <목포의 눈물>을 유령가볼 노래를 불렀다.	49.80	38.98	10.04	1.23
10. 철수는 우리 반 학생을 한 명에 개인 선물을 등을 주었다.	49.11	34.8	15.11	0.06
11. 철수가 영희를 그의 동생에게 책을 리은 책을 주었다.	38.52	38.23	12.76	0.49
29. 철수가 동생을 가졌을 한다.	23.97	14.72	14.72	2.46
30. 철수가 흠을 먹음을 만들었다.	40.18	23.95	23.95	0.77
34. 철수가 밥을 씹어서를 먹지않는다.	35.46	16.15	16.15	3.74
35. 철수가 영희에게를 책을 주었다. ...	37.65	21.43	21.43	4.19

- 대부분의 대격중출구문 연구자는 그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다.

➡ 일반인과 전문가(통사론 연구자) 간의 수용성 판단의 차이 존재

대격중출구문과 수용성 판단 2

문법성	수용성	Schütze(1996)	Hof(2015)
○	×	가능	가능
×	○	가능	불가능
×	×	가능	가능

- 대격 중출 구문

(1) 가.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주었다. 여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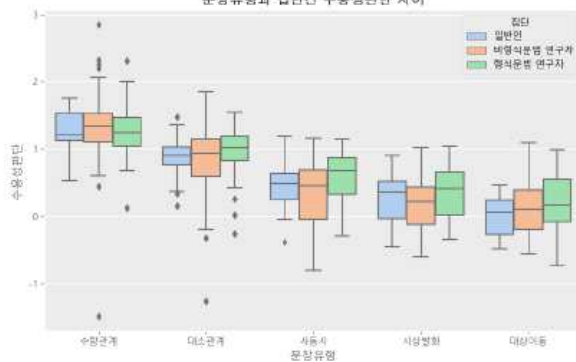
나. 철수가 영희를 책을 주었다. 대격

- 비대격 중출 구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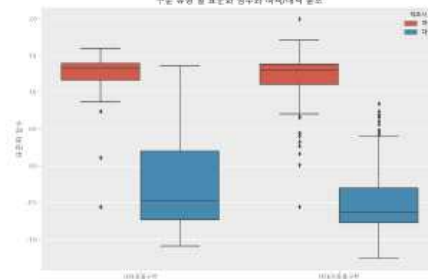
(2) 가.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보냈다. 여격

나. * 철수가 영희를 책을 보냈다. 대격

문장유형과 집단간 수용성판단 차이



구문 유형 별 표준화 점수와 여격대격 분포



➡ OLS 선형 회귀 모형 분석:
비대격중출구문이 대격중출구문보다 수용성판단이 평균적으로 0.182 낮음 ($p < .001$)

수용성 판단과 인공지능 연구

- 클라우드소싱 기반 대규모 수용성판단 실험

➔ 인공지능 학습, 즉 거대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의 평가를 위한 벤치마크로서의 수용성 판단 말뭉치의 출현을 가져옴

- 인공지능 학습/평가를 위한 수용성판단 말뭉치의 출현: CoLA(2018), BLiMP(2019)

CoLA계열		BLiMP계열	
0	*) Bill floated into the cave for hours.	"sentence_good": "Who should Derek hug after shocking Richard?",	
0	*) Bill pushed Harry off the sofa for hours.	"sentence_bad": "Who should Derek hug Richard after shocking?"	
1	Bill floated down the river for hours.	"sentence_good": "Who will Katherine discover without hiring Erin?",	
1	Bill floated down the river.	"sentence_bad": "Who will Katherine discover Erin without hiring?"	

- 차이점

말뭉치	특징
CoLA(2018)	문장이 그에 대한 수용성 판단(1 혹은 0으로 표시)과 함께 단독으로 제시되는 데이터프레임 형태
BLiMP(2019)	정문(sentence_good)과 비문(sentence_bad)의 최소대립쌍으로 제시되는 딕셔너리 형태

수용성판단 말뭉치

분류	말뭉치명	언어	규모	논문
CoLA 계열 기부판단평가 해당	CoLA <i>Corpus of Linguistic Acceptability</i>	영어	10,657 문장	Warstadt & Bowman 2019
	ItaCoLA <i>Italian Corpus of Linguistic Acceptability</i>	이탈리아어	9,722 문장	Trotta et al. 2022
	RuCoLA <i>Russian Corpus of Linguistic Acceptability</i>	러시아어	13,400 문장	Mikhailov et al. 2022
	DaLAJ <i>Dataset for Linguistic Acceptability Judgments for Swedish</i>	스웨덴어	9,596 문장	Volodina et al. 2021
	NoCoLA _{class} <i>Norwegian Corpus of Linguistic Acceptability</i>	노르웨이어	144,864 문장	Jentoft & Samuel 2023
	JCoLA <i>Japanese Corpus of Linguistic Acceptability</i>	일본어	2,323 문장	Someya & Oseki 2022
BLiMP 계열 양자화판평가 해당	BLiMP <i>Benchmark of Linguistic Minimal Pairs</i>	영어	67,000쌍	Warstadt et al. 2020
	CLiMP <i>Corpus of Chinese Linguistic Minimal Pairs</i>	중국어	1600쌍	Xiang et al. 2021
	JBLiMP <i>Japanese Benchmark of Linguistic Minimal Pairs</i>	일본어	331쌍	Someya & Oseki 2023
	NoCoLA _{zero} <i>Norwegian Corpus of Linguistic Acceptability</i>	노르웨이어	99,115쌍	Jentoft & Samuel 2023

➔ 그외 SyntaxGym(2020), Big-bench(2022) 등

국립국어원 문법성판단 말뭉치(2020)

- 17,908문장으로 구성
- CoLA 계열이면서 독특한 지위
- CoLA 계열: 이항(binomial) 척도
- 7점 리커트척도로 각문장별 100명 이상의 수용성판단 점수 취합 후 평균
- 독특한 지위: 1~7 사이의 연속형 자료
- 원래 BLiMP 자료의 형태로 설계됨

➡ 원래 설계대로 BLiMP 계열로 공개 필요

➡ 다양한 수용성판단 말뭉치의 개발 필요

메타언어적 지식의 신경망 학습

- 2010년대 이후 인공 신경망 연구에서 거대 언어 모형(Large Language Model)의 메타언어적(문법적) 지식의 학습 가능성 탐구 시작(Linzen et al., 2016; Chowdhury & Zamparelli, 2018; Gulordava et al., 2019; Wilcox et al., 2018; Warstadt & Bowman, 2019, 2020; Warstadt et al., 2020; Hu et al., 2020; Chaves, 2020; Papadimitriou et al., 2021; Choshen et al., 2021 등)

➡ 공통된 결론: 언어 모형이 항상 인간과 유사한 언어 이해와 문법적 지식을 보여주지 않음

➡ 최근 연구: GPT2의 경우, 인간의 정확률(88.6%)에 근접하는 성능(83.0%)을 보여줌

Model	Overall	ANA_AGR	ARG_STR	BINDING	CTRL_RAIS.	D-N_AGR	ELLIPSIS	FILLER_GAP	IRREGULAR	ISLAND	NPI	QUANTIFIERS	S-V_AGR
5-gram	61.2	47.9	71.9	64.4	68.5	70.0	36.9	60.2	79.5	57.2	45.5	53.5	60.3
LSTM	69.8	91.7	73.2	73.5	67.0	85.4	67.6	73.9	89.1	46.6	51.7	64.5	80.1
TXL	69.6	94.1	72.2	74.7	71.5	83.0	77.2	66.6	78.2	48.4	55.2	69.3	76.0
GPT-2	83.0	99.3	81.8	80.9	81.9	95.8	89.3	81.3	91.9	72.7	76.8	79.0	86.4
Human	88.6	97.5	90.0	87.3	83.9	92.2	85.0	86.9	97.0	84.9	88.1	86.6	90.9

Table 3.3: Percentage accuracy of four baseline models and raw human performance on BLiMP using a forced-choice task. A random guessing baseline would achieve an accuracy of 50%.

- 연구의 의의: 언어 습득에 대한 문제(생득주의 vs. 경험주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 경로 제공

참고문헌[1]

- 송상현·이성근·최재용·오운경[Song, S., Lee, S.-G., Choe, J.-W., Oh, E.] (2017), Measuring the degree of convergence between informal and formal acceptability judgments for Korean.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42: 761-804.
- 안희돈·김형문·조준·하지화·조용준(2019), 한국어 수용성 판단에서의 형식적 방법과 비형식적 방법의 비교 - 이산형 자료의 경우 -, 『한말연구』 51, 57-86.
- 안희돈 외 (2020), 〈문장 문법성 판단을 위한 기초 자료 구축〉, 국립국어원.
- 임규홍(1998), 국어학 논문에 쓰인 예문에 대한 모국어 화자의 수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글』 239, 161-193.
- 조용준·김형문·조준·하지화·이영국·안희돈(2019), 한국어 수용성 판단에서의 형식적 방법과 비형식적 방법의 비교(2), 『언어학연구』 51, 129-160.
- 조용준(2023), 수용성 판단 실험의 설계 및 통계 분석 처리의 몇 문제 - 시열형-연속형 데이터를 중심으로 -, 『한말연구』 64(34), 1-27.
- Chaves, R.P., 2020. What Don't RNN Language Models Learn About Filler-Gap Dependencies? In *Proceedings of the third meeting of the Society for Computation in Linguistics (SCiL)*, 2020.
- Choshen, L., Hacoen, G., Weinshall, D., Abend, O., 2021. The grammarlearning trajectories of neural language models. *arXiv preprint arXiv:2109.06096*.
- Chowdhury, S.A., Zamparelli, R., 2018. RNN simulations of grammaticality judgments on long-distance dependencies. In *Proceedings of the 2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linguistics*, 133-144.
- Culbertson, J., Gross, S., 2009. Are linguists better subjects? *British Journal for the Philosophy of Science* 60, 721-736.
- Dąbrowska, E., 2010. Naïve vs. expert intuitions: an empirical study of acceptability judgments. *Linguistic Review* 27, 1-23.
- Goodall, G., 2021a. Introduction. In: G. Goodall (Ed.), *The Cambridge handbook of experimental syntax*. Cambridge University Press, 1-3.
- Greenbaum, S., 1973. Informant elicitation of data on syntactic variation. *Lingua* 31, 201-212.
- Hill, A.A., 1961. Grammaticality. *Word* 17, 1-10.
- Hoji, H., 2015. *Language faculty sc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 J., Gauthier, J., Qian, P., Wilcox, E., Levy, R., 2020. A Systematic Assessment of Syntactic Generalization in Neural Language Models. In *Proceedings of the 58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Online, July 2020.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1725-1744. URL <https://www.aclweb.org/anthology/2020.acl-main.158>.
- Juzek, T. 2016. Acceptability judgement tasks and grammatical theory. Doctoral dissertation, Oxford University.
- Langeford, S., Perfors, A., Hendrickson, A.T., Kennedy, L.A., Navarro, D.J., 2018. Quantifying sentence acceptability measures: Reliability, bias, and variability. *Glossa: a journal of general linguistics* 3(1): 37. 1-34.
- Lewis, S., Phillips, C., 2015. Aligning grammatical theories and language processing models.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44(1), 27-46.
- Linzen, T. Dupoux, E., Goldberg, Y., 2016. Assessing the Ability of LSTMs to Learn Syntax-Sensitive Dependencies. *Transactions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4, 521-535.
- Linzen, T., Oseki, Y., 2018. The reliability of acceptability judgments across languages. *Glossa: a journal of general linguistics* 3(1): 100. 1-25, DOI: <http://doi.org/10.5334/gjgl.528>.

25

참고문헌[2]

- Mahowald, K., Graff, P., Hartman, J., Gibson, E., 2016. SNAP judgments: A small N acceptability paradigm (SNAP) for linguistic acceptability judgments. *Language* 92.3: 619-635.
- Mikhailov, V., Shamardina, T., Ryabinina, M., Pestova, A., Smurlov, I., Artemova, E., 2022. RuCoLA: Russian Corpus of Linguistic Acceptability. *Proceedings of the 2022 Conference on Empirical Method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5207-5227, Abu Dhabi, United Arab Emirates.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 Papadimitriou, I., Chi, E.A., Futrell, R., Mahowald, K., 2021. Deep subjecthood: Higher-order grammatical features in multilingual BERT. In *Proceedings of the 16th conference of the European chapter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Main volume*, pages 2522-2532. Online, April 2021.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doi: 10.18653/v1/2021.eacl-main.215. URL <https://aclanthology.org/2021.eacl-main.215>.
- Schütze, C.T., 1996. *The empirical base of linguistics: Grammatical judgments and linguistic methodolog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chütze, C.T., Sprouse, J., 2013. Judgement data. In: Podesva, R.J., Sharma, D. (Eds.), *Research Methods in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now, C., Meijer, G. 11. On the Secondary Nature of Syntactic Intuitions. S. Greenbaum ed., *Acceptability in Language*, Berlin, Boston: De Gruyter Mouton, 1977, 163-178.
- Someya, T., Oseki, Y., 2022. Nihongoban CoLA no kouchiku [Building a Japanese CoLA]. In *Proceedings of the Twenty-Eigh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Natural Language Processing*, 1872-1877.
- Spencer, N.J., 1973. Differences between linguists and nonlinguists in intuitions of grammaticality-acceptability.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2, 83-98.
- Sprouse, J., 2019. Experimental Syntax. Mini-course taught at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Linguistic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February 5-7, Lecture notes.
- Sprouse, J. 2023. Preface. In: J. Sprouse (Ed.), *The Oxford handbook of experimental syntax*. Oxford University Press, pp. ix-xx.
- Sprouse, J., Almeida, D., 2012. Assessing the reliability of textbook data in syntax: Adger's Core Syntax. *Journal of Linguistics* 48, 609-652.
- Sprouse, J., Almeida, D., 2017. Design sensitivity and statistical power in acceptability judgment experiments. *Glossa* 2(1): 14.
- Sprouse, J., Schütze, C., Almeida, D., 2015. A comparison of informal and formal acceptability judgments using a random sample from *Linguistic Inquiry* 2001-2010. *Lingua* 134, 219-248.
- Tiotta, D., Guarasci, R., Leonardelli, E., Tonelli, S., 2021. Monolingual and cross-lingual acceptability judgments with the Italian CoLA corpus. In *Findings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EMNLP 2021*,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2929-2940.
- Warstadt, A., Bowman, S.R., 2019. Linguistic Analysis of Pretrained Sentence Encoders with Acceptability Judgments. *arXiv preprint arXiv:1901.03456*.
- Warstadt, A., Bowman, S.R., 2020. Can neural networks acquire a structural bias from raw linguistic data? In *Proceedings of the 42nd Annual Conference of the Cognitive Science Society*.
- Warstadt, A., Parrish, A., Liu, H., Mohananey, A., Peng, W., Wang, S.-F., Bowman, S.R., 2020. BLIMP: The Benchmark of Linguistic Minimal Pairs for English. *Transactions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8, 2020a. doi: 10.1162/tacl_a_00321. URL https://doi.org/10.1162/tacl_a_00321.
- Warstadt, A., Singh, A., Bowman, S.R., 2018. Corpus of Linguistic Acceptability. URL <http://nyu-ml.github.io/cola>.
- Wilcox, E., Levy, R., Morita, T., Futrell, R., 2018. What do RNN Language Models Learn about Filler-Gap Dependencies? In *Proceedings of the 2018 EMNLP Workshop BlackboxNLP: Analyzing and Interpreting Neural Networks for NLP*, 211-221.
- Xiang, B., Yang, C., Li, Y., Warstadt, A., Kann, K., 2021. CLiMP: A benchmark for Chinese language model evaluation. In *Proceedings of the 16th Conference of the European Chapter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Main Volume*, pages 2784-2790. Online, April 2021.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26

▣ 토 론

“통사론에서의 실험적 방법론: 수용성 판단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김양진(경희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성 판단을 중심으로 한 실험 통사론은 Bard et al.(1996)과 Cowart(1997)에서 출발하여 최근 들어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난 몇 년 간 한국어에서의 실험 통사론적 방법론에 대해 선구적으로 연구해 오신 선생님께서 그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두고 한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 통사론의 몇 가지 주요 쟁점을 대한 그간의 연구 성과와 향후 해결해야 할 연구 문제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를 통해서 저로서는 아직 낯선 실험 통사론이라는 연구 방법론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발표를 통해 앞으로 이 분야의 관련 연구가 좀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방면에 문의한이라 할 수 있는 제가 드릴 말씀은 거의 없지만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억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1] 소개해 주신 수용성판단 측정 방법 중에서 Sprouse & Almeida(2017)의 경우, 효과 크기가 작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리커트척도법과 강도측정법의 민감도에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도표만으로는 이 두 방법론을 정확하게 비교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민감도의 측면에서 볼 때 이 결과만으로 리커트척도법과 강도측정법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결론을 내었다 할 수 있는지요?

[질문 2] 전문가 집단과 비전문가 집단의 수용성 판단에서, 문법 현상 중 대략 30%~40%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Dąbrowska(2010)의 보고에서처럼 한국어의 문법성 판단에서 전문가 내부라 할 수 있는 생성문법 연구자와 기능문법 연구자 간에도 수용성 판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혹은 비전문가 집단의 경우, 문과 성향의 일반인과 이과 성향의 일반인과 같이 사용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면 혹시 앞에서 전문가와 비전문가 집단의 차이라고 한 것이 문과성-이과성과 같은 다른 원인에 따른 차이(즉 전문가 집단은 전원 문과 성향, 비전문가 집단은 문이과 혼합)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3] Table 3.3에서 GPT2와 한국어 화자 간의 문법성 판단에서 특히 섬(Island) 제약과 부정극어(NPI)에 대한 문법성에 특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한국어 문장에 대한 심리언어학적 실험 연구

정 해 권(조선대)

차 례

- I. 들어가기
- II. 심리언어학적 실험 방법
- III. 언어 실험과 한국어 교육
- IV. 나가기

I. 들어가기

인간이 일상적으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발화하는 단어나 간단한 문장도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처리 과정을 거쳐 나타나는 미스터리한 현상이므로 심리언어학(psycholinguistics)에서는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고 사용하는 과정에 나타내는 정신적·인지적 처리에 대해 탐구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Gleason & Ratner 1998:2, de Bot & Kroll 2010:124). 또한 심리언어학의 하위 분야로 언어 습득을 다루는 연구에서는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는 심리언어학적 처리 과정에 대해 밝힐 뿐만 아니라 언어 그 자체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언어의 속성을 연구하는 언어학의 한 분야이다(Gass et al. 2020:4).¹⁾ 다시 말해 심리언어학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처리되는 언어의 습득과 처리 과정을 밝히면서 동시에 언어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 분야에 해당한다. 이는 생성 문법(generative grammar) 이론의 발달 과정에서 언어 습득을 설명하기 위해 언어 습득 장치(language acquisition device, LAD)를 가정되고 이와 관련된 보편 문법(universal grammar, UG)을 탐구하며 심리언어학적 실재성을 논의하였던 것과 관련된다(Chomsky 1965:58, 1986:3). 이처럼 언어와 언어 습득이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보는 흐름은 또 다른 언어학 이론인 구문 문법(construction grammar) 이론에서도 언어가 다양한 구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구문이 언어 습득과 사용의 기본 단위가 된다고 설명하는 데에서도 발견된다(Goldberg 1995:66, Tomasello 2003:6). 즉, 언어 습득의 과정을 밝히는 것은 동시에 언어의 특징을 살펴보는 작업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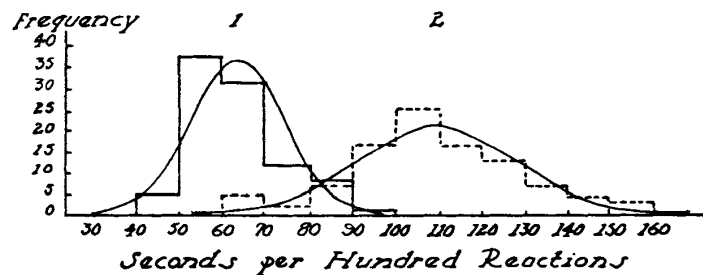
한편 심리언어학에서는 인간의 언어 처리를 이해하기 위해 복잡한 실험 설계를 사용하는데, 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메타언어적 인식(meta-linguistic awareness, 언어 자체에 대

1) 심리언어학은 순수언어학에 대응하는 응용언어학의 하위 분야로 여겨지며(이승연 2012:31), 제1언어 습득 또는 제2언어 습득은 심리언어학의 연구 분야로 보기도 하지만 독립된 학문 분야로 논의되기도 한다(김진우 2002:1).

한 지식)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동안 기저에서 처리되는 심리언어학적 처리 과정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다(Gleason & Ratner 1998:3). 언어와 관련된 실험이 심리언어학의 전유물은 아니며, 사회 계층과 관련된 언어 현상을 밝히기 위해 뉴욕의 세 군데 백화점 점원을 대상으로 /-r/ 발음을 탐구한 Labov(1966)은 사회언어학의 고전으로 여겨진다. 즉, 실험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언어 현상이 사회 요인과 관련된다면 사회언어학적 실험 연구라고 할 수 있고, 심리언어학적 처리 과정을 밝히고자 하는 관점에서 수행되는 실험은 심리언어학적 실험 연구에 해당한다.²⁾ 따라서 실험이라는 방법론적 측면보다 이런 도구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실체나 대상이 무엇인가에 더 중점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언어에 대한 심리학적 실험에서 언어 처리 과정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은 일찍부터 관심을 받아 왔는데, Stroop(1935)는 색깔의 이름을 말하는 과제에서 글자가 나타내는 색깔의 이름이 실제 글자 색과 다른 경우에 다소 느리게 대답하는 현상을 연구하였다. 이 실험에서 색깔로 표시된 사각형(<그림 1>의 1)에 비해 파란색으로 표시된 ‘빨강’과 같이 글자 색이 다른 경우(<그림 1>의 2)에 대답하기를 주저하는 지연이 나타났으며, 이는 글자 색보다 글자 의미를 먼저 연상하는 간섭으로 설명되었다. 즉, 단어를 읽을 때 색깔 자극과 일치하지 않으면 단어 의미와 실제 색깔의 충돌로 인해 간섭이 증가하고, 색깔에 대한 인지적 처리보다 단어를 읽고 해석하는 언어적 처리가 색깔 명명에 더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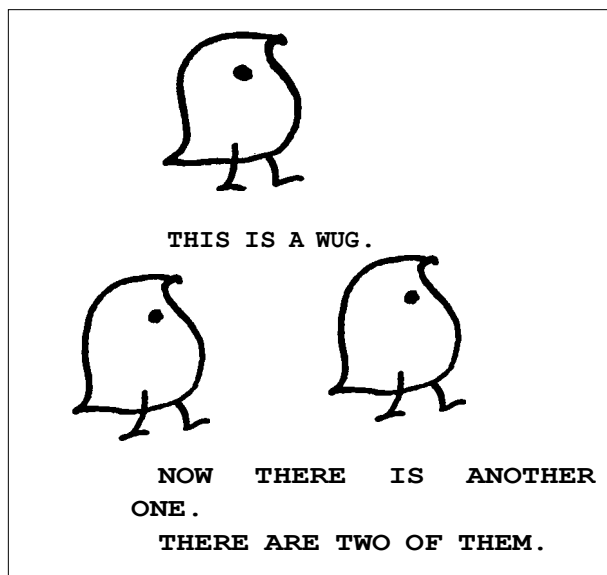
<그림 1> 색깔 말하기의 간섭 효과(Stroop 1935:18)



한편 언어에 대한 처리 과정뿐만 아니라 언어 습득에 대한 실험도 진행되었는데, 특히 아동들이 어떻게 언어 규칙을 습득하는지에 대해 밝히기 위해 Berko(1958)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비단어를 사용하여 3, 4세 아동이 영어의 형태 규칙을 산출하는 양상을 조사하였다. <그림 2>와 같은 과제에서 아동들은 wug라는 완전히 새로운 단어에 대해서도 복수형 wugs를 발화함으로써 내재화된 규칙을 창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단순히 모방에 의해 학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즉,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들이 성인의 발화를 모방하고 반복하여 습관이 형성된다는 행동주의(behaviorism) 학습 이론보다 내재된 규칙을 적용하는 내재주의(innatism)를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되었다. 이처럼 심리언어학적 실험 연구는 인간이 언어를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어떻게 언어를 습득하는지 설명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된 모형 및 이론을 검증하는 데에 근거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림 2> 아동의 영어 형태 규칙 실험(Berko 1958:154)

2) 실험 언어학(experimental linguistics)은 양적 증거를 바탕으로 언어 표상에 대한 이론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심리언어학에서 실험언어학의 핵심적인 연구 주제를 다루며 여러 측면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다. 하지만 심리언어학은 언어 처리 과정과 체계에 집중하는 반면, 실험언어학은 언어 표상이나 제약에 더 관심을 갖는다고 구분하기도 한다(Hemforth, 2013:1).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발표는 심리언어학의 관점에서 실험을 통해 한국어 문법에 대한 심리언어학적 처리 과정에 대해 논의된 바를 바탕으로 한국어 문법 연구 및 한국어 문법 습득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다 발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한국어 문법에 대한 심리언어학적 실험 연구를 통해 한국어 문법에 대한 연구와 한국어 습득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의 토대를 찾고자 한다.

II. 심리언어학적 실험

1. 설문 조사 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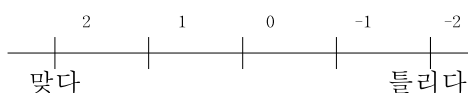
여러 언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머릿속의 언어 지식을 심리언어학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은 설문을 통해 발화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언어 숙달도가 낮은 피험자는 다음 (1a)와 같이 선택형으로 고르는 빈칸 채우기(multiple choice cloze test) 형식을 제시하여 선택의 폭을 줄여 주는 것도 가능하다. 이보다 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설문법은 (1b)와 같은 적합성 판단 과제(acceptability judgement test, AJT)이나 단순히 정오를 판단하는 문법성 판단 과제(grammaticality judgement test, GJT)를 통해 문법 인식을 조사한다.

(1) a

저 사람을 소개할게요. 저 사람() 중국 사람이에요. 요.	① 이 ② 을 ③ 은
--------------------------------------	-------------------

b.

A: 무엇은 순이가 먹었어요? B: 김밥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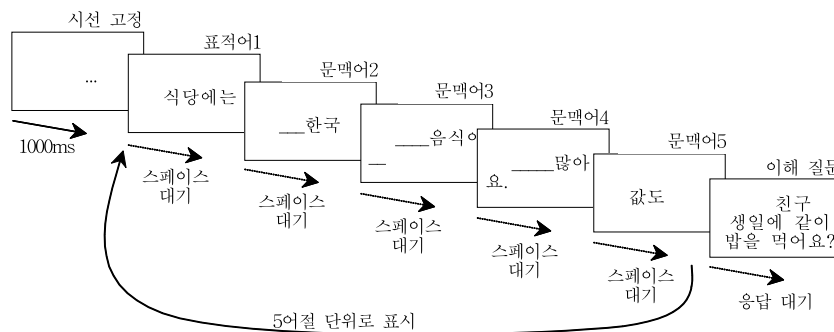


특히 보편 문법(UG) 기반의 습득 연구에서는 문법성 판단이 언어 능력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무엇보다도 보편 문법의 원리에 따라 규칙 지배적인 지식을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하지만 일관성있는 답변이 나타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적합성 판단 실험이 사용되기도 하고 <그림 2> 또는 (1a)와 같은 산출 과제를 통해 보완되기도 한다(White 2003:17-18). 그럼에도 다수의 문항을 통해 나타난 정확도의 평균은 일정한 언어 지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2. 행동 반응 실험

문장의 복잡한 요소는 언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노력과 자원을 필요로 하므로 심리언어학 연구에서는 문장 처리를 관찰함으로써 어떻게 언어 요소를 이해하는지를 밝히고자 했다(이선영·정해권 2012:199). 이처럼 문장 처리는 피험자가 얼마나 빨리 문장 구조에 접근하고 해석하여 전체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연구 방법인데(Wingfield & Titone 1998:228), 이 과정에서 관찰되는 반응 시간(reaction time)은 문장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응답 속도를 통해 정신적 복잡도(degree of complexity)를 반영하는 측정 수단으로 사용된다(Ratner et al. 1998:36). 좀 더 복잡한 구조에 대한 응답은 간단한 구조와 비교하여 더 지연된 반응 시간을 나타내는데(Reeves et al. 1998:163), <그림 1>과 같이 실험에서 주어진 자극을 판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 시간을 통해 심리언어학적 처리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조사한다(Gleason & Ratner 1998:4).

<그림 3> 자기 조절 읽기 과제의 실험 자극 제시(정해권 2023:305)



따라서 문장의 처리 기제를 밝히기 위한 행동반응 연구(behavioral study)에서 정확도와 반응 시간은 중요한 측정 요인으로 이용되며, 이를 위해 문어 또는 구어 형태의 문장으로 실험 자극을 제시하거나 그림 등을 통해 언어 사용 환경을 제공하면서 문장에 대한 판단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문어 형태의 단어 단위의 읽기를 활용한 행동 반응 실험으로 자기 조절 읽기(self-paced reading) 기법이 활용되는데, 이는 예를 들어 <그림 3>과 같은 순서로 제시된 단어를 피험자가 직접 단어를 넘기면서 읽는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 시간을 측정한다(Jegerski & VanPatten 201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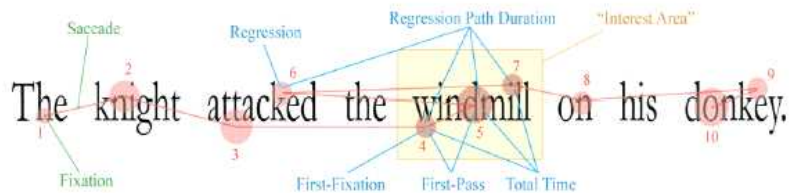
한편 언어 습득은 문법의 추상적인 체계, 언어 특정적 처리 절차, 복합적인 인지 기술의 집합을 배우는 과정인데(Braidi 1999:99), 언어 복잡도와 처리 복잡도가 언어 습득 과정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³⁾ 언어 복잡도(linguistic complexity)는 언어 구조나 형태가 조

직적으로 복잡한 정도가 산술적으로 계산되는 것이지만 언어를 처리하고 습득하는 심리적, 인지적 과정과도 관련된다(Juola 2008:90). 따라서 높은 처리 가능성(processability)을 요구하는 복잡한 구조는 배우기가 어렵고 늦게 습득된다(Clahsen 1984:221). 다시 말해 복잡도가 높은 구조는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처리하는 데 부담이 된다.

3. 안구 추적 실험

읽기 과정에 나타나는 시각 행동을 통해 단어 인식과 이해라는 인지 활동과의 상관관계를 밝힐 수 있는데, 인쇄물을 읽거나 그림을 주시하는 동안 안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룬 안구 추적 연구가 언어 처리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다(Engbert et al. 2005:3).

<그림 4> 안구 추적과 관련된 측정 변인(김정은·남호성 2016:216)



그런데 문장을 읽는 과정에서 눈동자가 균일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거나 앞으로 되돌아가기도 하므로 문장 안에 설정된 관심 영역(Area of Interest: AOI)에 대한 고정(fixation) 시간과 재고정(refixation) 횟수 등을 통해 처리 과정을 확인한다(이갑희 2011:81, 김현진 2015:70). 또한 시선 고정 시간과 함께 처음 관심 영역을 보는 데 걸린 평균 시간인 첫 시선 시간도 측정되며, 재고정 횟수뿐만 아니라 관심 영역을 바라본 평균 횟수인 시선 고정 횟수도 조사된다. 이때 처리하기 어려운 언어 요소는 바라보는 시선도 오래 머무르고 눈길을 주는 횟수도 증가함으로써 심리언어학적 처리의 복잡도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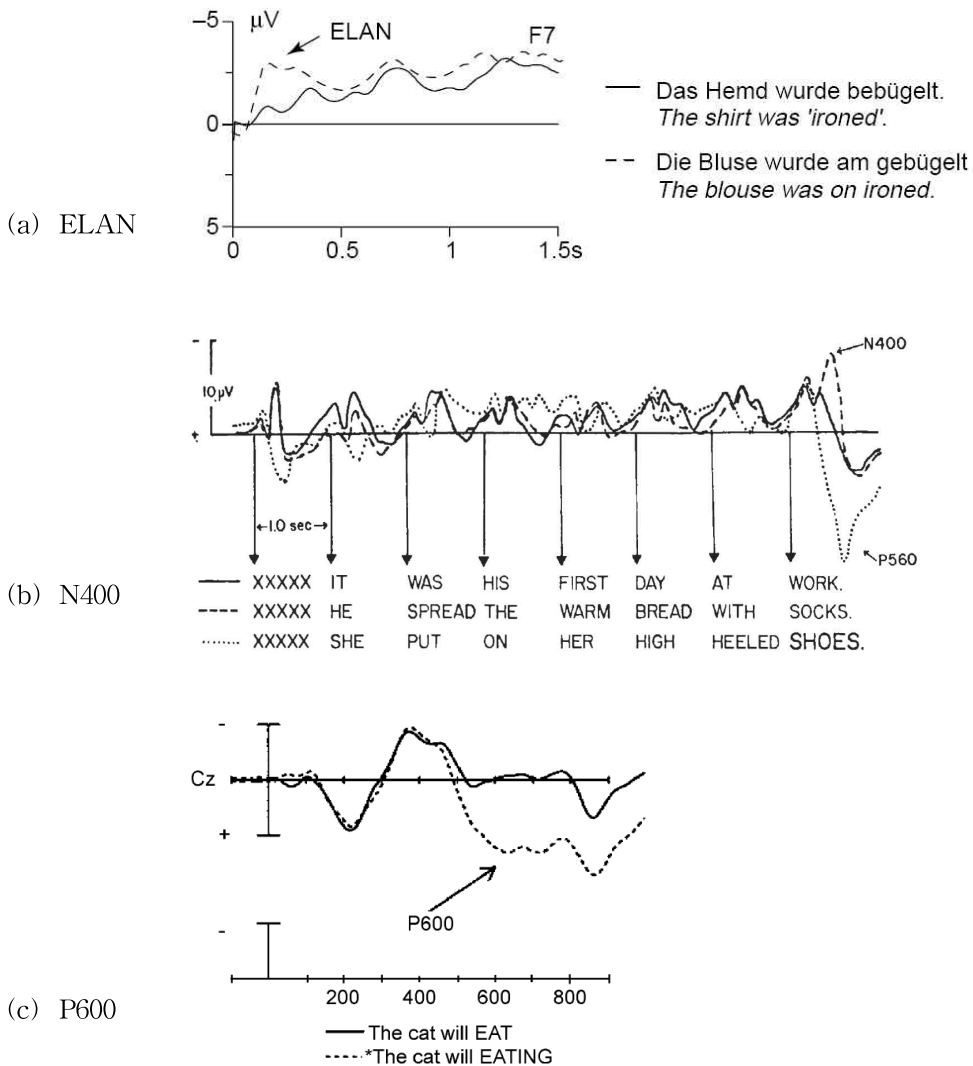
4. ERP 뇌 반응 실험

행동 반응 실험이나 안구 추적 실험은 실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처리 과정을 간접적으로 추정한 것이므로 보다 직접적인 뇌 반응을 통해 언어 처리 과정을 관찰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ERP(Event-related potentials)는 특정 자극에 대한 기준 조건과 위반 조건을 제시할 때 나타나는 뇌 반응의 차이를 비교하는 ‘위반 패러다임(violation paradigm)’을 통해 언어 처리 과정을 조사하는 연구 기법이다. ERP는 언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뇌 반응에 대한 시간 정보(latency), 활성화 강도(amplitude), 활성화 극성(polarity), 활성화 분포(scalp distribution) 등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으며, 높은 시간 해상도를 가지고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신경생리학적 증거를 제공한다. 특정한 자극에 대해 일정한 시간대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신경 기질이 발견되었는데, ELAN, N400, P600 등으로 알려진 ERP 성

3) 복잡도(complexity)는 추상적인 단계에서 노드와 연결의 네트워크로 나타내는 유기체 또는 체계의 구성 요소들이 갖는 속성이며(Givón 2009:1), 언어도 본질적으로 복잡하므로 배우는 과정에 다양한 영향이 나타난다.

분이다.

<그림 5> 대표적인 ERP 성분 : ELAN, N400, P600



ELAN(Early Left Anterior Negativity)은 자극이 주어진 후 즉각적으로 100~200ms 사이에 일어나는 음전위 정점(peak)으로 자동화된 문장 처리를 나타내는 성분이다(이갑희 2011:75, Friederici 2002:81). 이는 문장 처리의 초기 단계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어 처리 단계를 보여주는 성분이다. N400은 자극 제시 후 약 400ms 전후에 보이는 음전위 정점으로 의미적 처리가 일어나는 단계를 나타내는 성분이다(이갑희 2011:76, Kutas & Hillyard 1980:203). P600은 자극 제시 후 600ms 전후에 일어나는 양전위 정점으로 주로 통사적인 처리가 일어나는 단계를 나타낸다(이갑희 2011:76, Osterhout & Holcomb 1992:790). 이러한 뇌 반응을 통해 언어 처리와 관련하여 자동화된 처리, 의미 처리, 통사 처리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밝힐 수 있다.

한편 언어 처리와 관련하여 뇌의 활성화 영역을 보다 정밀하게 검사함으로써 언어 처리와 관련된 뇌 영역을 파악하기 위해 fMRI(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를 사용하여 뇌 활동량의 증감을 검토하기도 한다(이갑희 2011:77-78, Jegerski & VanPatten 2014:153).

Ⅲ. 언어 실험과 한국어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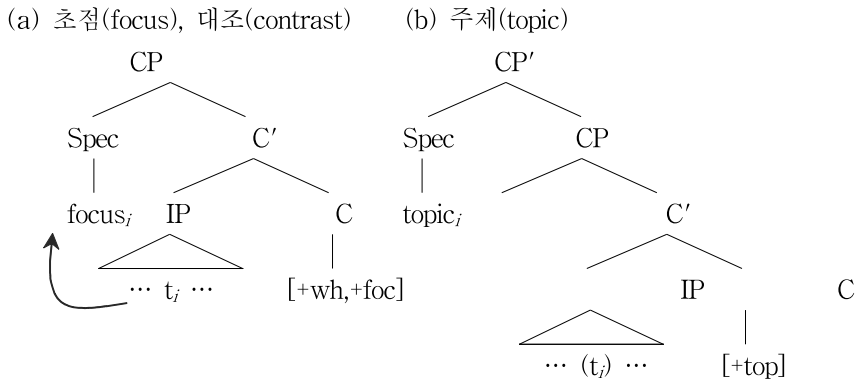
1. 설문 조사 연구

한국어 문법에 대한 설문 조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는데, (2)와 같이 한국어의 기본적인 자동사 구문과 타동사 구문을 통해 중국어권 학습자들이 격조사 사용을 밝혔는데, 두 언어의 구조 차이가 큰 경우에 오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고하였다(이금영 2019:186). 이는 외국어 학습에 모어가 전이(transfer) 경향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된다(Lado 1957:2). 튀르키예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격조사 ‘을/를’ 사용 양상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동사 유형에 따른 조사 오류가 보고되었다(임지영·박덕유 2016:290).

- (2) a. 친구(가) 늦게 도착했다. 朋友到达晚了。
 b. 엄마(가) 젖은 수건(을) 말렸다. 妈妈晾了湿的毛巾。

한편 정해권·이영진(2013:312)은 형용사, 자동사, 타동사 앞에 결합하는 하나의 논항이 유정물 또는 무정물인지에 따라 격조사의 습득을 조사하였는데, 형용사는 유정물과의 결합에서 정확도가 높았으나 ‘을/를’ 결합하는 타동사의 경우에는 무정물이 더 정확하게 답하는 양상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언어 유형론으로 나타나는 보편적 경향의 영향으로 설명하였다(Hegeman 1991:114, Whaley 1997:37)는 점에서 이전의 연구들이 언어 특정적 간섭 현상으로 설명한 것과 대비된다.

<그림 6> 초점/대조 및 주제의 문장 구조(서정목1999:267, 이정훈 2008:311-312)



또한 (1)과 같은 설문 문항을 통해 격조사와 함께 보조사의 습득을 밝힌 연구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보조사 ‘은/는’이 ‘이/가’와 혼동에 대해 초점을 나타내는 ‘이/가’가 주제를 나타내는 ‘은/는’보다 먼저 습득되지만 <그림 6>과 같이 대조의 ‘은/는’과 구조적 유사성으로 구분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언어 내적 구조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설명되었다(정해권 2011:300-302).

한편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상 표지에 대한 사용에서 모어 영향으로 ‘-어 있-’을 ‘-고 있-’으로 응답하는 오류가 보고되기도 하였지만(우에다 아스카·주현희 2023:67), 동영상

을 통해 제시되는 상황에 대한 빈칸 채우기 과제를 통해 동사의 동작류에 따라 습득 순서가 가정된 시상 가설(Aspect Hypothesis, Andersen & Shirai 1994:135)에 따라 진행상을 배운다는 보편적 습득 양상을 밝히기도 하였다(박선희 2009b:174). 또한 빈칸 채우기 과제를 통해 중국인 학습자들이 시상 가설에 따라 과거 시제를 습득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결과도 있었는데(박선희 2009a:107), 중국인 학습자들이 빈칸 채우기와 문법성 판단 과제에서 특히 형용사(상태 동사)의 과거 시제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모어 영향이 강조되기도 하였다(이영진·정해권 2012:294). 또한 시상 가설의 예측과 달리 한국어는 과거 시제가 진행상보다 먼저 습득된다는 결과도 있다(정해권 2019:270).

이상의 연구들은 설문 문항을 통해 조사된 정확도를 기반으로 언어간의 대조언어학적 차이로 인한 모어 간섭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언어학적 설명 또는 언어 보편적 가설에 의한 경향성을 지지하는 결과로 주장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에 대한 설문 조사법은 언어간 대조에 기반하여 차이로 인한 간섭 양상을 보고하기도 하였지만 한국어 자체가 갖는 심층 구조의 차이로 인한 깊이 있는 설명을 지향하거나 언어 보편적 가설에 근거하여 습득 양상을 설명하려 시도함으로써 한국어에 대한 이론 또는 언어 유형론적 보편성을 검증하는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였다.

하지만 설문 조사법은 정확도에만 기반한다는 차원에서 인간의 심리언어학적 처리에 대한 일면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더불어 좀 더 다양한 연구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동 반응 연구에서는 정확도와 함께 반응 속도도 중요한 변인으로 조사하여 또 다른 차원에서 언어 처리를 검증할 수 있게 되었다.

2. 행동 반응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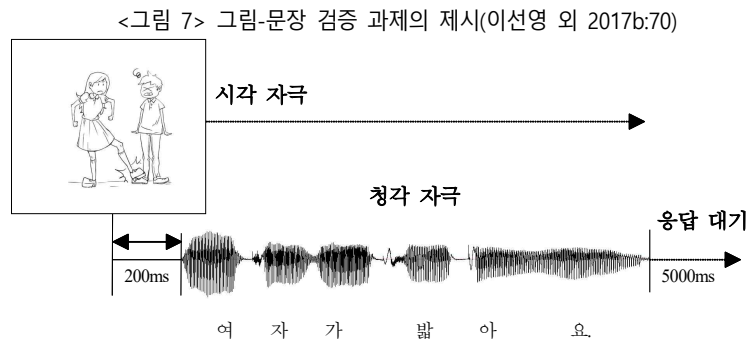
행동 반응 연구는 주로 어휘에 대한 판별 과제를 통해 심성 어휘집에 대해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는데, E-Prime을 이용한 연구에서 동사류 어절의 빈도가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며 6급 학습자는 어절 길이에도 영향을 받았지만 의미의 중의성이 영향을 없었다고 보고하였다(김영주 외 2017:46). 한편 동사류가 어절 단위로 처리된다는 보고와는 달리 어간과 어미의 구분에 대한 심리언어학적 처리에 대해서는 고빈도 어간에서만 분리 가능성이 검증되기도 하였다(이찬영 2023:229).

- (3) a. 언어 : 옷을 얇게 입어서 | 감기에 {걸렸다/*맞았다}.
- b. 반투명 관용어 : 바로 내일이 시험이라서 | 눈앞이 {깜깜하다/*검다}.
- c. 불투명 관용어 : 철수는 성격이 활발해서 | 발이 {넓다/*깊다}.

또한 PsychoPy를 활용하여 관용어의 투명성에 따른 판별 과제에서는 불투명한 관용어일수록 부정확하고 느리게 처리됨을 보였으며(신수련·정해권 2017:123), 명사와 동사의 초급 언어(‘비-내리다’)가 저빈도 공기어(‘목걸이-걸다’)나 무관어(‘버스-널다’)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됨으로써 이와 같은 단어들의 어휘망이 심리적 실재로 존재함을 보여 주었다(신수련·정해권 2020:101-102). 한편 유의어와 반의어와 같은 어휘를 점화어로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어휘 판별 과제를 수행한 결과에서 제2언어와 제1언어에서 모두 유의어가 쉽게 접근되었으며 반의어는 그렇지 않지 않았으며 의미적 무관어와 차이가 있었다는 결과가 밝혀지기도 하였다(정해권 외 2021:219, 서장보 외 2021:140).⁴⁾ 이와 같은 일련의 어휘

연구는 빈도와 의미를 기반으로 어휘망이 심리적 실재로 존재하고 있으며,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도 유의어 및 번역어와 같은 의미 기반으로 심성어휘집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그림과 함께 문장을 들려 주면서 일치 여부를 판단하게 한 <그림 7>과 같은 과제에서 격조사가 잘못된 경우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였으며 그림과 문장이 일치하지 않는 의미 오류보다 일치하는 정상문이 더 빠르게 처리되면서도 주격 조사보다 대격 조사가 더 빠른 처리를 보였음이 보고되었다(이선영·정해권 2012:211-214). 이는 심리언어학적으로 의미 처리와 통사 처리 과정이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며 주어 생략 구문과 목적어 생략 구문의 처리에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유사한 그림-문장 검증 과제에서 통사 처리와 의미 처리 사이에서 고급 학습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아직 통사 지식을 충분히 자동화하지 못한 단계에 있음을 드러냈다(이선영 외 2017b:78).



그리고 E-Prime을 활용한 자기 조절 읽기 과제에서 주어와 목적어가 모두 유정 명사인 경우가 유정성의 대비를 이루는 경우보다 느리게 처리되었으며, 목적어에 보조사가 사용된 경우도 지연되고 부정확하게 처리하는 양상을 보였고, 격조사가 미실현된 경우에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반응 속도는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를 ‘의미>어순>조사’의 순서로 난이도 위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백준오 외 2023a:94-96). 또한 기본 어순인 주격-여격-대격-서술어로 배열된 문장에 비해 여격이 맨 앞에 오거나 여격 조사가 생략 되면 덜 정확하게 처리하는 양상이 보고되었다(백준오 외 2003b:93).

한편 한국어 피동문의 처리에 대한 그림-문장 검증 과제에서 능동문을 피동문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였으며, 피동문 중에서도 동작주가 생략된 피동문(주격 피동문)을 피동작주가 생략된 피동문(여격 피동문)보다 더 정확하고 빠른 반응 속도로 처리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정해권·이선영 2013:415-419). 반면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여격 피동문을 주격 피동문보다 빨리 처리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통사 구조보다 의미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되었다(정해권 2014:165).

또한 한국어 재귀사 ‘자기’의 처리는 생성 문법의 결속 이론에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그림-문장 검증 과제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는 장거리 결속을 선호하지만 처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선영 외 2017a:243). 반면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국지 결속에 대해서도 모어 화자보다 높게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며 한국인 화자와 다른 인식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국지 결속이 우선되는 모어 재귀사 자신의 영향으로 해석되었다(정해권 외 2017:176).

4) 학습자들은 그림을 점화로 제시하였을 때 번역어>유의어>무관어보다도 더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로고젠과 이마젠의 이중 부호 모형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하였다(신수련 외 2021:83).

이처럼 E-Prime 또는 PsychoPy와 같은 심리언어학 실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행된 그림-문장 검증 과제나 자기 조절 읽기 과제에서 한국어 문장 처리는 어순, 격조사, 문장 성분의 생략, 유정성 등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정확도와 반응 시간을 통해 실증적으로 제시되는 유용한 도구라고 하겠다. 하지만 한국어는 어절 단위로 띄어쓰기가 되기 때문에 행동 반응 연구에서는 대부분 명사와 조사의 결합 또는 어간과 어미의 결합이 하나의 단위로 처리되므로 실제 어느 요소의 처리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3. 안구 추적 연구

안구 추적 연구는 <그림 4>와 같이 읽기 과정을 살펴보는 연구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데, 한국어 교육에서도 능숙한 독자가 시선 고정 시간은 짧고 시선 고정 횟수는 더 많은 양상을 보이는 등 전략적인 읽기 양상을 보였으며(김현진 2015:157), 영어권 초급 학습자들의 안구 추적 연구에서 삽화 유무가 문법 이해도에 영향이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김현진·강승혜 2017:56).

- (3) a. 단일 조사 : 책상에 책이 있어요.
- b. 합성 조사 : 집에서도 운동해요.
- c. 우언 조사 : 아래층만 아니라 위층에서도 자요.

그런데 (3)과 같이 단일 조사 ‘에’, 합성 조사 ‘에서-도’, 우언 조사 ‘만 아니라’와 같은 다양한 조사 유형이 나타나는 문장 처리에 대해 <그림 3>과 같은 자기 조절 읽기 과제에서는 유형별로 정확도나 반응 속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으나 <그림 8>과 같은 안구 추적 연구에서는 조사 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났다(정해권 2023b:309). 즉 한국인 모어 화자 14명을 대상으로 Gazepoint GP3 Professional eye tracker(60Hz)와 분석 도구인 Gazepoint Analysis를 사용한 연구에서 첫 시선 시간은 단일 조사<합성 조사<우언 조사의 순서로 빨랐으나 고정 시간과 고정 횟수, 재고정 횟수에는 단일 조사<우언 조사<합성 조사의 순서로 빠르고 적은 횟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우언 조사가 하나의 조사로 문법화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단일 조사에 가까운 처리를 보이지만 합성 조사는 두 개의 조사에 대해 의미적으로 구별된 처리를 해야 하는 복잡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림 8> 안구 추적 실험의 관심 영역(정해권 2023b:308)



이와 같은 결과는 우언적 구성과 같이 다수의 어절로 구성되지만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는 요소나 합성 조사와 같이 하나의 어절 안에 존재하지만 두 가지 의미 요소로 구분되는

요소에 대해 행동 반응 연구로 밝히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 안구 추적 연구가 유용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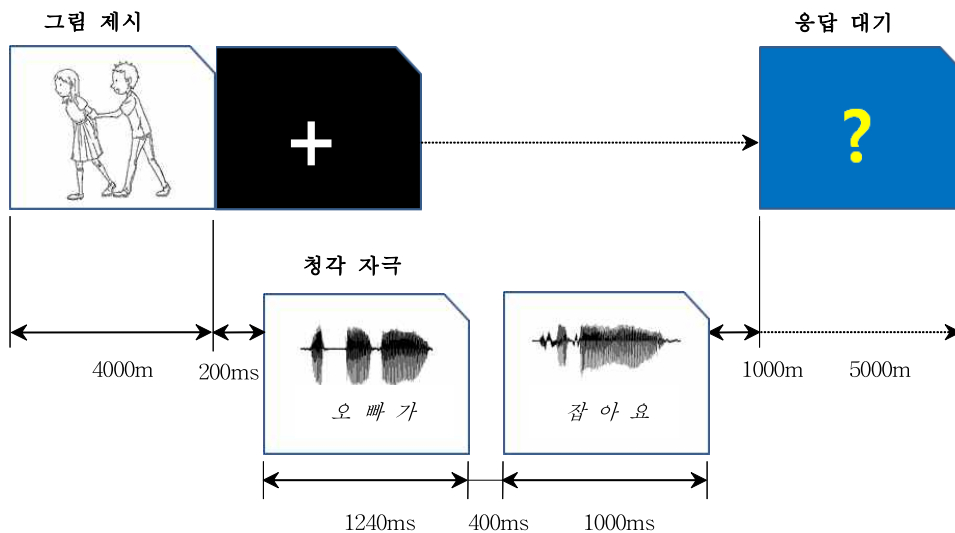
한편 안구 추적 연구를 통해 복합 문장 처리를 조사하기도 하는데, 부사절을 관형사절보다 정확하고 짧은 응시 시간을 갖고 처리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전처리보다 후처리에 더 많은 응시 시간을 나타냈으며 도치된 부사절은 쉬운 반면 도치된 관형사절은 더 어려워한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백준오 외 2019:148).

그런데 한국어 피동문에 대한 안구 추적 실험에서 ‘-이/히/리/기-’와 같은 태 표지가 있는 관심 영역에서 주격 피동문이 다른 유형과 고정 시간과 고정 횟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행동 반응 실험에서 나타났던 유형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정해권 2023a:125). 이와 같은 결과는 안구 추적 연구가 문장 전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느 영역에 더 많은 주목을 하는지를 밝히는 데에 유용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처리의 차이에 있어서는 행동 반응 연구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4. ERP 뇌 반응 연구

앞서 그림-문장 검증 과제를 활용한 행동 반응 연구와 유사하게 <그림 9>와 같은 실험 자극을 통해 실시한 ERP 실험에서 “오빠가 잡아요”에 대해 “*오빠가 물어요”와 같이 동사가 잘못된 경우에 모어 화자는 N400이 나타났으나 의미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격조사에 이른 부적 반응이 나타나고 동사에서는 지연된 부적 반응이 나타남을 보고되었다(Lee et al. 2021:660-661).⁵⁾

<그림 9> ERP 실험 자극의 제시(이선영정해권 2014:158)



한편 중국인 고급 학습자는 모어 화자와 마찬가지로 이른 부적 반응과 N400이 검출되기는 하였는데 이는 간단한 문장 구조에 대해 고급 학습자와 모어 화자와 유사한 심리언어학적 처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이선영 외 2020:191-193).

5) 이선영 외(2016:331-332)은 한국어 문장 처리에서 의미역 오류에 대해 동사에서 P600이 발견된 것으로 보고 의미역 처리가 의미 처리보다 통사 처리와 관련되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로 해석하였다. 이은하 외(2019:222)에서는 관형형 접화어와 명사 표적어에 대한 ERP 연구에서 통사 오류는 ELAN, 의미 오류에서 N400이 확인되었다.

또한 한국인 모어 화자는 ‘오빠가 잡아요’라는 장면에 대해 ‘*오빠를 잡아요’라는 격 표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격조사에서 P600이라는 통사 처리가 나타났으나 영어권 교포 학습자는 동사에서 N400이라는 의미 처리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영어권 교포가 90%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는 차원에서 행동 반응으로는 밝히기 어려운 특성을 ERP 연구를 통해 심리언어학적 처리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선영·정해권 2014:167-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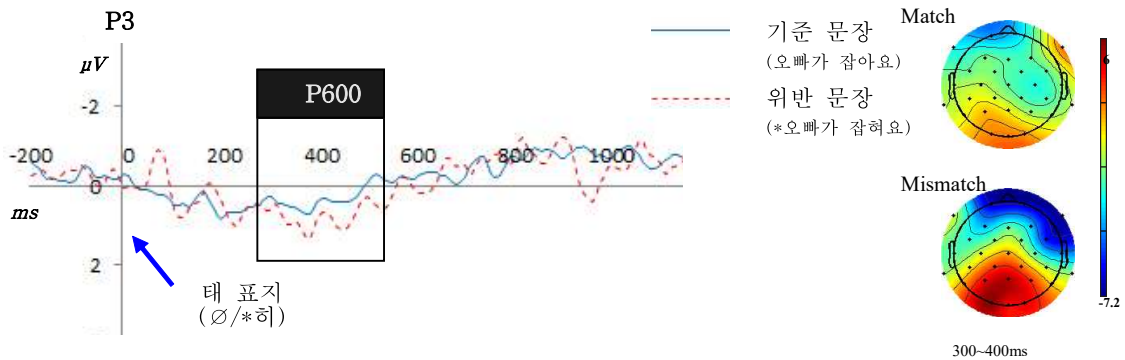
한편 피동 태 표지 오류에 대해 모어 화자는 동사 제시 후 우측 전두엽에서 300~500ms의 시간창에 <표 1>과 같이 통계적 차이를 보이는 양전위가 나타났는데, 이는 <그림 10>과 같이 P600 성분이 이른 시점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정해권 2023a:129). 또한 피동과 능동의 태 표지 오류에 대해 모어 화자는 모두 P600을 나타내며 통사적 처리를 보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어휘로 분류되는 능동사 ‘잡아요’와 피동사 ‘잡혀요’가 단순히 의미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통사적으로 처리되는 요소임을 나타낸다고 해석된다.

<표 1> 뇌 영역×시간창 분석 결과(피동 태 표지 오류)

시간창 뇌 영역	100-200ms			300-500ms			600-800ms		
	df	F	p	df	F	p	df	F	p
중앙전	1, 34	.981	.329	1, 34	1.325	.258	1, 34	.835	.367
좌측 전두엽	1, 34	5.251	.028*	1, 34	2.667	.112	1, 34	.209	.651
우측 전두엽	1, 34	1.150	.291	1, 34	.044	.835	1, 34	.052	.821
좌측 후두엽	1, 34	.224	.639	1, 34	5.407	.026*	1, 34	.001	.971
우측 후두엽	1, 34	1.848	.183	1, 34	.505	.482	1, 34	1.071	.308

* p < .05

<그림 10> 피동 태 표지 오류에 대한 태 표지 후의 뇌파 전위



그리고 피동 격 표지의 오류에 대해 격조사가 제시된 이후에 알려진 ERP 성분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표 2> 및 <그림 11>과 같이 동사가 제시된 이후에 우측전두엽에서 N400 성분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가’가 나타나야 할 자리에 ‘에게’가 대신 나타난 것을 바로 판단하지 않고 동사가 제시될 때까지 지연하여 처리함으로써 그림에서 파악된 문맥과 동사의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 의미적으로 맞지 않는 오류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정해권 2023a:131).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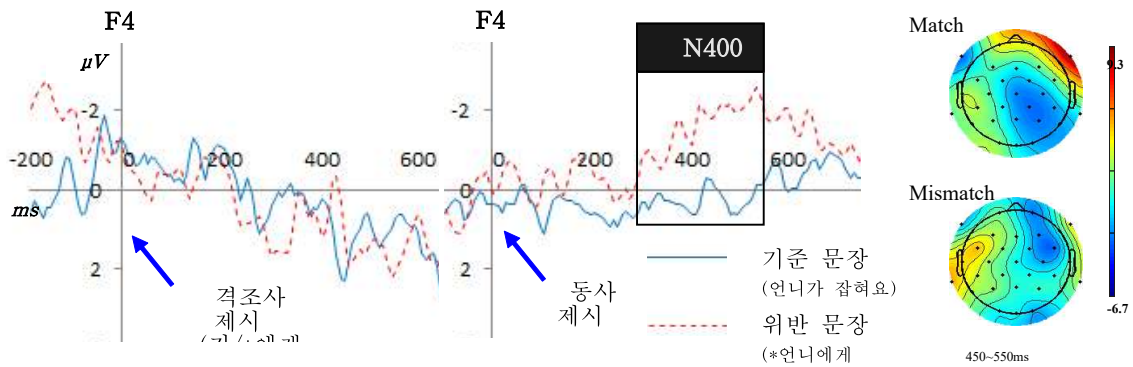
<표 2> 뇌 영역×시간창 분석 결과(피동 격 표지 오류)

6) 영어권 교포 학습자는 모어 화자와 달리 피동 격 표지 오류에 대해 격조사에서 ELAN을 나타내었는데(정해권 2015:194), 이는 정해권(2014:165)에서 보고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여격 피동문 처리와 유사한 결과로 해석된다.

시간창 뇌 영역	100-200ms			300-500ms			600-800ms		
	df	F	p	df	F	p	df	F	p
중앙선	1, 34	.469	.498	1, 34	1.936	.173	1, 34	.052	.821
좌측 전두엽	1, 34	.374	.545	1, 34	3.804	.059	1, 34	.000	.984
우측 전두엽	1, 34	.927	.342	1, 34	7.509	.010*	1, 34	1.236	.274
좌측 후두엽	1, 34	.009	.925	1, 34	3.536	.069	1, 34	.105	.748
우측 후두엽	1, 34	3.046	.090	1, 34	3.151	.085	1, 34	.756	.391

* $p < .05$

<그림 11> 피동 격 표지 오류에 대한 태 표지 후의 뇌파 전위



이상의 결과는 ‘-이/히/리/기-’가 피동 ‘접사’로 단어를 형성하는 요소라기보다는 문장 전체의 통사 구조를 반영하는 통사 장치임을 시사하며, 접사보다는 문법소(gram)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런 연구 결과는 기존에 한국어 문법 연구에서 어휘로 다루어 오던 요소가 통사 요소일 수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한국어 문법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IV. 나가기

언어 사용자 또는 언어 학습자가 심리언어학적으로 언어를 처리하거나 습득하는 과정은 피상적 관찰하여 직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복잡한 특성을 가지므로 설문 조사, 행동 반응, 안구 추적, ERP 뇌 반응 등의 다양한 실험 방법을 사용하여 그 처리 과정에 대한 기제를 밝히고자 시도해 왔다.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문법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관찰을 통해 타당성 높은 설명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론적으로 중요하거나 복잡한 문법 현상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간단한 구조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 문헌

김영주·이선진·이은하·남기춘·전현애·이선영(2018), “한국어 용언 어절 재인에 미치는 어휘 변인의 영향 -모어 화자와 고급 학습자의 예-”, 『한국어 교육』, 29(3), 25-53쪽.

- 김정은·남호성(2016), “아이트래킹을 이용한 읽기 능숙도 연구”, 『외국어교육연구』, 30(3), 207-230쪽.
- 김진우(2002), 『제2어 습득 연구-현황과 전망』, 한국문화사.
- 김현진(2015), “시선추적 기법(Eye-tracking)을 활용한 한국어 읽기과정 분석 연구 -평균적인 독자와 읽기에 능숙한 독자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1(2), 131-159쪽.
- 김현진·강승혜(2017), “영어권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시선 추적을 통한 문법 이해 양상 연구 -문법 제시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28(4), 39-62쪽.
- 박선희(2009a),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진행상 습득 연구”, 『이중언어학』, 41, 139-178쪽.
- 박선희(2009b),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과거시제 습득 연구”, 『한국어 교육』, 20(3), 79-110쪽.
- 백준오·남윤주·김영주(2019), “한국어 수식절 처리의 상대적 난이도 : 시선추적 연구”, 『국어국문학』, 189, 147-183쪽.
- 백준오·이선영·정현정·김영주(2023a), “한국어 어순이 모어 화자와 제2언어 학습자의 문장 처리에 미치는 영향 -통사적·의미적·형태적 정보 처리의 통합적 비교-”, 『한국어 교육』, 34(1), 75-105쪽.
- 백준오·계은진·이선영·정현정·김영주(2023b),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학습자의 여격 구문 문장 처리 연구”, 『국어국문학』, 205, 67-105쪽.
- 신수련·정혜권(2017), “한국어 관용어 처리와 학습 전략의 상관성 연구 -행동 반응과 어휘 학습 전략을 바탕으로-”, 『이중언어학』, 69, 113-135쪽.
- 신수련·정혜권(2020), “등급별 명사-동사 연어의 심리언어학적 행동 반응 연구 -어휘 판별 과제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 31(4), 83-107쪽.
- 신수련·서강보·정혜권(2021), “한국어 중·고급 학습자의 그림에 대한 어휘 처리 연구: 어휘 판별 과제를 바탕으로”, 『외국어교육연구』, 35(2), 71-89쪽.
- 우에다 아스카·주현희(2023),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고 있다’와 ‘-아/어 있다’ 교육 내용 연구”, 『우리말연구』, 74, 67-100쪽.
- 이갑희(2011), 『신경언어학과 영어교육』, 한국문화사.
- 이금영(2019),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구조적 조사 사용 양상 연구—한중 어휘의 형태·통사 차이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글』, 323, 165-190쪽.
- 이선영·정혜권(2012), “그림-문장 검증 과제에 나타난 한국어 격조사의 의미·통사적 처리의 차이”, 『담화와 인지』, 19(3), 197-219쪽. doi: 10.15718/discog.2012.19.3.197.
- 이선영·정혜권(2014), “영어권 교포 학습자의 한국어 격조사 처리에 관한 ERP 연구”, 『이중언어학』, 57, 149-172쪽.
- 이선영·남윤주·정혜권(2020), “중국인 고급 학습자의 한국어 격 표지 및 동사 의미 처리에 대한 뇌파 연구”, 『이중언어학』, 80, 169-201쪽.
- 이선영·서지혜·정혜권(2017a), “한국어 재귀사 ‘자기’의 처리 기제 -행동 반응 시간을 바탕으로-”, 『언어와 언어학』, 74, 229-248쪽.
- 이선영·서지혜·정혜권(2017b),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통사·의미 처리에 대한 행동반응 연구”, 『새국어교육』, 111, 61-82쪽.
- 이선영·정혜권·남윤주(2016), “한국어 의미역 처리에 대한 ERP 연구”, 『언어』, 41(2), 313-339쪽.
- 이승연(2012), 『응용언어학 개론』, 태학사.
- 이영진·정혜권(2012), “중국인 학습자의 언어간 영향과 교수방안 -타언어권과 대비되는 형용사 과거시제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23(2), 281-300쪽.
- 이은하·전현애·이선영·남기춘·김영주(2019), “통사적 정보와 의미적 정보가 한국어 어휘 처리에 미치는 영향: ERP 연구”, 『응용언어학』, 35(4), 193-228쪽. doi: 10.17154/kjal.2019.12.35.4.193.
- 이찬영(2023), “한국어 선어말어미의 심리어휘부 표상”, 『형태론』, 25(2), 195-234쪽.
- 임지영·박덕유(2016), “터키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을/를’에 대한 사용 양상 분석 및 교수 학습 방안”, 『새국어교육』, 108, 289-323쪽.
- 정혜권(2011), “한국어 문장의 주제와 초점 구조 습득 -‘은/는’과 ‘이/가’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22(3), 285-304쪽.
- 정혜권(2014), “Processing and Acquisition of Korean Passive Voice by Chinese L2 Learners.” 『한국어 교육』 25(2), 165-186쪽.
- 정혜권(2015), 『한국어 태 체계의 정립과 습득 및 교육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혜권(2019), “한국어 진행상과 결과상의 습득 연구 -‘고 있-’과 ‘-어 있-’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118, 257-280쪽.

- 정해권(2023a), “한국어 피동문 이해의 뇌 신경 처리 기제 연구”, 『2023 한국어학회 · 전남대KOR컨소시엄 공동 전국학술대회 논문집』, 119-134쪽.
- 정해권(2023b), “복합 조사 유형에 따른 문장 처리에 대한 실험 연구”, 『담화와 인지』, 30(4), 297-316쪽. doi: 10.15718/discog.2023.30.4.297.
- 정해권·이영진(2013), “한국어 술어 부류와 구문 습득”, 『언어과학연구』, 65, 297-316쪽.
- 정해권·서강보·신수련(2021),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심성어휘집 연결에 대한 모어 영향 연구”, 『언어와 문화』, 17(2), 199-226쪽.
- 정해권·서지혜·이선영(2017),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채귀사 ‘자기’ 습득”, 『이중언어학』, 66, 159-181쪽.
- Andersen, R. W. & Shirai Y. (1994), “Discourse motivations for some cognitive acquisition principle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6, pp. 133-156.
- Berko, J. (1958), “The Child’s Learning of English Morphology”, *Word*, 14(2-3), pp. 150-177, doi: 10.1080/00437956.1958.11659661.
- Braidi. S. M. (1999), *The acquisition of second-language syntax*, Oxford University Press.
-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The MIT Press.
- Chomsky, N. (1986),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Praeger.
- Clahsen, H. (1984), “The acquisition of German word order: A test case for cogni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econd languages: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Andersen, R. (ed.), Newbury House Publishers, pp. 219-242.
- de Bot, K. & Kroll, J. F. (2010), “Psycholinguistics”, *An Introduction to Applied Linguistics*, Schmitt, N. (ed.), Hodder & Stoughton Ltd, pp. 124-142
- Engbert, R., Nuthmann, A., Richter, E. M., & Klieg, R. (2005), “SWIFT: A dynamical model of saccade generation during reading”, *Psychological Review*, 112(4), pp. 777-813. doi: 10.1037/0033-295X.112.4.777.
- Gass, S. M., Plonsky, L. & Behney, J. (2020),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 Introductory Course* (5th ed.), Routledge.
- Givón, T. (2009), “Introduction”, *Syntactic complexity: Diachrony, acquisition, neuro-cognition, evolution*, Givón, T. & Shibatani, M. (eds.), John Benjamins Publishing, pp. 1-19, doi: 10.1075/tsl.85.01int.
- Gleason, J. B. & Ratner, N. B. (1998), *Psycholinguistics* (2nd), Thomson Learning.
- Goldberg, A. E. (1995), *Constructions: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egeman, L. (1991), *Introduction to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Blackwell.
- Hemforth, B. (2013). “Experimental linguistics.” *Oxford Bibliographies / Linguistics*, pp. 1-16.
- Jegerski, J. & VanPatten, B. (2014), *Research Methods in Second Language Psycholinguistics*, Routledge.
- Juola, P. (2008), “Assessing linguistic complexity”, *Language complexity: Typology, contact, change*, Miestamo, M., Sinnemäki, K., & Karlsson, F. (eds.), John Benjamins Publishingpp. 89-108, doi: 10.1075/slcs.94.07juo.
- Labov, W. (1966),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English in New York city*,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 Lado, R. (1957), *Linguistics across Cultures: Applied Linguistics for Language Teacher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Lee, S., Jeong, H., Suh, J., & Nam, Y.(2021), “Electrophysiological correlates of the action vs. role relations congruencies in visually situated auditory sentence processing in Korean”, *Language, Cognition and Neuroscience*, 36(5), pp. 649-667, doi: 10.1080/23273798.2021.1874441.

- Ratner, N. B., Gleason, J. B., & Narasimhan, B. (1998), "An Introduction to Psycholinguistics: What do Language Users Know", *Psycholinguistics*. Gleason, J. B. & Ratner, N. B. (eds.),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pp. 1-49.
- Reeves, L. M., Hirsh-Pasek, K. & Golinkoff, R. (1998), "Words and Meaning: from Primitives to Complex Organization", *Psycholinguistics*. Gleason, J. B. & Ratner, N. B. (eds.),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pp. 157-226.
- Stroop, J. R. (1935). "Studies of interference in serial verbal reac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8, pp. 643 - 662. doi:10.1037/h0054651.
- Tomasello, M. (2003), *Constructing a Language: a Usage-based Theory of Language Acquis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Whaley, L. (1997), *Introduction to Typology: the Unity and Diversity of Language*, Sage Publications.
- White, L. (2003),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Universal Gramm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ngfield, A. & Titone, D. (1998), "Sentence Processing", *Psycholinguistics*. Gleason, J. B. & Ratner, N. B. (eds.),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pp. 227-274.

■ 토 론

“한국어 문장에 대한 심리언어학적 실험 연구”에 대한 토론문

박선희(이화여대)

한국어 문장에 대한 심리언어학적 실험 연구는 언어 습득에 작용하는 심리언어학적 처리 기제를 관찰하기 위한 도구로 설문 조사 실험, 자기 조절 읽기 과제를 포함한 행동 반응 실험, 안구 추적 실험, ERP 뇌 반응 실험에 대한 안내를 바탕으로 이를 한국어 교육 연구에 활용한 사례들을 들어 그 적용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심리언어학적 실험 연구는 연구 방법상 진입장벽이 높은 영역으로 실제 익숙하지 않은 연구자들에게는 어렵게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이에 이 연구는 심리언어학적 실험 연구를 통해 한국어 문법 습득 연구의 방법론적 다각화와 심화를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어 습득 연구자들에게 매우 반가운 연구입니다. 주제 발표에서 다루어진 내용과 관련하여 연구자에게 평소 고견을 얻고 싶었던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II-1. 설문조사 실험의 유형으로 제시된 ‘발화 생산하기’, ‘(선택형) 빈칸 채우기’, ‘적합성 판단 과제(AJT)’, ‘문법성 판단 과제(GJT)’가 학습자들의 문법적 지식을 확인하는 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지요. 이와 관련해서 ‘적합성 판단 과제’를 (화용 습득이 아닌) 형태통사 층위의 문법 인식 연구에서 쓰는 것에 대해 일부 연구자들이 문제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적합성 판단 과제’와 ‘문법성 판단 과제’를 문법 습득 연구에 활용하고자 할 때 과제 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2. 피험자의 실시간 언어 처리를 관찰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동 반응 연구’, ‘안구 추적 연구’, ‘ERP 뇌 반응 연구’의 한국어교육 적용 사례들이 소개되었습니다. II-3. 안구 추적 연구의 마지막 단락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처리 기제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들 과제의 상호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가령, 자기조절읽기 과제의 사례 연구들 가운데 재귀사를 포함한 연구의 경우 반응 시간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선행사에 대한 참조 여부를 관찰하고자 한다면 안구 추적 과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실시간 언어 처리 과제들을 삼각구도화하면 효과적인 언어 현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3. 실시간 처리 연구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숙달도 변인을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2언어 실시간 처리 연구에서 고급 이상의 학습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 예로 제2언어 한국어 학습자의 실시간 처리를 다룬 연구들에서 오프라인 과제를 통해 학습자 집단의 문법적 인식이 모어화자 집단의 인식과 같은 수준임을 확인하고 실시간 처리 과제에서 나타나는 두 집단의 차이를 학습자가 겪는 온라인 처리의 어려움으로 해석하는 연구들이 있기도 합니다(Park & Kim, 2022, 2023). 이와 같은 연구 설계는 학습자의 언어 숙달도를 고급 이상으로 한정하기 쉬우므로 습득의 경로를 추적하려고 할 때 중급 학습자들의 실시간 처리를 관찰하는 데 한계를 지닙니다. 모어 화자

수준의 언어 지식이 확보되지 않고 데이터 측면에서도 수렴이 잘되지 않는 중급 이하 학습자 집단의 실시간 처리를 관찰하고 해석하는 효과적인 사례와 방안이 있을지요.

참고 문헌

- Park, S. & Kim, H.(2022) Cross-linguistic influence in the second language processing of Korean morphological and syntactic causative construc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ism*, 12(5), 687-713, doi: 10.1075/lab.20026.par
- Park, S. & Kim, H.(2023) Bilingual processing of case-marking and locative verbs in Korean: Use of L2-unique information, *Linguistic Approaches to Bilingualism*, 27(5), 586-602. doi: 10.1177/13670069221110385



3분과 의미론

감성분석 목적의 감성표현 선정과 한국어 연결구성의 의미기능 관계

윤현애(연세대/바이브컴퍼니)

차 례

1. 머리말
2. 선행연구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남은 문제들

1. 머리말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는 빅데이터 처리 기술 및 AI 기술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오게 되는 사회를 맞이하였다. 이제는 법률, 공공기관, 도시 계획, 의료 심지어 예술의 영역에까지 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각종 IT 기술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어 처리(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분야에서도 한국어 텍스트를 처리하는 데 있어 여러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다.

본 연구는 NLP 중에서도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의 하위분야인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에 대하여 언어학적 시각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오피니언 마이닝이란 발화자가 드러내는 인지적 태도(affection)을 NLP 처리 과정을 통해 분석해 내는 기술로서, 빅데이터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점점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오피니언 마이닝은 웹 사이트나 SNS 등과 같이 정제되지 않은 빅데이터의 비정형 소셜문서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특정 주제에 대한 대중의 여론 및 평판을 도출해 내는 데이터 처리 분야이다. 그중에서도 감성분석은 특정 분석대상(object)에 대한 긍부정의 판단 정보를 분석해 내는 분야이다. 따라서 감성분석은 분석대상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positive)’ 혹은 ‘부정적 평가(negative)’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표현을 사용하여 드러내느냐가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언어학적 측면에서 감성분석은 곧 ‘화자는 대상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를 어떤 표현을 사용하여 나타내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해결점을 찾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곧 ‘한국어 평가표현의 선정과 추출 문제’와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과연 ‘한국어의 평가표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먼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판단형용사(예: 예쁘다, 비싸다..) 등이 평가표현의 전형으로 여겨지나 아래 예문을 보면 인간은 사실상 여러 맥락요소와 복잡한 인지 작용을 통해 대상을 평가하고 있다.

- 1) ㄱ. 주문한 배송 물품이 빠르게 도착했다.
 ㄴ. 기차가 빠르게 지나간다.

- 2) ㄱ. 김 과장님은 아주 무서운 분 중 하나이다.
 ㄴ. 호랑이는 무서운 동물 중 하나이다.

위 예문 1)과 2)에서 동일하게 ‘빠르다’, ‘무섭다’가 쓰였지만, 이 중 1ㄱ)과 2ㄱ)은 평가표현으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1ㄴ)과 2ㄴ)은 ‘기차’와 ‘호랑이’의 특성을 기술(describe)하는 문장으로 해석된다. 특히 예문 2)의 경우 사용된 어휘와 문장 구조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평가표현이 되기도 그렇지 않기도 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는 조금 더 깊은 고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한 가지 가설은 한국어 용언의 의미자질이나 논항구조가 평가표현의 선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현경(1998)의 형용사 분류에 따르면 ‘대상심리형용사(경이롭다, 귀엽다 등)’는 맥락 요건에 관계없이 평가하기의 기능으로 대부분 사용될 것이다. 그 반면 ‘감각형용사(간지럽다, 아프다, 편하다)’ 등은 주제나 맥락에 따라 평가하기의 기능을 담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방문한 호텔에 대한 감상’을 서술할 때에는 부정의 평가표현으로 쓰일 것이나 ‘아이가 아토피에 걸린 상태’에 대한 기술에서는 상태 묘사로 쓰일 것이다. 이는 곧 어휘의 의미자질이 평가표현의 전형성에 가깝거나 혹은 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통사 차원에서 특정한 문법 표현의 선택이 평가하기의 기능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이다. 아래 예문을 보자.

- 3) ㄱ. 이 에센스를 한 달 동안 써 봤는데 피부가 좋아졌어요.
 ㄴ. 피부 좋아지라고 요걸 샀지요.

‘좋아지다’는 긍정적 평가표현의 전형에 해당하는 어휘인데 예문 3ㄴ)과 같이 ‘(으)라고’의 문법 표현과 함께 사용되면 평가하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곧 담화공동체에서 어휘의 의미자질과 선택된 문법표현의 의미기능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평가표현의 성립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본고는 상품리뷰 문서를 대상으로 감성분석을 수행한 후, 어휘의 의미자질과 평가표현의 상관성, 그리고 문법표현의 의미기능과 평가표현의 상관성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을 둔다.

2. 선행연구

2.1. 용언 분류 연구

그간 국어학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용언을 분류해 왔다. 가장 대표적으로 표준국어문법론에서는 형태, 의미, 기능의 세 가지 기준을 활용하여 품사를 분류하되 형태 기준을 주된 기준으로 삼아 ‘-ㄴ/ㄴ다’ 등과의 결합이 가능하면 동사, 결합이 불가능하면 형용사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못생기다’의 경우 용언의 활용으로 보면 형용사로 볼 수 있으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를 동사로 정의하고 있어 이 같은 형태 기준만으로 동사와 형용사를 이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 외에도 동사와 형용사의 성격이 모두 나타나는 양용 용언의 문제, 그리고 의미적으로는 형용사에 가까우나 동사로 활용하는 일부 용언들의 존재에 대하여서는 여전히 학계에서 학자들마다 이견을 달리 보이고 있다.

자연어 처리에서 이같이 형태 기준으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 짓는 일은 형태소 분석 등의 작업에서는 효과적이거나 감성분석에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감성분석은 어휘의 형태보다는 어휘의 의미해석에 더 주안점을 두므로 형태 기준의 분류보다는 아예 동사와 형용사 모두를 아울러 [+타동성]이나 [+상태성] 등의 의미자질을 분류 기준으로 삼아 분류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¹⁾ 본 장에서는 특별히 의미나 의미 격틀 기준으로 분류한 국어학의 용언 분류 연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천기석(1983)은 한국어의 용언을 동작동사와 상태동사로 구분하고 의미 기준으로 동작동사를 9개로 분류하였다. 수여의미, 이동의미, 부정의미(예: 불참하다, 반대하다), 비교의미, 상접의미(예: 악수하다, 사귀다), 조종의미(만들다, 분해하다), 보류의미, 가변의미가 이에 해당한다.

Vendler(1967)에서는 동사의 상적 특성을 기준으로 동사를 분류하였는데 이 이론적 틀을 한국어에 적용한 연구로는 박덕유(2007)과 황병순(2000)이 대표적이다. 박덕유(2007)은 동사의 자질을 상태성 vs 동태성, 완결성 vs 비완결성, 순간성 vs 지속성, 접근성 vs 비접근성으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나뉘어진 동사의 종류는 곧 상태동사, 심리동사, 행위동사, 완성동사, 변화동사, 순간동사, 이행동사 이렇게 7가지이다. 한편 황병순(2000)은 동사의 상적 특성을 기동성, 내재성, 순간성, 과정성, 종결성 이렇게 5가지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순간동사, 과정동사, 감정 감각 동사, 속성동사로 분류한 바 있다.

다음으로 서정수(1996)은 한국어의 용언을 상태성 용언과 비상태성 용언으로 먼저 분류한 뒤, 다시 상태성 용언의 하위분류로서 심리성 용언, 비심리성 용언을 나누고 비상태성 용언의 하위분류로서 과정성 용언과 행동성 용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Halliday(2004)는 물리적 동작동사(예: 달리다, 넘어지다), 정신동사(보다, 알다, 믿다), 관계동사(되다, 크다), 존재동사(살다, 죽다), 심리적 동작동사(꿈꾸다, 노래하다, 웃다), 발화동사(말하다, 묻다, 부르다) 이렇게 6가지로 나누었다. 여기까지는 전체 용언을 대상으로 하여 의미 기준으로 용언 분류를 시도한 연구 성과들이다.

그 외에 동사 혹은 형용사로 한정하여 그 세부 유형의 분류를 시도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유현경(1998)은 형용사의 격틀을 주요 분류 기준으로 삼아 형용사를 분류한 연구이다. 유현경(1998)에 따르면 형용사는 크게 주관형용사와 객관형용사로 구분되는데, 주관형용사는 주어의 의미역이 경험주(experiencer)로서 주어의 심리적이고 내적인 경험을 서술하는 형용사이고 객관형용사는 주어의 의미역이 대상(theme)이나 처소(location)이며 주어의 상태와 속성을 서술하는 형용사이다. 주관형용사의 하위 분류로는 심리형용사, 감각형용사, 판단형용사가 있고 객관형용사의 하위분류로는 성상형용사, 장소교차형용사, 대칭형용사, 소유형용사 등이 있다.

한송화(2000)은 한국어의 자동사를 대상으로 하여 격틀 중심으로 세부 유형화를 시도한

1) ‘제품의 기능이 최고예요’와 같이 명사도 평가표현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곧 평가표현의 성립에는 의미자질이 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감성분석에서 기존의 품사 분류 방식은 중요하게 다뤄지는 요소가 아니라는 말이 될 수 있다.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주어의 의미역이 행위주역인가에 따라 행위성 자동사와 비행위성 자동사로 나누어 각각을 세분화하였다.

한편 언어 정보학의 관점에서 주로 사전 기술의 목적이나 어휘 의미망 제작 등의 목적으로 인해 용언 분류를 시도한 연구들이 있다. WordNet(Fellbaum, 1988)은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서 영어를 대상으로 구축한 어휘의미망 연구로서, 그 WordNet을 기초로 하여 다국어 어휘의미망인 EuroWordNet(Vossen, 2005, 유럽 8개 국어 대상)와 HowNet(Dong and Dong, 2006, 중국어와 영어 대상)이 뒤따라 개발되었다. 대부분의 어휘 의미망이 그렇듯이 개념체계는 명사를 중심으로 그 층위가 구분되는데 WordNet의 경우 약 2,710개의 개념이 어휘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4개 층위의 동사 체계가 추가되어 있다. 이 WordNet은 품사적 기준보다 어떤 의미(sense)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만약 두 어휘의 품사가 다르고 의미적으로는 같은 개념을 지니고 있다면 이 두 어휘는 하나의 개념체계 내에서 같은 개념명을 부여받도록 구성된다.(예: 해석, 해석되다, 해석하다는 같은 개념명을 부여받는다.)

코어넷은 WordNet의 한국어판에 해당한다. 총 2,937개의 개념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전 정의문의 가장 뒷부분에 오는 명사를 상위어로 간주하여 1차 개념명을 부착한 후, 정보 검색의 유사도 계산을 통해 대상 동사들을 클러스터링하였다고 알려졌다.(김혜경 2007)

2.2. 감성분석 관련 연구

감성분석 관련 연구는 주제별로 볼 때, 데이터에서의 감성표현의 추출방법에 대한 연구, 추출된 감성값의 계산 방식 및 감성값 부여 방식에 대한 연구, 감성표현의 선정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앞선 두 가지는 주로 공학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마지막 감성표현의 선정에 관한 연구는 문헌정보학 등에서 수행되다가 근래 들어 언어학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국립국어원 발주 2021말뭉치감성분석은 2021년 8월에 공개한 감성분석 말뭉치로서 2019년의 문서 2,081건을 대상으로 구축되었다. 이 말뭉치는 분석대상의 속성(예: 디자인, 가격 등)에 대한 공부정 극성²⁾ 정보를 구분하여 태그했다. 특별히 분석대상 전반에 대한 공부정 정보만이 아니라 분석대상의 무엇이 긍정 혹은 부정인지에 대해 분석한 ‘측면 기반의 감성분석(Aspect based Sentiment Analysis)’을 대규모로 수행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먼저 ‘중립’의 감성값 설정이 공부정 판단상의 중립값이 아니라 긍정과 부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도 중립값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이는 이 2021말뭉치감성분석의 기본 분석단위가 하나의 문장이었기 때문에, 만약 선행절에서 가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후행절에서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경우 중립의 감성값을 부여한 케이스가 발견되었다. 그 외에도 AI학습데이터셋으로 활용하기에는 그 규모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³⁾ 등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2.3. 체계기능문법의 평가어 이론(Appraisal Theory)

2) ‘극성’이란 긍정(+)과 부정(-)의 감성값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3) 이 같은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규칙 기반 데이터셋(rule-based dataset)을 함께 구축하여, 생성형AI 등을 활용하여 유사한 데이터를 늘려 충분한 규모를 확보하게 하는 방법 등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Martin. J는 Halliday의 체계기능문법을 기반으로 하여 평가어 이론(Appraisal Theory, Appraisal Framework)을 제안하였다. Martin. J는 화자가 평가표현을 실현할 때 3가지의 positioning을 취하는데 이는 각각 태도 포지셔닝(Attitudinal positioning), 담화 포지셔닝(Dialogistic positioning), 상호텍스트 포지셔닝(Intertextual positioning)이다. 이 중, 태도 포지셔닝(Attitudinal positioning)은 화자가 사람, 장소, 사물, 현상 등에 대해 긍부정의 평가를 드러내는 것인데, 주로 구체적인 어휘나 구/절 단위의 언어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평가를 표현하는 방식이므로⁴⁾ 본 연구는 이 태도 포지셔닝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평가표현 추출 문제와의 관련성에 대해 기술해 보겠다.

태도 포지셔닝은 3가지의 하위 분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원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Affect (emotion)	evaluation by means of the writer/speaker indicating how they are emotionally disposed to the person, thing, happening or state of affairs. For example, `I love jazz'; `This new proposal by the government terrifies me'.
(2) Judgement (ethics)	normative assessments of human behaviour typically making reference to rules or conventions of behaviour. For example, `He corruptly agreed to accept money from those bidding for the contract'; `Our new classmate seems rather eccentric'.
(3) Appreciation (aesthetics)	assessments of the form, appearance, composition, impact, significance etc of human artefacts, natural objects as well as human individuals (but not of human behaviour) by reference to aesthetics and other systems of social value.

먼저 ‘감정적 평가(Affect)’는 보통 여러 문헌들에서 ‘감정’으로 번역이 되는데 사실상 Martin. J.의 평가어 이론의 하위분류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는 ‘감정적 평가’로 번역하는 편이 더 맞다. 위 원문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감정적 평가는 그저 개인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특정 담화 내에서 ‘평가하기’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한국어에 적용해 보면, 이 감정적 평가는 한국어의 ‘대상심리형용사’ 혹은 ‘심리형용사’ 중 일부가 담화상에서 평가하기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대상심리형용사 혹은 심리형용사는 담화상에서 여러 한국어 문법표현의 의미기능과의 결합을 통해 평가하기의 기능 실현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두 번째로 ‘규범적 평가(Judgement)’는 객관성 담보. 사회문화 공동체의 규범 기준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나 윤리적 잣대를 기준으로 삼아 판별해 내는 평가로서 ‘속성 기반의 감성분석’에 적용해 보자면 ‘신뢰도’, ‘정당성’, ‘인물의 성격’ 등과 관련 있다. 이 규범적 평가에서는 사실상 긍정(+)이나 부정(-)의 감성값이라기보다는 ‘정당함(+)’,

4) 그 외 담화 포지셔닝(Dialogistic positioning)은 대화 상대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을 전제로 하는데, 화자가 청자의 반응(reaction)을 고려하면서 화자의 평가표현을 조정하는 것이고 상호텍스트 포지셔닝(Intertextual positionig)은 화자가 텍스트상에서 인용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평가 태도를 드러내는 방식이다. Martin. J.는 엄격하게 본다면 상호텍스트 포지셔닝이 담화 포지셔닝의 하위 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옴(+)’이 감성값의 결과로 나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근래 들어 감성분석의 활용영역이 점차로 확대되면서, 감성분석은 단순히 영화나 상품에 대한 대중의 의견(opinion)을 분석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 혹은 사회적 사건, 법이나 제도 등 다방면에서 활용되어 가고 있다. 인물의 속성들 중 ‘성격’의 경우 이 같은 규범적 평가가 ‘신뢰성’ 등으로 발현될 것이므로 이 역시 감성분석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 사건이나 법/제도 등에서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세 번째로 ‘심미적 평가(Appreciation)’는 평가대상의 속성 및 특성에 대한 긍부정 평가를 말한다. Martin. J.의 설명에 따르면, 앞서 감정적 평가와의 가장 큰 차이는, 문장 구조상에서 무엇에 초점(focus)을 두어 화자가 표현을 하고 있는가의 차이이다. 아래 예문을 보자.

- 4) ㄱ. It's an extremely boring building.
 ㄴ. That type of architecture bores me.

위 예문에서 Martin. J.는 예문 (4ㄱ)은 평가대상인 building의 디자인 속성에 대한 ‘심미적 평가’에 해당하지만 예문(4ㄴ)은 평가대상인 architecture가 화자(me)에게 어떤 영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므로 ‘감정적 평가’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4ㄱ)은 (4ㄴ)에 비해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문장의 구조, 그리고 문법표현의 의미기능이 담화상에서 어휘의 평가하기 기능 실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어에서 관형사절의 한정적 용법 때문에 동일한 어휘가 안긴문장으로 실현되었을 때 그것이 평가표현이라기보다는 꾸밈을 받는 대상의 속성 묘사로 해석되는 케이스들이 종종 발견된다.(예: 좋은 날에 여행을 가 보려고 예약했어요.)

3. 연구방법

3.1. 연구 분석용 자료

본 연구는 2021말뭉치감성분석의 감성분석 말뭉치 중 일부와 자체 구축한 말뭉치 자료5)를 바탕으로 총 3개의 도메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분석용 자료에 대한 개괄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분석용 자료

도메인 (분석대상 유형)	세부 도메인 (분석대상군)	예시	어절 수 (국립국어원)	어절 수 (추가 구축)	총 어절 수
콘텐츠	영화		10,868	-	10,868
상품	미용용품	스킨케어, 선제품, 샴푸, 린스, 헤어케어 용품...	11,834	-	11,834
	가전제품		1,299	8,705	10,004

5) 바이브컴퍼니에서 2023년 수집한 웹문서 중 네이버의 가전제품 리뷰 문서 일부를 추가하였다.

이 중, ‘영화’와 ‘미용용품’은 국립국어원 2021 감성분석 말뭉치 중 일부를 랜덤 추출하여 구성하였으며, 가전제품은 어절 수 부족으로 인하여 약 8700여 어절가량을 추가 구축하였다.

3.2. 연구 대상 및 분석방법

3.2.1. 분석용 기본단위의 설정

감성분석에서 무엇을 가장 기본단위로 보고 긍부정 극성값을 붙이는가에 따라 감성분석의 층위가 달라질 수 있다. 매우 세부적으로는 형태소, 어절/구 단위의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⁶⁾ 크게는 문장, 더 나아가 한 문서 단위로도 나눌 수 있다. 근래에는 ‘속성 단위의 감성분석’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두됨에 따라 감성분석의 기본단위가 어절 및 구 단위든 문장 단위이든 속성 단위의 감성분석 방법을 같이 접목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용언을 분석용 기본단위로 설정하되 동사구와 형용사구, 동사절과 형용사절에서 긍부정 극성값을 가지는 케이스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한편 평가표현은 비단 용언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며 체언 및 부사어에서도 활발하게 나타난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일부 한정시키기 위하여 그 분석대상을 용언으로 제한하였다.

또 고려해야 할 문제는, ‘하다, 되다, 나다, 들다, 치다, 지다’ 등과 같은 기능동사들을 분석용 기본단위로 볼 것인가, 혹은 이 기능동사의 복합어를 기본단위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한송화(2000)를 비롯한 여타 연구들에서 기능동사는 그 의미 기능이 미약하며 전체의 의미는 기능동사와 결합된 명사의 의미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여럿 주장해 왔다. 이 같은 문제는 비단 기능동사뿐만 아니라 ‘가다’, ‘보다’ 등의 다의어에서도 발생한다.

- 5) ㄱ. 지방에 사는 친구에게 간다.
- ㄴ. 날이 더우니까 사소한 일에도 신경이 간다.

(표준국어대사전 ‘가다’ 예문 인용)

이에 대해 조민정(2014)에서는 논항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예문 (5ㄱ)은 주어의 의미역이 행동주라는 점, ‘이동’이라는 의미가 유지된다는 점, 자유 어순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가다’ 자체가 의미단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예문 (5ㄴ)과 같은 경우, 선행 어절인 ‘신경이’가 생략 불가능하다는 점과 ‘이동’ 이외에 ‘생기다’라는 또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점, 어순 제약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신경(이) 가다’를 하나의 의미단위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한송화(2000)와 조민정(2014)의 연구 내용을 참고로 하여 분석용 기본단위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기로 한다.

- 1) 기본적으로 표준국어대사전의 등재 여부를 분석용 기본단위 용언으로 본다.
- 2) 기능동사는 선행명사와 결합된 형태를 하나의 기본단위로 간주하며, 기능동사의 목록은 한송화(2000)의 목록을 따른다.

6) 언어 텍스트처리에서 ‘좋은 것 같아요’, ‘좋지 않아요’와 같이 여러 어절이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긍부정의 극성값을 나타내는 경우가 상당하므로 사실상 ‘어절 단위의 감성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다.

3) 선행명사가 서술성 명사일 경우, 후행용언과 결합된 형태를 분석용 기본단위로 간주한다.

4) 선행명사가 심리, 감정을 나타내는 명사일 경우, 후행용언과 결합된 형태를 분석용 기본단위로 간주한다.

5) 그 외에 ‘체언+ 용언’ 구성에서 선행명사가 생략되면 의미가 온전해지지 않을 경우, ‘체언+ 용언’ 전체 구성 자체를 분석용 기본단위로 간주한다.

한편, 문법표현에는 시제, 상, 연결어미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는 우선적으로 연결어미 구성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분석을 진행해 보려고 한다. 또한 연결어미로만 한정 짓지 않고 홍혜란(2016)의 복합 연결 구성까지 포함시켜 그 의미기능과 평가하기 기능 간의 관계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2.2. 분석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된다.

전처리	→	문장 내 용언의 문법표현 추출	
	→	감성분석	→ 평가표현, 분석대상 태그

먼저 전처리 단계에서는 수집된 말뭉치를 도메인별로 수동 분류하고, 문장 단위로 구분하였다.

동일한 문장에 대해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문장 내 용언의 ‘문법표현’을 추출하는 작업이었고, 두 번째는 감성분석을 수행하면서 긍부정 극성값을 부여하는 작업이었다. 이때는 특히 평가표현과 평가의 대상이 되는 분석대상을 구분하여 태그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문법표현의 의미기능 분석 시 활용한 문법표현의 의미기능 분류 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국립국어원(2005)과 홍혜란(2016)의 의미기능 분류 틀을 따른다. 두 연구에서 연결 구성의 의미기능 분류를 아래와 같이 통합하여 보았다.

의미기능	국립국어원(2005)	홍혜란(2016)
나열	-고, -(으)며,	-(으)니/는데다가, -(으)르 뿐(만) 아니라, -는 한편, -(으)르 테고
시간(동시)	-(으)면서, -(으)며, -자, -자마자	-(으)니/는 동안에, -는 사이에, -(으)니 채로, -는 길에, -는 도중에, -는 중에, -(으)니/는 동시에, -(으)르 즈음에, -(으)르 때에, -(으)르 적에, -어/아 가면서
시간(순서)	-고, -어/아서	-기 전(에), -(으)니 후에, -(으)니 뒤에, -(으)니 다음에, -(으)니 끝에, -(으)니 결과, -(으)니 이래로, -고 나서, -기에 앞서서, -어/아 가지고, -는대로 -기가 무섭게
시간(전환)	-다가	

--	--

4. 연구결과

4.1. 평가하기 기능과 관계없는 연결구성

먼저 절과 절을 연결시키는 ‘나열’의 연결구성의 경우 어휘의 평가하기 기능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⁷⁾

- 6) ㄱ. 밀착력도 좋고~ 지속력도 맘에 들어요! (미용용품 리뷰)
 ㄴ. 게다가 한장면 한장면의 영상이 예술적으로 화려하고 보기 좋은 데다가 음악 하나하나가 귀에 쑥쑥 들어오며 즐거운 느낌을 주는 것이 역시나 시이나 링고.. (영화 리뷰)

위 예문 (6)과 같이 ‘나열’의 의미기능은 평가하기의 기능 실현에 있어 아무런 상관성이 없어 보인다. 홍혜란(2016)에서 ‘-(으)ㄴ/는 데다가’에 대해 후행절의 내용이 강조되는 효과를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로 미루어 본다면 ‘강조’ 혹은 ‘강조하기’는 ‘평가하기’의 정도성을 더 크게 나타내 줄 뿐, 평가하기 그 자체의 실현 여부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나열’의 의미기능을 나타내는 연결구성은 선행절과 후행절을 분리시켜 마치 종결어미와 동일하게 취급한 채로 평가하기 기능 실현 여부 및 감성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본다.

4.2. 평가하기 기능을 상쇄시키는 연결구성

먼저 ‘정도’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으)ㄴ/는(으)ㄴ 만큼’과 ‘-(으)ㄴ 정도로’는 그 자체가 평가하기의 기능 실현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그저 평가하기 기능이 담화상에서 실현되었을 때 긍정적 극성의 정도성을 표현해 주는 장치로서 기능한다.

- 7) 연예인 이영자가 추천할 만큼 **믿을 수 있는 쿠션**이에용 (미용용품 리뷰)

위 예문 (7)을 보면 화자가 분석대상인 ‘쿠션’에 대한 [신뢰도] 긍정극성을 ‘믿을 수 있다’의 표현을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그 [신뢰도] 긍정극성이 얼마나 큰가에 대하여 ‘연예인이 추천할 만큼’으로 드러내고 있다.

다음으로 ‘조건’이나 ‘목적’, ‘인정(양보)’는 평가하기 기능의 실현과 거의 관계가 없었다.

- 8) ㄱ. 요즘 좁쌀 여드름 없애 불라고 부지런히 발라주고 있어요ㅋㅋㅋ (뷰티 리뷰)
 ㄴ. 어떤 건 너무 의도적으로 웃기려고 한 대사라 전혀 우습지가 않았다.. (영화

7) ‘배경’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연결구성의 경우에도 이러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다.

리뷰)

화자가 어느 대상에 대하여 ‘평가한다’는 점은 이미 그 대상을 지각적으로 인지하는 과정을 거쳤거나 실제 사용 및 경험을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조건’, ‘목적’, ‘인정(양보)’와 같이 실제로 평가대상을 인지하거나 경험하지 않았음을 내포하고 있는 연결구성에서는 아무리 전형적으로 긍부정 극성을 나타내는 어휘라고 할지라도 평가하기의 기능을 담화상에서 나타낼 수 없다. 이는 위 예문 (8ㄱ)에서 ‘없애 불라고’를 ‘좋아지려고’로 바꾸어도 해당 표현이 평가하기 기능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세 번째로 시간의 흐름이나 시점을 나타내는 연결구성인 ‘시간(동시)’, ‘시간(순서)’, ‘시간(전환)’은 대부분 평가하기 기능의 실현과 큰 관계가 없었다.

9) 기분 안 좋을 때 보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영화 (영화 리뷰)

이 같은 ‘시간’ 의미기능 연결구성들이 대부분 동사와 결합한다는 점, 그리고 여러 사건(event)들이 일어나는 현상 중 한 시점을 특정하여 집어서 보여준다는 점 때문에 평가하기의 기능 실현과 거리가 먼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여러 사건들이나 상태의 연속선 상에서 후행절의 사건 및 상태의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긍부정 극성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어휘라고 할지라도 평가하기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 같다.

4.3. 평가하기 기능과 관련있는 문법표현

‘선택’ 의미기능은 앞서 4.1.장에서 언급한 ‘나열’ 연결구성의 의미기능과는 달리 후행절이 일정 조건을 갖추게 되면 긍부정 극성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10) 그렇게 시끄럽거나 열기가 방출되진 않네요. (가전제품 리뷰)

위 예문 (10)에서 우리는 ‘시끄럽지 않다’, ‘열기가 방출되지 않다’의 두 가지 긍정평가를 해석해 낼 수 있다. 그러나 형태적으로는 ‘시끄럽거나’로 표출되기 때문에 이후의 감성분석용 데이터 구축 시 이 ‘-거나’, ‘-든지’의 극성평가 해석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대립/대조’의 의미기능 연결구성도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몇몇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 ㄱ. 완전 좋아요! 섬유유연제 냄새 사라진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전제품 리뷰)
ㄴ. 나스가 미친 발색 때문에 히트웨이브는 약간 매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쓰다 보니 그래서 더 좋음? (뷰티 리뷰)

위 예문 (11ㄱ)과 같이 후행절이 단순하게 부정형으로만 구성되었을 시 ‘대립/대조’ 의미기능의 연결구성은 위 ‘거나’와 유사하게 취급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반면 (11ㄴ)과 같이 후행절에 명시적인 평가표현이 쓰였을 경우에는 ‘나열’의 의미기능 연결구성처럼 유사하게 처리하는 편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예문 (11ㄱ)과 같은 케이스를 규칙화하여 향후 감성분석용 데이터 구축 시 ‘규칙 기반(rule-based)’으로 이를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남은 문제들

본 연구에서는 아직 밝혀내지 못한 점이 여럿 남아있다.

첫째는 연결구성의 의미기능들 중 ‘방법/수단’, ‘이유/원인’, ‘비유’의 의미기능이 평가하기의 기능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중 ‘방법/수단’은 평가하기 기능과 큰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추가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비유’ 의미기능 연결구성의 경우, 연결구성으로 사용된 용례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종결어미로 사용되는 양상을 보였다. 게다가 ‘비유’의 의미가 아닌, ‘트러블을 완화시켜 주는 듯’과 같이 공손표현의 일종으로서 사용된 용례가 상당수 발견되어서 이에 대한 추가 분석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지점은 ‘이유/원인’의 의미기능 연결구성 중, 후행절이 단순히 ‘좋다’, ‘만족스럽다’, ‘마음에 들다’와 같은 ‘단순 긍정 극성’을 나타내는 어휘 위주로만 구성되었을 경우, 선행절이 그 원인을 나타내게 되어, 그 선행절의 복합절 자체를 통해 평가대상 및 대상의 속성까지 단번에 추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이에 관하여 ‘이유/원인’ 의미기능 연결구성과 그 후행절의 어휘 특성 간의 관련성을 추가로 더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천기석(1984), 《국어 동작동사와 상태동사의 체계 연구》, 형설출판사
서정수(1996), 《국어문법》,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원
유현경(1998), 《국어 형용사 연구》, 한국문화사
한송화(2000), 《현대 국어 자동사 연구》, 한국문화사
황병순(2000), 상 의미로 본 동사의 갈래, 《한글》 250, 한글학회, 227-265
김혜경(2007), 《사전정의문의 중심어를 이용한 동사 어휘의미망의 구축 및 활용평가》 국내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박덕유(2007), 《한국어의 상 이해》, 제이앤씨.
조민정(2014), 의미단위로서 동사구에서 논항의 기능 연구-의미변별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46, 한국어어미학회 53-77.
홍혜란(2016), 《한국어교육을 위한 복합 연결 구성 연구 - 사용역에 따른 분포 양상과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국내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Vendler, Z. (1967), *Linguistics and philosoph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Halliday, M. A. K., & Matthiessen, C.(2014), *Halliday's introduction to functionalgrammar* (4th ed.). London: Routledge
Martin. J. <http://grammatics.com/appraisal/appraisalguide/framed/frame.htm>

■ 토 론

“감성분석 목적의 감성표현 선정과 한국어 연결구성의 의미기능 관계”에 대한 토론문

박지순(경희대)

이 연구는 오피니언 마이닝의 하나로서 감성 분석에 국어학적 지식을 접목함으로써 평가 대상에 대한 긍정, 부정의 평가를 어느 정도까지 정교하고 정확하게 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어학적 시각이 감성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담화공동체에서 어휘의 의미자질과 선택된 문법표현의 의미기능 간의 상호작용으로 평가표현이 성립 가능하다고 보고, 어휘의 의미자질과 평가표현의 상관성, 그리고 문법표현의 의미기능과 평가표현의 상관성을 밝히고자 합니다. 한국어는 영어와 달리 문법 형태소인 어미가 일정한 의미 기능을 담당하므로 이를 간과하여서는 정확한 감성 분석이 될 수 없으므로 감성 분석의 정교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어학적인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의 전제와 문제 의식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연구 내용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을 여쭙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구결과를 연결구성을 '평가하기 기능과 관계없는 연결구성', '평가하기 기능을 상쇄시키는 연결구성', '평가하기 기능과 관련있는 문법표현'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평가하기 기능과 관계없는 연결구성'과 별도로 '평가하기 기능을 상쇄시키는 연결구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평가하기 기능을 상쇄시키는 연결구성'에 제시된 '정도'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으)ㄴ/는(으)ㄴ 만큼'과 '-(으)ㄴ 정도로'는 그 자체가 평가하기의 기능 실현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조건’, ‘목적’, ‘인정(양보)’는 평가하기 기능의 실현과 거의 관계가 없었다.”, “‘시간의 흐름이나 시점을 나타내는 연결구성인 ‘시간(동시)’, ‘시간(순서)’, ‘시간(전환)’은 대부분 평가하기 기능의 실현과 큰 관계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볼 때 '평가하기 기능과 관계없는 연결구성'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둘째, 연결어미의 의미기능 외에 문장 단위의 극성 분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어학적 지식과 시각이 반영되어야 할 측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셋째, 속성별 감성 분석에서 속성에 따라 연결어미의 의미기능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연결어미의 의미 기능 및 논항 구조에 대한 고려가 실제로 AI를 활용한 감성 분석의 정확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여도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추후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모델을 만들어 감성 분석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북한어 색채 파생어의 파생 양상과 의미 분석

- 『조선말대사전(2017)』의 색채어를 대상으로 -

최 윤(강원대)

차 례

1. 머리말
2. 남·북한 고유어 색채어와 연구 대상
3. 접사 파생 형용사 색채어와 접사의 의미 자질
4. 맺음말

1. 머리말

본 연구는 색채에 대한 인식이 색채어에 의해 드러날 것이라는 시각하에서 한국어 고유어 색채어를 종합적으로 살펴 최종적으로 한국인이 색채를 인식하는 방식과 범위, 변화 양상을 확인하는 데 궁극적인 연구 목적이 있다. 이번 연구는 남한의 고유어 색채 파생어의 구성 양상과 접사의 의미를 살핀 연구¹⁾와 공기어의 의미 관계를 살핀 연구²⁾ 후속 연구로서 북한의 고유어 색채 파생어들의 구성 양상과 접사의 의미를 남한과 비교·대조하여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흔히 한국어의 어휘적 특징 중 하나로 ‘의성어·의태어의 발달’과 함께 ‘색채 표현(색채어) 발달’을 꼽곤 한다. 색채어 형용사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특성을 단편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본색 형용사의 하나인 ‘누르다’는 모음이 교체되어 ‘노르다’로 사용되며 이들에 접미사가 결합하여 ‘노랏다, 누렇다’로, ‘노랏다, 누렇다’에서 모음이 교체(혹은 삽입)되어 ‘뇌랏다, 뇌ړ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³⁾. 또한 ‘노르-, 누르-, 뇌르-, 뇌ړ-’에 접미사가 결합하여 ‘노르(누르)께하다, 노르(누르)끄레하다, 노르(누르)끄름하다, 노르(누르)끄무레하다, 노르대대하다, 누르데데다하다, 노르땡땡하다, 누르땡땡하다, 노르(누르)무레하다, 노르(누르)스레하다, 노르(누르)스름하다, 노르족족하다, 누르족족하다, 노르(누르)칙칙하다, 노르되되하다, 누르튀튀하다, 누르통통하다, 뇌르(뇌ړ)끄레하다, 노리(누리)끼리하다, 노름(누름)하다, 노룣(누룣)하다’ 등의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며 접두사 ‘셋-, 싯-’이 결합한 ‘셋노랏

1) 최윤(2022), 「고유어 색채 파생어의 파생 양상과 의미 분석 -사전 등재어의 파생 접사를 중심으로-」, 『語文論集』 제91집, 중앙어문학회.

2) 최윤(2023), 「한국어 고유어 색채어와 그 공기어의 의미-색채어와 명사, 동사와의 공기 관계 분석을 통해-」, 『영주어문』 제55집, 영주어문학회.

3) ‘누렇다’가 ‘누르다’에서 직접 파생된 것인지(노르다)누르다)누렇다) ‘노랏다’에서 모음 교체가 된 것인지(노르다)노랏다)누렇다) 명확하지 않으나 본고에서는 통시적 생성 순서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므로 전자의 순서로 서술한다.

다, ‘싯누렁다’도 사용된다. 여기에 ‘첩어’ 형태로 노름노름하다, 노릇노릇하다, 누렁누렁하다, 누름누름하다, 누릇누릇하다, 놀놀하다 등도 있으며 다소 특이한 형태로 ‘놀면하다’도 있다.⁴⁾ 이렇듯 다양한 파생 형태를 보여 주는 색채어에 대한 연구는 언어학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색채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국어사적, 형태론적, 의미론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졌고 상당한 연구 성과가 쌓였지만 자료의 수집 및 추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한 연구는 부족하다. 앞서 언급한 파생의 양상을 염두에 두면, 색채어 연구는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양적 연구 방법론의 적용이 용이한 주제라 할 수 있지만, 사전에 등재된 모든 고유어 색채어를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한 연구는 현재까지 최윤(2022)의 연구가 유일하다. 또한, 고유어 색채어 연구는 ‘한국어’를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는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남한어뿐만 아니라 남북한어의 종합적 연구가 필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시각 하에서,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어 고유어 색채어 파생어들의 구성 양상과 접사의 의미를 보다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표로, 북한어의 기본 고유어 색채어와 그 파생어들을 대상으로 색채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남·북한 고유어 색채어와 연구 대상

이번 연구는 남한의 고유어 색채어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객관적 분석을 위해 이전 연구의 연구 대상 선정 기준 및 분석 기준을 따른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어 색채어 추출과 연구 대상 선정의 과정을 살펴본다.

2.1. 남북한 사전 비교 - <우리말샘>과 『조선말대사전(2017)』

<우리말샘>과 『조선말대사전(2017)』에 대한 분석과 비교는 다양한 방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색채어’로 볼 수 있는 등재어들에 대한 비교 분석을 주제로 하므로 양 사전의 특성과 전체적인 규모, 형용사와 색채어 표제어의 규모 등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2.1.1. 우리말샘

<우리말샘>은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다른 이름으로서 “사용자가 새로운 어휘를 직접 등록하거나 뜻풀이 등의 사전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⁵⁾” 개방형 인터넷 사전이다. 박광길, 최윤(2017:245-246)에서는 <우리말샘>의 특성을 ‘개방성’, ‘연계성’, ‘실용성’으로 정리하며 일반적 이용의 편리성과 연구 목적 이용의 효용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말샘>은 다양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종 자료를 다양한 형식(포맷)으로 내려받을 수 있어 연구 활용도가 매우 뛰어나다.

4) 최윤(2022), 앞의 논문, p.3

5) 국립국어원,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국립국어원, 2016, 1쪽.

<표 1> 우리말샘의 어종 및 품사별 표제어 등재 현황

품사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한자어+ 외래어	한자어+고 유어	외래어+고 유어	한자어+ 외래어+ 고유어
명사	137,114	316,388	51,062	14,465	46,875	1,941	442
대명사	560	258	0	0	16	0	0
수사	106	22	0	0	0	0	0
조사	592	0	0	0	0	0	0
동사	58,142	0	0	0	47,359	429	969
형용사	19,347	0	0	0	9,688	89	239
관형사	399	92	0	0	4	0	0
부사	28,460	709	4	0	3,272	2	88
감탄사	1,825	34	22	2	54	1	0
접사	469	432	0	0	2	0	0
의존 명사	758	388	506	78	13	8	1
보조 동사	111	0	0	0	0	0	0
보조 형용사	51	0	0	0	1	0	0
어미	2,820	0	0	0	0	0	0
품사통용어 생략
합계	255,057	325,985	51,600	14,646	107,407	2,478	1,740

2024년 1월 8일을 기준으로 <우리말샘>에는 약 76만 개(753,975개)의 표제어가 등재되어 있다⁶⁾. 이들 중 ‘형용사’는 약 3만 개(29,363개), ‘고유어 형용사’는 약 2만 개(19,347개)이다. 최윤(2022)에서 연구 대상으로 추출되었던 고유어 색채어의 수는 총 308개인데 이는 우리말샘 전체 표제어의 0.04%, 형용사 표제어의 1.05%, 고유어 형용사 표제어의 1.6% 정도에 해당한다.

2.1.2. 조선말대사전(2017)

<조선말대사전>은 출판된 북한어 사전 중에서 등재된 표제어의 수가 가장 많은 사전이다. 1992년에 『조선말대사전』이 처음 편찬된 이후 2006년에 첫 번째 증보판이⁷⁾, 2017년에 두 번째 증보판이 나왔다. 각 판본별로 간단히 서지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조선말대사전』 판본별 서지사항

사전명	권수	출판년도	표제어 수	비고
조선말대사전	2권	1992	33만 개	이하 『조선(1992)』
조선말대사전(증보판)	3권	2006	40만 개	이하 『조선(2006)』
조선말대사전(증보판)	4권	2017	44만 개	이하 『조선(2017)』

위 <표 2>에 제시된 표제어 수는 해당 사전의 머리말에 표기된 정보를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 표제어 수와는 차이가 있다. 자료의 특성상 각 판본별 규모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러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대강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조선(1992)』의 규모를 살펴보면, 거래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2019)에서는 『조선(1992)』에 실린 실제

6) 이 중 약 48만 개가 일상어로 등재되어 있다. 나머지는 전문어이다.

7) 『조선말대사전』의 첫 번째 증보판은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1권, 2~3권이 나누어 출판되었다. 여기에서는 1권 출판을 기준으로 하여 2006년에 출판된 것으로 기술한다.

표제어 수가 352,850개임을 밝히고 있으며 한영균(1997)에서는 이 가운데 293,073개 항목의 어휘가 주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조선(2017)』의 품사별 표제어 규모 및 전체 규모는 다음 표와 같다⁸⁾.

<표 3> 『조선(2017)』의 품사별 표제어 등재 현황

품사	명사	동사	부사	형용사	성어	토	감동사
개수	328,181	24,017	22,620	18,324	1,023	922	572
비율	82.59	6.04	5.69	4.61	0.26	0.23	0.14
품사	기타	뒤붙이	대명사	앞붙이	수사	관형사	합계
개수	403	314	301	295	266	146	397,384
비율	0.10	0.08	0.08	0.07	0.07	0.04	100

위 표를 살펴보면, 『조선(2017)』에 등재된 표제어는 약 40만 개이며 이들 중 형용사 표제어는 18,324개로 전체 표제어의 약 4.6%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는 18,000여 개의 형용사 표제어 가운데 ‘고유어 색채(파생)어’를 추출해야 했는데, 이들을 추출하는 데 있어 활용할 수 있는 특정한 지표나 기준이 거의 없었다.

- (1) 가. ㅍ 가깝다1. 매우 감다. 레구: 가만 눈동자. 레: 나이는 들어보였으나 머리는 아직 가마니 윤기가 돌았다. 레: 해수욕을 하고난 그의 얼굴은 가깝게 닳다.
- 나. ㅍ 가무대대하다. 산뜻하지 못하게 가무스름하다. 레구: 가무대대한 얼굴. [참고: 거무대대하다, 까무대대하다]
- 다. ㅍ 감다. 빛같이 좀 새뜻하고 짙은 맛이 나게 검다. 레구: 감은 머리칼. [참고: 검다, 까다]
- 르. ㅍ 검다1. 석탄이나 먹물의 색과 같다. 레구: 흰 적삼에 검은색치마. 검은 칠. 레: 검은 멍기는 조의를 표시한다.
- 미. ㅍ 검다2. 색깔이 칙칙하거나 어둡다. 레: 양지바른 언덕에는 새싹들이 검고 축축한 땅을 뚫고 돌아나고있다.

위 (1)은 ‘검다’류 색채어의 일부 예인데, 뜻풀이에 ‘~한 색깔(또는 빛깔)’ 등으로 정형화된 문구가 있거나 별도의 정보가 있다면 선별하여 추출이 가능했겠지만 색채어의 경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⁹⁾. 결국,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파이썬 코딩을 통해 1차적인 자료 선별 과정을 거쳤다.

- (2) 가. 뜻풀이에 색채 관련 키워드¹⁰⁾를 정의문에 포함하는 표제어를 추출한다.
- 나. ‘ㄱ’에서 추출한 표제어를 다시 색채 관련 키워드에 포함한다.(표제어 형태에 포함된 ‘하다’ 또는 ‘다’는 제거한다)
- 다. ‘ㄴ’으로 업데이트된 키워드를 정의문에 포함하는 표제어를 추출한다.
- 르. 추출된 표제어를 바탕으로 한 음절이 두 번 이상 연속되는 형태를 추출한다.
- 미. ‘ㄹ’에서 추출된 형태를 포함하는 표제어를 추출한다.

8) 『조선말대사전』에 대한 연구는 『조선(2006)』을 다룬 신중진(2015), 정유남(2019), 정유남·이길재(2019)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조선(1992)』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다. 2차 증보판이자 최신판인 『조선(2017)』을 다룬 연구는 김한샘(2020), 최윤(2021), 최효정(2022), 최윤(2022)가 있다.

9) 이는 ‘우리말샘’의 경우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10) 빛, 색깔, 빛깔, 검다, 노르다, 누르다, 푸르, 흰, 가깝, 노랑, 빨강, 빨강, 말끔, 말쑥, 칙칙, 뿌연 등(‘색’과 같이 뜻풀이에 광범위하게 등장할 수 있는 단음절은 키워드로 사용할 수 없다.)

- ㄷ. 'ㄱ'에서 추출한 표제어를 다시 색채 관련 키워드에 포함한다.(표제어 형태에 포함된 '하
다' 또는 '다'는 제거한다)
- ㄸ. 'ㄷ'까지 완성된 키워드를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표제어를 추출한다.

위 기준을 통해 6,237개 표제어를 추출하였으며 이들의 뜻풀이와 형태를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 대상 어휘를 선정할 수 있었다¹¹⁾. 최윤(2022)에서 선정된 남한의 색채어와 비교하여 수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색채 종류별 등재 색채어 개수

	검다류	누르다류	붉다류	푸르다류	희다류	합계
우리말샘	79	56	100	49	24	308
『조선(2017)』	94	28	87	62	28	299

<우리말샘>과 『조선(2017)』의 정보 구성이나 정보량, 표제어 서술 방식 등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선별된 색채어들이 완전히 동일한 기준으로 선별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뜻풀이의 내용을 분석하는 데 있어 적용한 기준은 최대한 동일한 시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말샘>과 『조선(2017)』의 표제어 수와 위 색채어 선별 결과를 비교해 보면, 양 사전이 전체 표제어 수 및 형용사 표제어 수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등재된 색채어 표제어 수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다’류와 ‘푸르다’류 색채어는 오히려 『조선(2017)』 쪽의 표제어 수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접사 파생 형용사 색채어와 접사의 의미 자질

3.1. 기본 색채별 접사 파생 색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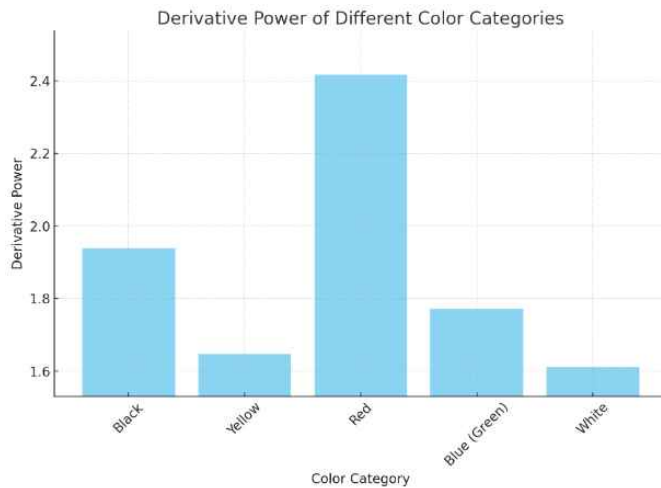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파생어에 집중하여 파생에 관여한 접사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절에서는 접사 파생 형용사 색채어를 알아보고 각 접사의 의미를 고찰한다. 사전에 등재된 모든 어휘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면 각 색채별 파생어 형성에 있어서의 구조적 특지 역시 확인할 수 있다.

11) 기본적인 기준은 최윤(2022)에서의 선별 기준과 동일하다. 감정 표현 및 유의어, 비표준어, 방언형, 준말 등을 제외하였다. 또한 색채어이나 다섯 개 고유어와 관계 없는 부류(‘부엌다’류 등), 신체나 특정 사물의 표현에 한정된 부류, 모양이나 형태 표현을 우선하는 부류, 다른 색채 표현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진 부류 등을 제외하였다.

<표 5> 색채 종류별 등재 색채어 개수

	검다류	누르다류	붉다류	푸르다류	희다류
파생어 수	94	28	87	62	28
파생 참여 어근 수	16	8	19	10	5
파생 참여 접사 수	32	9	17	25	12

위 표는 각 색채어류 별로 파생어 수, 파생에 참여한 어근 수, 파생에 참여한 접사 수와 이에 따른 파생력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색채어류별로 ‘파생력’을 산출해 볼 수 있다. ‘파생력’은 파생어 수 대비 파생에 참여하는 어근 수와 접사 수의 비율로 보았으며, 이는 파생어의 생성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다. 즉, 적은 수의 어근과 접사로 많은 파생어를 생성할수록 파생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색채어류별 파생력

위 그래프는 색채어류별 파생력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파생력은 파생어 수를 파생에 참여하는 어근 수와 접사 수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되었다. 산출 결과에 따르면 파생어 수나 파생 참여 어근 및 접사 수는 ‘검다’류가 가장 많지만 파생력은 ‘붉다’류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붉다’류는 파생에 참여하는 어근과 접사가 상대적으로 고르게 결합하여 다양한 색채 파생어를 생성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각 색채어류별로 구체적인 파생 양상과 파생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3.1.1. 검다

『조선(2017)』의 등재어를 기준으로 하면 ‘검다’는 모음 교체형으로 ‘감다’를, 다시 자음 교체형으로 ‘깜다’와 ‘껌다’를 가진다. 여기에 접미사 ‘-(아/어)얹/엮-’을 통한 파생¹²⁾으로

12) 표준 문법의 시각에서는 ‘-(아/어)얹/엮-’을 접사로 보지 않고 ‘색채어 어근+-(아/어)얹/엮-’ 전체를 하나의 어근으

‘거뿔다, 가맏다’를 여기에 또 자음 교체형으로 ‘꺼뿔다, 까맏다, 카맏다, 커뿔다’를 가진다. 어근 ‘가무-, 거무-, 가마-, 거머-, 까무-, 꺼무-, 까마-, 꺼머-, 꺼무-’는 접미사 ‘-끄름-, -대대-, -댕댕-, -데데-, -뎡뎡-, -레-, -룩-, -무트름-, -속속-, -슉슉-, -송-, -스름-, -스레-, -스름-, -속-, -시르-, -실-, -싯-, -우리-, -웃-, -잇-, -잡잡-, -접접-, -족족-, -죽죽-, -직직-, -축축-, -충충-, -측측-, -칙칙-, -테테-, -퇴퇴-, -통-, -튀튀-, -트름-, -틱-, -틱틱-’ 등과 결합해 다양한 파생어를 형성한다. 한편, ‘꺼뿔다, 까맏다, 카맏다, 커뿔다’에 접두사‘새/시-’가 붙어 파생어를 형성한다¹³⁾. 겹다류 파생어들을 어근과 접사에 따라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6> ‘겹다류 파생 양상

구분		어근(어근+접사)															
		감-	검-	깁-	깘-	가무-	거무-	가마-	거머-	까무-	까마-	꺼머-	꺼무-	(까맏-)	(꺼뿔-)	(카맏-)	(커뿔-)
접두	새/시-													○	○	○	○
접두	진-		○														
접두	질-		○														
접미	-(아/어)얹/얹-							○	○			○	○				
접미	-끄름-					○	○			○			○				
접미	-대대-					○				○							
접미	-댕댕-					○				○							
접미	-데데-						○		○				○				
접미	-뎡뎡-						○						○				
접미	-레-					○	○			○			○				
접미	-룩-						○										
접미	-무트름-											○					
접미	-속속-					○											
접미	-슉슉-						○										
접미	-송-			○	○												
접미	-스름-	○				○											
접미	-스레-					○	○			○			○				
접미	-스름-	○	○				○	○		○		○	○				
접미	-속-					○	○						○				
접미	-시르-	○	○			○											
접미	-실-	○	○														
접미	-싯-	○	○														
접미	-우리-								○								
접미	-웃-					○	○			○			○				
접미	-잇-	○	○			○											
접미	-잡잡-					○	○										
접미	-접접-						○						○				
접미	-족족-					○						○					
접미	-죽죽-						○						○				
접미	-직직-					○	○		○								
접미	-축축-													○			
접미	-충충-					○	○							○			
접미	-측측-	○															
접미	-칙칙-	○				○	○		○		○		○				
접미	-테테-						○						○				
접미	-퇴퇴-					○											
접미	-통-						○										
접미	-튀튀-						○										

로 분석하지만 본고에서는 최윤(2022)의 기준에 따라 ‘-(아/어)얹/얹-’을 접사로, 선행 형태를 어근으로 분석한다.
 13) ‘-셋/싯’을 ‘-새/시’보다 강한 의미를 가진 접사로서 이들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새, 시, 셋, 싯’을 이형태로 처리한다.

구분		어근(어근+접사)															
		감-	검-	깁-	겪-	가무-	거무-	가마-	거머-	까무-	까마-	꺼머-	꺼무-	(까망-)	(꺼똥-)	(카망-)	(커똥-)
접미	-트름-						○			○							
접미	-틱-						○										
접미	-틱틱-						○										

위와 같이, 사전에 등재된 모든 어휘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면 파생어 형성의 구조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검다’류는 가장 다채로운 파생 양상을 보여주는 색채어류로서, 몇 가지 특이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접두 파생에서, 『조선(2017)』에서는 ‘진검다’와 ‘질검다’를 표제어로 등재하고 있다. <우리말샘>과는 달리, ‘진-’과 ‘질-’을 접두사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진-’과 ‘질-’은 어근 ‘검-’ 이외에는 ‘붙-’과만 결합하여 파생어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접사임에도 파생력이 매우 약한 접사로 볼 수 있다. ‘까망-’, ‘꺼똥-’, ‘카망-’, ‘커똥-’이 ‘새-/시-’와 결합하여 파생어를 형성하는데, ‘까맣다, 꺼똥다, 카맣다, 커똥다’는 등재되어 있지 않고 ‘새-/시-’ 파생어만 등재되어 있는 것도 특이하다. 이는 <우리말샘>의 등재 양상과도 비슷한데, 이것이 언중의 일반적인 색채어 사용 양상과 다르지 않다고 가정했을 때, 접두사 ‘새-/시-’의 이러한 제한적인 파생 양상은 흥미롭다.

어근 ‘거무-’는 22개 접사와 결합이 가능하며, 모든 색채어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접사와 결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거무-’에 대응하는 양성모음형인 ‘가마-’가 가장 기본적인 접사라 할 수 있는 ‘-(아/어)얹/얹-’ 외에 어떠한 접사와도 결합하지 못하는 것과 비교하면 ‘거무-’의 높은 파생력을 실감할 수 있다. ‘거무-’와 ‘가마-’의 파생 양상 차이는 ‘검다’류 음성 모음이 가진 의미 자질적 동질성을 비롯하여 접사의 상당수가 [+ 부정]의 평가태도를 가진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듯하다.

3.1.2. 누르다

『조선(2017)』의 ‘누르다’류 파생어를 어근과 접사로 나누어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누르다’류 파생 양상

구분		어근(어근+접사)					
		노르-	누르-	노리-	누리-	(노랑-)	(누렁-)
접두	새/시-					○	○
접미	-(아/어)얹/얹-	○	○				
접미	-께-	○	○				
접미	-끄레-	○	○				
접미	-끄무레-	○					
접미	-끼레-	○	○	○	○		
접미	-끄럼-		○				
접미	-끄름-		○				
접미	-무레-	○	○				
접미	-스럼-						
접미	-스레-		○				

접미	-스름-		○				
접미	-음-	○	○				
접미	-웃-		○				
접미	-잇-			○	○		
접미	-죽죽-						
접미	-죽죽-		○				
접미	-칙칙-		○				
접미	-테테-		○				
접미	-틱틱-		○				

앞서 살펴 본 ‘감다’류와는 파생어 생성 양상에 차이가 있는데, ‘누르다’류의 파생어 어근은 ‘노르-, 누르-, 노리-, 누리-’로 파생어 수에 비해 파생어 어근이 다양한 편이다. 이들 중 ‘노르-’와 ‘누르-’는 다양한 접사와 결합하며 많은 파생어를 만들어 내나, ‘노리-, 누리-’는 ‘-끼레-’, ‘-잇-’과만 결합할 수 있다. ‘-끼레-’는 최윤(2022)에서 파생력이 약한 접사로 분류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네 종류의 색채어류와 결합하여 10개의 파생어를 생성하는 높은 파생력을 보여준다¹⁴⁾.

최윤(2022)에서는 ‘-끄레-’와 결합하는 ‘뇌르-, 뉘르-’가 ‘누르다’류의 어근으로 분석되었는데, 『조선(2017)』서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다른 색채어류에서는 <우리말샘>에 비해 『조선(2017)』의 어근 형태가 풍부한 데 비해 ‘누르다’류는 그렇지 않다. <우리말샘>과 『조선(2017)』의 표제어 등재 방식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1.3. 붉다

‘붉다’는 파생에 참여하는 어근 수가 모든 색채어류 가운데 가장 많은데 반해 파생에 참여하는 접사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에 따라 모든 색채어류 중 가장 높은 파생력을 보여준다. 결합 양상을 어근과 접사에 따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붉다’류 파생 양상

구분		어근(어근+접사)																		
		발가	발그	발기	벌거	불그	벌그	불기	벌기	불기	불기	불(으)	빨가	빨그	빨그	빨그	빨(벌)	빨(강)	빨(경)	
접두	새/시-											○						○	○	○
접두	진-											○								
접두	질-											○								
접두	엷-											○								
접미	-(아/어)얹/엷-	○			○								○			○				
접미	-끼레-											○								

14) 다만, 본 연구에서는 아직 변이형태를 설정하지 않아, 변이형태 설정 후 접사의 파생력에 대한 세부적인 고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끼레-’와 함께 ‘-끄레-’와 ‘-끄무레-’ 등을 동일한 형태소의 변이형태로 설정하더라도 ‘-끼레-’에 대한 현재 분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표 9> '푸르다'류 파생 양상

구분		어근(어근+접사)										
		파 라-	파 리-	퍼 리-	푸 리-	푸 르-	퍼 러-	퍼 르-	파 르-	(파 랑-)	(퍼 랑-)	(퍼 렁-)
접두	새/시-					○				○	○	○
접두	질-					○						
접두	엷-					○						
접미	-(아/어)얹/얹-	○					?	○				
접미	-계-					○		○	○			
접미	-끄레-			○					○			
접미	-끼레-				○	○	○	○	○			
접미	-시그레-			○								
접미	-끄름-					○						
접미	-대대-								○			
접미	-땡땡-								○			
접미	-테데-					○		○				
접미	-땡땡-					○		○				
접미	-디디-					○						
접미	-땡땡-					○		○				
접미	-똥-					○						
접미	-레-					○						
접미	-무레-					○						
접미	-스레-								○			
접미	-스름-					○	○	○	○			
접미	-우리-	○	○	○			○					
접미	-영-						?	○				
접미	-음-					○		○	○			
접미	-웃-					○		○	○			
접미	-잇-		?	○					○			
접미	-족족-								○			
접미	-죽죽-					○	○	○				
접미	-청청-					○						
접미	-칙칙-					○						
접두 + 접미	새/시- +땡땡-					○						
접두 + 접미	새/시- +땡땡-					○						
접두 + 접미	새/시- +족족/죽죽-					○		○	○			
접두 + 접미	새/시- +똥-							○				
접두 + 접미	새/시- +똥-							○				

‘푸르다’는 앞서 살펴본 색채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혼란한 파생 양상을 보인다. 양성모음 계열의 어근 ‘파라-, 파리-, 파르-’는 음성모음 계열의 어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사와의 결합이 제한적인데 이는 양성모음 계열의 어근이 가진 [+긍정]의 의미 자질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접미사 ‘-딩딩-, -시그레-, -디디-, -똥-, -엉-, -청청-’은 ‘푸르다’류 외에 어떤 색채어류 어근과도 결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접두사 ‘새/시’가 ‘-(아/어)얹/영-’ 형 파생형 이외에 ‘땡땡, 족족/죽죽’ 파생형에도 결합될 수 있는 점은 다른 색채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성이다. 특히 ‘새/시’가 중립적인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유독 특정 파행형에만 결합하는 것은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특성은 <우리말샘>의 표제어 분석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이러한 파생 경향이 한국어 색채어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1.5. 희다

‘희다’류 파생어는 어근으로 ‘희-’와 ‘해-’를 갖고 있어 파생에 참여하는 어근이 적다¹⁶⁾. 또한 파생 접미사 결합도 제한적이어서 파생어 자체가 많지 않다. 이러한 특성은 ‘희다’가 ‘명도’와 관련이 있는 색의 부류로서 ‘색상’이나 ‘채도’의 변화와 관련된 파생 표현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명도’나 ‘빛’과 관련하여 다른 색채 표현에 명도를 더하는 표현 등으로 활용되는 파생어들이 몇 가지 존재한다는 점, 어근 자체의 음운론적 특성이 다른 색채어와는 다르다는 점도 결합의 제한성에 대한 요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10> ‘희다’류 파생 양상

구분		어근(어근+접사)				
		하-	희-	해-	(하얹-)	(허영-)
접두	새/시-				○새셋	○시셋
접미	-(아/어)얹/영-	?	○			
접미	-끄무래-		○			
접미	-끔-		○	○		
접미	-끗-		○	○		
접미	-끄름-		○			
접미	-여끄름-		○			
접미	-끄스름-		○			
접미	-뚝-			○		
접미	-무스름-		○			
접미	-밋-		○			
접미	-벗-		○			
접미	-스래-		○			
접미	-스름-		○			
접미	-스무래-		○			
접미	-(으)브스래-					○

16) 표에는 ‘하-’가 포함되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제외될 듯하다.

접미	-(으)브스름-		○	○		○
접미	-스-		○	○		
접미	-스-			○		
접미	-스-		○			
접미	-스-		○			
접미	-엇-		○			

파생어의 수 자체는 적지만 접사 ‘-(으)브스름-, -(으)브스름-, -끔-, -끗-, -씩-, -여끄름-, -끄스름-, -뜯-, -무스름-, -밋-, -벗-, -스무레-, -스-, -엇-’ 등은 ‘희다’류 어근 ‘희-’, ‘해-’에만 결합한다는 점에서 이들 접사의 특수성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다른 색채에서 ‘-(아/어)얕/얕-’ 파생어는 추가적으로 접미사와 결합하지 않는데 ‘허얕-’은 ‘-(으)브스레-, -(으)브스름-’과 추가적으로 결합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이하다. <우리말샘>에서는 ‘하얕-’은 ‘-스래-’, ‘-스름-’과 ‘허얕-’은 ‘-스래-’, ‘-스름-’, ‘-(으)브스레-’와 추가적으로 결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어, 이러한 파생 양상은 한국어의 ‘희다’류 파생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2. 색채어 파생 접사의 의미와 의미자질

3.2.1. 파생 접사별 의미

앞서 확인한 색채어류별 파생 양상을 접사별로 분류하고 사전상 뜻풀이를 통해 접사의 의미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 접사별 파생 가능 색채류 및 사전 뜻풀이(의미)

번호	유형	접사	색채어류	뜻풀이(의미)
1	접두	새/시-	검다	몹시, 아주
			누르다	선명하고 질게, 매우 산뜻하게
			붉다	새뜻하고 곱게, 맑고 질게
			푸르다	새뜻하게
			희다	매우, 아주 산뜻하게
2	접두	얕-	붉다	얕게
			푸르다	얕게
3	접두	진-	검다	진하게
			붉다	진하게
4	접두	질-	검다	질게
			붉다	질게
			푸르다	질게
5	접미	-(아/어)얕/얕-	검다	.
			누르다	.
			붉다	.
			푸르다	.
			희다	.
6	접미	-(으)브스레-	희다	약간 희미하게 ~스름하다.
7	접미	-(으)브스름-	희다	맑지 않고 조금
8	접미	-께-	누르다	‘끼레’의 준말, 좀 ~하다
			푸르다	곱지 못하고 좀 ~하다
9	접미	-끄럼-	누르다	좀 칙칙하게 ~하다
10	접미	-끄레-	누르다	~끼레하다.

번호	유형	접사	색채어류	뜻풀이(의미)
			푸르다	~끼레하다, 약간 ~하게 보일사하다.
11	접미	-끄름-	검다	산뜻하지 못하게~ 스름하다.
			누르다	곱지 않게
			푸르다	산뜻하지 못하게~ 스름하다.
			희다	-비스름하다
12	접미	-끄무레-	누르다	열게 조금
			희다	열게 조금
13	접미	-끄스름-	희다	-비스름하다.
14	접미	-끔-	희다	산뜻하게
15	접미	-끗-	희다	군데군데 섞여있다.
16	접미	-끼레-	누르다	약간 ~하게 보일사 하다.
			붉다	약간 ~하게 보일사 하다.
			푸르다	약간 ~하게 보일사 하다.
17	접미	-대대-	검다	산뜻하지 못하게~ 스름하다.
			붉다	산뜻하지 못하게~ 스름하다, 천하게 ~스름하다.
			푸르다	산뜻하지 못하게~ 스름하다, 칙칙하게 ~스름하다.
18	접미	-맹맹-	검다	고르지 않고 어울리지 않게 ~스름하다.
			붉다	격에 어울리지 않게 ~스름하다.
			푸르다	천한 맛이 나게 ~하다.
19	접미	-테데-	검다	좀 칙칙하게, 산뜻한 맛이 없이, 보기 사납게
			붉다	보기 싫게, 산뜻하지 못하게
			푸르다	칙칙하게, 어둡게
20	접미	-맹맹-	검다	매우 어울리지 않게, 격에 어울리지 않게
			붉다	격에 어울리지 않게
			푸르다	좀 ~딩딩하다.
21	접미	-디디-	푸르다	좀 칙칙하게
22	접미	-딩딩-	푸르다	보기 스산하게 ~ 스름하다, 스산한 느낌, 칙칙하다
23	접미	-똥-	푸르다	칙칙하게
24	접미	-뚝-	희다	군데군데 섞여있다.
25	접미	-레-	검다	연하게 ~스름하다, 약간
			붉다	좀 곱게 ~스름하다, 조금 연하게
			푸르다	좀 ~스름하다.
26	접미	-룩-	검다	조금 ~스름하다.
27	접미	-름-	붉다	~스름하다.
28	접미	-무레-	누르다	얇게 조금, 뚜렷하지 않게 약간
			붉다	얇게
			푸르다	좀 칙칙하고 열게 ~스름하다.
29	접미	-무스름-	희다	조금 산뜻하게, 조금
30	접미	-무트름-	검다	좀 투박하게 ~스름하다.
31	접미	-미미-	붉다	매우 희미하게 ~레하다.
32	접미	-밋-	희다	어렵풋하다.
33	접미	-벗-	희다	~무레할사 하다.
34	접미	-속속-	검다	트인 맛이 없이 ~스름하다.
			붉다	수수하게 ~스름하다.
35	접미	-속속-	검다	수수하게 ~스름하다.
			붉다	수수하고 걸맞게 ~스름하다, 수수하게
36	접미	-승-	검다	좀 ~스름하다.
37	접미	-스럼-	검다	~스름하다.
38	접미	-스레-	검다	~스름하다.
			누르다	~스름하다.
			붉다	~스름하다.
			푸르다	~스름하다, 연하게, 조금 ~한 데가 있다.
39	접미	-스름-	희다	좀 열게
			검다	조금 산뜻하게, 조금
			누르다	연하게 조금, 조금
			붉다	조금, 새뜻하고 곱게, 조금 새뜻하게

번호	유형	접사	색채어류	뜻풀이(의미)
			푸르다	어지간히, 조금, ~한 듯하다.
			희다	조금, 어렴풋하다, 뚜렷하지 못하고
40	접미	-스무레-	희다	좀 열게
41	접미	-스-	검다	좀 ~웃하다.
			희다	좀, 여러 군데가
42	접미	-스-	희다	매우 ~스하다, 드문드문 좀
43	접미	-시그레-	푸르다	똑똑히 가려볼 수 없을 만큼 어느정도
44	접미	-시르-	검다	약간 ~스름한 듯하다, 짙을 정도로
45	접미	-실-	검다	조금 ~스름하다, 여러 군데
46	접미	-싯-	검다	꽤 ~스름하다.
47	접미	-쑤-	희다	몹시
48	접미	-영-	푸르다	.
49	접미	-여끄름-	희다	~느스름하다.
50	접미	-옛-	희다	좀 ~듯하다.
51	접미	-우레-	붉다	약간 ~한 데가 있다
52	접미	-우리-	검다	은은하게
			붉다	은은하게
			푸르다	은은하다, ~스름하다.
53	접미	-음-	누르다	좀 ~스름하다.
			푸르다	알릴듯 말듯 하게 좀 ~스름하다.
54	접미	-웃-	검다	좀 ~스름하다.
			누르다	좀 흐릿하게 ~스름하다.
			붉다	연하게 ~듯하다, 조금 ~듯하다.
			푸르다	좀 ~듯하다.
55	접미	-잇-	검다	~듯하다.
			누르다	조금 짙게 ~스름하다.
			붉다	좀 ~스름하다.
			푸르다	조금 짙게 ~스름하다.
56	접미	-작작-	붉다	산뜻하지 못하고 몹시 칙칙하게
57	접미	-잡잡-	검다	환하게 트인 맛이 없이, 매우 칙칙하게 ~스름하다
58	접미	-접접-	검다	칙칙하게
59	접미	-죽죽-	검다	밝지 못하고 트인 맛이 없이 ~스름하다.
			붉다	트인 맛이 없이 ~스름하다.
			푸르다	좀 칙칙하게 ~스름하다.
60	접미	-죽죽-	검다	고르지 못하고 우중충하게 ~스름하다.
			누르다	산뜻하지 못하게 ~스름하다.
			붉다	고르지 못하고 칙칙하게, 트인 맛이 없이 ~스름하다
			푸르다	밝고 트인 맛이 없고 칙칙하게
61	접미	-직직-	검다	~죽죽하다, 어둑어둑하다.
62	접미	-칭칭-	푸르다	싱싱하게
63	접미	-축축-	검다	약간 축축
64	접미	-충충-	검다	흐릿하고 칙칙하다, 우중충하다.
65	접미	-축축-	검다	깨끗하지 못하게
66	접미	-칙칙-	검다	킁킁하고 어둡다, 칙칙하게
			누르다	밝지 못하고 킁킁하고 어둡다.
			푸르다	칙칙하게
67	접미	-테테-	검다	곱지 않게 탁하고 어둡고
			누르다	(낡고 오래되어) 어둑어둑하다.
68	접미	-퇴퇴-	검다	칙칙한 듯 ~스름하고 흐릿터분하다.
69	접미	-퉁-	검다	진하고 탁하게
70	접미	-튀튀-	검다	곱지 않게 탁하고 ~스름하다.
71	접미	-트름-	검다	좀 투박하고 ~스름하다.
72	접미	-틱-	검다	틱틱한 느낌이 있다.
73	접미	-틱틱-	검다	매우 탁하다.
			누르다	~스름하고 어둑킁킁하다.
			붉다	~스름하고 어둑킁킁하다.

색채어류에 따라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의 수가 다르지만, 위 표에서 접사별로 결합할 수 있는 기본 색채어류만으로도 접사의 파생 범위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 결합 가능한 색채어류 수에 따른 접사 목록

- ㄱ. 5개: 새/시/셋/짓-, -(아/어)얹/영-, -스레-, -스름-
- ㄴ. 4개: -끄름-, -웃-, -잇-, -죽죽-
- ㄷ. 3개: 질-, -끼레-, -대대-, -땡땡-, -테테-, -땡땡-, -레-, -무레-, -우리-, -죽죽-, -칙칙-, -틱틱-
- ㄹ. 2개: 엷-, 진-, -깨-, -끄레-, -끄무레-, -속속-, -속속-, -슴-, -음-, -테테-
- ㅁ. 1개: -(으)브스레-, -(으)브스름-, -끄림-, -끄스름-, -꿈-, -꿇-, -디디-, -딩딩-, -똥-, -뚝-, -룩-, -름-, -무스름-, -무트름-, -미미-, -밋-, -벗-, -슁-, -스럼-, -스무레-, -숫-, -시그레-, -시르-, -실-, -싹-, -쓱-, -영-, -여끄름-, -엷-, -우레-, -작작-, -잡잡-, -접접-, -직직-, -칭칭-, -축축-, -충충-, -촉촉-, -퇴퇴-, -통-, -튀튀-, -트름-, -틱-

위 (3)을 보면 25개 접사 중 1개 색채어류에만 결합 가능한 접사가 43개로 가장 많고, 5개 색채어 모두에 결합할 수 있는 접사는 4개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5개 색채어 모두와 결합할 수 있는 접사는 <우리말샘>에 등재된 고유어 색채어의 접사 목록과 일치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3.2.2. 파생 접사별 의미 자질

최윤(2022)에서는 이현희(2011)에서의 ‘수식 형용사 적용 색채 표현’ 방법과 접사의 사전 뜻풀이 내용을 바탕으로 색채어 접사의 의미를 ‘평가 태도(긍정, 부정)’와 ‘색채(명도, 채도, 균질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파생 접사별 의미 자질 분석을 시도한다.

사전의 뜻풀이상 ‘산뜻하다’는 ‘평가 태도’에서 ‘긍정’으로, 동시에 ‘색채’에서는 ‘선명한’과 비슷한 개념으로 파악하여 채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한다. ‘칙칙하게’, ‘천하게’, ‘트인 맛이 없다’는 산뜻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평가 태도’는 ‘부정’으로 동시에 ‘색채’에서는 채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한다. ‘은은하게’, ‘연하게’, ‘엷다’, ‘열다’, ‘희미하게’, ‘어렴풋하게’는 명도가 높은 것으로, ‘질다’, ‘진하다’, ‘탁하다’는 명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한다. ‘조금’은 색이 ‘흐린’ 것으로 보고 채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한다.

이상을 바탕으로 접사별로 의미 자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접사별 사전 뜻풀이에 따른 의미 자질(평가 태도 및 색채)

번호	접사	뜻풀이(의미)	평가 태도		색채		
			긍정	부정	명도	채도	균질도
1	새/시-	몹시, 아주, 선명, 산뜻		○	+	+	
2	엷-	엷게			+		
3	진-	진하게			-		
4	질-	질게			-		
5	-(아/어)얹/영-	.					
6	-(으)브스레-	약간 희미			+		
7	-(으)브스름-	맑지X, 조금		○		-	
8	-깨-	좁, 곱지X		○			

번호	접사	뜻풀이(의미)	평가 태도		색채		
			긍정	부정	명도	채도	균질도
9	-끄림-	칙칙하게		○			
10	-끄레-	약간			+	-	
11	-끄름-	산뜻하지X, 곱지X		○			
12	-끄무레-	열게, 조금			+		
13	-끄스름-	맑지X, 조금		○	+	-	
14	-끔-	산뜻하게					
15	-끗-	군데군데					
16	-끼레-	약간			+		
17	-대대-	산뜻하지X, 천하게, 칙칙하게		○		-	
18	-댕댕-	고르지X, 어울리지X, 천하게		○		-	
19	-데데-	칙칙하게, 산뜻하지X, 어둡게		○		-	
20	-뎡뎡-	어울리지X		○		-	
21	-디디-	칙칙하게		○		-	
22	-딩딩-	스산하게, 칙칙하게		○		-	
23	-똥-	칙칙하게		○		-	
24	-똥-	군데군데					-
25	-레-	연하게, 약간, 줄 곱게	○		+		
26	-룩-	조금 더 연하게			+		
27	-름-	조금 연하게			+		
28	-무레-	열게, 조금			+		
29	-무스름-	조금, 산뜻하게	○		+		
30	-무트름-	좁, 투박하게			+		
31	-미미-	희미하게			+		
32	-밋-	어렵듯하게			+		
33	-벗-	조금 더 열게			+		
34	-속속-	산뜻하지X, 수수하게		?		-	
35	-속속-	수수하게					
36	-송-	조금 더 연하게			+		
37	-스럼-	조금 연하게			+		
38	-스레-	조금 연하게			+		
39	-스름-	조금 연하게, 산뜻하게, 곱게			+		
40	-스무레-	열게			+		
41	-속-	조금			+		
42	-슛-	드문드문					-
43	-시그레-	조금			+		
44	-시르-	약간			+		
45	-실-	조금			+		
46	-싹-	폐			-		
47	-쓱-	몹시			-		
48	-영-	.					
49	-여끄름-	조금 연하게			+		
50	-옛-	조금			+		
51	-우레-	약간			+		
52	-우리-	은은하게			+		
53	-음-	조금 더 연하게			+		
54	-웃-	조금 더 연하게, 흐릿하게			+		
55	-잇-	약간 연하게			+		
56	-작작-	칙칙하게		○		-	
57	-잡잡-	칙칙하게		○		-	
58	-겹겹-	칙칙하게		○		-	
59	-죽죽-	칙칙하게		○		-	
60	-죽죽-	우중충하게, 고르지 못하게		○		-	-
61	-직직-	칙칙하게		○		-	
62	-칭칭-	싱싱하게	○			+	
63	-축축-	.					

번호	접사	뜻풀이(의미)	평가 태도		색채		
			긍정	부정	명도	채도	균질도
64	-충충-	우중충하게		○		-	
65	-촉촉-	깨끗하지X		○		-	
66	-칙칙-	칙칙하게		○		-	
67	-테테-	탁하게					
68	-퇴퇴-	칙칙하게, 흐리게		○		-	
69	-통-	진하게, 탁하게				-	
70	-튀튀-	곱지X		○			
71	-트름-	투박하게		○			
72	-틱-	탁하게, 조금 연하게				?	
73	-틱틱-	탁하게, 조금 연하게				?	

사실 여러 선행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 ‘검다, 희다’류는 ‘무채색’으로서 유채색인 ‘누르다, 붉다, 푸르다’류가 가지고 있는 ‘채도’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검다, 희다’류의 사전 뜻풀이에 등장하는 ‘탁하다’, ‘질다’, ‘선명하다’, ‘산뜻하다’ 등의 표현은 색채학적 관점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엄밀히 말해 ‘채도’의 논의에서는 무채색인 ‘검다, 희다’류를 제외해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색채학적 색의 속성과 인간의 색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아 본고에서는 함께 다루기로 한다.

<표 12>에서 ‘평가 태도’는 ‘긍정’과 ‘부정’의 자질로 나누었는데 이는, 색채에 대한 평가 태도에 있어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긍·부정에 표시가 없는 것들은 평가 태도를 확인할 수 없어 평가 태도 면에서 중립적이라 할 수 있다. ‘균질도’ 측면에서는 뜻풀이상 ‘고른(혹은 고르지 않은)’ 색의 분포에 대한 설명에 따라 표시했는데, ‘고른 색의 분포’를 드러내는 뜻풀이는 없었다. 따라서 ‘균질도’에 빈칸으로 표시된 것은 [+균질도]로 보아도 무방하다.

4. 맺음말

(생략)

참고문헌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main>.
 사회과학출판사(2017). 조선말대사전(증보판) 1-4.
 고영근(1986), 능력성과 국어의 통사구조, 《한글》 192, 한글학회, pp.43-76.
 구분관(2008), 한국어 색채 표현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고찰, 《형태론》 10-2, pp.261-285.
 _____(2009), 복합 색채어의 의미 -사전의 뜻풀이를 중심으로-, 《國語學》 55, pp.173-212
 국립국어원(2016), 함께 만들고 모두 누리는 새 국어사전 우리말샘, 국립국어원..
 김광순(2019), 색채어 {검다}, {까맣다}의 사용 양상과 의미 유형, 《담화와 인지》 26-3, pp.1-21.
 _____(2020), 색채어 {빨갳다}의 용법과 의미, 《언어》 45-1, pp.21-40.
 _____(2021), 한국어 색채어 분홍과 외래어 핑크의 사용 양상, 《담화와 인지》 28-4, pp.1-21.
 김영선(2002), 색채서열체계와 한국어 색이름체계와의 관계:Green-Blue 먼셀공간을 중심으로, 《한국색채학회 논문집》 16-1, pp.1-11.

- 김혜연(2014), 국어 기본 색채어와 파생어의 의미와 용법에 대한 코퍼스언어학적 분석, 《언어》 39-4, pp.749-771.
- 문금현(2013), 색채어 관련 관용표현에 나타난 인지의미 양상, 《국어국문학》 163, pp.73-102.
- 박동근(2012), 한국어 기본 색깔말의 원형과 뜻풀이, 《문법 교육》 16, pp.111-139.
- 박선혜·권영결(2005), 한국 속담에 나타난 서민의 색채의식 연구, 《한국색채학회논문집》 19-3, pp.1-11.
- 성인출(1997), 색채어의 어원과 음운론적 고찰, 《한민족어문학》 31, pp.35-53.
- 손세모돌(2000), 국어 색채어 연구, 《한말연구》 6, pp.133-165.
- 신호철(2012), 한국어 색채 표현의 이원 체계, 《문법 교육》 16, pp.173-202.
- 양성희(2021), 교통 신호등 파란불과 초록불의 혼용 -'푸르다'의 색채 범주 변화를 중심으로-, 《國語學》 97, pp.341-372.
- 이병기(2002), 색채명사의 발달, 《형태론》 4-2, pp.279~299.
- _____(2008), 近代國語 色彩語의 몇 가지 特徵, 《어문연구(語文研究)》 36-4, pp.131-151.
- _____(2012), 국어의 기본 색채어와 그 의미, 《국어국문학》 162, pp.143-170.
- 이은섭(2005), '색'과 '빛' 계열 합성 명사의 형태·의미론적 고찰, 《인문논총》 54, pp.275-308.
- _____(2006), KS으로 완성된 '우리말 표준 색이름 체계'에 대한 일고찰, 《한국학》 29-1, pp.105-125.
- 이현희(1985), 중세국어 용언어간말 '-ㅎ-' 어사의 성격에 대하여 -누리ㅎ다류와 엇더 ㅎ다류를 중심으로-, 《한신논문집》 2, pp.221-248.
- 이현희(2011), 한국어 색채 표현의 양상과 그 분류, 《한글》 291, pp.193-228.
- 전몽수(1941ㄱ), 채색어회고(1), 《한글》 88, pp.4-7.
- _____(1941ㄴ), 채색어회고(2), 《한글》 89, pp.3-5.
- _____(1941ㄷ), 채색어회고(3), 《한글》 90, pp.4-7.
- 진실로(2003), 색채어 번역—'green'과 'blue' 범주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4-2, pp.29-47.
- 최윤(2022), 고유어 색채 파생어의 파생 양상과 의미 분석 -사전 등재어의 파생 접사를 중심으로-, 《語文論集》 91, 중앙어문학회. pp.83-112.
- _____(2023), 한국어 고유어 색채어와 그 공기어의 의미-색채어와 명사, 동사와의 공기 관계 분석을 통해-, 《영주어문》 55, 영주어문학회. pp.119-158.
- B. Berlin and P. Kay.(1969/1991). *Basic color terms, Their universality and evolution*. CSLI Publication.
- J. Davidoff. (1997). *The neuropsychology of color, Color categories in thought and language*. Edt. C. L. Hardin and L. Maffi, Cambridge.

■ 토 론

“북한어 색채 파생어의 파생 양상과 의미 분석”에 대한 토론문

김주성(연세대)

이 연구는 북한의 고유어 색채 파생어들의 구성과 접사의 의미에 대한 양상을 양적 연구를 통해 일반화함으로써 남한의 같은 대상과의 비교·대조 연구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색채어가 꼽히는 동시에(1.) 북한 역시 색채어에서 드러나는 조선어의 민족성을 강조¹⁷⁾한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남과 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작업은 (현재 남북 관계의 엄중한 현실을 고려할 때) 전에 없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문법론을 주로 연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때 거래말큰사전 편찬에 참여했던 경험에 비추어 몇 가지 제안과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적 연구를 통해 기술된 색채 파생어에 관한 남한과 북한의 차이점들을 읽어 내려가면서 왜 두 사회가 만들어 낸 사전 사이에 그러한 차이가 생겼는지, 그러한 차이는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등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궁금증은 북한 조선어학의 관련 설명이나 올림말에 대한 용례 등을 제시하면 일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컨대 남한 사전의 올림말을 기준으로 북한 사전에서 ‘진-’이 ‘붉-’과 결합하는 형태를 올림말로 제시한 것은 특이한 것이지만(3.1.3.) 활발한 말다듬기를 배경으로 성립된 조선어학의 단어조성론, 어휘정리론 등의 관련 설명을 제시해 주면 그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조선(2017)』의 색채 어휘 가운데 파생력은 ‘붉다’류가 가장 높는데(3.1.) 관련 올림말에 제시된 용례를 모으고, 해당 올림말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를 직접 보여주면 그 구체상을 독자가 생생히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후자는 공기어의 의미 관계에 관한 후속 연구로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사전은 언어생활의 기준을 제공해 주는 것이므로 거기에 실린 올림말을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한국어 색채어 파생의 일반적 경향을 확인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전편찬자는 대개 기존 사전을 최대한 존중하는 보수적인 처리 방식을 취하고, 때때로 패러다임의 빈칸을 용납하기 힘들어하는 구조적 지향을 지니는 등 직관이나 용례를 떠나서 올림말의 등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오른 모든 어휘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는 것(3.1.)과 더불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가중치가 높은 올림말을 선별하여 연구를 진행하면서 앞서 제안한 질적 해석을 덧붙이는 것도 하나의 연구 방식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께서는 파이썬 코딩을 통해 1차적인 자료 선별 과정을 거치셨으므로(2.1.2.) 연구에서는 전자화된 『조선(2017)』 텍스트가 사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제작 과정이나 입수 경로, 접근 방법 등을 공유해 주신다면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

17) 과학, 백과사전출판사(1979), 『조선문화어문법』,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210-211쪽.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4분과
사회언어학**

일본 재일동포 집거 지역의 한국어 언어경관 연구

-오사카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오 세 내(계명대)

차 례

1. 머리말
2. 연구배경과 연구방법
3. 연구결과
4. 오사카 코리아타운 언어경관에서 한글의 사회문화적 기능
5. 맺음말

1. 머리말

도시 공간을 구성하는 가시적인 문자언어(written language)를 언어경관(Linguistic Landscape)이라고 한다. 언어경관은 도시의 문해 시민들의 사고가 독해 가능한 상태로 표현되는 기능과 도시의 구성원들이 사회적 의미를 표출하는 시각적 상징물의 기능을 한다. 특히 이민자 사회의 언어경관은 이민자들의 문자 언어와 이주한 국가의 문자 언어가 어우러지며 다문화 사회를 시각화한다. 언어경관은 그곳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며 이주한 사회에서 원 거주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시적인 언어정보이다. 특히 한글은 해외 한인 사회에서 언어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로 한인들의 정체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해외의 한인 이민자들이 집거하여 형성하는 ‘코리아타운’의 언어경관을 구성하는 한글의 사회문화적 기능 파악은 이민사 연구, 다민족사회 연구, 사회언어학 연구, 문자언어를 활용한 마케팅 연구 등에 참고할 수 있다.

본고는 일본 오사카의 재일동포 집거지역인 오사카 이쿠노구 코리아타운에서 2020년대 현재 다국어 언어경관을 조사하고, 이 지역 언어경관에서의 한글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기능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일본 내 재일동포 집거 지역의 언어경관을 구성하는 한글, 일문, 영문 등 다국어 문자의 표현과 문자로 조성된 인공물의 가시적, 입체적 실체를 파악하여 일본의 언어경관에서 한글의 기능과 역할을 사회언어학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일본 오사카 이쿠노구는 해방 이전부터 형성된 재일동포 집거 지역으로 2020년대 현재까지도 재일동포들이 활동하는 지역이며 세대를 거듭하며 이어지는 역사적 연속성이 있는 지역(박미아 2021: 263)이다. 2023년 6월 현재 18,312명의 한국 국적이인 등록되어 있고¹⁾ 이는 이쿠노구 외국인 등록인구인 28,234명의 64.8%에 해당한다. 오사카부 전체로 보면 외국인 등록인구가 285,272명인데 이중 한국 국적이인 88,751명으로 31.1%이다. 여기에는 일본인과 결혼했거나 일본 국적으로 귀화한 사람의 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쿠노구에는 한국 음식과 한국 상품을 주로 다루는 지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츠루하시역 주변 시장이고 두 번째는 이번 연구에서 살펴볼 오사카 코리아타운이다. 츠루하시역 주변 시장은 상업지구이고 코리아타운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복합된 지역이다. <그림 1>은 조사 대상 지역의 지도이다.

<그림 1> 이쿠노구 재일동포 집거지역의 지도



이번 연구에서 언어경관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지역은 오사카 이쿠노구(生野区)의 모모다니(桃谷)에 있는 이쿠노 코리아타운(生野 코리아타운)의 직선거리 약 500미터, 도로폭 약 5미터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복합된 지역이다. 이 지역은 1910년대부터 한인들이 유입된 지역으로 당시에는 강변의 늪지대로 주거지로는 부적합한 지역이었다. 1920년대에 <그림 1>에서 보이는 히라노강의 준설 및 주변 정리 과정에서 유입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근처에 주거지(조선부락)를 형성했고, 1923년부터는 제주도와 오사카를 왕복하는 정기선인 기미가요마루(君が代丸)가 출항하면서 제주도민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이 지역으로 유입되었다. 1948년 제주 4.3사건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는 정기 배편 외에 밀항선으로도 제주도민들이 이 지역으로 들어왔다. 임영언·임운규(2012:262)에 의하면 1980년대 이전까지도 이 지역의 거주자 약 80%가 제주도 출신이었다고 한다.

1) 法務省「在留外國人統計」
(https://www.moj.go.jp/isa/policies/statistics/toukei_ichiran_touroku.html)

<그림 1>에서 코리아타운 서쪽에 신사 표시가 있는데 이 곳이 미유키모리 신사이다. 20세기 초부터 미유키모리 신사 주변에는 식료품 상점이 있었다. 이 지역에 유입된 한인 노동자들은 독신으로 생활하거나, 장시간 노동에 의해 집에서 조리를 할 시간이 없어 밖에서 먹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김치와 떡 같은 한국 음식, 막걸리를 파는 사람들이 많았다. 일본의 패전 이후에는 지역의 일본인 상인들이 한인들에게 점포를 팔거나 임대하고 지역을 떠났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 지역에 김치, 떡, 정육점, 채소와 건어물 집들이 많은 이유는 이 지역이 재일동포들에게 제수를 마련하는 기능을 했기 때문이다. 한인들은 일본인들과 달리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있다. 제사는 조총련계, 민단계, 귀화인 여부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는데 한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가족 결속력을 유지하는 장치였다.

이 지역에 현재 공식 명칭이 된 ‘코리아타운’이라는 이름이 생긴 시기는 1990년대이다. 동아일보 1994년 1월 15일자 기사에 의하면 1993년 여름부터 당시 동상점가 35개 점포에 ‘코리아타운’, 중앙상점회 53개 점포에 ‘코리아로드’라는 이름을 붙이고 태극 문양 가로등 30여개, 히라노강 쪽 동상점가 입구에 ‘백제문’, 중앙상점가에 ‘중앙문’을 세우고 건물에 한국식 기와를 장식하고 도로를 포장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과 2000년대 이후 한류의 영향으로²⁾ 이 지역은 재일동포 대상 식료품과 생필품을 파는 전통 시장에서 재일동포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 음식과 한류 상품을 파는 상점가가 되었다. 2021년까지는 동상점가, 중앙상점가, 서상점가로 구분되었는데 2021년 12월에 통합하여 (법인)오사카코리아타운이 출범하였다.

상업지역의 언어경관은 새로운 가게가 생기고, 기존의 가게가 사라지고, 기존의 가게가 사라져도 그 흔적이 남아있기도 하고, 설립한 시기에 형성한 언어 경관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언어경관의 팔림프세스트(palimpsest) 현상이 나타난다. 언어경관이 중세의 재사용 양피지 위에 남아있는 희미한 글씨인 팔림프세스트처럼 불완전하게 지워진 전 시대의 경관과 그 위에 새로 세워진 경관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연구자가 언어경관의 가변성을 고려하며 변화의 전후방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세워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현지조사의 시기인 2020년의 언어 경관을 우선 기록하고 이전과 이후의 변화를 자료를 통해 보고자 하였다.

오사카 코리아타운은 4층 이하 저층 건물이 밀집된 지역으로 1층이 점포이면 2층 이상은 주거지인 건물이거나 1층과 2층이 점포이고 그 이상은 사무실이나 주거지인 형태이다. 이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점포의 위치를 기준으로 구분 기호를 매겼다. 본 연구의 언어경관 구분 기호 체계는 다음과 같다.

- W(서상점가), M(중앙상점가), E(동상점가)
- N(북쪽에 위치함/지도상 상단에 있는 건물), S(남쪽에 위치함/지도상 하단에 있는 건물)
- 1,2,3...(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숫자가 증가함)
- F(1층), S(2층), T(3층)

이 지역의 건물에는 상대적으로 고정적인 언어경관과 가변적인 언어경관이 있다. 고정적인 언어경관의 대표는 옥외 간판이다. 이 지역의 점포는 건물 전면의 가로형 간판과 건물 측면의 돌출 간판에 동일한 상호를 명시하고 점포 외부로 돌출된 차양막에도 상호가 표시되

2) 츠루하시 출신 재일동포 영화감독 양영희는 이 지역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회고한다. “2003년 <겨울연가>가 NHK에서 방송된 것을 계기로 한류 붐이 일본에서 일기 시작했다. 일본 안의 ‘작은 한국’, 이쿠노의 코리아타운에도 관광객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코리아타운에 한류 전문 상점이 생기기 시작했다(양영희 2007:251).”

어 있다. 가변적인 언어경관은 입간판, 팻말, 안내판, 제품의 포장 등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 지역의 다국어 언어경관에서 한글이 차지하는 비중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3. 연구 결과

연구 대상 지역의 다문화 언어경관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 지역에 위치한 점포의 업종을 정리하였다. (1)과 (2)는 2020년과 2023년에 조사 대상 지역인 오사카 코리아타운의 항목별 업종표이다.

(1) 2020년 2월 기준 조사 대상 지역 항목별 업종 정리

- ① 요식업 : 한식당(11), 부식(김치(11), 반찬(13)), 술집(3), 다방/음료(5), 떡(2), 한국길거리음식(한국 간식(13), 핫도그전문(3))
- ② 식재료 : 청과(2), 정육(13), 육계(1), 건어물(1), 쌀집(1)
- ③ 의류 : 한복 판매(2), 한복체험(2), 의류(6), 양말(3)
- ④ 미용 : 화장품(6), 피부관리(2)
- ⑤ 한류 관련 : 한류상품(7), 음반(1)
- ⑥ 기타 : 병원(2), 사무실, 마트, 민박, 점집, 수영장, 약국(3), 전파상, 주차장, 노인요양시설 등

(2) 2023년 11월 기준 조사 대상 지역 항목별 업종 정리

- ① 요식업 : 한식당(17), 부식(김치(12), 반찬(13)), 술집(2), 다방/음료(4), 떡(2), 한국길거리음식(19)
- ② 식재료 : 청과(1), 정육(10), 육계(1), 건어물(1), 쌀집(1), 한국마트(1)
- ③ 의류 : 한복 판매(2), 한복체험(1), 의류(3)
- ④ 미용 : 화장품(16)
- ⑤ 한류 관련 : 한류상품(9), 한국식 셀카사진관(1)
- ⑥ 기타 : 병원(2), 사무실, 마트, 민박, 점집, 수영장, 약국(3) 전파상, 주차장, 노인요양시설 등

(1)과 (2)를 비교해보면 이전 시기보다 한식당과 화장품, 한류상품을 취급하는 가게가 늘었고, 한국길거리음식을 파는 가게도 늘어났다. 한국 길거리음식 가게는 단독 매장을 형성하는 경우와 기존의 김치나 반찬 가게 앞에 판매대를 차리는 형태가 모두 증가했다. 후쿠모토(2020:234)는 이 지역에서 한국 길거리음식을 테이크아웃 형태로 파는 가게가 2017년 이후에 주로 개점했으며 인터넷과 방송의 영향으로 이전보다 다양해지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위의 (1)과 (2)에서도 2020년에는 핫도그와 치즈핫도그만 팔던 가게가 2023년에는 핫도그, 호두과자, 파베기도 팔게 되어 (1)의 핫도그전문이라는 항목이 (2)에서는 삭제되었다. 음반 가게도 한류상품을 동시에 취급하고 주로 한국 양말을 팔았던 의류점도 한류상품과 한국 화장품을 함께 팔게 되어 결과적으로 의류점 숫자도 감소했다.

이 지역은 관서지역의 재일동포들이 제사 음식 재료를 비롯한 한국 식재료를 여기서 구했던 전통시장의 특징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대형 정육점과 김치전문점이 많다. 이처럼 지역 점포의 구성과 언어경관에는 일본 관서지역 한인 이민의 역사가 반영된다. (2)와 동시대에 조사된 김신각(2023:98)의 2023년 8월 현재 도쿄 신오쿠보 코리아타운의 업종 분류

를 비교하면 조사 대상 지역의 이민사적 특징이 더 잘 드러난다. (3)은 김신각(2023:98)에 나온 2023년 8월 기준 신오쿠보 코리아타운의 업종 분류표이다.

(3) 2023년 8월 기준 도쿄 신오쿠보 코리아타운 업종 정리(김신각 2023:98)

① 한식당 : 125개 ② 술집 : 42개 ③ 카페 : 45개 ④ 잡화 : 50개 ⑤ 기타(pc방, 노래방, 도시락집, 마사지, 마트, 면세, 미용실, 반찬, 병원, 부동산 등) : 63개

오사카 코리아타운의 언어경관을 이루는 문자의 종류는 한자와 가타카나가 가장 많다. 2020년 기준 한자 표기 간판 중 ‘00商店’ 형태의 상호는 30개였다. ‘商店’ 앞에 오는 한자들은 점주의 통명 성씨 표기(예: 池田, 金光, 宮本, 星本, 真本, 安田, 徳山, 呉本 등)와 한국의 지명(예: 慶州)과 관련이 있다. 이 지역의 오래된 점포에 통명 성씨 표기가 나오는 현상에 관해 양영희(2007:248)는 제일동포가 일본 사회에서 일본인들에게 한국식 이름이 아닌 일본식 통명을 쓰는 압력을 받았으며 이 지역의 상호에도 그러한 차별이 반영되어 “조선시장(현: 이쿠노 코리아타운) 대부분의 김치집 이름도 '미나미하라 상점', '아라이 식료품점' 등 일본식으로 걸려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통명 표기의 한자 상호는 2000년대 이전부터 있던 가게들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이 지역 언어경관에서 한자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로마자, 한글과 모두 결합하여 사용된다.

가타카나 표기는 한국어나 영어 등 외국어 표기가 가장 많았다. 한국어 단어 표기도 가타카나로 이루어지며 한글이 나오더라도 가타카나가 병용되어 ‘포차 ポッチャ’, ‘떡볶이 トッポッキ’, ‘돼지국밥 デジクッパ’처럼 가타카나가 한글의 발음을 표기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또한 일본식 간판 표기의 특징으로 ‘ミナミ豚肉店’, ‘ツツミ屋’처럼 해당 단어를 일본어 히라가나로도 표기할 수 있지만 주목을 끌기 위해 가타카나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 지역 언어경관에서 한자와 가타카나가 주를 이루는 현상을 정성희(2023:107)는 1) 제일코리아 2 세대의 모어가 일본어라는 점, 2) 이 지역 상점가에서 일본인 상인이나 일본인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고 거부감이 적은 일본어 간판을 선호한다는 점 3) 제일코리아가 차별이나 문제를 조장할 수 있는 한글을 일부러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석한다. 정성희(2023:108)는 이 지역 한글 간판의 특징은 언어정보 전달보다는 상징성이나 장식성이 강하며 “‘읽다’보다 ‘보다’에 중점”을 둔 상업 자원으로 보았다.

코리아타운은 한글, 로마자, 가나, 가타카나, 히라가나, 한자를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구매를 유도한다. 식료품 상점을 구성하는 언어경관에는 한글, 한자, 가나가 주로 나타난다. 커피나 차, 간식을 파는 곳의 간판은 한국어 단어나 한국 지명을 ‘Sinaburo’, ‘POSAGI’, ‘seolraeim’, ‘Jongno’로 표기한다. 특히 화장품, 의류, 한류상품, 미용 관련 업종은 로마자가 두드러진다. 고정된 간판이 아니라 진열되는 제품이 언어경관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 수입한 공산품을 파는 소매점의 경우 간판이나 안내문은 일본어로 되어 있지만 한글로 표기된 제품들을 진열하여 가게 전체가 한국어 언어경관을 형성하기도 한다. 간판이 로마자로 표기된 한국 화장품점은 가게에 진열한 한국 화장품들의 상표가 로마자로 표기되어 이 구역의 언어경관은 로마자가 주를 이룬다. 그리고 공공표지판에도 로마자를 비롯한 다문자 표기가 나타나는데 이는 1990년대부터 현재 진행중인 오사카시의 제일외국인 대상 공공언어 다언어 표기 정책과 관련이 있다.³⁾ (4)는 2020년 조사 대상 지역 옥외 간판 상

3) 오사카부의 제일외국인 정책은 제일한국인과 관련이 깊다. 1988년에 오사카부는 “제일 한국,조선인 문제에 관한 지도의 지침”을 공표하고 “자기의 문화, 언어, 전통에 접하는 기회를 제공해 제일 외국인 아동, 학생이 스스로의 자량이나 자각을 높여 본명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양성”하겠다고 하였다. 1990년 일본에서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을 개정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중국과 남아메리카에서 노동 인력이 유입된다. 1992년에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마음이 풍부한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 오사카의 실현”을 주제로 “오사카부 국제화추진 기본 지침”을 정하고 1993년부터

호의 문자 종류를 많이 나온 문자 종류 순서로 나열한 것이다.

(4) 2020년 기준 조사 대상 지역 옥외 간판 상호의 문자 종류의 비율

- ① 한자 표기 107회(37.2%)
- ② 가타카나 표기 72회(25%)
- ③ 로마자 표기 46회(16%)
- ④ 히라가나 표기 40회(13.9%)
- ⑤ 한글 표기 22회(7.6%)

(5)는 2023년 11월 기준 조사 대상 지역 옥외 간판 상호의 문자 종류와 비율이다

(5) 2023년 기준 조사 대상 지역 옥외 간판 상호의 문자 종류의 비율

- ① 한자 표기 74회(43.7%)
- ② 가타카나 표기 48회(28.4%)
- ③ 로마자 표기 33회(19.5%)
- ④ 히라가나 표기 33회(19.5%)
- ⑤ 한글 표기 31회(18%)

2020년에 조사한 (4)는 사진 속 간판의 문자언어 출현 빈도를 계산한 것이고 2023년의 (5)는 상호와 간판을 비교하여 간판 상호의 문자 언어 구성을 계산한 것이다. 둘의 차이는 최종 논문 작성 과정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연구자가 현지조사를 다녀온 2020년 2월부터 본고를 작성하는 2023년의 사이에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있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이 지역에는 한국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 음식과 한류 상품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오히려 자본과 인구 유입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사카시 전반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하고 유동인구도 줄었지만 오사카 코리아타운은 한류 소비자에 의해 매출이 줄지 않았다. 이 지역에 한국 프랜차이즈 상점도 생겨서 결과적으로 이 지역 언어경관에서 한글 경관이 더 증가했다. <표 2>는 2020년에 조사한 이 지역에서 한글이 포함된 옥외 간판 상호의 목록이고 <표 3>은 2023년에 조사한 한글이 포함된 상호의 목록이다.

공공기관의 다언어(영어, 한국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필리피노어, 태국어) 상담, 주요 공공 시설, 터미널, 도로 안내 표지에 다언어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02년에는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하여 국적, 민족 등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공생 사회의 실현"을 내세우며 "오사카부에서의 재일외국인 시책에 관한 지침"을 정했다. 2019년에 오사카지방법원은 외국인을 차별하는 전단지 배포나 공공장소에서의 연설을 금지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표 2> 2020년 현재 오사카 코리아타운의 한글 포함 옥외 간판 상호 목록

	구분 기호	한글이 포함된 상호	업종/기능
1	WN8F	元祖 종로 치즈핫도그 & 핫도그	핫도그
2	WN8S	Jongno Food town 종로 초코/푸드타운	푸드코트
3	WN12	스ちゃんCAFÉ 마타기태내!	한국간식
4	WN22	명동 핫도그 米 明洞 HOTDOG 핫도그	핫도그
5	WS10F	포차 ポッチャ	식당
6	WS11	옛날 옛적 흥부와 놀부 イエナル イエジョク フンブワ ノルブ	한국간식
7	WS16	イフムラのトック 떡국	떡
8	WS17	어젯밤엔 삼겹살 어젯밤 이야기 먹을 때는 돼지도 얹때린다	식당
9	MN2	조아조아 大元	한국간식
10	MN13	재해시의 피난소 災害時避難所	공공표지판
11	MS4	サンコー食品 산고정육점 코리아타운名物のむし豚, 豚足, 1959年 コンモト	정육
12	MS15S	KOREA BEAUTY & ZAKKA 하나	미용
13	EN6	공원 公園	공공표지판
14	EN13S	철학관 普圓寺 사주/궁합/관상/수상	점집
15	EN15	ふる里キムチ教室 고향	김치
16	EN18	羅南道光陽キムチ 池田商店 전라남도 광양김치	김치
17	EN19	焼肉 오카와리 okawari open	식당
18	EN22F	김치 キムチ珍味食品 ツンミ	김치
19	EN22S	한복 韓服チマチョゴリ スタジオ丹青樓 (たんせいろう)	한복체험
20	ES2	파고다白雲 焼肉 韓國料理 pagoda	식당
21	ES5	갑순이김치집 大活商店 カスニキムチ	김치
22	ES18	まにむら 마니무라	핫도그

<표 3> 2023년 현재 오사카 코리아타운의 한글 포함 옥외 간판 상호 목록

	구분 기호	한글이 포함된 상호	업종/기능
1	WN8F	元祖 종로 치즈핫도그 & 핫도그	핫도그
2	WN8S	Jongno Food town 종로 초코/푸드타운	푸드코트
3	WN9S	네네치킨	식당
4	WN12	스ちゃんCAFÉ 마타기태내!	한국간식
5	WS9	덕산식당	식당
6	WS10	딸기탕후루 Strawberry Fetish Strawberry Specialty shop	한국간식
7	WS10F	포차 ポッチャ	식당
8	WS11	옛날 옛적 흥부와 놀부 イエナル イエジョク フンブワ ノルブ	한국간식
9	WS13	옛날떡집 韓國もちスイーツ 岩村食品	떡
10	WS16	イフムラのトック 떡국	
11	WS17	어젯밤엔 삼겹살 어젯밤 이야기 먹을 때는 돼지도 얹때린다	식당
12	MN2	조아조아 大元	한국간식
13	MN13	재해시의 피난소 災害時避難所	공공표지판
14	MS4	サンコー食品 산고정육점 코리아타운名物のむし豚, 豚足, 1959年 コンモト	정육
15	MS15S	KOREA BEAUTY & ZAKKA 하나	미용
16	NN17	코코마카롱 韓國デザートカフェ K-desertCafe	한국간식
17	EN6	공원 公園	공공표지판
18	EN10S	서울야다이 ソウル屋台 ソウルホットドッグ	한국간식
19	EN14	굽네치킨 Goobne	식당
20	EN14	홍콩반점0410 香港飯店0410	식당
21	EN14	한류백화점 韓流百貨店	한류상품
22	EN15	ふる里キムチ教室 후루사토김치	김치

23	EN16	하트학교 ハート學校 チジホットドッグ専門店	한국간식
24	EN18	羅南道光陽キムチ 池田商店 전라남도 광양김치	김치
25	EN19	焼肉 오카와리 okawari open	식당
26	EN22F	김치 キムチ珍味食品 ツンミ	김치
27	EN22S	한복카페 예쁜여자	한복체험
28	EN22S	인생사진관	사진관
29	EN22S	뽀뽀, 새별We	카페
30	EN23S	경남상회	식재료
31	ES2	파고다白雲 焼肉 韓國料理 pagoda	식당

언어경관을 구성하는 문자 배열은 재일동포 이민자들의 언어문화를 반영한다. 이민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식에서 언어는 다양한 선택지 중 하나이다. 그러나 문해력과 교육, 문화자본과 본국과의 연결관계를 필요로 하는 고비용의 선택지이다. 2020년대 이후 이 지역 언어경관에서 한글 사용의 증가는 언어문화의 위상, 한글의 위상, 이 지역 재일동포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 및 한국 문화의 경제적 가치를 드러낸다.

4. 오사카 코리아타운 언어경관에서 한글의 사회문화적 기능

이 장에서는 오사카 코리아타운 언어경관에서 한글의 사회문화적 기능이 일상적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문자언어의 기능보다는 일본인들에게 한국문화의 상징, 판매 촉진을 위한 시각적 기호의 기능이 중심이 되고 있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 지역이 한인 이민자 집단의 전통시장에서 한국문화를 소비하는 관광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언어경관에 대해서도 사진 자료를 통해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쿠노구의 오사카 코리아타운은 20세기 초부터 오사카에서 민족 집거 지역(ethnic enclave)으로 이질적 민족경관(ethnic landscape)을 나타냈다. 이쿠노구의 민족경관은 언어경관을 형성하는 문자언어보다는 지역 주민의 옷차림이나⁴⁾ 취급 상품으로 드러났다. 제품에 대한 설명도 상인과 소비자의 대화로 전달하지 문자언어로 언어경관화하지는 않았다. 이는 이 지역이 전통시장의 역할을 하던 200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사진 1>은 2010년 이 지역에 있었던 채소가게의 내부를 찍은 사진이다.

4) 1930년대와 60년대에 이 지역을 기록한 사진을 보면 한복을 입은 여성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사진 1> 2010년 코리아타운 채소가게 사진 - 구글 맵 사진 아카이브



<사진 1>에서 사진 속 콩나물, 고사리, 깻잎, 북어, 마늘 등 한국식 채소는 이 가게가 한국 음식의 식재료를 취급하는 곳임을 알려준다. 그러나 물건의 이름, 가격, 산지 표기 등의 텍스트는 보이지 않는다. <사진 2>는 구글 스트리트뷰에 2022년 2월 기준으로 찍힌 이 지역 채소 가게의 사진이다. 한글 언어경관은 보이지 않지만 상품명, 산지 표기, 가격을 모두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사진 2> 2022년 코리아타운 채소가게 사진 - 구글 스트리트뷰



이처럼 이 지역에서 언어경관이 형성된 배경에는 오사카 코리아타운이 일본에서 이른바 다문화공생의 길을 선택한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주 소비자가 한인 단골들에서 한인과 일본인들로 확장되는 과정이 언어경관에 반영되었다. 2002년 월드컵과 한국 드라마와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로 인해 한국 화장품을 비롯한 한류상품이나 한국음식에 호기심이 있는 일본인 소비자들이 오사카 코리아타운으로 유입되었다. 한국 음식에 대해 알고 있는 한인 소비자들에게 식재료와 제사 음식을 공급하는 시장의 역할을 할 때는 언어경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지만 판매자가 낯선 소비자에게 문자언어로 제품에 대해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자언어로 정보를 전달하고 이것이 언어경관을 형성

하고 확장하게 된다. 이는 새로운 소비자에 의해 촉발된 언어경관의 변화이다. 이는 통명으
 로 상호를 지은 오래된 상점들에게서도 나타나는 변화이다. <사진 3>은 ‘코리아타운’으로
 재개발하기 이전인 1990년에 한국 반찬가게인 야마다 상점을 찍은 영상, 2012년의 야마
 다 상점을 찍은 영상, 2018년의 야마다 상점을 찍은 구글 스트리트 뷰, 2022년의 스트리
 트뷰를 비교한 것이다.

<사진 3>

<사진 3-1>1990년



<사진 3-2> 2012년



<사진 3-3>2018년



<사진 3-4> 2022년



이처럼 2010년대 이전에는 진열된 상품에 대한 설명이나 명찰을 붙이지 않았던 가게가
 이후 항목과 상품마다 일본어 명찰과 설명을 붙인 것은 <사진 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다
 음은 2010년과 2022년의 慶州商店의 사진이다.

<사진 4> <4-1> 2010년 慶州商店 사진 - 구글맵 사진 아카이브



<사진 4-2> 2022년 慶州商店 사진 - 구글맵 사진 아카이브



다문화, 다국어 환경에서 상업적 언어경관에 배치하는 문자언어의 선택 기준은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경제적 기대효과에 따라 달라진다. 다언어 환경의 언어경관을 구성하는 선택 요소로 Spolsky and Cooper(1991: 81-84)는 다음 세 가지 규칙을 제시하였다. <사진 4>의 慶州商店의 예는 소비자인 일본인들 또는 일본어가 모어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규칙 2 독자가 읽을 수 있는 언어를 쓴다”가 적용된 예라 할 수 있다.

규칙 1 (sign-writer’s skill condition, necessary graded): 게시하는 사람이 아는 언어를 쓴다. ‘Write signs in a language you know’

규칙 2 (presumed reader’ condition-typical graded) 독자가 읽을 수 있는 언어를 쓴다. ‘Prefer to write signs in the language or languages that intended readers are assumed to read’.

규칙 3 (symbolic value condition’ condition-typical graded) 게시하는 사람의 모어나 정체성이 드러나는 언어를 쓴다. ‘Prefer to write signs in your own language or in a language with which you wish to be identified’.

오사카 코리아타운의 언어경관을 분석한 선행연구와 2020년의 현지 조사에서도 이 지역의 언어경관에서 일본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은 주 이용자인 일본인들에게 익숙한 언어를 사용하는 규칙 2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지역 언어경관이 주로 일본어로 구성된 것은 이 지역 한인 2세와 3세들이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음과도 관련이 있다. 2000년에서 2001년을 기준으로 오사카 지역 한인들의 한국어 구사에 대해 연구한 강정희(2004)는 조사 당시 10대와 20대에 해당하는 재일동포 3세들이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인식하고, 한국어를 배우기 쉬운 제2외국어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고, 이순연(2017)도 재일동포들이 일상상황에서 한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2016년에 실시된 현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오새내·최창원(2019)에서도 재일동포 2세와 3세에게 한국어는 한국과의 비즈니스 등 실리적 목표나 동기가 있는 경우에 자본과 노력을 동원하여 학습하는 외국어라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인 집거 지역이지만 자신들의 일상언어도 일본어어기에 언어경관의 구성도 일본어가 제1언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23년에 기록된 언어경관을 보면 이전 시기보다 한글의 비중이 증가한다. 특히 새로 생긴 가게의 간판, 기존 가게에서도 상대적으로 가변적인 설치물의 한글 사용이 증가했다. <사진 5>의 岩村食品의 2018년의 사진과 2023년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동일한 가게에서의 한글 언어경관의 확장을 볼 수 있다. 2018년 사진을 보면 이 상점은 재일동포들의 명절이나 행사용 떡을 만드는 방앗간의 구조이지만 2023년 사진을 보면 이 지역에 오는 관광객에게 소포장의 떡을 파는 한국간식 가게로 변했음을 볼 수 있다.

<사진 5> <5-1> 2018년 岩村食品 사진 - 구글 스트리트뷰



<사진 5-2> 2023년 岩村食品 사진 - 동영상 캡처5)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이 지역에는 일본인 소비자의 유입이 증가했고, 일본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 직접 투자의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섰다. 2018년의 구글 스트리트뷰 사진인 <사진 6-1>과 2022년 구글 스트리트뷰 사진인 <사진 6-2>를 보면 일반 주택이었던 자리에 한국 프랜차이즈 건물이 들어왔음을 볼 수 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한 건물이다.

<사진 6> <6-1> 2018년 - 구글 스트리트뷰



5) 韓國JIN. (2023, 5월 31일). 大阪コリアンタウン御幸森商店街に韓國人の母と行ってみたら反応が楽しすぎた! [비디오 파일]. YouTube. <https://youtu.be/3J0HWrkXWgg?si=uJeY17PR2xPfGE-E>

<사진 6-2> 2022년 - 구글 스트리트뷰



한국 프랜차이즈의 대형한글 간판은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형성된 언어경관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과 지역에 방문하여 한국문화를 소비하는 일본인에게 공통으로 소구한다. 이러한 한글 간판의 도입은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 직접 한국문화에 접한 일본 소비자들이 한글 간판에 대한 거부감이 낮다는 점, 한글 간판으로 이 지역이 한인 집거지역이며 한국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관광지의 기능을 가시적으로 상징함을 보여준다.

4. 맺음말

이제까지 일본 오사카의 재일동포 집거지역인 오사카 코리아타운에서 2020년대 현재 나타나는 다국어 언어경관과 함께 이 지역 언어경관에서의 한글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기능을 분석해보았다. 연구 결과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사카 코리아타운의 언어경관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 시장이던 시기에는 언어경관보다는 취급하는 상품이나 이용자들의 옷차림으로 지역의 민족적 특성을 드러내는 특징이 있었다.

둘째, 이 지역에서 한국문화가 언어경관에 반영된 시기는 2000년대이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한인들을 대상으로 식재료를 주로 다루는 전통시장에서 한국문화에 호기심이 있는 일본인들이 찾아오는 시장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 주 고객인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일본어 언어경관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주 고객도 일본인들이지만 20세기 전반기에 이 지역에 자리잡은 한인 1세대의 후손인 2세와 3세의 경우 일본어를 사용하기에 이 지역의 언어경관을 구성하는 문자언어는 일본어가 주를 이루었다고 하겠다. 2000년대는 이민자 사회의 민족경관에서 언어경관이 확대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셋째, 2020년과 2023년의 오사카 코리아타운의 언어경관을 비교해보면 한글은 일본어에 비해 비중이 적지만 한글 직접 노출이 이전 시기보다 늘어났다. 이는 한국어 사용자가 늘어나서 언어경관에서 한국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소비자가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관광객으로 증가하며 언어경관에서 이문화적 특징이 드러나는 한글의 노출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에서 자본을 직접 투자한 한국 프랜차이즈의 유입도 언어경관에서 한글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지역의 언어경관 변화에서 소비자의 요구가 차지하는 영향, 자본과 경제적 이익이 차지하는 영향 등을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재일동포 집거 지역의 언어경관은 이민 시기와 이민자들의 경제 활동과 관련한 언어문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일본 내 한국어 언어경관에 관련되어 경제활동 촉진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이러한 연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강정희. (2004). 재일 한국인의 한국어에 대한 언어태도 조사 -오사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어문학》 86, 어문학회, 1-29쪽.
- 김신각. (2023) 일본 내 한국어 언어경관 양상 보고, 2023 세계한국어한마당 국제학술행사 한국사회언어학회 학술대회. 91-117
- 양영희(2007) 《(분단의 경계를 허무는)두 자이니치의 망향가》. 서울: 현실문화연구,
- 오새내· 최창원. (2019). 재일동포 청년들의 한국어 언어 의식 연구 - 자기 고백 인터뷰 분석을 중심으로 -. 《겨레어문학》 63, 겨레어문학회, 249-275쪽.
- 이순연. (2017). 재일코리안의 한국어에 대한 인식 연구 -언어 사용 상황 및 언어 정체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중언어학》 68, 이중언어학회, 119-139쪽.
- 정성희 (2023) 재일코리안 집거 거주 지역의 언어경관 - 이쿠노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55, 95-111쪽.
- Backhaus (2013) 文字と空間の-scape : 都市の言語景觀を讀み解く, レポート | レクチャーシリーズ : Finding a -scope/-scape vol. 1 / 2014.01.08. posted 레クチャーシリーズ : Finding a -scope/-scape vol. 1
- Spolsky, B., & Cooper, R. (1991). The language of Jerusale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福本拓, 韓流ブーム下での大阪・生野コリアタウンの変容, 地理空間, 2020, 13 卷, 3 号, p. 231-251, 公開日 2021/03/16, Online ISSN 2433-4715, Print ISSN 1882-9872, https://doi.org/10.24586/jags.13.3_231, https://www.jstage.jst.go.jp/article/jags/13/3/13_231/_article-char/ja

■ 토 론

“일본 재일동포 집거 지역의 한국어 언어경관 연구”에 대한 토론문

정수현(호서대)

선생님의 발표문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먼저 제게 선생님의 토론을 맡겨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발표문의 연구 대상인 오사카 코리아타운 언어경관에 대한 내용에서, 아주 가까운 인천의 차이나타운을 떠올렸습니다. 긴 코로나 시기에 이국적인 풍경을 즐기기 위해 국내 여행에서도 이국적인 분위기를 찾는 수요가 있었습니다. 이문화적인 분위기는 인천의 차이나타운처럼 건물 양식, 색채 등과 같은 것으로 느낄 수 있기도 하지만 간판의 상호를 어떤 표기로,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에 따라 느낄 수 있기도 합니다. 발표 내용은 언어경관에 쓰인 한글의 사회문화적 기능을 분석하고 기술한 것으로서 예전과 지금의 사회를 설명하는 데 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한국에서도 이국적인 분위기를 찾는 사람들의 수요가 반영되어 상점의 업종을 변경하는 사업장이 늘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오사카 코리아타운도 비슷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발표문을 읽으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에서 (4)의 비율보다 (5)의 비율이 ①~⑤까지 모두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는 합이 129%가 되는데 이 점에 대해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지요? 둘의 차이는 최종 논문에서 밝히실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시지만 먼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2>와 <표3>의 내용에서 2020년의 오사카 코리아타운의 옥외 간판과 2023년의 상황을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4장의 사진들을 통해 에스닉 경관이 언어경관화되는 상황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도 전통시장에서도 볼 수 있는 경관의 변화인데, 젊은이들이 전통시장을 찾게 되면서 문자언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언어경관을 형성하고 확장하게 되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일본과 한국 두 이문화가 만나는 사회적 환경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주도적 소비자층의 연령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은지요. 새로 생긴 한글 단독 상호들을 보면 젊은이들의 요구와 맞는 데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 고정적 언어경관과 가변적 언어경관은 성격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고정적 옥외 간판은 업종의 정체성을 드러내거나 업주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지만 가변적 입간판이나 다른 언어경관을 그것을 보는 계층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정적 언어경관과 가변적 언어경관의 비교나 상관성에 대해서는 혹시 연구하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오사카 코리아타운의 상황도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언어경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 발표문을 오독하여 적절하지 못한 질문을 하였어도 너그러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어 주식 은어의 의미 구조 연구

김 숙 정(호남대)박 대 이(우석대)

차 례

1. 서론
2. 주식 은어의 연구 방법과 범위
3. 개념화 범주에 따른 주식 은어의 의미 유형
4. 결론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주식 은어로 표상되는 주식 투자 상황의 개념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다. 새롭게 접한 상황을 인식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당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 형식을 선택한다. 이때 표현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에 맞는 용어를 선별하는 전문적인 분석의 과정을 거칠 수도 있으나, 대상의 특징을 포착하고 이를 두드러지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 형식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이 과정은 대체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은유를 활용하기도 하고, 기존의 전문 용어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형하기도 한다. 최초의 생성 의도나 사용 방식과 다르게 몇 번의 변형을 더 겪기도 한다. 본고는 이를 주식 전문어와 구분하여 주식 은어로 명명하고, 주식 은어를 통해 표현되는 의미들의 개념적 구조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주식 투자를 매개로 소통하는 집단에는 전문가뿐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일반인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상황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며, 입장 역시 다양하다는 뜻이다. 이렇듯 불균질한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전문 용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실 전문가들조차 명확히 정의된 전문어만으로 소통할 수는 없다. 이에 상황을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된 다양한 표현이 공동체에 수용되어 사용되는 일이 잦다.

특히 주식 담화에 참여하는 일반인은 과학 담화나 정치 담화에 참여하는 일반인들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 일반인의 참여는 여러 전문 분야의 담화에서도 일반적이거나, 대체로 지식의 수용자로 머무는 것이 대부분이다. 전문가 집단이 지식의 생산과 전달의 주체가 되어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일반인을 위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바꾸어 표현해 주면,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구조이다. 그러나 주식 담화 상황에서는 일반인 역시 투자를 통해 쉽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진 담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로 인해 은어는 일상어나 전문어에 비해 성근 개념 구조를 가지게 된다. 담화 참여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또한 표

현 의지를 자극하는 일부 개념에 대해서만 형식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은어는 해당 담화 상황에서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주요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

전문 분야의 담화를 분석하여 개념화 양상을 살피는 논의는 주로 정치나 운동 경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정치나 스포츠가 대중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대중의 관심 역시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이에 비해 경제 담화에서의 개념화 연구는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었으며, 최근에 본격화되고 있다. 경제 분야의 개념화 연구는 대상의 범위에 따라 경제 전반에 대한 개념화 연구와 주식(가상화폐) 관련 개념화 연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경제 텍스트에 대한 본격적인 개념화 연구는 제민경·구본관(2014)에서 이루어졌는데, 경제 현상을 언어화하는 맥락에서 은유의 일반적 활용 양상뿐 아니라 은유의 적극적 기능까지 논의하였다. 경제 신문 텍스트의 표제어에 나타난 은유를 분석하여 은유가 일차적으로 특정 대상이나 현상을 일상 영역의 언어로 명명하여 자신의 의도대로 의미화하는 데 활용되며, 더 나아가 특정 관점에서 담화를 구성하여 현상을 재조정·재창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은유에 의해 재구성된 담화는 특정 속성을 드러내기도, 특정 속성을 숨기기도 한다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 심지연(2016)도 은유의 관점에서 경제 텍스트를 분석했는데, 다른 분야 텍스트와는 달리 구어 경제 텍스트의 은유 표현은 근원 영역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고, 낮은 경제 개념이나 현상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설명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는 구어 경제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비교 텍스트 간 은유의 차이가 텍스트의 생산 목적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분석 대상인 구어 경제 텍스트는 어려운 경제 용어나 현상을 청취자에게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라디오 경제 프로그램의 코너에서 수집한 데 반해 비교 대상인 정치, 운동 경기 등의 텍스트는 설명이 아닌 상황 전달이 주된 목적인 신문 기사에서 수집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주식과 관련된 개념화 연구로는 방경원(2017), 임혜원(2018), 강현주(2021) 등이 있다. 방경원(2017)은 주식 시장에서 사용되는 전문어 ‘캔들’의 패턴 명칭에 나타난 은유 표현을 분석했다. 그러나 주식 시장의 기술적 분석에서 등장하는 전문적 용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주가 추세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념적 은유를 일부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한정적인 논의이다. 임혜원(2018)은 가상화폐의 개념화 양상을 살폈는데, 가상화폐의 이해 방식과 관련된 구조적 은유를 [가상화폐는 광물이다], [가상화폐는 생명체다], [가상화폐는 사람이다], [가상화폐 시장은 전쟁터다] 등으로 분석했다. 가상화폐는 거래 방식이나 용어 사용에 있어서 주식과 근본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주식 관련 은유의 단초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가상화폐는 광물이다]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일반적 개념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투자 담화에 반영된 개념화의 고유성을 파악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강현주(2021)는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에 관련된 표현에 나타난 한국인의 개념화 방식을, 존재론적 은유, 지향적 은유, 구조적 은유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살폈다. 이 연구는 가상화폐 관련 표현에서 투자 시장 영역까지 연구 범위를 확장하고, 신어 자료집과 온라인에서 조사된 신어를 포함하여 개념화 표현을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투자 관련 은유의 고유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한계를 지닌다.¹⁾

1) 경제 텍스트의 은유 표현에 대한 대조 연구도 일부 이루어졌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 텍스트의 구조적 은유를 대조적으로 연구한 양양(2021)에서는 ‘전쟁 은유, 운동경기 은유, 여행 은유, 놀이 은유, 결혼 은유, 날씨 은유, 연극 은유, 질병 은유’ 등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구조적 은유 표현에 드러나는 차이가 두 나라의 역사, 사회 환경,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소효하(2017)는 한국과 중국의 주식 기사에 나타난 주가 관련 은유를 분석하여, 주가에 대한 은유적 이해와 은유적 개념화 양상을 대조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주가 가격이 높은 것은 위대/

기존의 연구들은 기사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텍스트에 사용된 표현의 은유화 방식을 살피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를 통해 은유가 경제 담화에서도 여전히 주요하고 유용한 개념화 방식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경제 담화나 주식 담화의 고유한 개념화 방식을 확인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은유는 개념화의 가장 주요한 기제이므로 본고의 논의 역시 상당 부분 은유 표현의 분석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다. 다만 분석의 관점을 은유의 방식에서, 각각의 주식 은어가 분할하여 표현하고 있는 의미의 범주로 옮겨 한국어 주식 담화의 개념 구조를 살피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최종적으로 주식 은어의 은유와 한국어 은유의 고유성을 파악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주식 은어의 연구 방법과 범위

은어는 특정 집단 내부에서 통용되면서 다양한 의도를 실현한다. 은어 사용은 기본적으로 언어를 통한 경계 짓기라 할 수 있다. 집단 내부적으로는 자신들만의 언어를 공유하면서 서로가 동일 집단에 속해 있음을 확인한다. 공통 목표나 관심을 지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이나 유대감, 친밀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집단의 소통 과정에 외부인의 진입을 차단하면서 집단의 은밀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은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은어의 특성을 고려한 자료 수집과 분석 방식이 필요하다.

전문 분야의 담화에서 나타나는 개념화 양상을 살핀 논의들에서는 주로 기사문이나 교과서 등을 다룬다.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개념 전달을 위한 표현의 다양화가 적극적으로 시도되는데, 이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기사문이나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제민경·구본관(2014:11)에서도 경제 현상의 언어화 층위를 다음과 같이 나누고, 경제 신문 및 경제 잡지의 기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주식 은어를 통해 담화를 실천하는 주체는 [표1]에서 기사 텍스트를 통해 소통하는 집단, 즉 제민경·구본관(2014)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경제 신문 기사를 통해 소통하는 집단에 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식 은어의 담화 참여자는 [표1]에서 언급된 언중과는 소통에 참여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연구 집단, 언론 집단, 언중을 아우르는 중층적 집단이 기사문을 통해 소통하는 것은 사실이나, 연구 집단과 언론 집단은 화자의 역할을, 언중은 청자의 역할을 주로 하게 된다. 전자가 생산한 표현을 후자가 이해하는 방식이다. 화살표를 통해 소통의 양방향성을 표상하였으나 연구 및 언론 집단이 언중의 이해를 확인하고 언중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을 재생산하는 정도를 넘기 어렵다. 그러나 주식 은어의 사용자는 담화 상황에 화자, 즉 생산과 표현의 주체로 참여한다. 단순히 지식의 수용자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주식 은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텍스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가 가격이 낮은 것은 아래다. [주가는 이동의 주체다], [주가는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다]와 같은 세 가지의 개념적 은유를 공통적으로 사용하지만, [주가는 심리상태의 주체다] 은유는 중국 주식 기사에만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표 1] 경제 현상의 언어화의 층위(제민경·구본관 2014: 11)

층위	담화 실천의 주체	텍스트 유형
이론	학술 공동체 (연구 집단)	학술 텍스트 (학술 논저 및 학술 보고서)
소통	연구 집단	연구 집단 내의 뉴스레터
	연구 집단 ⇄ 학습자	대학 교재, 교과서, 학습 만화
	연구 집단 ⇄ 언론 집단 ⇄ 언론	경제 신문 및 경제 잡지의 기사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식 은어를 수집하기 위해서 주식 관련 인터넷 기사뿐만 아니라 주식 관련 블로그, 주식 용어를 소개한 단행본²⁾ 등도 함께 검토하였다. 사용 빈도나 의미 전달 효과가 높은 일부 주식 은어는 은밀성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주식 기사 텍스트에서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것이 쉽게 확인된다. ‘개미’, ‘천장’, ‘바닥’, ‘물리다’ 등의 표현이 대표적이다.³⁾ 또한 주식 시장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따로 정리하여 주식 은어로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 ‘주린이’(주식에 막 입문한 투자자)들이 은어 표현과 그 의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로그 등 인터넷 게시판에 주식 은어를 정리하여 소개하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주식 용어를 정리하고 해설한 단행본에 주식 은어와 뜻풀이를 포함하여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 이상의 주식 관련 기사, 인터넷 게시판, 단행본 등에서 주식 은어로 분류되었거나 주식 은어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는 약 200개의 표현을 수집하였다.

이러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주식 관련 표현을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서 다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일차적으로 수집된 표현 중에서 주식 은어로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표현만을 추출하기 위함이다. 주식 은어로 소개되거나 분류된 표현 중에는 전문어와 일반어가 혼재되어 있었으며 또한 실제 주식 담화에서 사용되지 않는 표현도 있었다. 검증을 위해 주식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각각의 표현을 검색하여 그 표현이 주식 관련 맥락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 은어로서의 의미와 기능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표현만을 주식 은어로 판별했다.

예를 들어, ‘쪼칭’이라는 표현은 주식 은어를 소개하는 인터넷 블로그의 게시글, 주식 관련 커뮤니티의 게시글에서는 대체로 ‘작전 세력에 동참하는 소액 개인 투자자’의 뜻을 지닌 주식 은어로⁴⁾, 주식 용어 단행본에서는 ‘소액으로 작전주를 공략하는 투자자’의 뜻을 지닌 주식 은어로 소개되고 있다.⁵⁾ 또한 인터넷 기사 1건에서도 ‘쪼칭’이라는 표현과 그 의미가 제시되어 있다.⁶⁾ 그러나 이 표현은 위와 같이 은어의 의미를 소개하는 블로그 게시글이나 주식 용어 단행본, 이를 참고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해당 인터넷 기사를 제외하면 주식 관련 커뮤니티 등 다른 인터넷 공간에서 실제 사용된 예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부류의 표현들은 실제 사용되는 주식 은어라 할 수 없으므로 연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⁷⁾

2) 이 연구에서 검토한 단행본은 황족 작가의 『주식 초보자를 위한 재미있는 주식어휘사전』(메이트북스, 2021)이다.
 3) 주식 은어 각각의 구체적 의미와 용례는 개념 구조를 분석하면서 함께 제시하기로 한다.
 4) 주식 커뮤니티 팍스넷(<https://www.paxnet.co.kr/>)의 주식용어백과 게시판에 주식 은어를 따로 정리해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많은 인터넷 블로그에서 소개하고 있는 주식 은어 관련 내용과 거의 같다.
 5) 황족, 『주식 초보자를 위한 재미있는 주식어휘사전』, 메이트북스, 2021, 214쪽.
 6) 《중앙일보》의 <“쪼칭”으로 돈 불렀다…北까지 뺐은 김성태 검은 인맥의 비밀>(2023년 1월 14일 05:00)이라는 인터넷 기사에 다음과 같이 ‘쪼칭’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기사에서 소개한 ‘쪼칭’의 의미는 주식 관련 블로그나 커뮤니티의 게시판, 단행본 등에서 소개한 ‘쪼칭’의 의미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 전 회장의 지인은 “김 전 회장은 주가조작 세력 등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이른바 ‘쪼칭’으로 돈을 불렀다”며 “돈 계산에 능해 늘 현금 흐름이 좋았다”고 말했다.(밑줄 필자)
 7) 애미(애널리스트 출신 개미 투자자), 매미(펀드매니저 출신 개미 투자자), 잠수함(주식시세가 계속 떨어져 저점이 되거나 신저가 가까이 가는 것) 등의 표현도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검토 결과 은어라기보다는 주식 분야의 전문어로 보아야 할 표현과 일반적 상황에서도 널리 쓰이는 표현 또한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모멘텀’(상승 원동력), ‘갭’(시세가 갑자기 폭등하거나 폭락할 때 차트상에 나타나는 빈 공간), ‘픽’(투자 종목에 대한 정보 등 주식 투자와 관련된 정보) 등의 표현은 주식 전문어로 판단한 사례이다. 주식 전문어의 줄임말인 ‘추매’(추가 매수), ‘매기’(매수 기운), ‘정태주’(정치테마주), ‘종토’(종목 토론) 등의 부류도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주식 은어로 소개된 표현이 주식 투자 상황에 한정된 표현인지도 따졌다. ‘반토막’(투자금이 절반 정도로 줄어든 상황), ‘존버’(계속 버티다), ‘떡튀’(먹고 튀다), ‘모래성’(쉽게 허물어지는 것) 등의 표현은 주식 투자 상황뿐 아니라 다른 일반적 상황에서도 유사한 의미로 널리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주식 투자 상황과 관련된 은어 표현 중 실제 맥락에서 사용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 투자 상황의 개념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3. 개념화 범주에 따른 주식 은어의 의미 유형

이 장에서는 주식 은어를 통해 표현되는 개념을 하위 범주화하고, 이를 통해 주식 은어의 개념 구조를 파악할 것이다. 주식 은어는 크게 주식 시장을 구성하는 요소에 관한 표현과 주식 시장의 사태에 관한 표현으로 구분할 수 있다.

3.1. 시장 구성 요소에 관한 표현

주식 거래 상황에 관여한 요소 중 참여자가 두드러지게 인식한 일부만이 주식 은어로 어휘화된다. 주식 은어로 표현되는 시장 구성 요소는 투자의 주체, 투자의 대상, 투자의 수단과 장소이다. 즉, 투자자, 종목, 자본, 시장 네 가지이다.

3.1.1. 투자 주체에 관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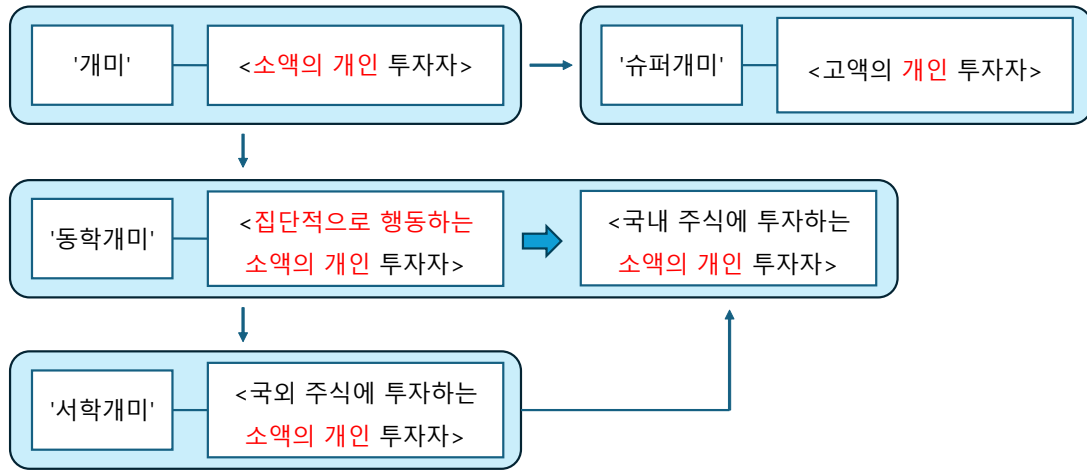
- (1) 개관, 개미, 거북이, 검머외, 고래, 공견, 관망충, 구조대, 결무새, 나주매, 달팽이, 대장, 송사리, 시체, 안티, 여우, 연기군, 외계인, 자선사업가, 작전 세력, 주린이, 주인, 주포, 찬티, 총알받이, 토끼, 폭무새, 하이에나, 형님, 흑우

주식 은어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투자 주체, 즉 투자자를 가리키는 표현들이다. 그 목록은 (1)과 같다. 투자자에 관한 주식 은어는 다시 몇 가지 하위 유형으로 묶을 수 있다.

- (2) 가. 개미, 동학개미, 서학개미, 슈퍼개미, 송사리
- 나. 고래, 대장, 작전 세력, 주인, 주포, 형님
- 다. 개관, 공견, 연기군, 검머외, 나주매, 외계인

(2가~다)은 투자자를 투자금의 규모 및 소속에 따라 구분한 표현들이다. 크게 소액 투자

자와 고액 투자자로 나뉜다. (2ㄱ)의 ‘개미, 송사리’는 소액 투자자를 가리킨다. ‘개미’는 개미의 크기와 개인 투자자들의 자본 규모에서 [작음]이라는 공통 특성을 포착하여 형성된 은유적 표현이다. ‘개미’는 주식 투자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질 만큼 사용 빈도가 높은 표현이다. 이에 ‘동학개미, 서학개미, 슈퍼개미’ 등과 같은 합성어도 적극적으로 생산되었다.



<그림 1> 주식 은어 '개미'의 의미 실현 양상

‘동학개미’는 대규모 자본에 대응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을 했던 개인 투자자를 표현한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던 한국의 주식 시장으로 해외 투자자를 포함한 대규모 자금이 몰렸는데, 이에 대응하는 소액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개미의 [집단성]으로 은유한 것이다. ‘동학개미’에 대응되는 ‘서학개미’도 생성되었는데, ‘동학개미’와 ‘서학개미’는 투자처를 기준으로 서로 대응되는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학개미’에서는 [집단성]이 실현되지 않으며, ‘동학개미’ 역시 ‘서학개미’에 대응되는 맥락에서 사용될 때에는 마찬가지로 [집단성]을 잃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소액 개인 투자자>의 의미만을 실현하게 된다. ‘동학개미’와 ‘서학개미’에서는 개미의 크기에서 사상된 은유 의미 <소액의>가 유지되었으나, ‘슈퍼개미’에서는 이마저도 상실된다. 주식 은어 ‘개미’를 성립하게 했던 가장 기초적인 의미 속성이 사라진 것이다. ‘송사리’도 작은 크기를 공통 속성으로 하여 성립된 은유 표현인데, ‘개미’의 의미에 단타 매매를 주로 한다는 의미가 덧붙여 있다.

(2ㄴ)은 고액 투자자를 가리키는 표현들이다. ‘고래’는 소액 투자자 ‘송사리’와 대응된다. 고액 투자자를 표현할 때에는 동물 은유 외에 ‘대장, 작전 세력, 주인, 형님’ 등과 같이 관계상 서열이 위인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많이 쓰인다. 결정권을 가졌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주포’는 <군함이나 전차에 장치한 포(砲) 가운데 가장 위력이 큰 포>를 뜻하는 단어이다.

고액 투자자에는 기관 투자자와 해외 투자자가 포함되는데, (2ㄷ)이 이에 해당된다. ‘개관’과 ‘공견’은 존재론적 은유를 통해 적대감을 담아 기관 투자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다. 이와 반대로 ‘연기군’은 기관 투자자를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아군으로 묘사하여 동일한 대상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전쟁 은유는 성공과 실패의 개념이 성립되는 모든 분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개념화 기제이다. 앞서 고액 투자자를 뜻하는 단어로 제시되었던 ‘주포’도 이에 해당된다. 전쟁 은유는 보통 아군과 적군의 경계가 명확할 때 사용되므로 피

아 판정의 주체, 즉 기준점만 명확하게 이해하면 비교적 단순하게 표현이 구성되는 편이다. ‘개관, 공견, 연기군’의 사례가 흥미로운 지점이다.⁸⁾ 경제 담화에서는 수익에 미친 영향에 따라 피아가 구별되므로 기준 자체가 유동적이고, 대상에 대한 평가 역시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3) 가. 거북이, 달팽이, 여우, 토끼, 하이에나
- 나. 시체, 자선사업가, 총알받이, 흑우
- 다. 관망충, 꼴무새, 안티, 폭무새, 찬티
- 르. 구조대, 주린이

(3가)은 투자자를 투자 방식에 따라 표현한 단어들이다. ‘거북이, 달팽이, 토끼’는 주식 보유 기간과 관련된 표현들인데, 각 동물의 행동 특성을 은유의 공통 특성으로 포착한 것이다.⁹⁾ ‘여우’와 ‘하이에나’는 이익을 얻은 투자자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여우는 영악함을 은유할 때 자주 동원되는 대상인데, 주식 맥락에서는 <주가가 급락한 종목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는 투자자>를 뜻한다. ‘하이에나’는 교활함을 뜻하는 은유 표현으로 <부정한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투자자 집단>을 뜻한다. (3나)은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표현한 단어들이다. 이익을 낸 투자자에 대한 표현에는 이윤을 얻는 방식, 즉 과정에 대한 개념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 대한 표현에는 그 결과만이 나타나 있다.

(3다)은 투자자를 투자에 대한 태도에 따라 분화한 것이다. 대상에 대한 비하나 경멸의 의미를 담은 접미사 ‘-충(蟲)’은 한때 매우 생산성이 높았으나, 주식 은어에서는 ‘-충’이 결합한 파생어가 의외로 드물게 발견된다. ‘관망충’은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는 의지가 약한 투자자>를 가리킨다. ‘꼴무새, 폭무새’에서 ‘-무새’는 ‘앵무새’에서 온 말로 선행 결합 요소를 반복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비하 표현이다. ‘꼴무새’는 <후회만 반복하는 투자자>를, ‘폭무새’는 <폭락을 바라는 투자자>를 말한다. ‘찬티’는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투자하여 오히려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투자자>를 말한다. ‘찬양’과 ‘안티’를 결합한 표현이다. ‘안티’는 <주가 하락을 바라면서 비관적 전망을 반복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3르)은 투자자의 경험에 관한 표현이다. ‘주린이’에서 ‘-린이’는 ‘어린이’에서 온 말로 <초보자>를 뜻한다. ‘주린이’는 <초보 주식 투자자>를 말한다. ‘구조대’는 <해당 종목에 새롭게 유입되는 투자자>를 말한다. 기존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주식 가격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신규 투자자를 위기에서 구해줄 수 있는 주체로 표현한 것이다.

3.1.2. 투자 대상에 관한 표현

주식 현황을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대화에서 종목을 뜻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사용된다. 그러나 단발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되다가 사라지는 것이 많다. 이에 주식 은어로 자리 잡은 표현은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아래는 종목 관련 주식 은어를 정리한 것이다.

- (4) 가. (개)잡주, 대장주, 돈복사기/돈파쇄기, 작전주

8) 가상화폐 투자 상황에서는 경쟁 관계에 놓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시장에 규제를 가하는 정부가 적군으로 표현되기도 한다(임혜원2018:22).

9) 동물을 이용한 존재론적 은유는 주식 담화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된다. 빈도가 낮아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외국계 증권사 메릴린치>를 뜻하는 ‘멀치’나 <펀드매니저 출신의 개인 투자자>를 뜻하는 ‘메미’ 등은 음성적 유사성을 포착한 조어 상황에서도 동물어가 적극적으로 선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ㄴ. 동전주, 지폐주, 페니주

(4ㄱ)은 투자 종목을 수익률에 따라 개념화한 것들이다. ‘대장주, 돈복사기’는 수익이 잘 나는 종목을 (‘개)잡주, 돈파쇄기’는 반대의 종목을 뜻한다. ‘작전주’는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오르는 종목>을 뜻한다. 주식 담화에서 ‘작전’은 <고액 투자자들이 공모하여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주가 조작 행위는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그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 상승의 이유를 분석할 수 없는 종목을 ‘작전주’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ㄴ)은 투자 종목을 거래의 단위로 나눈 것이다. 국내 주식 담화에서는 1000원을 기준으로 ‘동전주, 페니주’와 ‘지폐주’가 구분된다.

3.1.3. 투자 수단과 장소에 관한 표현

수단과 장소에 대한 표현 역시 상대적으로 적게 발달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ㄱ. 사이버머니, 총알

ㄴ. 불장/물장, 닭장, 다우극장

(5ㄱ)은 투자의 수단, 즉 자본을 표현하는 주식 은어이다. 투자 상황에 따라 투자 전의 자금과 투자 중인 자금이 구분되는데, 전자는 ‘총알’로 후자는 ‘사이버머니’로 표현된다. ‘사이버머니’는 매도 전까지 주식 매수에 투입된 자금이 실물 화폐로서의 가치를 잃은 상황을 강조한 표현이다.

(5ㄴ)은 주식 거래의 장소, 즉 시장을 표현한 것들이다. ‘물장/불장’은 ‘물기둥/불기둥’에서 연결된 표현으로 ‘물장’은 주가가 하락 중인 시장을, ‘불장’은 주가가 상승 중인 시장을 뜻한다.¹⁰⁾ ‘닭장’은 우리나라의 장외 증권 시장인 코스닥(KOSDAQ)을 달리 부르는 표현이다. ‘나스닥(NASDAQ: 미국 장외 증권 시장)’을 고려하면, ‘닭장’의 ‘닭’과 ‘코스닥’의 ‘닥’은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좁고 갇힌 공간을 표현하는 한국어 은유 표현 ‘닭장’이 주식 담화에 적용되면서 의미가 더욱 한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우극장’은 <주가의 변동 폭이 큰 미국 주식 시장>을 말한다. 미국 다우존스 회사에서 발표하는 미국 주가의 평균을 줄여서 ‘다우 지수’라고 하는데, ‘다우극장’의 ‘다우’는 이를 <미국 주식 시장>으로 환유한 것이다. 미국 주식 시장은 주가 변동에 제한이 없어 국내 주식 시장과 비교해 볼 때 등락의 폭이 훨씬 큰데, 이를 ‘극장’으로 은유하여 덧붙인 표현이다.

3.2. 시장의 사태에 관한 표현

주식 은어로 표현되는 시장의 사태는 주가의 변동 현황과 매매 행위에 집중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시장의 사태에 관한 주식 은어를 시장의 상태를 표현한 것과 작용을 표현한 것으로 나누어 살펴겠다.

3.2.1. 시장의 상태에 관한 표현

10) ‘불장’을 ‘황소장(bull market)’에 대한 오분석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원래 상승장과 하락장을 뜻하는 말은 각각 ‘황소장(bull market)’과 ‘곰장(bear market)’이었는데, ‘황소장’에서 황소를 뜻하는 영어 ‘bull’을 ‘소(牛)’가 아닌 ‘불(火)’로 분석하여 ‘불장’으로 수용하고 이와 대립되는 의미로 ‘물장’을 선택하여 사용했다는 해석이다.

시장의 상태에서 주식 은어로 표현될 만큼의 인지된 대상은 주가의 높고 낮음에 관련된 것뿐이다. 목록은 아래와 같다.

- (6) ㄱ. 꼭지, 천장, 펜트하우스
- ㄴ. 바겐세일, 바닥, 지하
- ㄷ. 벽, 콘크리트, 개미무덤, 개미지옥
- ㄹ. 가볍다, 무겁다, 승차감

(6ㄱ)은 주가가 높은 상태를, (6ㄴ)은 주가가 낮은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들이다. 강현주(2021: 21-22)을 비롯하여 경제 담화에서의 개념화 양상을 다룬 논의들에서 여러 번 지적되었듯이, 주가의 변화는 지향적 은유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6ㄱ)에는 주가의 높음을 표현하기 위해 위쪽을 뜻하는 단어들이, (6ㄴ)에는 반대의 단어들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ㄷ)은 주가의 등락이 없이 긴 시간이 흐른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주식 담화에서 낮은 주가만큼이나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상태이다. 주식 투자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이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행위인데, 주가가 매수 가격이나 그보다 낮게 더 떨어진 뒤 오랜 시간 오르지 않으면 손실이 생기기 때문이다. ‘개미무덤’과 ‘개미지옥’은 주식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했을 때 새로 유입된 소액 투자자들이 매도 시기를 놓쳐 갇혀 있는 구간을 가리킨다. (6ㄹ)은 주가의 등락 속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어떤 종목의 주식 규모가 작으면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금에 의해서도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를 ‘가볍다’로, 반대의 경우를 ‘무겁다’로 표현한 것이다. ‘승차감’은 주가 변화의 예측 가능성을 표현한 것인데, 투자자의 예측에 맞는 속도로 변화할 때 ‘승차감이 좋다’로, 반대의 경우에 ‘승차감이 나쁘다’로 표현한다. 강현주(2021: 25)에서는 투자 관련 표현의 개념화 양상 중 하나로 [투자 종목은 탈 것이다] 은유를 제시하였는데, ‘승차감’ 역시 이에 해당된다.

3.2.2. 시장의 작용에 관한 표현

시장의 작용에 관한 표현은 작용 방식을 나타내는 것과 작용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작용 방식에 관한 표현으로는 투자 행위에 관한 것과 주가의 변화에 관한 것이 확인된다. 투자 행위는 매수와 매도로 나눌 수 있는데, 주식 은어에서는 매도를 나타내는 표현에 비해 매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발달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먼저 매수와 매도를 구분하지 않고 아울러 표현한 것들부터 살펴보자.

- (7) ㄱ. 단타/장타, 방망이를 짧게/길게 쥐다, 농사(짓다)
- ㄴ. 기도 매매, 기절 매매, 뇌동 매매, 뇌절 매매, 침팬지 매매
- ㄷ. 운전, 핸들링, 작전, (개미를) 털다, 흔들다, 설거지, 폭탄 돌리기

(7ㄱ)은 매수한 주식의 보유 기간을 포함한 표현이다. ‘단타’와 ‘방망이를 짧게 쥐다’는 매수와 매도의 기간이 짧은 거래 방식을, ‘장타’와 ‘방망이를 길게 쥐다’는 반대의 거래 방식을 의미한다. 이들은 야구 경기에서 사용되는 표현이 주식 거래 방식에 대한 은유로 활용된 사례이다.¹¹⁾ ‘농사(짓다)’는 하나의 종목을 수익이 날 때까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수집하듯 매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장타’에 <꾸준한 매집>의 의미를 더한 표현으로, 식물을 심

11) 주식 담화에서만 사용되는 고유의 표현으로 볼 수 없어 은어 목록에서는 제외하였으나, 큰 수익을 표현할 때 ‘훔린’을 사용하기도 한다.

고 관리하여 열매를 맺는 과정에 은유한 것이다. 권연진(2016)에서는 식물 은유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며 [경제는 식물이다](Economy is a plant) 은유가 경제 담론에서도 유용한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수집된 주식 은어에서는 ‘농사(짓다)’ 외에는 식물의 성장을 활용한 표현이 발견되지 않았다.¹²⁾

(7ㄴ)은 비정상적인 매매 방식을 표현한 단어들이다. 원칙적으로는 주가의 변동 요인을 분석하여 계획적으로 매매해야 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개인 투자자들은 많지 않다. 접하는 정보의 양과 분석에 들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전문 투자자들과는 다르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원용진·홍성일(2008:104)에서는 주가의 등락이 실물 경제의 유동성보다는 투자자들의 심리적 공황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하기도 하였다. 이에 현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주식을 거래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7ㄴ)과 같은 표현이 다수 생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의 과정 없이 기도하듯, 기절한 상태로, (부화)뇌동하여 매매한다는 뜻이다. ‘침팬지 매매’는 분석 없이 하는 매매 행위를 사람에 비해 인지력이 떨어지는 유인원의 행위로 표현한 존재론적 은유이다.

‘뇌절 매매’는 <멘탈(정신)을 놓은 상태로 하는 매매>를 말한다. 해당 표현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검으로 번개를 자르는 능력을 가리키는 ‘雷切’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같은 말이나 행동을 반복하여 사람들을 질리게 하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나타내는 데 쓰이기도 하였다(예: 1, 2절로 안 끝내고 뇌절까지 하네.). ‘본질’처럼 음성적 계열성만 유지된 채 관련어와 다른 의미의 신어가 생성되듯, 이후 ‘뇌절’이 ‘腦切’로 재해석되어 주식 담화에 수용되었다.

(7ㄷ)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표현한 은어들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소액 개인 투자자가 주가의 등락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7ㄷ)은 기관이나 기업을 포함한 고액 투자자를 행위의 주체로 함의한다. ‘운전’과 ‘핸들링’은 <주가의 순조로운 등락>을 뜻한다. ‘운전/핸들링 실력이 뛰어나다’나 ‘운전/핸들링이 험해서 멀미가 날 지경이다’ 등과 같이 쓰인다.¹³⁾

‘털다’와 ‘흔들다’는 소액 투자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관련된 표현이다. ‘흔들다’의 의미는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목적으로 큰 폭의 주가 등락이 거듭되도록 하다>이다. 불안감을 느낀 소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여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고액 투자자들이 사들여 큰 수익을 얻기 위함이다. ‘털다’는 ‘흔들다’의 결과를 표현하는 은어로 <소액 투자자들을 배제하다>를 뜻한다. 주식 은어로서의 ‘털다’는 앞서 살펴본 <(고액 투자자가) 소액 투자자를 배제하다>의 의미와 이어서 살펴볼 <(투자자가) 소유 주식 전량을 매도하다>의 의미 두 가지를 갖는다.

- (8) ㄱ. 던지다, 보내 주다, (특정 종목을) 털다
 - ㄴ. 손절, 익절, 분절(하다)
 - ㄷ. 쓸어 담다, 줍줍, 이삭줍기
 - ㄹ. 불·물타기, 추격 매수, 택시를 타다, 정찰병(보내다), 상따/하따, 상투/하투 (잡다)
 - ㅁ. 입을 떡 벌리고 있다, 버스가 떠나다

(8ㄱ~ㄴ)은 매도를, (8ㄷ~ㅁ)은 매수를 구분하여 표현하는 주식 은어들이다. (8ㄱ)의 ‘보내 주다’는 주식 투자를 관계 맺기로 표현한 것이다. 주식 투자의 목적은 가격이 낮을 때

12) <소량씩 꾸준히 매수하는 행위>를 뜻하는 ‘이삭줍기’가 있다. 식물 부분명이 사용되었으나, 이때의 ‘이삭’은 작은 것을 환유하기 위해 선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13) 소액 투자자들은 [주식은 탈것이다] 은유에서 운전자가 아니라 승객의 역할을 하게 된다. ‘버스가 떠나다’, ‘택시를 타다’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구매하였다가 구매 시의 가격보다 주가가 높아졌을 때 팔아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가는 투자자 개인이 조정할 수 없는 대상이므로 특정 주식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랜 기간 보유하게 되는 일이 흔하다. ‘보내 주다’는 이처럼 긴 시간 보유하였던 주식을 매도하는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이다.

‘던지다, 털다’는 <전량을 급하게 매도하다>를 의미한다. [주식은 물건이다] 은유로, (8ㄷ)의 매수 행위를 뜻하는 ‘쏟어 담다, 줍줍, 이삭줍기’ 등과 대응된다. 세 표현 모두 특정 주식을 고민 없이 꾸준히 매수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쏟어 담다’와 ‘줍줍’은 대량 매수를, ‘이삭줍기’는 소량 매수를 각각 의미한다.

(8ㄴ)은 매도 시점에서의 수익 상황을 포함한 표현들이다. ‘손절’은 앞으로 주가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손해를 감수하고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익절’은 ‘손절’의 반의어로 목표한 가격이나 수익률에 도달하였을 때, 그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더라도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본절’은 자신이 구매한 가격과 비슷한 금액대에 매도하는 것을 뜻하는 은어이다. ‘손절’과 ‘익절’은 ‘손절매(도)’, ‘익절매(도)’의 준말로 원래 ‘절’은 매도의 의미 없이 손해나 이익의 크기를 줄인다는 뜻(切)만을 담당했다. 그러나 준말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언중이 ‘절’을 <관계를 끊다(絶)>의 의미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줄여야 할 대상이 없음에도 ‘본절’이라는 표현이 생성된 것이다. ‘손절’은 일상 대화에서 <절교(絶交)>의 의미로 파생되어 널리 쓰이고 있는데(예: 이런 친구 손절하는 게 맞겠죠?) 이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8ㄹ)에서 ‘물타기’와 ‘불타기’의 관계에서는 ‘물’과 ‘불’의 대립이 발견된다. 주식 은어에서는 ‘물(水)’과 ‘불(火)’의 대립이 특징적이다. 주식시장에서 대체로 ‘불’은 주가 상승과 관련되며 ‘물’은 주가 하락과 관련된다. ‘물타기’는 평균 매수 가격(평단가)을 낮춰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수행되는 추가 매수 행위를 가리킨다. 본인이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때,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 해당 주식을 더 매수하는 것이다. 즉, ‘물타기’는 추가 매수로 평단가를 낮추는 것을 물을 섞어 희석하는 것으로 비유하여 사용하게 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응하는 표현으로 ‘불타기’가 있다. ‘불타기’는 평단가를 높이지만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의도로 추가 매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인이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것이다. 애초 ‘물타기’에 포함된 ‘희석’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주식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물’과 ‘불’의 의미를 대입하여 ‘불타기’라는 표현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주가가 하락할 때 이루어지는 추가 매수를 ‘물타기’로 해석하고 이와 반대 상황인 주가가 상승할 때 이루어지는 추가 매수를 ‘불타기’로 설정하게 된 것이다.¹⁴⁾

‘상따/하따’는 <상한가/하한가 종목 매수>를 뜻한다. ‘상따’는 상한가를 기록했거나 상승했던 종목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따’는 하한가를 기록했거나 하락했던 종목을 매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의 주가는 내일도 상승할 것이라는 판단, 오늘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의 주가는 내일은 상승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매수라는 점에서 추가 매수인 ‘물타기/불타기’와 구별된다.

‘상투’와 ‘하투’는 주식 투자 상황의 개념화에서 상하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상투는 ‘최고로 오른 주식 시세를 속되게 이르는 말’(표준국어대사전)이며, 상한가나 그 정도 수준의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주로 ‘상투 잡다’로 표현한

14) ‘물타기’와 동일한 행위를 지칭하는 ‘흙타기’라는 은어도 있다. ‘흙타기’는 ‘흙’에 ‘흙’을 더해 산을 만드는 것처럼 추가 매수로 보유 물량을 늘려 수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뜻한다. 물은 추가할수록 무엇인가를 묽게 만들지만 ‘흙’은 무엇인가를 되게 만들고 결국 쌓이게 되는데, ‘물타기’와 ‘흙타기’는 물과 흙의 상반된 성질에 착안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물-흙’의 대립보다 ‘물-불’의 대립이 더 선명하게 인식되기 때문에 ‘물타기’에 대립되는 표현으로 ‘불타기’가 ‘흙타기’보다 더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남성의 머리카락을 틀어 만든 상투가 머리 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가격’의 의미로 사용하게 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상투’의 반의어로 ‘하투’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는 하한가나 그 정도 수준의 가격에 매수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표현은 ‘상투’라는 표현을 ‘상투’의 구성으로 분석한 후에 이에 대응하는 ‘下투’를 설정해 만든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래는 주가의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들이다.

- (9) 가. 떡상, 슈팅, 쏘다, 투더문
- 나. 떡락, 떡드랍, 땅굴 파다, 멍들다, 흐르다
- 다. 물기둥/불기둥

(9가)의 표현은 주가의 상승을 나타낸다. 떡상은 <주가의 폭등>을, ‘슈팅’과 ‘쏘다’는 <주가의 단기적 급등>을 의미한다. ‘투더문’은 <주가의 급등 상황>을 뜻하거나 <주가 급등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9나)은 주가 하락과 관련된 표현들이다. (9다)은 주가의 시세 변화표를 읽을 때 사용하는 은어들이다. ‘물기둥’과 ‘불기둥’은 주가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막대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주가의 상승은 붉은색으로, 주가의 하락은 파란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차트에 붉은색 막대(양봉)가 많으면 불기둥 시장,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파란색 막대(음봉)가 많으면 물기둥 시장이라 부른다.

다음은 작용의 결과, 즉 주식 투자 행위의 결과를 표현한 것들이다.

- 10) 가. 돈복사, 돈파쇄
- 나. 물리다, 탈출, 졸업, 퇴학

4. 결론

(추후 보완)

참고 문헌

- 강현주(2021), ‘투자 관련 표현의 개념화 양상’, 《어문론총》 90, 한국문학언어학회, 9-34.
- 권연진(2016), ‘경제 담론상에 나타난 은유 표현의 인지언어학적 연구.’ 《언어과학》 23-2, 한국언어과학회, 1-19.
- 김정아(2021), ‘인지언어학에 기반한 ’돈‘의 의미 연구.’, 《문화와융합》 통권80호, 한국문화융합학회, 805-825.
- 나익주(2021), “’동학개미’와 은유: [주식 시장은 생태계], [21세기 한국 주식 시장은 19세기 조선].”, 《말과글》 168, 한국어문기자협회, 29-33.
- 나익주(2023), ‘주식 시장의 [거래 담합]은 [혼외정사(婚外情事)]인가?: ‘통정매매’ 명명의 은유적 기원.’, 《말과글》 175, 한국어문기자협회, 37-44.
- 방경원(2017), ‘전문어에서의 은유 표현 연구: 주식 시장 분석에서 사용되는 은유 표현을 중심으로.’, 《독일언어문학》 78, 한국독일언어학회, 97-114.
- 소효하(2017), ‘한국과 중국 주식 기사에서의 주가(株價) 관련 개념적 은유 대조’, 《한민족어문학(구, 영남어문학)》 78, 한민족어문학회, 91-116.

- 심지연(2016), '경제 텍스트에 나타난 은유의 인지의미론적 연구', 《한국어의미학》 51, 한국어의미학회, 111-136.
- 양양(2021), 《한중 경제 기사에 나타나는 은유 대조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혜원(2018) '가상화폐의 은유적 개념화 양상.', 《한국어의미학》 62, 한국어의미학회, 1-26.
- 임혜원(2020), "'위기'의 은유적 개념화 연구.', 《한글》 통권 330호, 한글학회, 977-1006.
- 제민경·구본관(2014), '경제 현상의 언어화를 통해 본 은유의 담화 구성력.' 《한국어의미학》 43, 한국어의미학회, 1-31.

■ 토 론

“한국어 주식 은어의 의미 구조 연구”에 대한 토론문

최정혜(상지대)

주식 관련 은어 표현들을 수집하고 분석한 내용 흥미롭게 잘 살펴보았습니다. 본고에서 소개한 표현으로 보자면 ‘주린이’에 속하는 토론자로서 논문 내용에서 궁금한 점들을 질문 하면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개미’가 [집단성]을 가진 표현이라고 하셨는데, ‘동학개미’와 ‘서학개미’는 투자처를 중심으로 서로 대응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집단성]이 사라진다고 보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청합니다.

각주 10번에서 제시한 ‘불장’의 의미를 ‘황소장(bull market)’에서 찾기 보다는 ‘불[火]’에서 연원한 것이라 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후 주식 은어의 예로 든, ‘물타기’와 ‘불타기’, ‘물기둥’과 ‘불기둥’ 등의 사례에서도 물과 불의 대립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우극장’에서 ‘극장’의 의미를 등락의 폭이 훨씬 큰 데에서 은유하여 덧붙인 표현으로 보셨는데, 그렇다면 일반적인 의미의 극장(공연이나 상영을 위한 건물이나 시설)으로 보기 보다는 ‘극적(劇的)인 장(場)’으로 보는 것이 맞을지요?

‘뇌절 매매’에 대한 설명에서 ‘멘탈을 놓은 상태로 하는 매매’로 풀이하고 일본 애니메이션의 ‘雷切’에서 유래하여, ‘같은 말이나 행동을 반복하여 사람들을 질리게 하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나타내는 데 쓰이기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雷切’을 ‘腦切’로 재해석한 셈입니다. 이와는 조금 다른 해석이 가능할까요? ‘뇌절 매매’와 같은 계열의 ‘기절 매매’에 이끔된 해석으로 볼 수 있으나 ‘뇌가 기절한(뇌절 腦絶)’으로 즉 ‘이성적인 생각이 없이 한’으로 볼 가능성을 없을지요? 이후에 기술한 ‘손절’이나 ‘익절’의 설명에서도 언중이 ‘절’을 ‘切’에서 ‘絶’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내용과도 관련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1.2. 투자 대상에 관한 표현 앞 부분에서 ‘주식 현황을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대화에서 종목을 뜻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사용되나 단발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되다가 사라지는 것이 많다’고 언급하셨는데, 이는 주식 은유 표현으로 정착되기 전에 신어(신조어)나 유행어로 존재하는 또는 존재했던 표현들도 다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은유에 대한 좀더 생생한 자료들은 신어나 유행어에서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논문의 확장성을 고민하신다면 주식 은유 관련 신어나 유행어들을 포함한 연구가 진행되면 보다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서론에서 기술한 것처럼, 본 논문의 접근 방식은 최종적으로 주식 은어의 연구와 한국어 은유의 고유성을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논의로 볼 때 한국어 은유의 고유성을 주식 은어 연구에서 어느 정도로 포착할 수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보입니다. 혹시 본 논문의 연장선상에 있는 논의가 있거나 아직 이 논문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그로 인해 추론해 볼 수 있는 한국어 은유의 고유성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